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 10. 28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경기도청 청사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6. 10. 28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목차

I. 논의문 밖 경기감영 연혁

1. 조선 전기~중기 경기감영의 변천.....	3
2. 조선 후기 경기감영의 공간구성.....	8
3. 대한제국~일제강점기 경기도청 이전 후 경기감영 터의 전용.....	25

II. 논의문 밖 경기감영 자료 해제

1. 문헌.....	37
2. 회화.....	98
3. 지도.....	99
4. 도면.....	165
5. 사진.....	174

III. 세종로 경기도청 연혁

1. 세종로 경기도청사 및 부지의 연혁.....	189
2. 대한제국기 이전 경기도청사 터와 본관 건립.....	190
3. 일제강점기 경기도청사의 변화.....	200
4. 해방 후 변화.....	222
5. 경기도청사의 주요 근대건축물.....	227

IV. 세종로 경기도청 자료 해제

1. 문헌.....	241
2. 도면.....	258
3. 사진.....	275

V. 매산로 경기도청 연혁

1. 경기도청의 탈서울 논의와 수원 이전.....	293
2. 매산로 경기도청 신축계획과 공사(1960년대).....	301
3. 매산로 경기도청의 증개축(1970년대, 1980년대 전반).....	307
4. 매산로 경기도청의 현대화(1980년대 후반, 1990년대).....	313
5. 경기도청의 현재.....	317

VI. 매산로 경기도청 자료 해제

1. 문헌.....	321
2. 도면.....	323
3. 사진.....	359
4. 동영상.....	379

I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연혁

1. 조선 전기~중기 경기감영의 변천
2. 조선 후기 경기감영의 공간구성
3. 대한제국~일제강점기 경기도청
이전 후 경기감영 터의 전용

1. 조선 전가~중기 경기감영의 변천

1) 고려시대 ‘경기’ 개념의 성립과 조선시대 경기감영의 설치

○ 고려시대 ‘경기’ 개념의 성립¹⁾

우리나라에서 ‘경기’ 개념이 처음으로 성립한 때는 고려시대이다. 995년(성종 14) 고려 성종은 개경 주변에 적현(赤縣) 6곳과 기현(畿縣) 7곳을 설치하였다.²⁾ 적현과 기현, 특히 적현은 역대 왕과 왕후의 능이 소재한 곳으로서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려는 의도로 설치되었다. 이로부터 약 20여년 후인 1018년(현종 9)에는 왕경을 제외한 나머지 적현과 기현 12곳을 묶어 ‘경기(京畿)’라 부르고 개성현과 장단현의 현령으로 하여금 분할 통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지방행정조직으로 편제하였다. 고려 현종대의 경기는 궁원전(宮院田)과 중앙관청의 공해전(公廩田) 등을 집중시켜 왕실과 관청의 경비 조달을 용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경기는 1069년(문종 23)에 양광(楊廣)·교주(交州)·서海道(西海道)로부터 39현을 이입해 총 52현을 관할하는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재축소되고, 1390년(공양왕 2)에 이르러 44현 규모로 다시 확대되어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설치되었다. 이 때의 경기는 좌도와 우도로 분리하여 통치되었다.

○ 조선시대 경기 영역의 조정과 경기감영의 설치

조선의 개국과 새로운 도성의 건립은 경기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이를 관할하는 관서를 새로이 짓게 하였다. 1395년(태조 4)에는 경기의 행정편제 개편이 시작되었다. 본래 경기에 속했던 7개 고을³⁾을 서해도로 옮기고 양광도에 속했던 9개 고을⁴⁾을 경기로 옮겨 한양 중심의 경기 영역을 구축하였다. 태종은 태조와 마찬가지로 왕도를 중심으로 경기의 영역을 조정하였다. 1402년(태종 2)에는 북쪽에 해당하는 5개 고을⁵⁾을 풍해도에 이속시키고 충청도 북쪽의 5개 고을⁶⁾과 강원도 서쪽의 가평을 경기에 이속시켰다.⁷⁾ 이로써 경기는 태조 대의 영역에 비해 왕도에 보다 집중된 영역을 이루었다.

도성의 건립과 맞물려 경기의 영역 조정이 이루어지던 조선 초기, 경기를 관할하는 관서⁸⁾의 건립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최초로 등장한다.

태종(太宗) 2년 임오에 두 도(道)를 합하여 경기 좌·우도라 하고, 성관찰사(省觀察使)·수령관(首領官)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3년 계사에 사방길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연안(延安)·배주(白州)·우봉·강음·토산을 도로 풍海道(豐海道)에, 이천(伊川)을 도로 강원도에 붙이고, 충청도의 여흥부(驪興府)·안성군(安

1) 본 항목의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경기를 참고하였다.

2) ‘경기’는 당나라에서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京縣, 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것에서 기원한다. ‘경’은 ‘천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뜻하고, ‘기’는 ‘천자의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했으나 점차 ‘왕도의 외곽지역’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경기.

3) 평주(平州), 수안(遂安), 곡주(谷州), 재령(載寧), 서흥(瑞興), 신은(新恩), 협계(俠溪).

4) 광주(廣州), 수원(水原), 양근군(楊根郡), 쌍부(雙阜), 용구(龍駒), 처인(處仁), 이천(利川), 천녕(川寧), 지평(砥平).

5) 연안(延安), 백주(白州), 우봉(牛峯), 강음(江陰), 토산(兎山).

6) 여흥부(驪興), 안성군(安城), 양지(陽知), 양성(陽城), 음죽현(陰竹).

7) 이상의 내용은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를 참고.

8) 이하에서는 감영(監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城郡)·양지(陽知)·양성(陽城)·음죽현(陰竹縣)과 강원도의 가평현(加平縣)을 떼어다가 이에 붙이고,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지 않고 다만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라 일컫고 사(司)를 수원(水原)에 두었다.⁹⁾

경기를 좌·우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주관하는 도관찰사의 근무처[司]를 수원에 두었다는 언급은 태조연간부터 진행되어 온 경기권역의 행정개편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한다.

2) 조선 전기 경기감영의 이전¹⁰⁾

○ 수원에서 광주로의 경기감영 이전

태종연간 수원에 세워졌던 경기감영은 1448년(세종 30) 이전의 어느 시점에 광주로 옮겨진다. 1448년 4월 5일 『세종실록』 기사에서는 “경기가 이미 수원의 수백년 구영을 혁파하고 광주(廣州)로 옮긴 것은 감사(監司)의 겸임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라고 하여¹¹⁾ 감영의 이전 사유를 경기관찰사의 광주 목사 겸임으로 밝혔다. 같은 해 4월 22일의 기사에서는 “각도의 감사는 한 방면의 중임인데, 임기가 1년이어서 도내의 폐막(弊瘼)을 고루 알지 못하고 겨우 문서를 행하니 깊이 미편하옵니다. 청하옵건대 여러 도와 양계(兩界)를 모두 만 30삭이 되어야 체임하게 하고, 경상도 상주, 전라도 전주, 황해도 해주, 강원도 원주, 충청도 청주, 경기 광주는 직질(職秩)에 따라 겸임하고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게 하며, 또 아울러 서울 안의 좌목(座目)에 기록하게 하소서”라 한 신하가 이르자 임금이 윤허하는 내용이 있어 경기 관찰사가 광주 목사를 겸임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¹²⁾

경기 관찰사가 광주에 본영을 두었다는 가장 늦은 시기의 기록은 『문종실록』에 남아 있다. 1450년(문종 즉위년)의 실록 기사에는 “광주는 감사의 본영으로 사무가 번다한 곳인데, 지금 권미(權眉)로 판관을 삼으니, 그 인품과 서로 적당하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¹³⁾ 당시까지 관찰사가 광주목사를 겸임하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광주에서 한성부로의 경기감영 이전

1450년까지 광주에 있던 경기감영은 이후 한성부의 반송방으로 옮겨진다. 1460년(세조 6)의 실록 기사에는 당시에 이미 관찰사의 감영이 광주에서 혁파되었고, 이에 따라 기녀(妓女)도 혁파하기를 청하는 광주 아전의 상언이 담겨 있다.¹⁴⁾ 관찰사의 근무처를 완전히 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광주의 감영이 혁파되면서 새로운 곳으로 근무처가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감영이 한성부로 옮겨진 시기와 이유, 입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련 연구가 보고된 바 있어 참고가 된다.¹⁵⁾ 1457년(세조 3)은 경기관찰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던

9)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10) 본 항목의 내용은 이선희, 「조선후기 한성부 내 京畿監營의 입지 연구」, 『서울학연구』4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1를 참고하였다.

11) 『세종실록』 권120, 세종 30년 4월 5일.

12) 『세종실록』 권120, 세종 30년 4월 22일.

13) 『문종실록』 권2, 문종 즉위년 7월 8일.

14) 『세조실록』 권19, 세조 6년 1월 26일.

15) 이선희, 앞의 글, 149~153쪽.

해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경기관찰사 대궐 입시(入侍)가 나타났으며, 관찰사가 주요 경관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고 관찰사 직명을 통일하는 등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두었다. 측근을 관찰사로 임명하는 것 또한 그러한 일환으로 보이며, 도성 방위의 중심인 경기관찰사를 도성과 가까운 곳에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성저십리 중 가장 변화한 곳이었던 반송방에 경기감영이 입지하였던 것은 군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세조의 정적이었던 김종서와 관련해 살필만한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돈의문 밖에는 1453년(단종 1)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이 숙청한 김종서의 집이 있었다. 계유정난 이후 김종서의 집은 세조 즉위 후 공신에 책봉된 심안의(沈安義, 1438~1476)에게 주어졌다가 당해 12월 충훈사로 사용되었다.¹⁶⁾ 충훈사는 곧 충훈부로 승격되며 북부 광화방으로 이전되었다. 이후에 있었던 김종서 집의 전용 기록은 찾기 어렵다. 당시 김종서의 집은 현재 경기감영터로 알려진 곳의 건너편이자, 경기감영의 고마청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1457년 경기관찰사 관련 제도의 변화와 김종서 집터의 전용이 연관성을 지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추가적인 고증과 연구가 필요하다.

3) 임란 이후 영평도호부 외영의 설치와 혁파¹⁷⁾

임진왜란 이후 전쟁에 대한 공포와 방어체계의 중요성이 제고된 상황에서 경기관찰사가 영평·포천을 합쳐 부를 편성하고 외영(外營)의 설치를 제의하는 장계를 올렸다.¹⁸⁾ 조정에서는 더 나아가 북로에 대비하는 것은 판관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도호부로 승격시킨 후 관찰사가 부윤을 겸직하기를 제의하였다. 광해군은 경기관찰사가 예로부터 도성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염려스럽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¹⁹⁾ 『증보문헌비고』와 『연려실기술』의 기록을 볼 때 경기 관찰사가 영평도호부사를 겸직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사료에서 영평 도호부의 감영은 신영(新營)으로 등장한다. 경기관찰사는 두 감영을 오갔으나 주로 경영(京營)에 있었다.²⁰⁾

영평도호부의 위치는 『여지도서』에 포천현 직두리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사료의 경기도 포천의 고적조에 “감영의 옛터[監營舊址]는 현 동쪽 직두리에 있고, 광해군 무오년(1618)에 설립되었으나 계해년(1623)에 혁파되어 현재는 없다”라고 쓰여 있다.²¹⁾ 1758년 발행된 포천현의 읍지인 『견성지(堅城誌)』 고적조에 반월산에 있는 산성을 같은 해인 광해군 무오년에 개축했다는 기록이 있다. 외영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반월산성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군사시설로서의 관계 하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16) 『단종실록 권9, 단종 1년 12월 2일.

17) 이선희, 「조선 후기 한성부 내 京畿監營의 입지 연구」, 『서울학연구』45,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1, 155쪽~.

18)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군 10년 7월 4일.

19) 『광해군일기』 권131, 광해군 10년 8월 6일.

20) “광해군(光海君) 10년(1618)에 영평(永平)·가평(加平)을 아울러서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삼아 감영(監營)을 설치하였으나, 관찰사(觀察使)가 많이 서울 감영(京營)에 있었다. 계해반정 이후에 파하였다.” 『증보문헌비고』 권16 - 여지도 4, 군현 연혁 2, 「경기」; “광해 무오년에 영평(永平)과 포천(抱川)을 합하여 대도호부(大都護府)로 하고, 영평에 영(營)을 설치하였는데 감사가 혹은 서울 영에 있다가 혹은 새 영에도 나가 있었다. 인조 계해년에 새 영을 파해 버렸다.” 『연려실기술』 별집 권8, 관직전고, 감사.

21) “監營舊址：在縣東樓頭里，海戊午設監營於此，癸亥罷今無” 『여지도서』 상, 경기도, 포천, 고적조.



현재의 직두리 일대 주변 위치도

영평도호부 외영은 1623년(인조 즉위)에 혁파되었다. 이는 영평과 포천의 병합 과정에서 기존의 역참 일부가 혁파되어 지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기감영 고유의 업무 처리에 불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²²⁾ 인조반정 직후 경기감영은 다시 한성부 한곳에 집중되었는데, 1624년(인조 2)에 발발한 이괄의 난에서 개성을 지나 한성부로 향하는 이괄의 군이 경기감영이 있던 돈의문 밖에서 1차 저지되었던 것이 도성 방위에서 경기감영의 역할을 다시금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제시된 바 있다.

4) 병자호란으로 인한 청사의 소실과 재건

○ 병자호란으로 인한 청사의 소실과 도성 내 임시 이전

경기감영은 1636년(인조 14)에 발발한 병자호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의 감영 재건을 전하는 기문이 있어 주목된다. 1641년(인조 19) 이명한(李明漢, 1595~1645)이 쓴 「경영중수기(京營重修記)」²³⁾는 병자호란 직후 감영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丙子亂 京外大小衙門 多被燼而營爲甚 遂寄寓於都城內西北隅司天監之廢廡 取近於故營也

위 발췌문에 따르면 경외에 크고 작은 아문들 다수가 화를 입었는데, 경기감영이 특히 심하였다. 따라서 본래의 감영에서 가까운 도성 내 서북부의 사천감 터에 임시로 자리 잡았다. 사천감은 고려시대의 천문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으로, 관상감을 고식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감이 폐한 터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당시 경기감영의 임시 거처를 추

22) 이선희, 앞의 글, 155~158쪽 참고.

23) 이명한(李明漢), 「경영중수기」, 『백주집(白洲集)』 권16, 기(記), 한국고전종합DB.

적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기문에 의하면 관찰사의 체면을 위해 교서와 유서를 받들어 현판에 걸고, 관인과 명부를 비치하는 등²⁴⁾ 감영으로서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방편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 1641년 관찰사 박노의 경기감영 재건

「경영중수기」에 따르면 난이 끝난지 이미 6년인데 힘과 재물이 다하여 수선을 피할 여유가 없었다.²⁵⁾ 그러던 중 당시의 관찰사인 박노(朴魯, 1584~1643)에 의해 재건이 추진되었다. 박노는 인조반정 뒤 이조참판·세자빈객·병조참판 등을 지낸 인물이다. 정묘호란(1627) 이후 사신으로 심양에 여러 차례 파견되었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에서 소현세자를 3년간 수행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경기감영 재건기까지의 경기관찰사

이름	임명일
서경우(徐景雨, 1573~1645)	1636.12.15(인조14)
여이징(呂爾徵, 1588~1656)	1637.6.14(인조15)
윤이지(尹履之, 1579~1668)	1637.8.23(인조15)
김남중(金南重, 1596~1663)	1637.12.25(인조15)
이행원(李行遠, 1592~1648)	1638.12.5(인조16)
허 계(許啓, 1594~?)	1639.12.19(인조17)
박 노(朴魯, 1584~1643)	1640.7.24(인조18)

박노는 1640년 7월부터 1641년 7월까지 1년간을 경기관찰사로 부임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6년 차에 7번째로 부임한 관찰사였다. 소현세자를 보필하던 중 신병을 얻어 귀국한 직후 경기관찰사를 맡은 것이다. 박노는 부임 당시 경기감영을 재건하는 업적을 남기고 이후 1642년 병조참판에 오르는 등 고위 관직을 이어나가나 1643년에 졸한다.

○ 숙종연간 북한산성으로의 이전 논의

경기감영의 입지와 관련하여 숙종연간에 벌어졌던 일련의 논의가 있었다. 조정에서는 1717년(숙종 43)과 1718년(숙종 44)에 탕춘대로 경기감영을 이설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 논의는 1711년(숙종 37) 북한산성의 축성과 1714년(숙종 40) 탕춘대의 배후창고 건립, 1715년(숙종 41) 탕춘대성의 1차 축성 공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설의 근거는 새로 지은 북한산성을 무신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 반면 탕춘대는 주관이 없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경기감영의 현 입지는 시장가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²⁶⁾ 숙종이 이를 허락하였으나 중론을 얻지 못해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1747년(영조 23) 총융청이 탕춘대로 출진하였으며, 1753년(영조 29)에는 탕춘대성의 증축 공역이 재개되었다.

24) 觀察體面尊重 每坐堂 教諭書奉懸廳上 印符分置案前

25) 去亂已六年 因力絀財竭 未遑爲修繕計

26) 『비변사등록』 70책, 1717년(숙종 43) 6월 3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 조선 후기 경기감영의 공간구성

1) 조선 후기 유영체제의 정착과 경기감영의 확장²⁷⁾

○ 조선 전기부터 이어진 유영체제 논의와 임란 이후의 정착

감영의 시설 건립과 운영은 관찰사 제도와 밀접하다. 조선시대 관찰사 제도는 근무 연한과 관련된 구임(久任)과 정해진 감영에서 머무는 방식의 근무체제와 관련된 유영(留營) 여부에 따라 변화하였다. 관찰사의 구임과 감영의 유영화 문제는 조정의 지방통치체제 강화와 직결되었다. 또한 그에 따르는 경비 조달의 문제에 있어 지방의 재정 시스템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관찰사의 권한 강화는 지방 통치력의 강화와 동시에 왕권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순력 위주의 체제에서 제반 경비는 순력 시 해당 군현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시스템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반면 유영 위주의 체제에서는 감영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재정적 물리적 기반이 필요할뿐더러 관찰사의 부양가족을 임지에서 돌보는 설권(挈眷)과도 연관되어 시설의 확충과 생활기반 제공을 수반해야했다.

관찰사의 구임제는 세종연간에 관찰사가 목사를 겸임하고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는 겸목구임제(兼牧久任制)를 도입하며 시도된 바 있으나 단종연간에 혁파되었다. 중종연간에도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으며, 선조연간에 율곡 이이가 겸목구임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전라도와 경상도에 시험하였다가 다시 혁파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통치 질서의 회복과 대동법 시행을 위해 관찰사의 구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효종연간 발의된 대동법 시행세칙인 『대동사목』에 영수(營需) 항목이 정식으로 규정되어 감영의 경비가 공식적으로 배분되었다. 이는 조정이 감영의 재정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국가의 재정 체계에 편입시키는 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 조선후기 유영체제에 따른 감영시설 확장과 경기감영

감영이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조정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대동사목』에 의해 감영의 재정이 국가의 재정 체계에 편입되며 구임에 따른 논란과 우려가 불식되었다. 기정사 실화된 유영제에 따라 감영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강원감영의 선화당이 1667년(현종 8) 처음 지어지고, 충청감영의 경우 1603년(선조 36) 감영 건물을 신축한 후 여러 차례 이전하다가 1706년(숙종 32) 한 자리에 정착했다.

전라감영의 경우 10만여석의 곡식과 무명을 여러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이처럼 늘어난 감영의 재산을 보관할 창고 또한 확충의 주 대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설권을 위한 시설의 건립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찰사와 그의 가족을 위한 공간과 생활 경비는

27) 본 절의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김태웅, 「朝鮮後期 監營 財政體系의 成立과 變化 : 全羅監營 財政을 중심으로」, 『역사교육』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영조연간 균역법 시행을 위해 경비 절감이 필요했을 때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두어 구임제를 유지하되 설권을 없애 비용 350여석을 절감하고자 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⁸⁾

경기감영 또한 순영에서 유영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확장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종 문헌, 도상자료에 드러나는 경기감영의 공간 구성으로 볼 때 경기감영은 선화당을 비롯한 근무처들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내아와 창고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었다. 경기 관찰사는 왕실의 측근이 임명되는 주요 관직이었으며 경기감영은 단순한 지방 행정기관을 넘어 도성의 방어와 왕실의 물품 조달과 관계가 깊은 중요 기관이었다. 양란 이후 통치 체제가 바로잡히고 조정의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감영에서 벌어진 건축 행위 또한 그와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찰사 제도 혹은 감영 체제의 변화 흐름상에서 경기감영의 건축 변화를 살피는 것은 차후의 중요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2) 조선 후기 경기감영의 업무 특성과 입지

○ 조선 후기 경기관찰사와 예하의 관원 직제

경기관찰사는 경기도가 8도 중 가장 큰 도이자 외교·국방상 중요한 지역이므로 역대 집권세력이 중요시한 자리 중 하나였다. 관찰사의 관계는 종2품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2품보다 품계가 높은 대신(大臣) 반열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²⁹⁾

경기관찰사의 임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던 특징이 있다. 관찰사의 임기에 대한 법전의 규정은 『경국대전』에서는 360일이던 것이 『속대전』에 이르러 경기도만을 1년으로 하고 나머지 7개 도는 2년으로 바뀌었다. 『대전회통』에 이르면 경기도 역시 2년이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기가 짧았던 『속대전』 당시, 관찰사의 주요 업무인 포폄이 가능한 일자 역시 50일인 다른 지역 관찰사에 비해 짧은 30일이 적용되었다.³⁰⁾ 실제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제수된 관찰사의 재임기간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평균 0.8년으로 가장 짧았다.³¹⁾

1783~1784년 경기관찰사의 포폄 관련 기록을 보면 경기관찰사 예하의 관원 직제를 살필 수 있다.³²⁾ 당시 경기관찰사로 부임했던 심이지(沈頤之, 1720~1780)가 남긴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謄錄)』의 포폄 관련 문서에는 관찰사의 막하에서 관찰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관원은 도사(종5품), 중군(종2품), 검률(종9품) 각 1인이 기록되었다. 수령은 부윤(종2품) 1인, 목사

28) 『영조실록』 권71, 영조 26년 7월 9일 ; 『승정원일기』 1151책, 영조33년 12월 16일. 김태웅, 앞의 글, 181~182쪽 참고.

29) 경기도박물관, 『경기관찰사』, 2010, 26쪽.

30)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10, 172~173쪽.

31) 이선희, 『조선시대 8도 관찰사의 재임실태』, 『한국학논총』3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22쪽.

32) 이하의 경기관찰사 업무 특성과 입지 관련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음. 이선희, 『18세기 경기도관찰사의 업무 실태와 특징 : 『畿營狀啓謄錄』을 중심으로』, 『장서각』2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정3품) 3인, 부사(종3품) 9인, 군수(종4품) 8인, 현령(종5품) 4인, 현감(종6품) 11인이었으며 이외에 첨사 1인, 참방 6인, 발장 7인이 포폄 대상이었다.

○ 경기관찰사의 업무 특성

경기감영과 대궐의 거리가 가까운 탓에 경기관찰사의 업무에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었다. 대궐에 입시하여 왕을 친견하는 횟수가 잦은 편이었으며, 유지와 장계의 전달 및 처리 속도가 다른 도의 감영에 비하여 빨랐다. 작성된 장계의 수도 타 감영에 비해 많은 편이었는데, 이 또한 장계의 처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업무 분야별로 보자면 첫째로 농사, 다음으로 진휼과 관련된 장계의 수가 많았다. 경상도의 경우 조세와 사법 관련 업무가 많았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국왕의 직접적 관할권에 놓여 있던 경기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되며, 진휼이 많았던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지역 민이 가졌던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진관료들이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운집함에 따라 경기도에는 왕실의 능묘를 비롯하여 고관 대작의 분묘가 다수 자리했다. 경기관찰사는 절기에 따라 올리는 제향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일, 후손이 없는 왕실 관련 인물의 무덤을 관리하는 일, 국왕의 능행길을 살펴 보수하는 일 등 왕실의 능묘 관련 일들과 고관대작의 분묘와 관련된 지원이나 송사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 돈의문 밖 경기감영의 입지와 주변 시설

경기감영은 도성의 서대문인 돈의문 밖으로 나와 약 25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돈의문 밖을 나온 행인은 좌측으로 고마청, 우측으로 빈관(객사)을 지나 경기감영에 이르렀으며, 경기감영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꺾으면 모화관과 영은문으로 이어지는 의주로 위에 놓이게 되었다.

의주로는 명과 청의 수도인 북경과 한양을 잇는 길로서 외방도로 중 가장 발달하였다. 주요 교통로였던 만큼 외침과 내란 모두에서 도성 수비의 요충지인 동시에, 유통과 상업의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길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황토현(현 세종로사거리)에서 경희궁 앞을 지나 경기감영에 이르는 길의 폭은 56척(약 17m)으로 상당한 규모였다.³³⁾

주변의 부속시설들 입지를 살펴보면, 경기감영과 돈의문 사이에 있던 고마청과 빈관은 도성을 들어오고 나가는 인사들과 관련된 시설이므로 경기감영과 가까우면서도 돈의문과 가까운 사이 공간에 입지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고마는 백성으로부터 징발한 말을 이르는데, 관찰사 부임시 고마청을 거친 후 사은숙배하러 도성으로 입장하는 고사가 있었다.³⁴⁾ 경기감영 맞은편의 집사청은 왕실 의례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으나 검토가 필요하며, 중군영은 의주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300m 올라간 곳에 위치하였다. 중군영은 경기 중군이 설치된 1768년(영

33) 『경국대전』; 1896년 <내부령> 9호에는 55척으로 기록.

34) 이유원(李裕元), 「경기감영의 고사」, 『임하필기』 권27, 춘명일사(春明逸史), 한국고전종합DB.

조 44)과 중군영 수리 기록이 있는 1785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시설이므로 방어시설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주로 북쪽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중요 부속시설로 경기감영에서 매일 궁궐로 공물을 진상하였던 창고인 경영고가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상에 표시한 경기감영 관련 시설의 위치도

3) 조선 후기 경기감영의 공간구성

(1) 『경기감영각방중기』 사료 검토

① 중기의 개념과 경기감영의 각방중기

중기(重記)는 관청에서 관리가 교체될 때 인수인계 문서로 작성되거나 년차별로 재고에 대한 재물조사 성격을 띠는 문서를 가리킨다. 6방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일반적인 기록 외에 화재가 일어나 관청 건물이나 재산상에 큰 변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별도의 중기가 작성되었다. 또 특별히 따로 관리해야하는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의 수량이나 품목, 소장내력 등을 작성한 중기도 있다. 조선후기 관청의 중기는 140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경기감영이 작성한 각방중기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② 『경기감영각방중기』의 체제와 내용

중기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 따라 ‘색(色)’으로 구분된 단위로 작성되지만 해당 관청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각 색 아래에는 시기별로 ‘질(秩)’을 단위로 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관청에 따라 체제와 내용에서 차이가 많았다.

『경기감영각방중기』는 6방별로 기록을 작성하고 각색은 다시 시기별로 질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중기 체제를 따르고 있다. 각방중기의 작성 주체는 영고색(營庫色), 호방색(戶房色), 예방색(禮房色), 병방색(兵房色), 형방색(刑房色), 공방색(工房色)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색 아래는 관찰사별로 질(秩)의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존하는 『경기감영각방중기』는 가장 이른 시기의 관찰사가 1741년(영조 17) 경기관찰사로 있던 이기진(1687~1755)재임시기의 것이다. 마지막 기록은 1888년(고종 25) 오준영(생몰미상) 관찰사 때의 것이다. 각방중기는 기록을 남길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각 색 별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관찰사의 이름은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영고색, 호방색 등은 거의 한 두 기록에 그치고 있다. 가장 기록이 많고 내용이 상세한 것은 공방색이다. 공방색에는 모두 49명의 관찰사가 나오고 각 관찰사 시절에 있었던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업무 내용은 건물의 수리나 신축 등이 3분의 2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자금의 조달 및 지출, 깃발이나 조총, 병장기 등 군기물의 마련 외에 병장도설이나 지도류의 서책에 대한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다.

③ 용어

각 질의 내용에는 몇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조비질(措備秩), 별비질(別備秩), 신비질(新備秩) 등이 있고 이와 별도로 공방색에서는 신건질(新建秩), 수보질(修補秩), 중수질(重修秩) 등 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내용을 다룬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 정식질(定式秩), 구폐질(揀弊秩), 군기질(軍器秩)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쓰였다. 이들 용어를 간단히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 조비(措備); 조치하여 준비한다는 뜻. 보통은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공방색의 경우에는 퇴락한 시설 일부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조비라 하였다.

- 별비(別備); 통상적인 조비와 별도로 특정한 내용의 조비를 가리킨다.
- 신비(新備); 이전에 없었던 물품이나 시설에 대한 조비가 있을 때 신비라 했다.
- 신건(新建); 관청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을 지칭한다.
- 수보(修補); 건물의 소규모 수리를 가리킨다. 수보는 보통 형태를 바꾸지 않고 이전의 모습대로 부분적인 수리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중수(重修); 큰 규모의 수리를 말한다. 때로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새로 짓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공사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화재를 당하거나 멸실되어 다시 짓는 경우에 쓰인다.
- 정식(定式); 어떤 절차나 일정한 규범을 정함.
- 구폐(掄弊); 폐해를 바로잡음.
- 군기(軍器); 군사용의 각종 기물.

④ 4건의 『경기감영각방중기』 비교

국내에 현전하는 3건의 중기는 1843년(도광23년), 1886년(광서12년), 1889년(광서15년)의 세 시기에 쓰인 것이다. 중기는 이전에 작성한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새로 추가된 사항들을 덧붙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위 3건의 중기 역시 1848년의 중기는 내용이 적은데 비해서 1886년의 것이 앞의 1848년 중기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을 덧붙였고 마지막 1889년의 중기가 가장 분량이 많다. 다시 옮겨 적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은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외에 현전하는 중기는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1892년(광서18년) 중기가 보고된 바 있다. 내용은 앞서 언급한 3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중기의 개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843년 『경기감영각방중기』

전체 54쪽 분량이며, 영고색, 호방색, 예방색, 병방색, 형방색, 공방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고색, 호방색은 각 색이 조달 운용한 금전 관련한 사항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고 예방색은 소장하고 있는 서적 목록을 열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병방색은 관장하고 있는 역참 관련 문서를 비롯하여 깃발이나 조총 수량 등 군사물품을 다룬 군기실에서 상세한 기록을 갖추고 있다. 또한 관찰사 별로 소관 물량의 변화내용을 명시하였다. 형방색은 대명률 4권 등 관련 서책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마지막 공방색은 첫머리에 ‘연천의 땀나무 장 둘레 40리(매년 600석씩 베어냄)’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금송사목 1권’ 즉 나라에서 소나무를 관리하는 지침서 1권을 언급하고 그 밖에 공방이 소유하고 있는 주요 물품약 20건을 나열해 놓았다. 그 뒤부터는 각 관찰사별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이 마지막까지 열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는 감영 각 시설의 이건이나 신건, 개건 등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대상을 기술한 내용이 들어있다. 관찰사로서는 1743년(영조 19) 유엄(柳儼, 1692~?)을 필두로 해서 1833년 박기수(朴岐壽, 1792~1847) 재임 중의 건물 관련 사항까지 다루었다.

○ 1886년 『경기감영각방중기』

전체 72쪽 분량이다. 앞부분의 영고색, 호방색, 병방색, 형방색 기사는 1843년의 기사를 축약한 부분이 보이고 병방색에서 관찰사로 서유방, 조진영, 이재학 재임 중의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공방색에서는 1843년 각방중기와 중복되는 기사가 앞부분에 보이지만 건물의 수리나 중수와 관련해서는 새로 추가된 기사도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관찰사로는 김기만(金箕晩)을 필두로 유엄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박제관(朴齊寬, 1834~?) 재임 시까지를 다루고 있다.

○ 1889년 『경기감영각방중기』

전체 80쪽 분량이다. 각방중기는 이전의 기사를 모두 수록하면서 새로 추가한 내용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장 늦은 시기에 편찬된 중기의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1889년 각방중기에서는 이전 1843년 중기나 1886년 중기에서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건물 수리 기사가 보완된 부분도 있어서 경기감영의 건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있어서는 앞의 두 중기보다 더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방색의 마지막 부분은 1888년(고종 25) 관찰사 오준영(吳俊泳) 재임 당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3건의 각방중기를 통해서 경기감영의 건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있어서는 마지막의 1889년 『경기감영각방중기』가 가장 충실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1892년 『경기감영각방중기』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의 아사미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 92쪽 분량이다. 기사의 구성 체제는 영고색, 호방색, 예방색, 병방색, 형방색, 공방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역시 앞 시기의 중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2) 『경기감영각방중기』에 나타난 경기감영 건축의 변화(철종 이전)

각방중기 내용을 보면 철종 이전까지는 크고 작은 각 시설의 조비 즉 간단한 수리기사가 이어지다가 1869년(고종 6)에 와서 박영보가 관찰사로 재임하던 중에 감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진다. 감영의 대대적인 중수는 흥선대원군의 분부로 이루어졌으며 영건도감에서 공사비용을 마련하여 이루어졌다. 그 대상은 감영 본부는 물론 중영과 객사 전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경기감영은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면모를 일신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우선 철종 이전까지의 수리 사항을 정리하고 1869년의 중수는 장을 따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경기감영각방중기』 공방색의 영조~철종 연간 경기감영 건물 관련 기사

각방중기에서 경기감영의 건물을 언급한 내용은 공방색에 들어있다. 3건의 중기 공방색 가운데는 1843년 각방중기가 내용이 소략한 편이고 1886년과 1889년 중기가 상대적으로 자세하며 두 기록은 내용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1889년 중기 공방색의 내용을 위주

로 각 관찰사 별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정리하기로 한다.

■ 1741년(영조 17) 관찰사 김기만(金箕晩) 수개질

- 외행랑 5칸, 통인청 2칸, 발방 및 마랑 5칸, 집사청 15칸, 집사청 식비가(食婢家) 5칸, 순뢰청(巡牢廳) 7칸

- 반송 연지 신소준

■ 1743년(영조 19) 관찰사 유엄(柳儼) 조비질

- 대지 3백간 내 30칸을 발매·이매하여 관아 마당을 첨가
- 고사 14칸은 스스로 비용 [자비] 을 마련하여 신건하고, 가사는 매득

■ 1744년(영조 20) 관찰사 이기진(李箕鎭) 조비질

- 관아 뒤 대지 3백간과 가사를 매득

■ 1764년(영조 40) 관찰사 남태제(南泰齊) 조비질

- 군기고 6칸, 사령청 8칸반, 내중문 1칸

■ 1770년(영조 46) 관찰사 조영진(趙榮進) 조비질

- 고고(雇庫) 1칸, 중문 1칸, 고가(庫家) 6칸

■ 1785년(정조 9) 관찰사 서유방(徐有防) 조비질

- 신건 : 관풍각 6칸, 동서 협문 3칸, 마두간 1칸, 칙고(勅庫) 8칸, 내아 중사 9칸, 각처 중문 6칸, 남대청 내삼문 3칸 단청, 비장청 7칸반, 통인청 3칸
- 개건 : 중영 27칸반, 각고(各庫) 10칸, 사령청 5칸, 공사문(公事門) 1칸, 고사(庫舍) 6칸, 내외 중문 3칸, 기수방 2칸

■ 1790년(정조 14) 관찰사 서정수(徐鼎修) 조비질

- 객사 15칸, 포정문루 6칸, 중삼문 3칸, 좌우 익랑 5칸, 혈휴청 2칸, 고사 17칸, 도사방 2칸, 각처 중문 8칸, 고직방 6칸
- 영해 이진질 : 내삼문 3칸 단청, 영리청 16칸, 기수방 6칸, 사령청 2칸, 근수방(跟隨房) 2칸, 고사 13칸, 중문 1칸
- 중영 신건질 : 천연정 5칸, 군기고 8칸, 서원방 6칸, 고직방 4칸, 대문 3칸, 기수방 1칸
- 중영 개건질 : 대청 12칸, 익랑 5칸 [『중기』(1892) : 객사 내삼문 3칸, 외삼문 1칸]

■ 1793년(정조 17) 관찰사 서용보(徐龍補) 조비질

- 와가 5칸, 초가 5칸(별비)
- 신건 : 혈휴청 2칸

■ 1797년(정조 21) 관찰사 이재학(李在學) 조비질

- 내행랑 8칸반, 외행랑 7칸, 고직방 7칸반, 시고(柴庫) 14칸, 근수방 3칸, 서대문(西大門) 1칸

- 1810년(순조 10) 관찰사 권상신(權常愼) 조비질
 - 집사청 8간, 세악수도가(細樂手都家) 9간, 고마청 대문 1간, 고직입적처 4간, 하마청방 5간
- 1832년(순조 32) 관찰사 정기선(鄭基善) 조비질
 - 풍량각 3간, 내아 협방 1간, 관풍각 중문 1간, 비장청 아기수방 1간, 근수방 2간
 - 수보질 : 객사 8간반 [『중기』(1892)단청] , 내외삼문 및 익랑 10간 단청, 내외병행랑 40간, 봉안각 1간, 시고 15간, 고직입적처 3간, 저치고 1간
- 1835년(헌종 1) 관찰사 김도희(金道喜) 조비질
 - 내아 외행랑 4간, 고사 5간, 영고 4간, 포정문 층제 및 익랑 2간, 고마청 부군당 2간 수보, 집사청방사 1간반
 - 중영 중수질 : 대청 12간, 천연정 5간, 읍승당 5간, 군기고 8간, 서원방 6간, 고직방 4간, 기수방 1간, 반송연지 [신소준(新疏浚)]
- 1844년(헌종 10) 관찰사 이계조(李啓朝) 조비질
 - 영리청 17간, 근수청 3간
- 1845년(헌종 11) 관찰사 김보근(金輔根) 중수질
 - 중영대청 12간, 천연정 5간, 읍승당 5간, 군기고 8간, 반송 연지(신소준), 객사 내삼문 3간, 외삼문 1간
- 1852년(철종 3) 관찰사 조석우(曹錫雨) 조비질
 - 통인청 4간, 포정문 현판
- 1855년(철종 6) 관찰사 이원명(李源命) 조비질
 - 빈관 현판 수보
- 1858년(철종 9) 관찰사 김병운(金炳雲) 조비질
 - 영해각처, 신영각처, 천연정, 읍승당, 반송 연지(신소준), 객사(신수보)
- 1860년(철종 11) 관찰사 홍재철(洪在喆) 조비질
 - 개건 : 고마청 18간, 세악수도가 10간

② 영조~철종 연간 「공방색」 기사에서 본 경기감영의 건물구성

1741년 경기관찰사 김기만을 시작으로 1860년 홍재철에 이르는 120년 동안의 경기감영 각 시설의 수리나 신건 내용이 『경기감영각방중기』에 명시되었다. 주로 수리나 신축이 이루어진 건물 명칭과 규모가 언급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경기감영에 있었던 시설의 양상을 일부분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역대 관찰사 재임 중 건물수리나 신축 사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기감영 시설을 면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경기감영 주요시설의 규모와 수리

- 감영

포정문루 6간 : 1790년 수리/1852년 현판 수리

관풍각 6간 : 1785년 신건

영리청 17간 : 1835년 6간 수리/1844년 수리

사령청 8간 : 1767년 수리/ 1785년 5간 개건/ 1835년 2간 이건

비장청 7.5간 : 1785년 신건

봉안각 1간 : 1832년 수리

- 객사

객사 15간 : 1790년 수리/1845년 객사 내삼문 3간, 외삼문 1간 수리

- 중영

반송연지 : 1741년 준설

중영 27.5간 : 1785년 개건

- 고마청

대문 1간 : 1810년 수리

고마청 5간, 하마청방 4간 등 : 1810년 수리

고마청부군당 2간 : 1835년 수리

- 집사청

집사청 15간 : 1741년 수리

○ 각종 창고시설

창고시설은 시기에 따라 명칭을 다르게 적거나 통합해서 적기도 해서 정확한 시설 규모나 명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기감영각방증기』에 기록된 명칭만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군기고 6간, 고가 6간, 칩고 8간, 각고 10간, 고사 6간(또는 17간, 13간, 5간), 영고4간, 시고14간, 저량고 1간

○ 출입문과 행랑

출입문은 명칭만으로 소재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명칭과 규모를 열거한다.

내중문 1간, 중문 1간, 남대청 내삼문 3간, 공사문 1간, 내외중문 3간(각처 중문8간), 중삼문 3간, 내삼문 3간, 객사 내삼문 3간 외삼문 1간, 내외 삼문1간, 외행랑 5간, 내행랑 5간, 내외행랑 40간

이 밖에 소재지나 기능을 잘 알 수 없는 몇몇 시설명이 있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3) 1869년 흥선대원군에 의한 경기감영 중수

① 흥선대원군 직전의 경기감영

『경기감영각방중기』(1843)에는 다른 두 중기에 없는 선화당을 비롯한 경기감영의 주요 건물을 기록해 두었다.

선화당 목차양 5간반, 동변 소차양 3간(자비)
선화당 수리 단청, 관풍각 수리, 내아 수리

선화당에 나무로 만든 차양을 설치한 점과 단청 수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관풍각과 내아 역시 수리하고 있어 경기감영의 핵심영역에 대한 수리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경기감영각방중기』의 중수 기록

『경기감영각방중기』에 의하면 1869년 박영보가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감영의 중수가 있었다.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본영 중건 물력은 대원위의 분부로 17읍의 원결 26,583결52부5속에서 매결당 5냥씩 걷어서 모으기로 하고, 합 132,917냥6전2분 내에서 12만냥을 영건도감에 시켜서 이송하도록 하고, 선혜청 2,600냥을 영건도감에 입송하고 영건도감의 10,317냥7전2분을 본영에 부쳐서 공사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각 항을 내려주고 남은 258냥1전9분은 수리고에 옮겨 부침.’

위의 문건으로 보아 이 시기 중수를 위해서 17읍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12만냥과 선혜청에서 받는 2,600냥을 영건도감이 확보하고 영건도감에서 10만317냥을 경기감영에 보내서 공사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 시기 경기감영의 중수공사는 영건도감이 비용을 전담하여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공사는 크게 신건과 수보로 구분되어 있다. 흥선대원군 주도로 추진된 경기감영 중수공사는 감영은 물론 집사청 영역, 중군영 영역, 빈관 영역, 고마청 영역을 아우르는 공사였다. 당시 영역별 총규모를 보면 경기감영은 285.5칸에 달하고, 집사청은 31칸, 중군영(신영) 61칸, 빈관(객사)는 21칸, 고마청은 44칸으로 모두 442.5칸에 달하였다. 육조거리에 있던 중앙관아 가운데 1788년 당시 호조가 280.5칸, 형조(1791년) 115.5칸, 한성부(1852년) 181칸이란 점을 비교하면 경기감영과 부속 관아를 합친 규모의 장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 중수 경기감영(『경기감영각방중기』)

영역(추정)	건물명	칸수	영역(추정)	건물명	칸수		
경기감영	宣化堂	32	중군영 (신영)	庫舍【新建】	2		
	複道	8		行廊【新建】	6		
	留錦亭	1		新营大厅【修補】【壬午全燒】	10		
	右翼廊	11		樓上庫【修補】【壬午全燒】	4		
	前翼廊	6		三門【修補】【壬午全燒】	3		
	內三門	3		天然亭	5		
	旗手	0.5		揖升堂	4.5		
	挾門	2		火藥庫	2		
	中三門	3		軍器庫直處所【壬午全燒】	5		
	布政門	6		書員處所【壬午全燒】	5		
	觀風閣	11		私庫直處所【壬午全燒】	2		
	內衙	32.5		旗手處所【壬午全燒】	3		
	行廊	9		庫舍【壬午全燒】	4		
	祠宇	6		軍器庫	4		
	裨將廳	12		神堂	1.5		
	營庫	27.5		以上 新建			
	外行廊	10	객사 (빈관)	客舍大厅	6		
	神堂	7.5		內三門	3		
	營吏廳【各庫舍并入】	46.5		外三門	3		
	使令厅	12.5		改服厅	2		
	跟随厅	4.5		客舍直處所	7		
	巡牢厅	12		以上 新建			
	고마청	吹鼓手厅	6.5	고마청	雇馬厅大厅	12	
		役人房	2.5		馬廐	9	
		各庫舍	12		中門	3	
		歇休厅	1		大門	1	
		以上 新建			官陪房	3	
집사청		執事厅	10		집사청	神堂	3
		別武士厅	5			獄	4
		細樂手厅	6			庫直處所	3
		撥馬廐	9			驛吏等處所	6
		大門	1			以上 新建	
		以上修備				총계	442.5

※ '영역(추정)'란의 내용은 『경기감영각방중기』 원자료의 서술순서와 들여쓰기 여부로 추정하였으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차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임.

■ 감영

- 신건

선화당 32간, 복도 8간, 유금정 1간, 우익랑 11간, 전익랑 6간, 내삼문 3간, 기수 반간, 협문 2간, 중삼문 3간, 포정문 6간, 관풍각 11간

내아 32간반, 행랑 9간, 사우 6간

비장청 12간

영고 27간반, 외행랑 16간, 신당 6간반

영리청 46간반

사령청 12간반

근수청 4간반, 순의청 12간, 취고수청 6간반, 각고사 12간, 혈휴청 1간

중문 3간, 대청 1간, 관배방 3간, 신당 3간, 옥 4간, 고직처소 3간, 역리등처소 6간

■ 객사

- 신건 : 객사 대청 6간, 내삼문 3간, 외삼문 3간, 객사직처소 7간

- 수보 : 고마청 대청 마고 9간

■ 중영

삼문 3간

천연정 5간

읍승당 4간반

화약고 2간, 군기고직처소 5간, 서원처소 5간, 사고직처소 2간, 기수처소 3간, 고사 4간

■ 집사청

- 수보 : 집사청 10간, 별무사청 5간, 세악수청 6간, 개마고 9간, 대문 1간

- 신건 : 고사 2간, 행랑 6간

■ 고마청

- 수보 : 고마청 대청 12간, 마고 9간

③ 흥선대원군에 의한 경기감영 중수의 특징

앞에서 살펴 본 『경기감영각방중기』 중수 내용을 보면 경기감영과 그 부속청사인 중영, 집사청, 고마청에 대한 전면적인 수리와 신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공사는 경복궁 영건도감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경복궁 중건은 1865년(고종 2)에 공사가 시작되어 1868년(고종 6)에는 건물이 준공되어 왕실 가족들이 모두 경복궁으로 이어를 마치게 되는데, 영건도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성 내 주요 시설들의 중수를 진행하였다. 이 때 지어진 건물은 흥인지문과 숭례문을 비롯하여 종묘 정전과 영녕전이 포함되었으며 아울러 경기감영까지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때 지어진 경기감영의 시설을 보면, 선화당 32칸을 비롯하여 내아 32칸반, 비장청 12칸과 영리청, 사령청 외에 중영에서도 천연정 5칸, 읍승당 4칸반, 또 집사청이나 객사가 포함되었다.

철종 이전의 『경기감영각방중기』에는 선화당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영리청, 사령청이나 집사청, 객사가 이미 언급되어 있고 또 중영의 천연정도 이미 18세기에는 기록에 보인다. 따라서 1869년의 감영 중수는 이전에 없던 건물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공사는 이전에 있던 건물을 유사한 규모 범위 안에서 전면 새로 중건하는 공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4) 경기감영도에 그려진 경기감영의 영역별 건축특징

리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기감영도>는 조선후기 돈의문 밖을 그린 그림으로 경기감영 일대를 소재로 하고 있어 매우 주목을 끈다. 전체 크기는 가로 442.2cm, 세로 135.8cm이며, 12폭으로 나뉜 병풍이다. 바탕은 종이를 사용하였고 먹과 채색으로 그렸다.

조선시대 기록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기념할만한 사건이나 사실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화가가 당시 사건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은 물론 그림을 보완하는 서문(序文)과 좌목(座目)을 덧붙인 형식으로 제작되는 특징이 있다.³⁵⁾ 반면 <경기감영도>는 그림의 제작목적, 시기, 화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으며, 그림과 관련된 문헌자료 역시 알려진 사실이 없어, 작자와 제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경기감영도>에는 화면 속에 주요 관아와 명소의 명칭을 표기하였다. 마치 지도처럼 산과 건물의 명칭을 일일이 표기한 것은 <경기감영도>를 화가 임의대로 그리지 않고 그림의 경물인 당시의 지형과 건물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재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⁶⁾

12폭	11폭	10폭	9폭	8폭	7폭	6폭	5폭	4폭	3폭	2폭	1폭
				曲城	仁王山	月巖洞		北岳	北曲城	三角	
		小峴		射亭	宴餉臺	祠宇					
		大峴	七松亭	碑閣	石橋	內衙					
射亭		揖升亭	天然亭	迎恩門	神堂	蓮塘					敦義門
		西爽軒		慕華館		廁間	觀楓閣				守門將廳
				執事廳	西門	宣化堂	營吏廳				
					繼營 布政司			繼營賓館			
					廁間						
					新設藥局	萬病回春					
										雇馬廳	

<경기감영도>의 제작시기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감영도>에 그려진 건물 가운데 가장 늦게 지은 건물은 천연정으로 1741년(영조 17)이며, 비교적 일찍 혈린 영은문은 1895년 2월에 철거된 정황에 근거하여 1741년 이후에서 189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어³⁷⁾ 시기 폭이 아주 넓다.

35) 박정혜, 「조선시대의 역사화」, 『국제학술심포지엄』, 9쪽 참조.

36) 김선정, 앞의 글, 226쪽.

37) 김선정, 앞의 글, 226쪽.

○ 경기감영 영역

구분	기능	비고
포정문(布政門)	감영의 정문	
선화당(宣化堂)	감영의 정청	
관풍각(觀風閣)	관찰사 집무소	
도사청(都事廳)	도사(都事)의 집무소	도사 종5품, 아감사(亞監司)라고 하여 관찰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 관찰사가 순력할 때에는 소관 지역을 나눠 순찰
영리청(營吏廳)	영리의 집무소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영리의 집무소
내아	감사와 가족의 생활공간	
사우(祠宇)	사당	
신당(神堂)	부군당	관아별로 갖춘 신당
집사청(執事廳)		포정문 밖 별도 영역

<경기감영도>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감영, 경기빈관, 경기중영, 고마청은 화면 한가운데에 평행투시도법으로 그려져 있으며 비교적 건축실상을 짐작할 수 있을만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경기감영은 <경기감영도>의 5·6·7쪽에 그려져 있다. 감영의 진입은 다른 감영과 마찬가지로 삼문(三門) 체계로 포정문 → 중삼문 → 내삼문을 거쳐 선화당 앞마당에 이른다. 육조거리 동서에 늘어선 중앙관아는 외삼문 → 내삼문을 거쳐 정청으로 진입하는 이문(二門) 체계여서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다스리는 관찰사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포정문은 선화당과 축을 달리하여 대지 모퉁이에 서향으로 배치하였다. 중층 문루구조로서 하층 세 칸은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상층에는 북을 걸어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중삼문은 포정문과 같은 동서축을 취하고 있으며 솟을삼문 형태이다. 중삼문을 지나 직각으로 꺾은 위치에 내삼문이 자리하고 있다. 내삼문은 선화당과 같은 남북축을 취하였으며 솟을삼문 형태이다. 포정문에는 기영포정사(畿營布政司)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감영의 정청인 선화당은 정면 8칸, 측면 4칸의 팔작집으로 남향을 취하였다. 측면 4칸 가운데 전후는 툇간 규모이며, 정면에서 가장 왼쪽 협칸도 툇간 규모로 평면을 설정하였다. 대청은 한 가운데에 두지 않고 좌측으로 치우쳐 배치하였다. 평면은 정면을 기준으로 온돌방(툇간 규모)-대청 3칸-온돌방 4칸으로 구성되었다. 온돌방 4칸은 전면 창호로 미뤄 2칸씩 공간을 구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은 장대석을 네 벌대로 높게 쌓고 그 위로 건물을 올렸다. 선화당 마당에는 삼도(三道)를 깔고 각각 계단을 설치하여 선화당으로 오르게 하였다. 삼도 좌우에는 가석(嘉石)과 폐석(肺石)으로 불리는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삼도 바닥은 전돌로 포장한 것으로 짐작된다. 선화당 지붕은 기와를 덮었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최고의 격식인 양성바름으로 마감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사진자료에 남아있는 선화당 모습에서도 양성바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선화당에 붙은 복도각은 『경기감영각방중기』에 8칸으로 적혀 있는데 ㄱ자형으로 꺾인 모습

이 그려져 있고 각각 4칸 규모여서 기록과 일치한다. 복도각의 용도는 선화당과 내아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추정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복도각과 선화당 사이에 마련된 마당 한가운데에 측간이 배치된 점이다. 관찰사 전용 화장실로 추정된다.

선화당 뒤편으로는 방지와 1칸짜리 정자가 있고 외곽 담장 주변으로 수목이 촘촘하게 식재된 모습이 보인다. 방지는 한 모서리를 꺾어서 안으로 들인 형태로 내부에는 연꽃으로 추정되는 식물류가 그려져 있다. 정자는 모임지붕을 한 1칸 규모로 지붕은 기와를 올렸으며 처마에는 차양을 들렸다. 입면은 사방이 트여있으나 꼭두머름으로 추정되는 부재가 기둥 좌우에 그려져 있다.

관찰사의 평소 집무처인 관풍각은 선화당 동쪽에 일곽을 이루고 있으며 남향집이다. 선화당과는 담장으로 구획을 나누고 있으나 바로 붙어 있으며 일각문 형태의 협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다. 평면은 뒤집은 ㄱ자형으로 누마루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누마루는 장초석을 사용하였으며 3칸 규모로 넓은 편이다. 처마에는 차양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기와로 덮었다. 기단은 장대석 두벌대로 쌓고 계단을 마련하였다. 관풍각 뒤편에 소규모 건물이 그려져 있으나 용도는 파악되지 않는다. 관풍각 마당에는 1칸 규모로 추정되는 모정(茅亭) 한 채가 있고, 선화당에 비해 초화류가 밀식 식재된 특징이 보인다.

도사청은 선화당 서쪽에 일곽을 이루고 있고 남향을 취하였다. 정면 6칸, 측면 3칸(전후는 텃간), 팔작집이다. 전면 텃간은 모두 개방하여 마루를 깔았다. 왼쪽에서부터 2칸은 온돌방, 가운데 2칸은 대청마루, 오른쪽 2칸은 온돌방으로 평면을 구성하였다.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로 쌓았다. 앞뒤로 마당을 두었으며, 뒷마당에는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앞마당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

영리청은 선화당 동쪽, 관풍각 남쪽에 배치되어 있고, 남향집이다. 일자형 평면으로 정면 7칸, 측면 3칸(전퇴) 규모로 지붕은 팔작이다. 영리청은 1칸 대문(추정)-온돌방3칸, 마루 3칸, 누마루 1칸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를 돌렸다. 영리청 뒤로는 일자형 평면의 저면 9칸, 측면 1칸 규모의 공간이 동서방향으로 길게 자리를 잡았다. 공간 입면은 판문을 설치하고 위로 사를 둔 전형적 모습이다.

내아는 ㄱ자형 평면으로 안채 좌우와 전면에 행랑을 둔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평면구조를 취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5칸이 확인되나 전체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 남향을 취하고 있으며, 내부는 대청마루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와 이어진 오른쪽 행랑 일부는 다른 행랑에 비해 지붕이 높은 편인데 다락을 둔 구조 때문이다. 내아 출입문은 남쪽으로 열려있으며 1칸 규모이다. 희미하지만 대문을 들어서서 바로 안채가 노출되지 않도록 내외벽(면장)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쪽 대문이 마련된 행랑은 7칸 규모이다. 기단은 장대석 세벌대로 구축하였다.

안채 뒤편으로 팔작지붕에 차양이 설치된 건물 일부가 그려져 있으나 어떤 성격의 건물인지 알 수 없다. 서쪽으로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일각문 형태의 협문이 열려있는 점으로 미뤄 별도 영역을 이루면서 뒤편 사우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우는 일각문 좌우로 담장을 둘러 일곽을 이루었다. 좌향은 남쪽을 위주로 잡았다. 사우는 정면 3칸의 맞배집으로 측면 규모는 확실치 않으나 전퇴를 개방한 구조이다. 기단은 장대석을 외벌대로 돌렸다. 전면 3칸 모두 궁판을 둔 띠살문을 설치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당 뒷마

당에는 키가 아주 높지 않은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다.

신당은 도사청 뒤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향을 취하였다. 일각문과 부속 건물 두 채, 담장을 둘러 일곽을 구성하고 있다. 신당은 정면 3칸에 측면 1칸반 규모로 맞배집이다. 포정문 북쪽에 열린 문을 통해 별도로 출입하도록 동선이 확보된 특징이 보인다.

집사청 영역은 여러 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정문 밖 서쪽에 별도 영역을 이루고 있다.

○ 경기빈관 영역

경기빈관 영역은 외삼문과 행랑채, 내삼문, 빈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채 모두 남향으로 자리 잡았다. 외삼문은 평삼문 형태이며 좌우로 행랑채가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은 4칸, 오른쪽은 2칸 규모이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방형으로 담장을 두른 내삼문이 보이는데 솟을삼문 형태를 취하였다. 외삼문 왼쪽의 행랑은 내삼문을 거쳐 드나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삼문에는 기영빈관(畿營賓館)이라 제액되어 있다.

빈관은 정면 3칸, 측면 2칸 이상으로 맞배집이다. 기단은 장대석 네벌대로 쌓았다. 내부는 가운데 1칸은 문을 달고 나머지는 방전을 깐듯하게 그려져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담장 근처로 수목과 화훼류를 식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보통 지방 객사가 정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익사를 배치하는 평면을 따르는데 비해 경기빈관의 모습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그림이란 한계로 보기에는 다른 부분들의 표현이 상세한 편이어서 유독 빈관만 실물과 달리 그렸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다른 지방객사에 비해 숙박기능은 약화되고 전패와 곁패를 모신 의례기능이 강조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빈관에서 숙박하였다는 기록이 간혹 보여 좌우 익사의 온돌방 대신한 경기빈관만의 숙박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특히 경기빈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사료로 돈의문을 나서면서 이곳에 들러 옷을 갈아입는(改服) 일이 눈에 띄어서 빈관영역 해석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경기중영 영역

경기중영 정문은 서지(西池)를 면한 위치에 동향하고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너른 마당이 있고 그 북쪽에 천연정, 남쪽으로 서상헌이 있다. 이외에 여러 건물이 있으나 세세한 당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상헌 서쪽으로 읍승정과 마당이 펼쳐져 있다.

천연정은 ㄱ자집으로 누마루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상헌은 남북으로 긴 평면인데 드러난 입면이 2칸에 불과하여 전체 평면을 추측하기 곤란하다. 전면의 여러 채 건물 가운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은 청원각(淸遠閣)이다. 읍승정은 남북 방향으로 긴 일자형 평면으로 전부 개방된 평면을 취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집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답게 너른 마당은 군사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중영 서쪽으로는 군사들이 활을 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 고마청 영역

고마청은 <경기감영도> 2폭 하단에 묘사되어 있다. 서향을 정면으로 잡았다. 1칸 규모의 두 문을 거쳐 들어가면 고마청의 청사가 보인다.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팔작집이다. 일자형

평면으로 왼쪽에서부터 온돌방 2칸, 마루 1칸, 온돌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장 오른쪽 한 칸만 전퇴까지 넓혀서 방을 꾸몄고, 다른 세 칸은 뒷마루를 깔았다. 고마청(雇馬廳)이란 글자가 제액되어 있다. 주변은 행랑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나 <경기감영도> 안에서 고마청의 정확한 범위를 가리키는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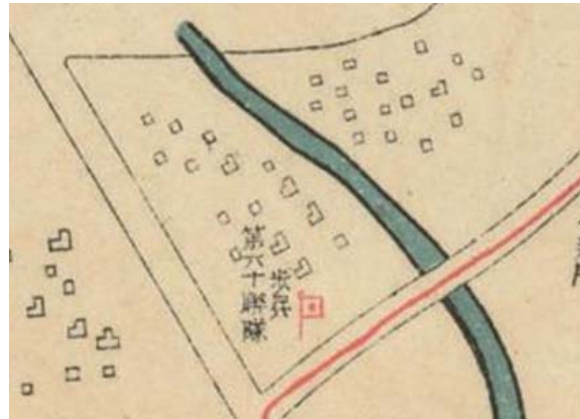
3. 대한제국~일제강점기 경기도청 이전 후 경기감영 터의 전용

1) 경기감영 터의 전용

○ 군영과 한성부의 전용

경기감영은 1896년(고종 33)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13도제가 실시되며 수원으로 이전된다. 『황성신문』 1902년 4월 11일자에는 “한성부는 평양대 영문으로 정하고 이 부는 전 경기빈관으로 이전하여 이미 수리가 준공된 고로 본 월 11일에 들어가고 내부에 보고 하였더라”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기사에서 한성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평양대라 불리는 군대가 옛 경기감영 일대를 전용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며, 1902년 4월경에는 한성부가 ‘경기빈관’ 일대를 전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 1901년(고종 38) 3월 기사에는 “불러 올린 평양 제2대대가 머물 장소를 한성부로 옮겨 정하라”라는 고종의 하명이 담겨 있고,³⁸⁾ 1902년(고종 39) 3월 기사에는 “한성부와 한성재판소는 전 기영의 빈관을 함께 써서 그대로 머물고, 불러올린 평양 제2대대가 주둔할 곳은 해부(該府) 안에 나누어 정하라”라는 내용이 있다.³⁹⁾ 1896년 경기감영이 수원으로 이전된 직후의 전용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1901년경에는 평양 제2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1902년 4월부터는 한성부와 평양 제2대대가 경기감영 터를 함께 전용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최신경성전도>의 경기감영 터에 “보병제60연대(步兵第六十聯隊)”라고 쓰여 있어 군대가 주둔했던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신경성전도>, 1907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한성부가 빈관을 쓴다는 내용이 기록되었지만 1902년 5월의 「주본」 제243호에 따르면 한성부청 공사 내역에 대청 36칸을 비롯한 다수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성부가 경기감영 일대를 폭넓게 사용한 정황으로 판단된다.⁴⁰⁾ 한성부 전용 당시의 모습이 남아있는 사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8) 『승정원일기』 140책, 고종 38년 3월 27일.

39) 『승정원일기』 140책, 고종 39년 3월 9일.

40) 심은애, 「한성부 관아의 입지변화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4쪽 참고.



<한국병영, 러시아 총영사관>, 헤르만 산더 촬영, 1906~1907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위 사진은 헤르만 산더가 한국에 다녀간 1906~1907년에 촬영된 것이다. 1908년 한성부가 옛 법부 자리로 이전되기 전, 경기감영 청사를 전용할 당시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좌측에 2층 벽돌건물로 개축된 옛 경기감영의 행랑부분의 모습이 드러나며, 그 오른쪽으로 옛 정문이던 포정문의 모습이 보인다. 2층 벽돌건물 위쪽으로 양성바름을 한 대규모 기와 건물이 보이는데, 옛 경기감영의 선화당으로 추정된다. 돈의문에서 경기감영 방향으로 오는 길 부근에는 솟을삼문을 비롯한 경기감영의 출입시설 지붕부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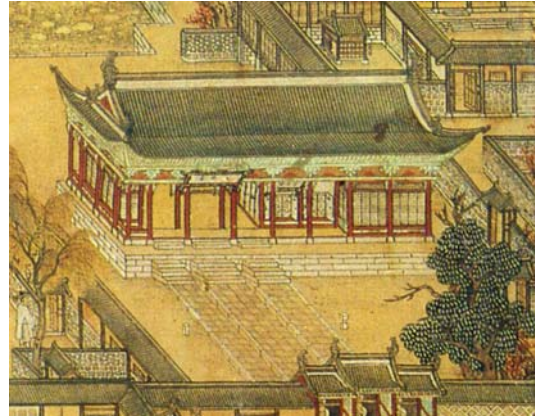


한성부 전용 당시 포정문의 모습(카를로 로제티, 『꼬레아 에 꼬레아니』, 하늘재, 2009, 132쪽)

다음 사진은 카를로 로제티의 『꼬레아 에 꼬레아니』에 수록된 사진이다. 옛 경기감영의 포정 문에 한성부 현판이 걸려있어 경기감영 청사가 한성부 청사로 전용될 당시의 사진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핀 헤르만 산더 촬영 사진과 문루와 행각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유사해 보인다. 좌 우측에 단층 행각이 일부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입면이 벽돌로 되어 있어 원형을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다. 헤르만 산더 촬영 사진과는 문루 2층에 창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한성부 청사 사진(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학연구소, 『서울, 20세기 : 100년의 사진기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14쪽)



<경기감영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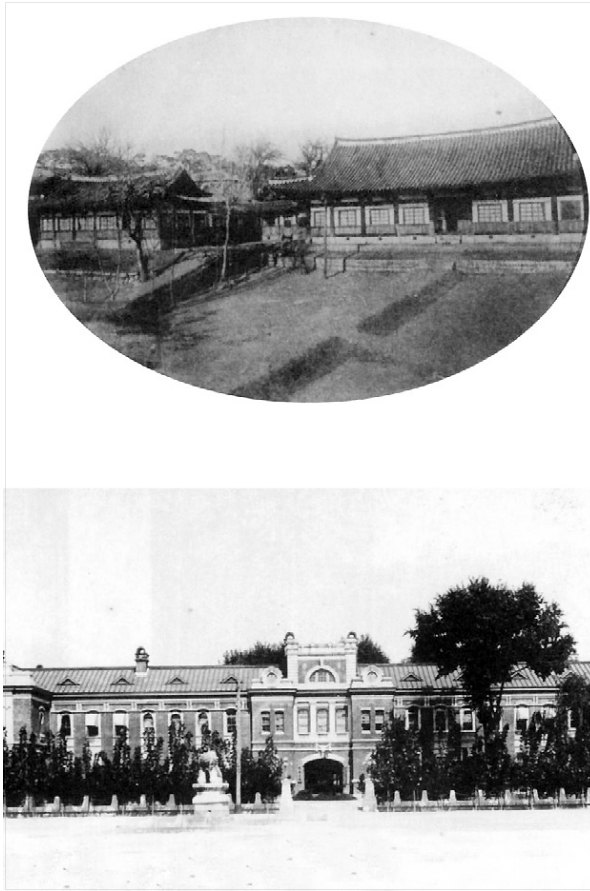
위 사진은 한성부 청사의 모습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진이다. 그런데 사진 속 건물과 전면부의 답도, 가석과 폐석의 모습은 <경기감영도>의 선화당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정면 오른쪽부터 6번째 칸에 편액이 걸리고 그 칸을 중심으로 양 옆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계단이 설치되고 답도가 깔려있다. 전면 칸의 구성은 사진과 <경기감영도> 간의 차이가 보이나 양성바름과 단청 등 격식을 갖춘 모습 또한 유사점이 보인다. 이 사진 속 건물이 한성부 전용 당시의 옛 경기감영 선화당의 모습이라는 근거는 용마루 양성의 얼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후에 제시될 고양군청 당시 옛 선화당 사진의 용마루에서도 흡사한 모양의 얼룩이 보여 동일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한성부는 1908년에 옛 법부 자리⁴¹⁾로 이전된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6일자 기사에는 “한성부는 전 법부로 이전하라는 내부 훈령이 있다. 이 부서의 이동이 있을 후 서부 경서가 온다더라”라는 내용이 있다.⁴²⁾ 이 기사에 두 달 앞서 “수원관찰도는 신문 외 전 경기감영으로 이설한다는 설이 유하더라”⁴³⁾라 하여 수원에 있던 경기도청이 돈의문 밖 경기감영 자리로 복귀한다는 설이 돌았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41) 조선시대 형조 터

42) 『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6일자.

43)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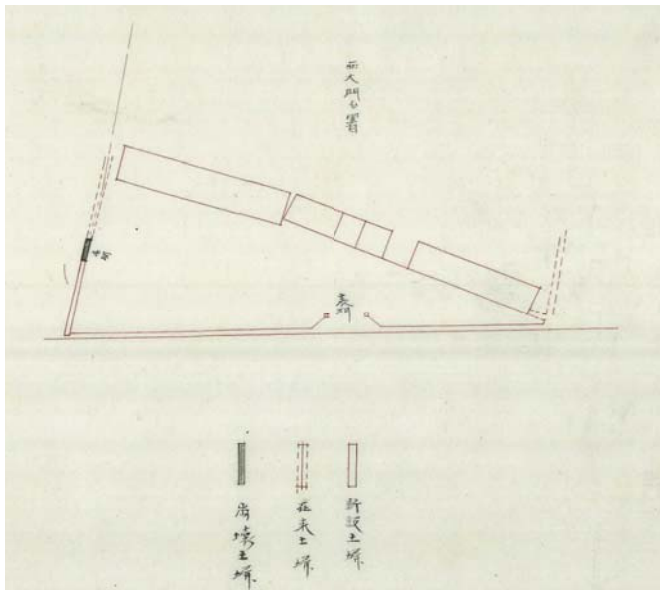


새로운 경기도청, Government-General of Chosen, 『Illustrated Chosen : 1920』(경기 플러그인(<http://ggplug.com/>)에서 발췌)

상단 사진은 1920년 이전에 촬영된 옛 경기감영의 모습이다. 돈의문 밖 경기감영과 세종로의 신축 경기도청 청사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 변화한 도청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쓰였다. 세종로 경기도청 건물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볼 때 1910~1920년 사이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사진 오른쪽에 정면규모 7칸의 건물이 있고, 왼쪽에 6칸의 건물이 있다. 규모상 <경기감영도>의 선화당과 도사청으로 볼 수 있으며, 영역간 경계를 이루던 담장이 남아있지 않다. 선화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경기감영도>에 보이는 것과 입면이 크게 다르다. 한성부로의 전용 이후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인다.

○ 서대문경찰서 분서 등의 분할 전용

아래 도면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서대문경찰서 앞 토병 공사 설계도면이다. 도면 상부에 '서대문분서'라고 기입되어 있다. 지도류에서도 서대문분서가 옛 경기감영 일대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아래 도면의 대지 모양과 대지를 가로지르는 부속채의 존재로 보아 경기빈관 자리를 부분적으로 서대문경찰서 분서가 전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서대문경찰서 분서는 1915년 1월 23일자 『매일신보』 기사에 “서대문감옥대평동출장소”로 언급되는데, 정확한 전용 범위와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영성문전순사파출소이축기타공사일부
서대문경찰지서토병신설공사추가공사
설계도> 부분, (추정)1910-15, 국가기
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이 외의 분할 전용에 대해서는 『경성부사』 3권의 구 고양군청 사진자료의 캡션에 일본거류민단립소학교 교사사택(日本居留民團立小學校 教師舍宅)으로 쓰였던 기록이 있다. 『내각일기』에도 대평동 소재 전 경기감영을 경성거류민단립소학교에 내주는 내용이 있다.⁴⁴⁾

○ 고양군청의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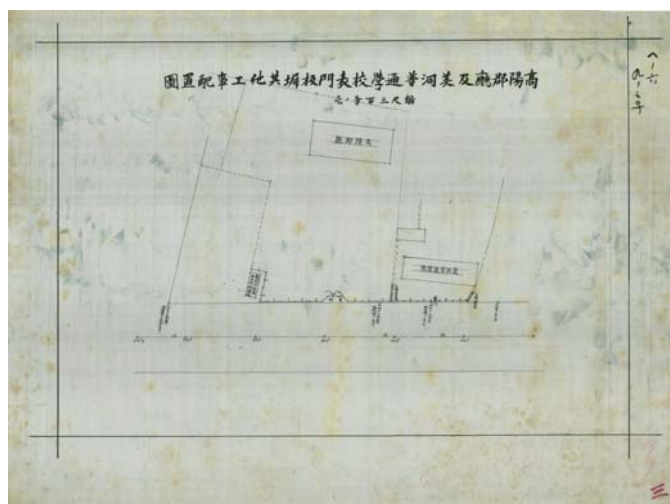
『경성부사』 3권의 구 고양군청 사진자료의 캡션에 따르면 경기감영 터는 1914년부터 1928년까지 고양군청으로 전용되었다. 『경성부사』 2권과 3권에 각각 가로 바깥에서 표문과 함께 촬영한 사진과 표문 안쪽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 선화당 뒤로 보이는 굴뚝은 뒤쪽 대지를 전용하던 적십자병원의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구경기영빈관(舊京畿營賓館), 1914~1928년(『경성부사』 구고양군청(舊高陽郡廳), 1928년(『경성부사』 3권 수록) 2권 수록)

44) "(九月)十五日 西大門外 大平洞所在前京畿監營을 京城居留民團立小學校에 貸下事와 義州邑內國有土地四百二十一坪 及家屋五棟賣下事로度支部에指令하고下午一時에退食하다", 『내각일기』 권11.

국가기록원에는 고양군청의 전용 당시 표문과 담장 공사를 위해 제작된 도면이 남아 있다. 도면에 그려진 대지의 전반적 모습이나 건물 배치에서 경기감영의 건물 대부분이 이미 철거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옛 선화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고양군청”, 우측 하단에 보이는 건물은 “미동보통학교”로 표기되어 있다. 표문이 설계도와 동일한 모습이 위의 『경성부사』 2권 사진에서 확인된다.



고양군청사급미동보통학교표문판벽기타공사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 표문설계도, (추정)1910년대,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192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朝鮮：写真帖』라는 사진첩에는 당시 고양군청의 내부 모습이 확인된다. 사진첩의 발행년을 고려할 때, 당시 고양군청이 옛 선화당 건물을 전용할 당시의 모습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로 이루어진 내부 기둥열과 높은 천장고, 사진에서 확인되는 근대식 입면 창호 등으로 봤을 때 군청사로의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변형된 선화당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고양군청 조선인 관리 집무 상황
(조선총독부, 『朝鮮：写真帖』, 1921)

○ 적십자사의 전용과 신축으로 인한 파괴

1928년 고양군청이 을지로로 이전한 후 경기감영은 『경성부사』 3권의 고양군청 사진 캡션에 따르면 간호부양성소로 전용되다가 적십자사조선본부 건물이 신축되면서 헐리고 만다.

3) 중군영 터의 변화

중군영은 1882년의 임오군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고 만다. 소실된 건물들은 1882년 이후에 작성된 『경기감영각방중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래의 사진은 임오군란이 일어난 지 2년 후인 1884년에 미국인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 중군영과 서지 일대를 촬영한 사진이다.



Site of Japanese Legations where the massacre took place, Percival Lowell, 1884년 촬영, Museum of Fine Arts, Boston Photograph Library 소장

외삼문과 담장, 일부 협문을 제외하면 천연정만이 남고 나머지 건물들이 모두 소실되어 없는 모습이 확인된다. 서지 또한 가물고 연꽃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 퇴락한 모습으로 추정된다. 추사 김정희의 문집에 전하는 「천연정중수기」에 의하면, 천연정은 중군영 건립 이후 1792년에 창건되었다.⁴⁵⁾ 천연정은 중군영의 건물 중에서 임오군란 당시 거의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았다.

45) “亭榭於正宗癸丑” 김정희, 「천연정중수기」, 『완당전집』 권6, 기(記). 천연정은 이해중의 별장으로서 중군영 건립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천연정중수기」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인데, 창건된 지 40여년이 흘렀다는 「천연정중수기」의 내용과 추사의 생몰년으로 볼 때 「천연정중수기」의 ‘계축년’이 오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정의 연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천연정 전경, 『임오계림사변』 (1932)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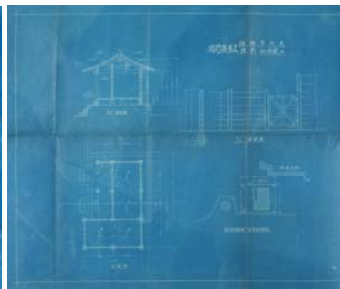


서지와 천연정 전경 林武一 촬영(林龜子, 『朝鮮國真景』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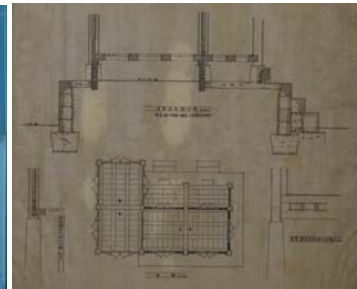
임오군란 당시 옛 경기 중군영 건물과 터는 일본 공사관에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조선 말 조정에서 초대 일본공사 하나부사에게 공사관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천연정 일대는 일제에 의해 임오군란과 관련된 고적으로 조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서적이 발행되고 사진이 전해지며, 당시 작성되었던 보수 도면이 남아 있다.



<경성부 천연정(天然亭) 부지 및 연지(蓮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사 설계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1910-45,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관 문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건축도면 콘텐츠

4) 고마청 터의 변화

앞서 경기감영의 전용 부분에서 제시했던 헤르만 산더 촬영 경기감영 일대의 사진에서, 고마청 터로 추정되는 부근에 서양식 건물 한 채가 들어서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해당 건물은 에스터호텔로 알려진 건물이다. 에스터호텔은 조선식 건물을 전용하여 스테이션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04년경 서양식 건물로 신축하며 그랜드호텔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한 것으로 추정되며, 1905년부터는 에스터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사료에 등장한다.⁴⁶⁾

4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 스테이션호텔(에스터 하우스) 항목.



<한국병영, 러시아 총영사관> 부분, 헤르만 산더 촬영, 1906~1907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이와 비교하여 돈의문 일대의 경관이 넓게 찍힌 사진이 있어 주목할만하다. 아래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진 좌측에는 돈의문에서 경기감영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인다. 사진 상의 길 좌측 끝에는 솟을삼문으로 보이는 문이 있고, 그 앞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사진 우측으로 따라가면 대문과 담장, 내부에 팔작으로 구성된 기와지붕을 한 건물이 보인다. 이 자리가 고마청의 자리라면 이 사진은 1904년경 에스터호텔이 신축되기 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서 돈의문 밖 일대의 옛 모습과 고마청 건물을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된다.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진자료라 할 수 있다.



西大門 附近(2) 전체(상)와 부분(하), 조선사편수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등록번호 : 사자 1431)

II. 돈의문 밖 경기감영 자료 해제

1. 문헌
2. 회화
3. 지도
4. 도면
5. 사진

1. 문헌

1) 문헌사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기 지역 연혁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세종실록』 권148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
관련내용	경기(京畿)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 1인, 수령관(首領官) 1인, 의학 교유(醫學敎諭)·검률(檢律) 각각 1인. 【다른 도(道)도 이와 같다. 】 본래 고구려의 땅이다. 고려 성종(成宗) 14년 을미에 【곧 송(宋)나라 태종(太宗) 지도(至道) 원년(元年). 】 개주(開州)를 개성부(開城府)로 승격시켜 적현(赤縣) 6, 기현(畿縣) 7을 관할하게 하다가, 【고사(古史)에 다만 현(縣)의 수만 기록하고 이름을 적지 아니해서 자세히 상고할 수 없다. 】 현종(顯宗) 9년 무오에 【곧 송나라 진종(眞宗) 대중상부(大中祥符) 11년. 】 개성부를 파하고 개성 현령(開城縣令)으로써 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의 3현을 관할하게 하고, 장단 현령(長湍縣令)으로써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兔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하게 하고,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京畿)라 일렀다. 문종(文宗) 16년 임인에 【곧 송나라 인종(仁宗) 가우(嘉祐) 7년. 】 다시 개성부로 승격시켜 도성(都省)에서 관장하던 11현을 모두 붙이고, 또 서해도(西海道)의 평주(平州)022) 임내(任內)인 우봉군(牛峯郡)을 떼어 이에 붙였으며, 그 후 다시 개성 현령을 두어 개성부에 붙이었다. 【연대는 알 수 없다. 】 공양왕(恭讓王) 2년 경오에 【곧 명나라 태조 고헌제 홍무(洪武) 23년. 】 경기(京畿)를 갈라 좌·우도(左右道)로 하여,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현을 좌도(左道)로, 개성·강음·해평·덕수·우봉을 우도(右道)로 하고, 또 경기(京畿)를 더 넓혀서 양광도(楊廣道)의 한양(漢陽)·남양부(南陽府)·인주(仁州)·안산군(安山郡)·교하(交河)·양천(陽川)·금천(衿川)·과주(果州)·포주(抱州)·서원(瑞原)·고봉현(高峯縣)과 교주도(交州道)의 철원부(鐵原府)·영평(永平)·이천(伊川)·안협(安峽)·연주(漣州)·삭녕(朔寧)으로써 좌도(左道)에 붙이고, 양광도의 부평(富平)·강화부(江華府)·교동(喬桐)·김포(金浦)·통진현(通津縣)과 서	

	해도(西海道)의 연안부(延安府)·평주(平州)·배주(白州)·곡주(谷州)·수안군(遂安郡)·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현(俠溪縣)으로써 우도(右道)에 붙이고, 각기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두고 수령관(首領官)으로써 돕게 하다가, 【4품 이상은 경력(經歷)을 삼고, 5품 이하는 도사(都事)를 삼았다.】 우리 태조(太祖) 3년 갑술에 【곧 홍무 27년.】 도읍을 한양부에 정착하게 되매, 그 이듬해 을해에 평주·수안·곡주·재령·서흥·신은·협계는 새 서울[新都]에 가는 길이 멀므로 도로 서해도에 붙이고, 양광도의 광주(廣州)·수원부(水原府)·양근군(楊根郡)·쌍부(雙阜)·용구(龍駒)·처인(處仁)·이천(利川)·천녕(川寧)·지평현(砥平縣)을 갖다 이에 붙이고, 광주·수원의 관할인 군(郡)·현(縣)을 갈라서 좌도(左道)로 하고, 양주·부평·철원·연안의 관할인 군·현을 우도(右道)로 하고, 7년[戊寅]에 또 충청도(忠淸道)의 진위현(振威縣)을 떼어서 좌도에 붙이었는데, 태종(太宗) 2년 임오에 【곧 홍무 35년.】 두 도(道)를 합하여 경기 좌·우도라 하고, 성관찰사(省觀察使)·수령관(首領官)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3년 계사에 【곧 명나라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 영락(永樂) 11년.】 사방길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연안(延安)·배주(白州)·우봉·강음·토산을 도로 풍해도(豐海道)에, 이천(伊川)을 도로 강원도에 붙이고, 충청도의 여흥부(驪興府)·안성군(安城郡)·양지(陽知)·양성(陽城)·음죽현(陰竹縣)과 강원도의 가평현(加平縣)을 떼어다가 이에 붙이고,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지 않고 다만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라 일컫고 사(司)를 수원(水原)에 두었다. 동쪽은 강원도 춘천(春川)과 원주(原州)에 이르고, 서쪽은 황해도 강음(江陰)과 배천(白川)에 이르며, 남쪽은 충청도 죽산(竹山)과 직산(稷山)에 이르고, 북쪽은 황해도의 토산(兔山)과 강원도 이천(伊川)에 이르러서, 동서가 2백 64리요, 남북이 3백 64리가 된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수원 구영의 혁파와 경기감영의 광주 설치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세종실록』 권120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448년(세종 30) 4월 5일
관련내용	이 앞서 경주(慶州) 인민들이 본부(本府)를 예전 그대로 감사(監司)의 본영(本營)을 삼을 것을 청하므로,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영의정 황희(黃喜)·좌찬성 박종우(朴從愚)·좌참찬 정분(鄭玢)이 말하기를, "삼가 선정(先正) 익재(益齋)의 《난고(亂藁)》009 를 상고하면 이르기를, '동남의 주군(州郡)으로는 경주(慶州)가 크고 상주(尙州)가 다음이 된다.' 하였으나, 사명(使命)을 받든 자가 반드시 먼저 상주(尙州)로 길을 떠나서 뒤에 경주(慶州)에 이르기 때문에, 풍화(風化)의 유행하는 것이 상주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내려갔고, 경주(慶州)를 거쳐서 북쪽으로 온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평안도의 평양(平壤), 전라도의 전주(全州), 강원도의 원주(原州), 황해도의 해주(海州) 등 본영(本營)이 모두 서울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u>지금 경기(京畿)가 이미 수원(水原)의 수백년 구영(舊營)을 혁파하고 광주(廣州)로 옮긴 것은 감사(監司)의 겸임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u> 경상 감사가 상주목(尙州牧)을 겸하면서 겸관(兼官)을 버리고 예전 영(營)에 그대로 있다면 이름과 실상이 서로 어그러질 뿐 아니라, 풍화의 행하는 것이 남쪽으로 말미암아 북으로 오는 것이니, 호령을 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지체되고 늦어질 것 같고, 한 도에 두 영(營)이 있는 것도 또한 체통(體統)의 뜻이 아니옵니다." 하고, 좌의정 하연(河演)·우의정 황보인(皇甫仁)·우참찬 정갑손(鄭甲孫)은 말하기를, "지금 경주(慶州) 인리(人吏)가 가지고 있는 문적을 상고하면 전조(前朝)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주로 본영(本營)을 삼았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고, 또 다른 도의 유수부(留守府), 전주(全州)·평양(平壤)·함흥(咸興) 등 관(官) 같은 것은 모두 본영(本營)이 되는데, 유독 경주(慶州)만 생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것이 없이 갑자기 오래된 본영의 호(號)를 꺾는다면 미편할 듯하옵니다. 요전에 경주가 본영이 되었을 때에도 상주(尙州)로 유영(留營)을 삼아 진상(進上)과 여러가지 공사(公事)를 모두 상주에서 행하였으니, 두 주(州)를 아울러 본영(本營)으로 일컬으소서." 하니, 임금이 연(演) 등의 의논에 따랐다.	
비 고		

제 목	경기 관찰사의 광주 목사 겸임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세종실록』 권120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448년(세종 30) 4월 22일
관련내용	의정부에서 이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도의 감사는 한 방면의 중임인데, 임기가 1년이어서 도내의 폐막(弊瘼)을 고루 알지 못하고 겨우 문서를 행하니 깊이 미편하옵니다. 청하옵건대 <u>여러 도와 양계(兩界)를 모두 만 30삭이 되어야 체임하게 하고, 경상도 상주(尙州), 전라도 전주(全州), 황해도 해주(海州), 강원도 원주(原州), 충청도 청주(淸州), 경기 광주(廣州)는 직질(職秩)에 따라 겸임하고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게 하며, 또 아울러 서울 안의 좌목(座目)에 기록하게 하소서.</u>" 하니, 그대로 따랐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광주는 감사의 본영으로 사무가 번다한 곳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문종실록』 권2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450년(문종 즉위년) 7월 8일
관련내용	광주(廣州)는 감사(監司)의 본영(本營)으로 사무가 번다한 곳인데, 지금 권미(權眉)로 판관(判官)을 삼으니, 그 인품과 서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비 고		

제 목	경기감사의 영평부 주둔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광해군일기』 권131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618년(광해 10) 8월 6일
관련내용	비변사가 아뢰기를, "영평(永平)과 포천(抱川)을 합해서 한 부(府)로 만들고 그대로 감영을 설치하여 북로에 대비하는 것은, 일이 관계된 것이 중하므로 판관만을 내보내서는 안되고 마땅히 감사로서 부윤을 겸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부윤이란 칭호는 반드시 옛 도읍이거나 한때 주필처(駐蹕處)였던 곳인 뒤에야 읍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공주에 감영을 설치할 때 모두 감사로서 목사나 부사의 직임을 겸하게 했습니다. 이번 영평에 새로 설치하는 부도 대도호부(大都護府)라고 칭하여 그 체면을 중하게 해서 본도 감사로서 겸하게 하고, 판관은 이번 정사에서 시종 문관 중에 재망(才望)이 있는 자를 급히 가려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기 감사는 예로부터 도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만약 영평부로 나가 주둔한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매우 염려스러울 것이다. 무신을 부사로 삼을 경우에는 문신 판관을 차출해 보내고, 문신을 부사로 삼을 경우에는 무신 판관을 골라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다시 상의해서 처리하라." 하였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영의정 김창집이 북한에 경기감영 설치를 건의하다.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숙종실록』 권59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17년(숙종 43) 5월26일
관련내용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u>“북한(北漢)은 국가의 보장(保障)의 땅인데 규모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탕춘대(蕩春臺) 또한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저축하고, 또 수문(水門)을 만드는 일을 등한히 버려둘 수 없습니다. 북한은 벼슬이 높은 무신(武臣)을 별장(別將)의 직임으로 차출하였으나, 탕춘대에 이르러서는 아직 주장하는 자가 없으니, 경기 감영(京畿監營)을 여기에 옮겨 설치하여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면, 급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u> 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이 뒤에 조정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아서 옮겨 설치하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비 고		

제 목	탕춘대를 경기감영으로 옮겨 설치하려는 시도	
저 자		
서지사항	서 명	『숙종실록』 권62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18년(숙종 44) 8월 23일
관련내용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함께 들어갔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이유가 말하기를, <u>"북한 산성(北漢山城)은 바로 국가의 대계(大計)를 보존하는 곳이고, 탕춘대(蕩春臺)가 그 밖에서 보호하는 격이 되니, 성을 쌓는 것은 형세로 보아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원컨대 성상께서 신충(宸衷)으로 결단하시어 다른 의논에 흔들리지 마시고, 빨리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에게 명하시어 가서 성지(城址)를 살펴보도록 한 뒤에 기한을 정하여 역사를 시작하게 하소서.</u> 그리고 경리청(經理廳)에서 판비(辦備)한 역사에 필요한 식량은 대강 지용(支用)할 만하나, 전포(錢布)가 부족하니, 청컨대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곳의 영(營)에 저축된 포(布) 및 비국(備局)에서 관할하는 영남(嶺南)의 사군목(射軍木)318) 합계 3, 4백 동(同)을 빌리도록 하고, 겸하여 돈을 만들어 재력(財力)을 보충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u>"탕춘대(蕩春臺)를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는데, 아직도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거듭 신칙(申飭)함이 마땅하겠습니</u> <u>다. 그리고 총융청(摠戎廳)이 소격동(昭格洞)에 있어 창의문(彰義門)과 거리가 편리하게 가까우니, 탕춘대·수문(水門) 일대를 총융청의 신지(信地)로 정하여 총융청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리하며 수호(守護)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마땅하겠습니</u> <u>다. 하니, 임금이 그가 구획(區劃)한 것이 적합하다고 권장하고 모두 허락하였</u> <u>다. 이유(李濡)가 또 말하기를,</u> "우리나라는 1년의 세입(稅入)이 본래 1년의 경비로 쓰기에 부족하므로, 급할 때 믿는 것은 다만 각 고을의 조곡(糶穀)인데, 흉년을 만날 경우에는 그것을 진자(賑資)로 삼고, 병란(兵亂)을 만날 경우에는 군향(軍餉)319) 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재해(災害)를 입은 고을에 분등(分等)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혹 받아들이거나 정지하는 것 또한 재실(災實)의 등급을	

	비교하는데, 그 구년조(舊年條)의 받아들이는 시기를 늦춘 것은 저절로 끌어 미루게 되어 마침내 탕감(蕩減)해 주는 데로 돌아가게 되니, 국가의 곡식이 이로 말미암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먼저 각 고을의 민호(民戶)와 곡물(穀物)의 수량을 가지고 그것을 골고루 알맞게 배정한 뒤에 연조(年條)의 신구(新舊)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바치는 것의 근만(勤慢)을 비교하여 수령의 출척(黜陟)을 시행한다면, 포핍(逋欠)의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신이 임진년(320)에 정승의 직임에 대죄(待罪)하면서 한 책자(冊子)를 만들어 품재(稟裁)를 거치려 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비국(備局)에 보내어 참작하고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의 옳게 여겼다. 제조(提調) 조도빈(趙道彬)이 바야흐로 병조 판서(兵曹判書)의 직임을 맡고서 진달하기를, "본조(本曹)는 물력(物力)이 조잔(凋殘)한데, 군색 낭관(軍色郎官)으로 삼사(三司)에 드나드는 자가 많아 옮기거나 임명하는 일이 일정함이 없어 수습(收拾)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구임(久任)(321) 시키는 규정을 정하여 그 성과를 책임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 뒤로는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해당 낭관을 자벽(自辟)(322) 하여 3, 4년을 한정해서 옮기지 못하게 하되, 만약 거의(舉擬)를 면하지 못하면, 군색(軍色)으로 주(註)를 달아 들여보내도록 명하였다. 이 뒤로 성을 쌓는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시작하였다가 도로 중지시켰으며, 돈을 만들고 영(營)을 옮기는 등의 일도 모두 점차로 중지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조곡(糶穀)을 균등하게 배정하는 일 및 병조 낭관(兵曹郎官)을 구임(久任)시키는 일도 시행되지 않았다.
비 고	

제 목	군영을 옮기는 폐단(경기감영)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숙종실록』 권62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18년(숙종 44) 윤8월 3일
관련내용	정언(正言) 유복명(柳復明)이 상서(上書)하였는데, (중략) 세째 군영(軍營)을 옮기는 폐단을 논하였는데, 이르기를, “경기 감영(京畿監營)을 서울 안에 설치한 전배(前輩)들의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옮겨서 세우는 것이 아무리 편리하고 물력(物力)이 아무리 넉넉하다 하더라도 일을 도모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염려해야 합니다. 더구나 편리하다 편리하지 않다는 의논이 벌써 갈래가 지고 간섭하여 제지하는 일이 도리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다시 깊이 헤아려보지 않고 반드시 경솔하게 옮기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줄임)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경기감영을 옮기는 일이 시행되지 않음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숙종실록』 권62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18년(숙종 44) 윤8월 5일
관련내용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연(金演)이 상서(上書)하여 감영(監營)을 옮기는 것이 불편함을 말하니, 세자(世子)가 묘당(廟堂)에 내렸는데, 마침내 시행되지 않았다.	
비 고		

제 목	경기감영을 북한산성으로 옮기는 일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영조실록』 권39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34년(영조 10) 11월 5일
관련내용	(줄임) 각사(各寺)의 승도(僧徒)는 각 고을에 나눠 보내어 군액을 보충하게 하고, 강도(江都) 부근의 연변(沿邊) 고을은 모두 강도에 소속시켜 평일에는 그 절제(節制)를 받게 하고 변란이 있을 때에는 모두 성중(城中)에 들어와 지키게 하며, 진로(津路)의 정보(城堡)는 각별히 유의(留意)하여 수축하고, 경기 감영(京畿監營)은 북한산성(北漢山城)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줄임)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경기감영 선화당에 왕이 머무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영조실록』 권87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56년(영조 32) 3월 24일
관련내용	임금이 용복(戎服) 차림으로 빈양문(賓陽門)을 나서 의소묘(懿昭墓)에 거동하였다. 환궁(還宮)할 때 돌아오는 길에 경기 감영의 선화당(宣化堂)에 임하여 외읍(外邑)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뜰에 들어온 자들이 어느 고을의 백성인가를 묻자, 기백(畿伯) 이종백(李宗白)이 대답하기를, "고양(高陽)과 부평(富平)의 백성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평의 백성이 어찌 그리 많은가?" 하니, 이종백이 말하기를, "이전곡(移轉穀)을 받기 위해 남한 산성으로 갔으나, 유수(留守)가 주지 않았으므로 낭패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하였다. (줄임)	
비 고		

제 목	영조의 경기감영 역림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영조실록』 권91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58년(영조 34) 4월 4일
관련내용	임금이 의소묘(懿昭墓)에 거둥하였다. 임금이 포용복(布戎服)을 갖추고, 말을 타고서 묘소(墓所)에 나아갔다. 안윤행(安允行)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회란(回鑾)할 때에, 경기 감영(京畿監營)과 화완(和緩)·화유(和柔) 두 옹주 집을 역림(歷臨)하였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경기감영 앞길에 막차 설치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영조실록』 권111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68년(영조 44) 8월 14일
관련내용	임금이 보련(步輦)으로 돈의문(敦義門)에 나가서 막차(幕次)를 경기 감영(京畿監營)의 앞길에 설치하고 명릉(明陵)을 봉심(奉審)하는 중관(中官)을 기다렸다가 중관이 복명(復命)하자 비로소 환궁하였다.	
비 고		

제 목	지방 징수 폐단과 인재 등용, 과거제, 국방 전반에 대한 윤면동의 상소문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정조실록』 권6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78년(정조 2) 7월 20일
관련내용	지금 우리 도성은 또한 평야(平野)에 세운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이처럼 지키기가 어려우니, 바로 이 방법을 써야 마땅합니다. 기영(畿營)을 홍제원(弘濟院)의 평탄한 곳으로 옮겨 설치하게 하고, 녹변현(綠邊峴)과 홍제천(弘濟川) 수구(水口)의 바위가 험준한 곳에 작은 성을 견고하게 쌓는다면, 모화현(慕華峴) 한쪽에는 성을 쌓지 않아도 또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있게 됩니다. 총영(摠營)을 혁파하고 그 군사들은 기영에 예속시켜 한북문(漢北門)의 길과 안현(鞍峴) 및 등고현(登高峴), 우수현(禹壽峴), 동문(東門) 밖을 방어하게 하고, 왜유현(倭踰峴)·안암동(安巖洞), 봉래산(蓬萊山) 등지에 각각 하나의 작은 성을 축조하면, 모두 합쳐서 5, 6개에 지나지 않아 3리도 못되는 작은 성이지만, 높은 지형을 이용하여 요새를 만들고 백성을 모집하여 들어가서 거처하게 한 다음 각각 창고를 설치하여 칠강(七江)과 부내(部內)의 인민들이 난리를 당하였을 적에 입보(入保)할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성은 인왕산(仁王山)·북악산(北岳山)·타락산(駝駱山)·목멱산(木覓山) 등 이 네 산의 위에 각각 일대(一隊)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정기(旌旗)를 벌여 세워 놓게 하고, 성 안의 각방(各坊)에는 시가전(市街戰)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미리 준비해 놓게 한다면, 사방의 성문을 밤새도록 활짝 열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적군도 또한 매우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 산성과 탕춘영(蕩春營)을 증축해서 강창(江倉)의 미곡(米穀)을 모두 그 안에다 실어다 놓고 온 도성의 사람들이 입보(入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성 밖의 여러 작은 성이 격파되지 않는다면 도성은 범접할 수 없고, 도성이 격파되지 않는다면 탕춘·북한을 또한 감히 갑자기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정전법(井田法) 식으로 성을 지킨다는 말과 서로 똑같은 것입니다. 파주 목사는 고을을 혜음령(惠陰嶺) 위로 옮기고 양주 목사는 고을을 홍복 산성(洪福山城)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북한 산성을 밖에서 가로막도록 하되, 기영(畿營)에서 총괄하여 통제하게 함으로써 서북쪽을 막아야 합니다. 수원(水原)의 병마(兵馬)는 수영(守營)에 예속시켜 동남쪽의 길을 막게 하고, 또 심도(沁都)의 해방(海防)과 더불어 사면을 둘러서 막게 하면서 각성(各城)이 공동으로 지키게 한다면, 인심에 동요하지 않게 되어 서울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곳으로 여기게 되고, 굳게 지키면서 버티어내어 근왕(勤王)의 군사나 의사(義士)의 군대를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어가수행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정조실록』 권28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89년(정조 13) 10월 4일
관련내용	하교하기를, “어가를 수행하는 이외의 영문(營門)은 모두 영여(靈輿)의 선상(先廂) 앞에서 제각기 그 대장이 기고(旗鼓)를 거느리고 전도(前導)하라. 나루터에 이르러 벌려 서서 건널 때에는 부교(浮橋)의 좌우에서 영여(靈輿)를 끼고 영도(迎渡)하라. 이렇게 하자면 용호영(龍虎營)의 기고를 별장(別將)에게만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니, 병판(兵判)이 별장과 더불어 거느리고 거행하라. 장용영(壯勇營)과 경기 감영(京畿監營)이 함께 도가(導駕)하되, 수레를 맞이하여 영문(營門)에 들어서면 기고(旗鼓)는 마땅히 좌우로 갈라 각기 4대(隊)를 만들되, 경기 감영과 수어청은 앞에 서고, 어영청과 총융청이 그 다음에 서며, 훈련 도감·금위영의 두 영(兩營)과 장용영·용호영이 뒤에 있으면서 분열(分列)을 하라. 이로써 약속을 하여 혹시라도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고, 영가(靈駕)의 숙소(宿所)와 주정소(晝停所)에서의 취라(吹螺)와 문을 열고 닫거나 물을 건널 때의 취타(吹打)는, 신해년의 예에 따라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조상식·주다례·석상식·석전을 정해진 법식대로 몸소 행하였고, 재궁의 결과(結褵)를 거행하였다.	
비 고		

제 목	정조의 경기감영 거동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정조실록』 권39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794년(정조 18) 4월 13일
관련내용	경기 감영에 거동하다 경기 감영에 거동하였다. 상이 간편한 가마를 타고 궁궐을 나와 경기 감영에 도착하여서는 명하여 각 군영의 군사들로 감영의 담장 밖을 빙 둘러싸고 호위하면서 안팎의 문을 파수하여 뒤쫓아오는 백관들을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일본대사의 관소를 기영으로 삼음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고종실록』 권21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시 기	1884년(고종 21) 11월 17일
관련내용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일본 대사(日本大使)가 머물 관소(館所)는 기영(畿營)으로 하고,海道(該道)의 도신(道臣)은 우선 신영(新營)으로 이접(移接)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비 고		

제 목	전패를 경기감영의 객사에 임시 봉안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승정원일기』 139책
	소 장 처/DB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시 기	1894년(고종 31) 10월 11일
관련내용	○ 조영구가 의정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서산군(瑞山郡) 예리(禮吏)가 전패(殿牌)를 지고 와서 해당 고을에서 비류(匪類)가 변란을 일으켜 군수(郡守) 박정기(朴錠基)는 살해를 당하고 관청 건물은 완전히 불타 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적의 기세가 창궐하여 수령을 죽인 것만도 지극히 통분하고 놀라운 일인데 전패를 옮겨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황송합니다. <u>전패는 우선 경기감영(京畿監營)의 객사(客舍)에 임시로 봉안하겠습니다.</u> 전 안성 군수(安城郡守) 성하영(成夏泳)은 지난날 논파(論罷)된 뒤에 연거푸 비류를 소탕하여 자못 드러난 성과가 있으니 특별히 용서하고 서산 군수(瑞山郡守)로 차하하여 편리한 길로 즉시 부임하게 하여 거느리고 있는 중앙 군사를 그대로 나누어 거느리고 빠른 시일 내에 비류를 소탕하도록 순무영(巡撫營)에서 삼현령(三懸鈴)으로 통지하게 하며, 해당 군수를 구출해 주는 은전(恩典)은 도신의 계사를 기다려서 다시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한성부 등을 전동의 새로 정한 가옥으로 이접하라는 조령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승정원일기』 140책, 고종 38년 3월 27일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
관련내용	한성부 등을 전동의 새로 정한 가옥으로 이접하라는 조령 ○ 조령을 내리기를, “한성부(漢城府)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를 전동(典洞)의 새로 정한 가옥으로 이접(移接)하고, 불러 올린 평양 제2대대(平壤第二大隊)가 머물 장소를 한성부로 옮겨 정하라.” 하였다.	
비 고		

제 목	한성부 등은 전 기영의 빈관을 함께 쓰라는 조령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승정원일기』 140책, 고종 39년 3월 9일.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
관련내용	한성부 등은 전 기영의 빈관을 함께 쓰라는 조령 ○ 조령을 내리기를, “한성부와 한성재판소는 전 기영(畿營)의 빈관(賓館)을 함께 써서 그대로 머물고, 불러올린 평양(平壤) 제2대대가 주둔할 곳은 해부(該府) 안에 나누어 정하라.” 하여라.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정조의 경기감영 경숙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국역일성록』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781년(정조 5) 9월 23일
관련내용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전(前) 직제학 정민시(鄭民始), 병조 판서 이성원(李性源), 승지 조시위(趙時偉)·서유방(徐有防)을 소견(召見)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가전(駕前)으로서 철전(鐵箭)의 거안(擧案)을 낸 사람은 모두 몇이나 되는가?” 하니, 조시위가 아뢰기를, “40인이고, 기추(騎藹)와 편전(片箭)도 40인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응시자가 총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니, 조시위가 아뢰기를, “1000인이 넘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u>“하루 안에 시험을 끝낼 수 없을 듯하니, 경기 감영에서 경숙(經宿)해야 하겠다. 이미 선조(先朝)의 옛 규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고, 수리(修理)하는 등의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분부하라.”</u> 하였다. 이성원이 아뢰기를, “기추의 마로(馬路)를 또한 세마평(洗馬坪)에다 닦는다면 쉽게 끝낼 수 있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터를 잘 살펴 거행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병판은 먼저 물러가서 시기(試記)를 수정하여 들이라.” 하였다. 서유방이 아뢰기를, <u>“모래 기백(畿伯)이 제관(祭官)으로 본영(本營)에 있지 않을 것이니, 서로 방해되는 일이 있을 듯합니다.”</u>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 자손 때문에 전에 이미 하교했다. 그렇다면 서로 방해될 점이 없지 않을 듯한데, 자손 가운데 혹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문관 중에는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u>“기영(畿營)에 빙 둘러 에워싸는 곳이 있는가?”</u>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병판이 정원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세마평에 또한 마로를 낸다면 하루 안에 시험을 끝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주서는 나가 정원에 가서 물어 보고 아뢰라.” 하니, 이조승(李祖承)이 돌아와 아뢰기를, “세마평의 마로를 지금 한창 닦고 있는데, 비록 두 마로가 있다 하더라도 응시한 사람이 매우 많으므로 시험을 끝내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마로를 닦을 때 역인(役人)의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마로는 그 만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기영의 수개(修改)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국역일성록』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787년(정조 11) 12월 16일
관련내용	내가 이르기를, <u>“개건(改建)하는 것은 또한 자연 담당하고 나설 자가 있을 것이다. 현재 기영(畿營)이 수개(修改)되어 아주 새로워졌다. 나는 기백(畿伯)이 이러한 일에 대해 원래 데면데면한 줄 알았는데 확연히 아주 새롭게 만들어 놓았으니, 또한 성실과 근면의 소치이다. 게다가 기영의 군용(軍容)도 아주 새롭게 다듬어졌다고 한다.”</u> 하였다.	
비 고		

제 목	경기감영의 선화당(주필 행전으로 사용)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국역일성록』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788년(정조 12) 9월 2일
관련내용	때가 되어 용복(戎服)을 갖추고 여(輿)를 타고 협양문(協陽門)을 나가 여에서 내려 말을 타고 돈화문(敦化門)을 거쳐 돈의문(敦義門)을 나갔다. 하교하기를, <u>“오늘 군문(軍門)에 들어갈 때에 주필(駐蹕)할 행전(行殿)은 경기 감영으로 하라.”</u> 하였다. 이어 기영(畿營)에 들러 선화당(宣化堂)에 나아갔는데 창문이 모두 잠겨 있어서 곧바로 활짝 열지 못했다. 경기 감사 홍수보(洪秀輔)를 기과(記過)하라고 명하였다. 또 기영(畿營)의 교련관(敎鍊官)을 잡아 오라고 명하고, 물러나라고 분부하였다. 또 기영의 전배는 가전에 배립(排立)하라고 명하였다. 신전(信箭)으로 경기 감사를 명초(命招)하여 본영(本營)의 장교(將校)와 전배에 대한 시기(試記)를 만들어 세마평(洗馬坪)의 시소(試所)에 이부(移付)하되, 장교의 경우는 유엽전(柳葉箭) 1순(巡)으로 하고, 군병의 경우는 조총(鳥銃) 1순으로 시취(試取)하게 하였다. 관풍각(觀風閣)으로 이어(移御)하여 신전을 훈련대장에게 지수(祗受)하게 하였다. 금군 별장, 장용영의 병방(兵房), 후상(後廂)의 천총, 별대 마병, 가전(駕前), 가후(駕後)가 먼저 모화관(慕華館) 단(壇) 아래에 나아가 찰주(札駐)하였다. 훈련대장이 마군과 보군을 거느리고 단 아래 오른편에 찰주하였고, 중군(中軍)이 전배를 거느리고 석교(石橋) 왼편에 배열하여 작문(作門)하였으며, 후상의 보군 4초가 중군이 거느린 전배의 미국(尾局)에 환위(環圍)하여 서로 잇닿고, 장용영의 병방이 장용위, 선기대, 별대의 마병 및 보군을 거느리고 단 아래 왼편 영은문(迎恩門) 앞길에 찰주하였으며, 금군 별장이 금군을 거느리고 단 아래 건너편에 찰주하였다. 가전과 가후는 장용위의 두국(頭局)에서 봉둔(蜂屯)을 만들었다. 수어사(守禦使) 김종수(金鍾秀), 총융사(摠戎使) 조심태(趙心泰), 경기 감사 홍수보(洪秀輔)가 전배를 거느리고 석교의 작문 밖에서 좌우로 나누어 무릎 꿇고 맞이하였다. 병조 판서 이문원(李文源)이 관풍각 앞에서 주필하기를 무릎 꿇고 계청(啓請)하였다. 선전관(宣傳官)이 일어나라고 명하자 소리에 응하여 물러났다. 병방 승지(兵房承旨)가 신전을 받기를 청하여 선전관에게 주었다. 선전관이 신평(信砲) 세 발을 발사하기를 무릎 꿇고 계품하여, 지구관(知穀官)에게 방포(放砲)하라고 명하였다. 또 징을 두 번 쳐서 대취타(大吹打)하기를 무릎 꿇고 계품하여, 정수(鉦手)에게 징을 치라고 명하였다. 내가 말을 타고 경기 감영에서 나가 석교 밖으로 나아가니, 병조 판서가 주필하기를 무릎 꿇고 계청하였다. 선전관이 일어나라고 명하자 응하여 물러났다. 선전관이 징을 세 번 쳐서 취타(吹打)를	

	그치기를 무릎 꿇고 계품하여, 정수에게 징을 그치라고 명하였다. 장용영이 방포하고 천아성(天鵝聲)을 불어 기를 흔들고 함성을 모두 세 차례 지르고 징을 그쳤다. 선전관이 징을 두 번 쳐서 대취타하기를 무릎 꿇고 계품하였다. 내가 원문(轅門)을 거쳐 단상(壇上)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장용영의 병방, 훈련대장, 금군 별장, 수어사, 총용사, 어영대장, 경기 감사가 무릎 꿇고 맞이하여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수행(隨行)하여 단하(壇下)에 이르렀다. 단상에 이르려고 하자 나(鑼)의 가장자리를 쳐서 기치(旗幟)를 좌우로 나누어 세우고 징을 세 번 쳐서 취타를 그쳤다. 내가 단에 오르자 황문 기수(黃門旗手)가 깃대를 교차시켜 작문을 하였다. 병조 판서가 소개문(小開門)하기를 무릎 꿇고 계청하였다. 선전관이 일어나라고 명하자 응하여 물러났다. 선전관이 징을 두 번 쳐서 소취타(小吹打)하기를 무릎 꿇고 계품하여, 정수에게 징을 치라고 명하였다. 징을 쳐서 취타를 그쳤다. 병조 판서, 장용영의 병방, 선전관이 먼저 참현례(參現禮)를 행하였고, 군뢰(軍牢), 순시수(巡視手), 내취(內吹) 등이 반열을 나누어 머리를 조아렸다. 선전관이 일어나라고 명하자 응하여 물러났다. 병조 판서가 승단포(陞壇砲)를 발사하기를 무릎 꿇고 계품하였다. 선전관이 일어나라고 명하자 응하여 물러났다. 선전관이 승단 호령(陞壇號令)하기를 무릎 꿇고 계품하여, 지구관에게 신포 세 발을 발사하라고 명하였다. 징을 두 번 쳐서 대취타하였다. 뇌자(牢子)가 큰 소리로 세 번 외치고, 뇌자 한 사람이 나아가 무릎 꿇고 ‘개문(開門)’이라고 크게 소리치자, 기수(旗手)가 소리에 응하여 기를 휘두르며 물러났다. 훈련대장, 어영대장, 수어사, 총용사, 경기 감사, 금군 별장, 마병 별장(馬兵別將), 천총, 파총, 초관이 차례대로 참현례를 행하였다. 선전관이 신지(信地)로 돌아가게하기를 무릎 꿇고 계품하였다. 취타하고 정수가 징을 치자 각 영(營)의 군병이 모두 흩어져 나갔다. 시관 이성원(李性源)·정호인(鄭好仁)·이한태(李漢泰)·임시철(林蓍詰)·이격(李格)·이동선(李東善)·이겸회(李謙會), 분소(分所)의 시관 채제공(蔡濟恭)·김상집(金尙集)·조심태·이철모(李喆模)·박종화(朴宗和)와 서유봉(徐有鳳)이 행례(行禮)하였다. 승지 홍인호(洪仁浩)는 분소의 시관과 함께 세마평에 가서 시취하되, 가전과 가후의 선기대는 차례대로 장전(帳殿) 앞에서 응사(應射)하고, 무예별감(武藝別監), 장용영 보군의 포방은 분소에서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다. 기추(騎蓐)의 과녁을 설치하라고 명하니 가전과 가후의 선기대가 응시(應試)하였다. 또 육량(六兩)의 방패(防牌)를 100보(步)의 거리에 설치하라고 명하니 장용영의 병방, 별군직(別軍職), 선전관 및 철전의 원사(遠射)에 자원한 사람이 응사(應射)하였다. 또 마상 별기(馬上別技)를 설행하라고 명하니 별군직, 선전관, 가전과 가후의 선기대가 자원하여 별기(別技)에 응시하였다. 또 마상재(馬上才)와 교전(交戰)을 설행하니 선기대 및 무예별감이 자원하여 응시하였다. 별도로 별예(別藝)를 설행하니 별감(別監)이 보기(步技)에 응시하였다. 병판(兵判), 훈련대장, 금위대장, 어영대장 및 수어사, 금군 별장은 유엽전 1순을 응사하라고 명하였다.
비 고	

제 목	서성 밖의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기영 행랑으로 번짐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국역일성록』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797년(정조 21) 5월 3일
관련내용	강 포도대장 유효원(柳孝源)에게 서용(敍用)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고, 경기 감사 이재학(李在學)을 추고하였으며, 한성부 판윤 김문순(金文淳)을 엄하게 추고하였다. 이어 좌변포도대장 이한풍(李漢豐)이 우변포도청의 일을 겸하여 살피라고 명하였다. 목 ○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지난밤에 서성(西城) 밖의 민가에 불이 나 불길이 기영(畿營)의 바깥 행랑 몇 칸에까지 번졌는데도 포도청이 금도 단자(禁盜單子)를 오늘 청좌(廳坐) 때 비로소 와서 바쳤다고 하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포도대장에게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야, 전교하기를, “화재를 단속하는 법은 지극히 엄하다. 포도대장과 장신(將臣)은 모두 용복(戎服)이나 군복(軍服) 차림으로 달려가 구제하고 도적을 단속한 상황을 포도청에서 보고하는 일은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근래에는 전날 밤에 도적을 단속한 상황을 늘 청좌 때 단자를 바치고 있으니, 크게 잘못된 규례이다. 앞으로는 엄히 신칙하고 옛 법대로 회복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그리고 잘못된 규례를 따른 것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잘못임을 깨닫게 된 뒤인 만큼 엄한 처분이 없을 수 없다. 해당 포도대장을 파직하는 것은 가벼운 듯하니,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라. 기영도 영문(營門)이다. 바깥 행랑이 공당(公堂)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성 문과 지척인 지점인데 어찌 보고하는 장계 한마디조차 올리지 않았단 말인가. 해당 도신도 추고하라.”하였다. ○ 승지 홍인호(洪仁浩)가 아뢰기를, “성 안팎의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실화 단자(失火單子)는 즉시 작성하여 바쳐야 하는데 지난밤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실화 단자를 오늘 청좌가 파한 뒤에야 비로소 와서 바쳤으니, 매우 지체하고 소홀히 한 것입니다. 해당 한성부 당상을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야, 그대로 따랐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都提調 金昌集이 입시하여 京畿監營을 北漢山城 蕩春臺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국역비변사등록』 70책
	소 장 처/DB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시 기	1717년(숙종 43) 5월 27일
관련내용	이 달 26일 약방에서 입진, 입시하였을 때에 도제조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은 국가의 보장(保障)이 되는 곳으로 규모가 이미 잡혔으므로 탕춘대(蕩春臺)에도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하고 수문(水門)도 설치하였는데 더러는 탕춘대는 긴요하지 않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이미 설치한 뒤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의 일로만 보더라도 도하(都下)와 기읍(畿邑)에서는 이 창고의 곡식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u>산성 내외의 모든 일은 경리청(經理廳)의 도제조와 제조가 주관하고 북한산성은 품계가 높은 무신으로서 별장의 소임에 차출하였으나 탕춘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창고가 있는 곳이 더없이 허술합니다.</u> 혹자는 총융청을 옮겨 두자는 논의도 있기는 하나 총융사는 본래 성을 지키는 소임이 아니므로 가벼이 논의할 수 없을 듯합니다. 만일 경기감영을 이곳에 이설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한다면 완급이 있을 때에 필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병자란에 경기감사가 담당 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낭패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이와 같이 변통한다면 일도 매우 편리하고 좋겠으며 감영을 옮기는 일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비 고		

제 목	京畿監司로 하여금 造紙署 근처에 京畿監營을 옮기게 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啓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국역비변사등록』 70책
	소 장 처/DB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시 기	1717년(숙종 43) 6월 3일
관련내용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달 26일 약방에서 입진, 입시하였을 때에 도제조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의 규모가 이미 갖추어졌으므로 탕춘대(蕩春臺)에 창고를 설치하고 곡식을 저장하였으며 수문(水門)도 설치한 것인데 혹은 탕춘대가 긴요치 않다고 말하기도 하나 한번 설치한 뒤에는 버릴 수 없습니다. 금년의 일로만 보더라도 도하(都下)와 기읍(畿邑)에서는 그곳 창곡(倉穀)에 힘입는 바가 많았습니다. <u>산성 안팎의 일은 경리청(經理廳)에서 관할하고 북한산성은 품계가 높은 무신을 별장으로 삼고 있으나 탕춘대만은 아직까지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 창고가 있는 곳이 더없이 허술합니다.</u> 혹 총융청을 그곳으로 옮기자는 논의도 있으나 총융사는 본래 성을 지키는 소임이 아니므로 가벼이 논의할 수 없을 듯합니다. 경기감영을 만일 그곳으로 옮겨 범사를 주관하게 한다면 완급이 있을 때에 필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병자란에 경기감사는 근거지가 없어 결국 낭패를 면치 못하였는데 지금 이와 같이 변통한다면 일이 몹시 편리하고 좋겠으며 감영을 옮기는 일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품쳐하게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묘당으로 하여금 품쳐하게 하라신 명을 내리셨습니다. 탕춘대에는 이제 이미 창고를 설치하고 수문도 만들었으니 아무리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가벼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총융사가 청사를 옮겨 상주하면서 수어(守禦)할 수 없다면 하나의 아문을 두어 수호하게 하여야 합니다. <u>경기감영은 시장 가의 비좁은 곳에 있어 외방 영문(營門)의 모양을 지니지 못하였으므로 평상시에도 너무 불편한 것 같았고, 난리를 만나면 방황하여 의지할 바가 없었음은 지난 일로 족히 징험할 만합니다.</u> 지금 탕춘대에 옮겨서 설치하면 사세에 대처함에 타당하다 할 것이니 민호(民戶)를 많이 모집하여 일이 있으면 북성(北城)에서 응접하게 하고 평일에는 창고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 양편할 것 같습니다. 즉시 경기감사로 하여금 미리 처리하여 조지서(造紙署) 근처에 감영을 옮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行判中樞府事 李濡가 入侍하여 京畿監營을 蕩春臺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를 거행치 않는 監司를 申飭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국역비변사등록』 71책
	소 장 처/DB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시 기	1718년(숙종 44) 8월 25일
관련내용	지난 23일 약방에서 입진, 입시하는데 행판중추부사 이유(李濡)가 같이 입시하였을 때에 아뢰기를 "경기감영(京畿監營)을 탕춘대(蕩春臺)로 옮길 것을 대신이 일찍이 결정하였으나 그때의 감사 유집일(兪集一)이 병으로 교체된 뒤에 앞 뒤 교대한 감사가 모두 거행치 않았습시다. 비록 연달아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대체로 그 뜻은 편하지 못하다하여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소견은 비록 각각 다르나 성명(成命)이 있는데 무단히 곧 거행하지 않음은 일의 성격으로 보아 어찌 미안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농사는 약간 풍년입니다. 또 들으니 유집일이 재임할 때에 경영한 재력과 쌀과 돈이 적지 않아 족히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다시 미룬다면 역시 이를 희망이 없으니 조정에서 다시 신칙하는 것이 옳습시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감영(監營)을 옮기라는 명령이 내린 뒤에 곧 거행치 않으니 일의 체통으로 보아 미안스럽다. 아뢴 바에 의하여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말이 지리하고 번거로워 문답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감히 모두 아뢴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모두 아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비 고		

제 목	경기감영을 경성거류민단립소학교 대여	
저 자	이왕직실록편찬회	
서지사항	서 명	『내각일기』 11책
	소 장 처/DB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시 기	1908~1909
관련내용	(九月)十三日 十三日月曜[주:陰七月二十九日]晴 (줄임) 勅令案 隆熙三年度歲出入摠預算追加及特別會計歲 出入預算追加案과西大門外前京畿監營을京 城居留民團立小學校에貸與案과 內閣總理大臣請議로日本國陸軍憲兵少佐 肥 田程三郎 敍勳案과前稅關主事 松田豊敍勳案 과 內部大臣請議로突山郡守吳克善外二人依免 案에對하야并異議가無하야標題可決하고摠 理大臣이閉會하디다[주:內閣書記官長韓昌洙(章)內閣書記官金明秀(章)]公 (줄 임)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경기감영을 경성거류민단립소학교 대여	
저 자	이왕직실록편찬회	
서지사항	서 명	『내각일기』 11책
	소 장 처/DB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시 기	1908~1909
관련내용	(九月)十五日 十五日水曜[주:陰八月初二日]陰 上午十時에仕進 ㅎ야陸軍武官學校廢止時期 에關 ㅎ 勅令案已經閣議事로統監府에照復 ㅎ고駐京 佛國總領事씨요제후썩란敍勳事로書記官長 으로 ㅎ여곰表勳院에通知케 ㅎ다馬山前日本 居留地隣接地買收地段前面埋築使用地他處 不爲許可事로內農兩部에照會 ㅎ고西大門外 大平洞所在前京畿監營을京城居留民團立小 學校에貸下事와義州邑內國有土地四百二十 一坪及家屋五棟賣下事로度支部에指令 ㅎ고 下午一時에退食 ㅎ다	
비 고		

제 목	경영고의 소실	
저 자	조경남(趙慶男, 1570~1641)	
서지사항	서 명	『속잡록』 권2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627년(인조 5)
관련내용	2월 9일 오랑캐 차사 유해(劉海)가 강홍립·박난영(朴蘭英)과 함께 개성(開城)·풍덕(豐德)을 경유하여 행재소로 들어갔다. 이 보고가 오자 도성에서는 적병이 이미 육박해 왔다고 여겨 일시에 달아나 무너지니, 김상용(金尙容)은 급히 부하 군사를 시켜 쌀과 포목이 들어있는 어고(御庫), 병·호조의 대창(大倉)·선혜청(宣惠廳)·경영고(京營庫) 등 여러 창고에 불을 질러 국가의 저장물이 거의 탕진되었다. 그리고는 상용이 곧장 행재소로 달아났다. 노량진 가에 양곡 천여 석이 있었는데 역시 다 유실되고, 여인길(呂裨吉)이 배 두어 척을 거두어 겨우 2백여 석을 싣고 갔을 뿐이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경기감영에서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는 노정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산릉도감의궤』 1책
	소 장 처/DB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시 기	1724년(경종 4) 9월 12일
관련내용	甲辰九月十二日戶曹了 爲相考事摠護使教是分付內明日曉頭自獻陵 離發京圻監營朝飯新院站中火順陵宿所是在 果京圻門外元無出站之規故前行時驛人馬盡爲 飢餒顛仆路中地步亦未免飢餒今番則明日內必 欲抵順陵人馬飢餒勢必狼狽堂上家及中使家 員役家各令所帶衙門知委地官家各送本曹役人 詳細知委朝飯必及辰初來待於圻營爲於驛人馬 數馬五十匹驛人一百二十五人每馬太三升粥田 米二升每人米一升式支計上下別定解事書吏及 使令預爲待令爲有如可到人分饋難發之地俾無 未及之弊宜當向事	
비 고		

제 목	왕이 모화관에 이르러 서충대(瑞蔥臺) 시사(試射)를 행하고 경희궁(慶熙宮)으로 돌아옴(경기감영 석교 앞)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 1책
	소 장 처/DB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시 기	1788년(정조 12) 9월 2일
관련내용	戊申九月初二日 詣郊館行瑞蔥臺試射還慶熙宮 壯勇營假兵房柳孝源率旗鼓前排及左右中司把總申鴻周鄭學畊善騎將姜世重壯勇衛五千三人善騎隊一哨步軍哨官丁彙泰趙彥彬鄭重赫步軍三哨爲欄後駕前駕後一百人分先後廂作隊別隊馬兵別將李應赫率前排及哨官李天 晟別隊馬兵一哨分先後廂作隊御前前排內吹招搖旗大旗幟擺列於駕前時至具戎服乘輿出協陽門降輿乘馬由敦化門出敦義門教曰今日入軍門時駐蹕行殿以京畿監營爲之仍歷臨畿營御宣化堂窓戶皆鎖不卽洞開命京畿監司洪秀輔記過又命拿入畿營教鍊官分付退出又命畿營前排排立于駕前以信箭命招京畿監司本營將校前排修試記移付洗馬坪試所校則柳葉箭一巡軍則烏銃一巡使之試取移御觀風閣以信箭祇受於訓練大將禁軍別將壯勇營兵房後 廂千總別隊馬兵駕前駕後先詣慕華館壇下札駐而訓練大將率馬步軍兵壇下右邊札駐中軍率前排石橋左邊擺列作門後廂步軍四哨環圍相連於中軍前排尾局壯勇營兵房率壯勇衛善騎隊別隊馬兵及步軍札駐於壇下左邊迎恩門前路禁軍別將率禁軍札駐於壇下越邊駕前駕後作蜂屯於壯勇衛頭局守禦使金鍾秀摠戎使趙心泰京畿監司洪秀輔率前排石橋作門外分左右跪迎兵曹判書李文源於觀風閣前跪啓請駐蹕宣傳官命起來應聲退兵房承旨請受信箭 以授宣傳官宣傳官跪啓稟放信砲三聲命知穀官放砲又跪啓稟鳴金二下大吹打命鉦手開金予乘馬出自京畿監營詣石橋外兵曹判書跪啓請駐蹕宣傳官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鳴金三下吹打止命鉦手止金壯勇營放砲吹天鵝聲點旗吶喊共三次止金宣傳官跪啓稟鳴金土下大吹打予由轅門將詣壇上壯勇營兵房訓練大將禁軍別將守禦使摠戎使御營大將京畿監司跪迎候過卽隨行到壇下將至壇上鳴鑼邊旗幟分立左右鳴金三下吹打止予陞壇黃門旗手叉捍 作門兵曹判書跪啓請小開門宣傳官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鳴金二下小吹打命鉦手開金鳴金吹打止兵曹判書壯勇營兵房宣傳官先行參現軍牢巡視手內吹等分班叩頭宣傳官命起應退兵曹判書跪啓稟放陞壇砲宣傳官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陞壇號令命知穀官放信砲三聲鳴金二下大吹打牢子大喝三聲牢子一人進跪大呼開門旗手應聲揮旗退訓練大將御營大將守禦使摠戎使京畿監司禁軍別將馬兵別將千把總哨官以次參現宣傳官跪啓稟回信地吹打 鉦手開金各營軍兵皆散出試官李性源鄭好仁李漢泰林蓍喆李格李東善李謙會	

	分所試官蔡濟恭金尙集趙心泰李喆模朴宗和徐有鳳行禮訖命承旨洪仁浩與分所試官偕往洗馬坪試取駕前駕後善騎隊以次應射於帳前武藝別監壯勇營步軍砲放設行於分所命設騎葛貫革駕前駕後善騎隊應試又命設六兩防牌於一百步壯勇營兵房別軍職宣傳官及遠射自願人應射又命設馬上別技別軍職宣傳官駕前駕後善騎隊自願別技又設馬上才交戰善騎隊及武藝別監 自願應試別設別藝別監步技訖命兵判訓禁御將及守禦使禁軍別將柳葉箭一巡應射○以信箭祇受壯勇營兵房二吹後率馬步軍行營於駕前局予乘馬詣慶熙宮
비 고	1788년 9월 2일 국왕이 모화관(郊館)에 이르러 서총대(瑞蔥臺) 시사(試射)를 행하고 경희궁(慶熙宮)으로 돌아오는 내용. 국왕이 행행(行幸)하여 경기감영에서 석교 밖에 이르자 병조판서가 꿇어 앉아 머무를 것을 아뢰었고, 선전관이 일어날 것을 명하자 응하여 물러났다. 이후 서총대에서 기예를 시험하였다. 신전(信箭)으로 장용영 병방에게 명받을 것을 전하고, 나팔을 두 번 분 뒤에 마보군을 이끌고 어가 앞에서 병영을 움직이고 국왕은 말을 타고 경희궁에 이름

제 목	기영빈관 정청, 향정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효의왕후국휼초일기(孝懿王后國恤草日記)』 1책
	소 장 처/DB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시 기	1823년(순조 23)
관련내용	辛巳三月十四日 [주:虞主造成處所]一曹啓辭即接奉常寺牒呈則自前國恤時虞主例於空闕造成奉安而處所自本曹預爲稟定云今此大行王大妃虞主造成及奉安處所以何殿閣舉行乎敢稟傳曰依乙丑年例爲之 [주:魂殿處所]一傳曰魂殿以通和殿爲之 [주:順付詔書迎接]一曹單子今此順付詔書入京日迎接及頒詔時應行節目參考前例磨鍊爲白去乎依此舉行何如一頒詔處所 仁政殿排設爲白齊一詔書入京日黃屋龍亭兵曹先陳於畿營賓館正廳香亭黃儀仗陳列於前庭[주:有賜物則陳彩輿]香爐香合工曹香濟用監前導鼓吹[주:陳而不作]掌樂院爲等如進排舉行為白齊一宗親文武百官俱以布團領帽帶先就畿營前路改服無紋黑團領烏紗帽黑角帶分東西序立詔書將至鞠躬祇迎後自九品先導由崇禮門至仁政殿百官先入就位詔書龍亭直向協陽門使臣隨至門外捧詔書傳授承旨請承傳色以入[주:有賜物則亦爲內入]殿下自內受詔書行禮訖承傳色還奉詔書以出傳授承旨承旨以授捧詔官還置于龍亭至仁政殿如儀行禮爲白齊(一宣詔官展詔官捧詔官令吏曹差出爲白齊) 一頒詔禮畢掖庭署撤闕庭承文院官取詔書盛龍亭[주:有賜物則尙衣院(官)取賜物盛於彩輿以入]儀仗鼓吹[주:陳而不作]前導以出如儀奉安爲白 齊一殿內排設床案黃袱等物儀仗輿輦軒架鼓吹[주:陳而不作]陳列等事及協陽門外排設諸事竝以令各該司照例進排舉行為白齊一未盡條件追乎磨鍊爲白齊啓依所啓施行 [주:迎詔後頒教]一曹單子今此迎詔即日頒教時應行節目參考前例磨鍊爲白去乎依此舉行何如一教書乙良令藝文館撰進爲白齊一頒教時宗親文武百官以*布團領帽帶仁政殿行禮爲白齊一宣教官展教官八道四都齋教官令吏曹差出爲白齊一床案函袱儀仗輿輦*陳列等事令各該司照例進排舉行為白齊一未盡條件追乎磨鍊爲白齊啓依所啓施行[주:此節目國恤前磨鍊啓下矣國恤相值故服色及軒架鼓吹改付標啓下]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순라자내(巡邏字內, 경기감영의 창고)	
저 자	서영보(徐榮輔)·심상규(沈象奎) 등	
서지사항	서 명	『만기요람』 군정편 권1, 포도청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808년(순조 8)
관련내용	우변 팔패(右邊八牌) 1패는 육조어로(六曹御路)의 동쪽에서 입전병문(立廛屏門)까지로 위로는 안국동까지 북쪽은 삼청동까지 아래로는 경복궁의 동쪽 담 옛 광화문 앞까지인데 북처는 의정부 앞에 있으며, 2패는 공조 후동(後洞)에서 필운대(弼雲臺)의 창의문(彰義門) 안·경복궁의 서쪽 담·육조어로의 서쪽까지인데 북처는 보민사(保民司) 앞에 있으며, 3패는 공조의 후동 남쪽에서 돈의문(敦義門) 안과 대·소정동(大小貞洞) 및 군기시교(軍器寺橋)와 육조 동구까지인데 북처는 송기교(松杞橋)에 있으며, 4패는 남대문 안에서 동현(銅峴)·광통교(廣通橋)·모교(毛橋) 대로의 동쪽까지인데 북처는 석정동(石井洞)에 있으며, 5패는 돈의문 밖에서 모화관(慕華館)·팔각정(八角亭)·대현(大峴)의 북쪽까지인데 북처는 <u>경영(京營)의 창고</u> 앞에 있으며, 6패는 서소문(西小門) 밖[外]에서 아현(阿峴)·약현(藥峴)·남대문 밖까지인데, 북처는 서소문 밖[外]에 있으며, 7패는 남대문 밖에서 순청동(巡廳洞)·만리현(萬里峴)·작작동(灼灼洞)의 돌모루[石隅]까지인데 북처는 남대문 밖에 있으며, 8패는 이문동(里門洞)에서 남묘(南廟)·전생서(典牲署) 앞까지인데, 북처는 도저동(桃楮洞)에 있다.	
비 고		

제 목	『증보문헌비고』의 경기 연혁	
저 자	-	
서지사항	서 명	『증보문헌비고』 권16 - 여지고 4, 군현 연혁 2
	소 장 처/DB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시 기	1460년(세조 6) 1월 26일
관련내용	「경기(京畿)」 본래 고조선(古朝鮮)의 땅이었는데, 한(漢)나라에서 고조선을 멸망시키자 낙랑군(樂浪郡)의 관할(管轄)이 되었다. 뒤에 그 남쪽 경계(境界)는 백제(百濟)의 소유(所有)가 되었으나, 뒤에 고구려(高句麗)와 신라(新羅)가 나누어 가지고, 신라가 <3국을> 통합(統合)한 뒤에 한주(漢州)를 설치하였고, 말엽에 이르러 궁예(弓裔)가 이곳에 웅거(雄據)하였으며, 인하여 고려(高麗)로 귀속(歸屬)하여 개성부(開城府)와 양광도(楊廣道)를 설치하였다. 조선 태조조(太祖朝)에 도읍(都邑)을 한양(漢陽)에 세우고 경기 좌도(京畿左道)·경기 우도(京畿右道)로 고쳐 정하였다.〔평주(平州)·수안(遂安)·곡주(谷州)·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俠溪)는 경도(京都)에서 거리가 먼 까닭에 도로 서海道(西海道)에 붙이고, 광주(廣州)·수원(水原)·양근(楊根)·지평(砥平)·이천(利川)·천령(川寧)·쌍부(雙阜)·용구(龍駒)·처인(處仁)·진위(振威)는 좌도(左道)에 내속(來屬)시키고, 양주(楊州)·부평(富平)·철원(鐵原)·연안(延安)의 관할하는 군(郡)·현(縣)은 우도(右道)로 삼았다.〕 태종조(太宗朝)에 사방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개성(開城) 이서의 땅을 서海道(西海道)에 돌려주고, 충청도(忠淸道)의 여흥(驪興)·안성(安城) 이북의 땅을 떼어서 내속(來屬)시켰다.〔연안(延安)·배천(白川)·우봉(牛峰)·강음(江陰)·토산(兔山)을 도로 서海道(西海道)에 붙이고, 이천(伊川)을 강원도(江原道)에 붙이고, 충청도의 여흥(驪興)·안성(安城)·양지(陽智)·양성(陽城)·음죽(陰竹)과 강원도의 가평(加平)을 떼어서 내속(來屬)시켰다. 세종조(世宗朝)에 철원(鐵原)·안협(安峽)을 강릉도(江陵道)에 내속(來屬)시켰다.〕 <u>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라 칭하고 감영(監營)을 경성(京城) 서쪽에 두었다. [돈의문(敦義門) 밖이다. ○ 광해군(光海君) 10년(1618)에 영평(永平)·가평(加平)을 아울러서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삼아 감영(監營)을 설치하였으나, 관찰사(觀察使)가 많이 서울 감영[京營]에 있었다. 계해반정[癸亥反正 1623년 인조 반정(仁祖反正)] 이후에 파하였다. [보] 신이 삼가 살피건대, 포천(抱川)의 주(州)와 직관고(職官考)의 포천편(抱川編)에서는 모두 "영평(永平)·포천(抱川)을 합하여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여기</u>	

	에서는 "영평(永平)·가평(加平)을 합하였다."고 하니,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평(加平)을 마땅히 포천(抱川)으로 해야 합니다. ○ 인조(仁祖) 14년(1636)에 서울의 감영[京營]이 병화(兵火)에 불타버리니, 관찰사(觀察使)가 도성(都城)의 서북쪽 사천감(司天監)의 폐지된 공해(公廨)에 우거(寓居)하다가, 19년(1641)에 옛 기지(基址)에다 다시 지었다.] 관할하는 부(府)가 1고을, 목(牧)이 3고을, 도호부(都護府)가 10고을, 군(郡)이 9고을, 현(縣)이 13고을이다.〔광주(廣州)·여주(驪州)·이천(利川)·양근(楊根)·지평(砥平)·음죽(陰竹)·양지(陽智)·죽산(竹山)·과천(果川)·수원(水原)·부평(富平)·남양(南陽)·인천(仁川)·안산(安山)·안성(安城)·진위(振威)·양천(陽川)·용인(龍仁)·김포(金浦)·금천(衿川)·양성(陽城)·통진(通津)이 좌도에 속하고, 양주(楊州)·파주(坡州)·고양(高陽)·영평(永平)·포천(抱川)·적성(積誠)·교하(交河)·가평(加平)·장단(長湍)·풍덕(豐德)·삭녕(朔寧)·마전(麻田)·연천(漣川)·교동(喬桐)이 우도에 속하였다.〕 또 2도(都 유도부(留都府))가 있다.〔개성(開城)·강화(江華)였다.〕 [속] 2도(都)를 더 두었다.〔광주(廣州)·수원(水原)이었다. ○ 강원도 춘천부를 유도부(留都府)로 승격시켰으니, 또한 경기도(京畿道)에 들어오게 되어 모두 5도(都)이다.〕 ○ 고종 32년(1895)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를 한성 관찰사(漢城觀察使)로 고쳤다가, 33년(1896)에 이를 파(罷)하고 다시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를 설치하였는데, 치소(治所)는 수원(水原)이었고 관할하는 부(府)가 3고을, 군(郡)이 38고을이었다.〔광주(廣州)·개성(開城)·강화(江華)·수원(水原)·여주(驪州)·양주(楊州)·장단(長湍)·통진(通津)·파주(坡州)·인천(仁川)·이천(利川)·부평(富平)·남양(南陽)·풍덕(豐德)·포천(抱川)·죽산(竹山)·양근(楊根)·안산(安山)·삭녕(朔寧)·안성(安城)·고양(高陽)·김포(金浦)·영평(永平)·마전(麻田)·교하(交河)·가평(加平)·용인(龍仁)·음죽(陰竹)·진위(振威)·양천(陽川)·시흥(始興)·지평(砥平)·적성(積城)·과천(果川)·연천(漣川)·양지(陽智)·양성(陽城)·교동(喬桐)이었다.〕
비 고	

제 목	『연려실기술』의 감사 관련 내용 중 경기 부분	
저 자	이금익(李肯翊, 1736~1806)-	
서지사항	서 명	『연려실기술』 별집 권8, 관직전고, 감사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766년(영조 52)
관련내용	경기도의 감영(監營)은 돈의문(敦義門) 밖에 있다. 좌우 감사가 있을 때의 감영을 설치한 곳은 상세하지 않다.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좇아 좌우관찰출척사(左右觀察黜陟使)를 두었다. 태종 임오년에 두 도를 합하여 관찰사를 두었다가, 뒤에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라 고쳐 일컬었고 세조 병술년에 관찰사로 개칭하였다. 선조 임진년에 다시 좌우관찰사를 두었다가 그해 도로 파하였다. ○ 광해 무오년에 영평(永平)과 포천(抱川)을 합하여 대도호부(大都護府)로 하고, 영평에 영(營)을 설치하였는데 감사가 혹은 서울 영에 있다가 혹은 새 영에도 나가 있었다. 인조 계해년에 새 영을 파해 버렸다. 병자년 난리에 서울의 영문이 불타 감사가 서울 서북에 있는 사천감(司天監)의 폐청(廢廳)에 붙여 있다가 신사년에 그 전 터에 다시 세웠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경영 창고 소실	
저 자	이금익(李肯翊, 1736~1806)	
서지사항	서 명	『연려실기술』 권25,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766년(영조 52)
관련내용	이때 도성에는 적병이 이미 가까이 들어와 일시에 무너져 흩어지자, 유도재신(留都宰臣) 김상용(金尙容)이 급히 어고(御庫)와 병조·호조·태창(太倉)·선혜청(宣惠廳)·경영(京營) 등의 모든 창고에 불을 지르도록 하니, 나라의 저축은 이에 탕진되었다. 상용이 즉시 강화로 달아나니 노량진 나루에 두었던 천여 석의 양곡도 모두 흩어져 잃어버리고 여인길(呂裨吉)이 수척의 배를 얻어 겨우 2백여 석을 싣고 갔다. 《조야기문》	
비 고		

제 목	경영관사에서 관복을 정제함	
저 자	인평대군 이요(麟坪大君 李潏, 1622~1658)	
서지사항	서 명	『연도기행(燕途紀行)』 하(下,) 일록(日錄)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656년(효종 7) 12월 16일
관련내용	맑음. 아침에 떠났다. 개륜현(介倫峴)에 올랐다. 창릉(昌陵)을 지났는데, 노소(老少) 친구들이 길을 메웠다. 연서관(延曙館) 뒤에 이르니 좌윤(左尹) 구인기(具仁璽) 및 그 아들 도사(都事) 구일(具鎰)이 와서 위문했다. 녹번현(綠礪峴)을 넘으니 이조 참판(吏曹參判) 오정일(吳挺一)·춘방 보덕(春坊輔德) 오정원(吳挺垣)이 와서 기다렸다. 정답게 회포를 풀었다. 홍제 석교(弘濟石橋)를 건너니, 관장(管掌)하는 각 시(寺)의 하리(下吏)들이 마중하며 뵈었다. 홍제원(弘濟院)에 들어가니 경평군(慶平君)을 비롯하여 여러 종친(宗親)이 모두 와서 정역(征役)을 위문했다. 잠시 앉아서 응대했다. 관할(管轄)하는 여러 시(寺)의 낭관(郎官)이 일제히 와서 인사를 드렸다. 경영 관사(京營官舍)에 이르러 관복을 정제하고 가니, 부사·서장관 및 각 부서(部署)의 원역(員役)들이 무리를 따라 나갔다. 돈의문(敦義門)으로 들어가, 종루(鐘樓)를 지났다. 눈에 띄는 고향의 모습이 전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8월에 작별하던 때의 회포를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솟는다. 대궐에 나가 입시하여 행정(行程)의 어려웠던 일과 사행의 전말을 진달했다. 복명(復命)을 끝마치고 낙동(駱洞)으로 돌아오니, 서쪽에 걸린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린 자식이 문에서 마중했다. 이날은 40리를 갔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京營重修記(경영중수기)	
저 자	이명한(李明漢, 1595~1645)	
서지사항	서 명	『백주집(白洲集)』 권16, 기(記)
	소 장 처/DB	서울대학교 규장각 /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647년(인조 25)
관련내용	京營重修記 八道觀察使所住衙門。通謂之營。營者布政出治之所也。京營之以京爲名者。以道之爲京畿而觀察之常住於京也。營之設。不於城內而必城外者。以衙門之屬於外也。京營之設。其來蓋久。丙子亂。京外大小衙門。多被燼而營爲甚。遂寄寓於都城內西北隅司天監之廢廡。取近於故營也。觀察體面尊重。每坐堂。教諭書奉懸廳上。印符分置案前。節鉞排於階下。都事以下諸屬於幕僚者。各以次行禮於楹內。列邑守宰之因事至營者。咸聽候於門外。文移雲委。牒訴填咽。六吏齊讀於前。觀察據案臨決。左右酬應。時節拜箋。獻膳朔望。率僚屬望賀於庭。禮容殷盛。非小衙門比。豈借人籬底。作寓公居止也。去亂已六年。因力絀財竭。未遑爲修繕計。苟度時日。不復作營門體樣。今觀察朴公魯直氏自銀臺之長。出膺簡委於蕩殘之餘。慨然以修舉廢墜爲先務。未半葺。化行政成。余嘗戲謂公。子之化行矣。政成矣。道民之化儼失其所者。皆已奠居矣。民得其所。而觀察獨未奠厥居耶。公笑曰。心構已成。子少需焉。同我落之。余實泛聞。不深信也。居數月。人報京營突兀輪奐。視舊制益宏敞。余驚喜而訝其太速。俄有重林權督郵以觀察公之命來。徵余以記重修之文。余問林何出。出於民乎。曰否。觀察自辦。瓦何出。觀察自辦。工匠役夫之手價口食。皆觀察自辦。余於是益信觀察公之才也。營公廨也。非觀察私役。使各邑各供需用。於法不爲非也。公能推若保之仁。一箇不取於民。運無方之智。成不日之功。叩已竭之力。致多前之盛。又能不居其美而歸之下官。使監董者得徼恩數。監董之得其人。亦公之才也。噫。斯營最近輦轂。觀察之一號一令。朝發營。夕騰於京。居是任實難。後之繼公觀察而坐此堂者。亦使人稱之曰才曰仁。而不曰民不奠厥居。則幸矣。觀察公名。監董者。重林權督郵躋是也。	
비 고	京畿監營을 중수하는 의미와 전말을 적은 記文. 營은 관찰사가 머물며 정사를 베푸는 중요한 곳을 지칭하고, 전란으로 무너진 경기감영을 중수한 관찰사 박로(1584 ~ 1643)의 공적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박로의 자는 魯直, 호는 大瓠, 본관은 밀양.	

제 목	천연정중수기(天然亭重修記)	
저 자	김정희(金正禧, 1786~1856년)	
서지사항	서 명	『완당전집』 권6, 기(記)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836년경
관련내용	기보(畿輔)의 신영(新營)에 정자가 있으니 천연정이라 이른다. 이 정(亭)은 못으로써 이름났으며 못은 도성 근지에서 제일 크고 또 부용(芙蓉)이 많으므로 이백(李白)의 시구(詩句)인 “천연스러워 조식을 벗어났다.[天然去雕飾]”의 의를 취하여 정자를 이름했다고 한다. 그러나 화현(華峴)이 특별히 빼어나 자각봉(紫閣峯)과 더불어 먼 형세를 끌어당겨 좌우로 다투어 일어났으며, 서성(西城)은 하얗게 앞을 두르고 백악(白嶽)의 머리는 반만 살짝이 성 위에 드러나 마치 부처의 곱슬머리와도 같아서 모두 정자로 향해 쏠리어 끼고 어울리며 상량(爽朗)하고 수미(秀媚)하여 그림과 같으니 천연정의 승경(勝景)이 또 반드시 못으로써 이름났다고만 못하겠다. 기보의 포정영(布政營)의 치(治)는 돈의문(敦義門) 밖에 있는데 동서로 길이 나뉘어 신영(新營)은 그 서쪽에 있으며 조금 돌아서 북으로 가면 정이 보이는데 포정영의 치(治)와의 거리는 한 마장도 못 되는 가까운 곳이다. 순안사(巡按使)가 빈료(賓僚)들을 이끌고 잔치놀이를 하자면 반드시 이 정에서 하며, 관개(冠蓋)가 화현(華峴)으로부터 왕래할 적에 경사대부(卿士大夫)들이 조장(祖帳)을 벌여 영접하고 전송할 적에도 반드시 이 정에서 한다. 심지어 주객(酒客)과 시인들은 무리를 나누고 대오를 벌여 기승(奇勝)을 각축하며 홍의(紅衣)를 걷어잡아 읊조림을 의탁하고 옥통소를 끌어당겨 술을 마시면서 그 사이에 박부(拍浮)하여 실컷 노닐고 즐기어 태평 세월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도 반드시 이 정에서 한다. 이 까닭에 정의 승경은 더욱 드러나 있는 것이다. 정자는 정종(正宗) 계축년에 창건되어 사십여 년의 사이에 가끔 수리를 가하여 이제까지 폐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차츰 오래되어 기둥이 기울고 주초가 허물어지며 못도 메워지고 묵어 혹은 침범해 들어와 구전(區廛)을 만들기도 하니 눈에 가득 쓸쓸만 하여 지나는 자가 슬퍼하고 탄식하곤 하였다. 나는 부임하여 기보를 다스린 이듬해 병신(丙申)에 재목을 모으고 공장(工匠)을 모집하여 비로소 경영에 착수했는데 정실(亭室)의 위치는 하나도 더 늘린 바 없고 못을 파서 일천경(一千頃)을 만들어 다 이전 경계대로 돌려놓음과 동시에 제방을 빙 둘러 버드나무를 심었다.	

	무릇 재정은 천여 금을 들이고 역부는 이천 명을 사용하여 사월에 시작해서 유월에 가서야 공역(工役)이 완성되었으니 대개 정자나 못은 전규(前規)를 회복하고 구관(舊觀)을 폐함이 없게 하기에 힘썼을 뿐이다. 아! 나는 관하(管下)의 열읍(列邑)에서 날로 와 폐막(弊瘼)을 알리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모두 위미(委靡)하고 나태하여 능히 황폐와 실추를 수리하여 일으키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총명을 조작하여 옛법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데에 있다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정자를 중수(重修)함에 있어 더욱더 정사를 하는 것은 오직 황폐와 실추를 닦아 일으킬 따름이며 총명을 조작하여 옛법을 어지럽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자 아래 기우(祈雨)의 제단이 있어 지금 비록 황폐하였으나 또 대략만 수축(修築)하였으니 이 역시 구관을 폐기함이 없게 하였을 따름이다. 아울러 기록한다.
비 고	

제 목	기영의 동쪽 누대	
저 자	서영보(徐榮輔, 1759~1816)	
서지사항	서 명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책 1, 시(詩)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미상
관련내용	기영의 동쪽 누대 담장에 있는 벽오동나무가 처마에 가득 드리워져서 팔을 뻗으면 잡을 수 있었다. 한창 더운 계절에 누대에 앉아 있노라니 문득 심주처럼 그림을 그려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극옹이 이 말을 듣고는 기빠하면서 스스로 시를 지어 아우 옥수에게 쓰게 하고 기수에게 석전의 그림을 본떠 그리게 하여 나에게 보내 주었다. 〔畿營東樓 牆梧滿簷 伸腕可把 暑月坐樓 輒憶沈周畫意 展翁聞而喜之 自爲詩 使其弟旭秀寫 耆秀倣石田畫以贈〕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기영 객사에서 옷을 갈아입음	
저 자	김경선(金景善, 1788~1853)	
서지사항	서 명	『연원직지』 권5, 회정록(回程錄)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833년(순조 33) 4월 2일
관련내용	맑음. 고양을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서울로 들어왔다. 밥 먹은 뒤에 출발하여 홍제원(弘濟院)에 이르니, 종제 및 하인배들이 많이 와서 맞이하고, 인마(人馬) 또한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드디어 수레에서 내려 말을 타고 기영(畿營) 객사(客舍)에 이른 다음, 정사, 부사와 함께 옷을 갈아입고 곧장 궐(闕) 안으로 들어갔다. 당보(塘報) 및 문견사건(聞見事件)을 정원(政院)에 바치고, 곧 들어가서 숙배(肅拜)했다. 머물러 기다리라는 명을 받고 흥정당(興政堂)에 입시(入侍)하고 나서 물러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비 고		

제 목	畿營冊室及芝山江亭	
저 자	박운묵(朴允默, 1771~1849)	
서지사항	서 명	『존재집(存齋集)』 권4, 시(詩)
	소 장 처/DB	서울대학교 규장각 /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철종 연간 필사(哲宗年間筆寫)
관련내용	玉詩五十韵 并小序 a_292_084a 寧野學士莅任成都。貽我以圓燈水滴。並珍品也。再拜受之。不勝感激。寫此微忱。來便呈上。仰乞俯和。以續綿城竹詩。是區區之望也。 沸流江上郡。爰有藍田坊。麗水皆成折。佳山更有光。土宜珍產出。國寶盛名香。澄澈當瑚璉。琤琮合璫璫。冲和備天地。精粹納陰陽。魚目偏超古。蛇紋亦異常。凝脂堪較白。蒸栗復爭黃。萬斧穿沙苦。千釘裂塊忙。村皆爲採業。工各試多方。種不須仙客。沽應待旅商。鵲飛眞可抵。虹暈最爲良。幾照田夫室。還登太守堂。292_084b新奇非事玩。溫潤貴兼剛。千仞那能掩。一枚孰敢藏。斲能傾廩粟。威不借桁楊。民力曾無取。農時豈可妨。經營來巨手。裁度運中腸。凸以爲珪琯。凹之制椀觴。直聯堪委珮。橫鋪可書床。容飾那無玼001。觀瞻莫不當。拔乎叢寶上。耀此竹符傍。拈取無慳惜。贈貽及老僮。圓燈偏照爛。水滴且輝煌。謂我三冬讀。勞茲一念長。德音偏自誦。微義詎能量。白潔生光氣。青熒照縹緗。愛憐非但物。勸勉若偏印。書藪羞摘藻。文瀾歎望洋。添膏憶畿館。對影記芝莊。畿營冊室及芝山江亭。共讀書。及之。 寸燄如相照。巫山若可望。況茲馳列驛。何幸侈文房。琤爾鳴292_084c西土。胡爲落小廊。坐隅聯硯置。卧內並琴張。壓倒全家具。稱譽戲墨場。四圍圓似月。一色皜如霜。傾心端可學。比德更相將。楮刻徒能巧。蘭完豈不臧。琢來偏現現。叩則輒鏘鏘。兩種吾能有。雙清說莫詳。品殊榮有與。恩極喜成狂。感激披中赤。監臨有上蒼。仰公膺近密。曩歲直奎章。一磬懸雕簾。六燈列畫樑。隆恩出蓬島。清分卧崑岡。服用皆瑜瑾。起居摠琤瑯。推移方有得。治化亦應彰。滋潤思仁洽。折旋戒禮防。不容微玷在。或恐美姿傷。纖芥知無報。愚言欲效昌。重緘詩一首。復續綿城篋。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기영빈관에서 머뭄	
저 자	홍재철(洪在喆, 1799~?)	
서지사항	서 명	『과환록(科宦錄)』 6책
	소 장 처/DB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시 기	1856년(철종 7) 9월 28일
관련내용	(丙辰九月)二十八日 二十八日以道路橋梁摘奸事發行宿畿營賓館	
비 고		

제 목	감사가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일의 시초	
저 자	이유원(李裕元, 1814~1888)	
서지사항	서 명	『임하필기』 권22,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871년(고종 8)
관련내용	중종(中宗) 13년(1518)에 영남(嶺南)을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나누고 또 감사로 하여금 가족을 데리고 임지에 부임하도록 하였다. 상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팔도의 감사들이 모두 가족을 데리고 임지에 부임하되 2년이 되면 체직을 허락해 주고, 부윤(府尹)이 있는 곳은 부윤을 겸임하고 부윤이 없는 곳은 계수관(界首官)인 판관(判官)과 목사(牧使)를 하비(下批)하도록 하였으며, 경상도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고 경기는 전과 같이 경영(京營)에 머물도록 하였는데, 뒤에 예전대로 복구(復舊)하였다. [주D-001]계수관(界首官) : 서울에서 각도(各道)에 이르는 본가도(本街道)에 연결한 고을의 수령을 이른다. 도의 경계에 해당하는 고을의 수령으로, 관찰사가 부임할 때에는 반드시 계수관이 한 도의 수령들을 대표하여 도의 경계에 나가 영접하도록 하였다.	
비 고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경기감영의 고사	
저 자	이유원(李裕元, 1814~1888)	
서지사항	서 명	『임하필기』 권27, 춘명일사(春明逸史)
	소 장 처/DB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871년(고종 8)
관련내용	경기 관찰사가 새로 임명되면 매양 경기 지역에 있는 고마청(雇馬廳)에 갔다가 그 길로 대궐에 들어와 숙배(肅拜)하고 집에서 사무를 처리하곤 하였다. 정묘(正廟) 임자년(1792, 정조16)에 신문(新門) 밖에 감영(監營)을 설치하고서 도백(道伯)과 각신(閣臣)은 공고(公故)에 참석하였으되 외조(外朝)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았다. 당저조(當寧朝)에 이르러 후반(候班)에 참석하도록 정식(定式)을 삼았는데, 포정문(布政門)을 열고 닫을 때에는 군악(軍樂)으로써 거행하였다. 총융사(摠戎使)가 곧 경기 병사(京畿兵使)인데, 예전에는 문신 재상들이 많이 맡았으나 근래에는 등단(登壇)의 예(例)를 적용하여 무신(武臣)들이 맡으며 또 비국 당상을 겸대하여 곧 하나의 경군문(京軍門)이 되었다. 그러나 경기 감찰사만 유독 외임(外任)으로 여기면서도 대궐에 들어와 숙배하는 일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당치 않은 일이다.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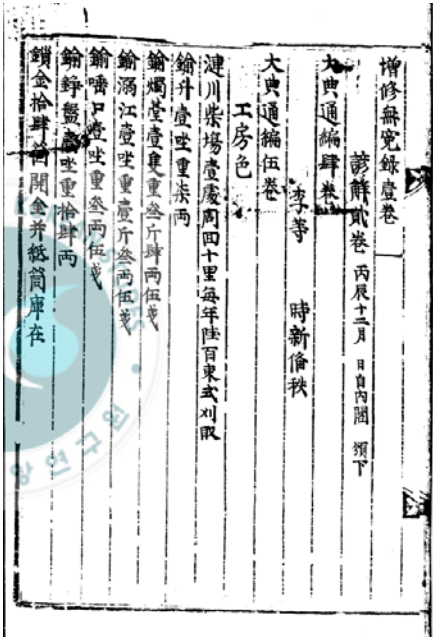
제 목	경기감영 선화당	
저 자	승정원	
서지사항	서 명	『칙사일기(勅使日記)』 19책
	소 장 처/DB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시 기	1890년(고종 27) 9월 29일
관련내용	光緒十六年庚寅九月二十九日 事變假注書李範仁 大駕詣京畿監營宣化堂送勅動駕時通禮跪 啓請外辦 上具布裹翼善冠布團領袍布裹烏犀帶白皮靴乘 轎出思政門藥房提調金聲根副提調閔泳達進前 奏曰寢早勞動聖體若何上曰一樣矣仍出 光化門至京畿監營通禮跪啓請降轎上降 轎入幄次後勅使至*通禮跪啓請出次上出 次上至階上勅使亦至階上上命通使傳語曰 請先陞勅使曰主人先陞又傳語曰*請大人先陞勅 使曰請同陞上由西階陞正廳東向立勅使由東 階陞正廳西向立上命傳語曰請行再拜禮勅使 固辭上遂行揖禮就椅勅使亦如之上曰僉大 人諸節信宿如何勅使曰我們都好敢請國王安 康上曰館宇凡節必多疏略恐不稱意而僉大人 反以爲謝還用愧極矣勅使曰這幾日之間特荷 勤念凡節整齊我們殆忘客苦尤切不安上曰主 人之誠意未篤昨既請留竟未得諾今焉戒駕此心 悵黯只切耿耿聊將數器*粗伸餞禮勅使曰幾次挽 留之厚誼因行事忙迫不得奉承今當告別悵悵之 懷無以爲喻上曰菲薄之需雖甚草草幸賜加箸 也勅使曰好矣上舉箸勅使亦舉箸上曰通官 以下賜茶何如勅使曰好矣上請撤床勅使曰好 矣上曰今當遠別曷以爲懷天氣稍寒惟願在途 慎旃勅使曰今此遠行多荷費心萬里回去托庇盛 念願國王氣候對時萬安上曰去留之際豈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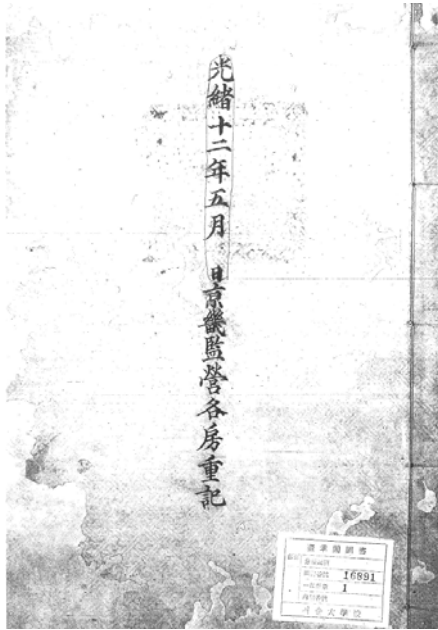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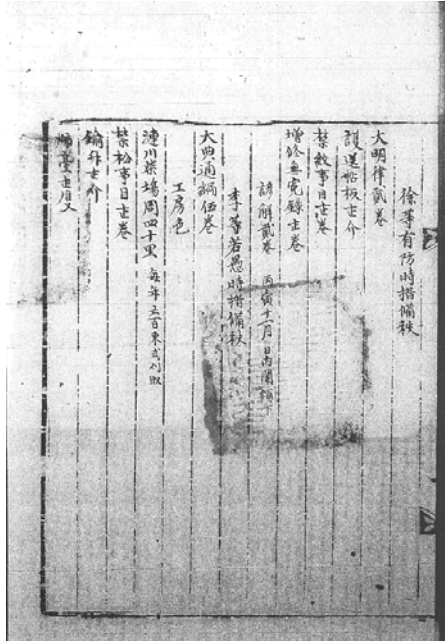
	拜禮乎請行拜禮勅使(曰)不敢當上再請拜禮勅使 曰不敢當上曰當行揖禮遂相揖而送之階端 上曰挽留不得星槎自此遠矣更願千萬保重勅使 曰今此告別又未知何時再會怊悵怊悵尤難爲懷 惟願氣候泰平泰平上召通使等諭以好去勅 使曰托國王之盛意好好將返而第侯王駕先 回俺們啓發矣又傳語曰主人豈可先回謹當瞻望 兩大人回槎之遠卽當入城矣上命招諸通事等 於前諭以好好歸去通事等叩頭跪謝勅使降自東 階上降自西階勅使乘轎離發傳曰伴送使入 侍伴送使李裕承進前上曰善爲往還也少頃 通禮跪啓請*出次上乘驕(轎?)進發由敦義門光 化門思政門還內諸臣以次退出
비 고	

제 목	경기감영 예방 막소	
저 자	지규식(池圭植, 1851~?)	
서지사항	서 명	『하재일기』 1책, 신묘음청록(辛卯陰晴錄)
	소 장 처/DB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한국고전종합DB
	시 기	1891년(고종 28) 6월 26일
관련내용	흐렸다 개었다 하다 저녁에 비가 옴. 아침을 일찍 먹고 공방에 들어가 상경하겠다고 말하고, 돈 5냥을 가지고 와서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다. 잠시 장춘현에 들러 작별 인사하고 우천(牛川) 세소(稅所)로 나와 지나가는 배를 기다렸는데, 반나절이 지나서 장작 실은 배 한 척을 만났다. 덕수(德水)에 사는 오(吳) 오위장과 함께 올라오는데 덕수에 이르러 배에 물구멍이 나서 상황이 몹시 위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와 함께 배에서 내려 작별하고 조운(鳥雲) 주막에 이르러 점심을 사 먹었다. 조금 전 홍천(洪川) 남면(南面) 김상제가 배를 타고 동행하다가 뒤떨어졌었는데 뒤쫓아 도착하였다. 그와 함께 동행하다가 중도에 내가 먼저 떠나 입성(入城)하여 장동에 이르니, 김 선달 경운(京允)이 그때까지 머물러 있어서 그와 더불어 회포를 풀었다. 조금 있다가 저녁식사를 마쳤는데, 익준(益俊)이 비로소 들어와 본가의 안부 편지를 전하여 보냈다. 노자로 1냥 2전을 썼다. 행장(行裝)과 모든 도구를 뜰아랫방으로 옮겼다. <u>익준이 경기감영 예방 막소(禮房幕所)의 윤중화(尹仲和)에게 말하여 평구둔감(平丘屯監)을 얻으려고 도모하였다.</u> 몹시 다행스럽고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결국은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대신 도봉원(道峰院) 원답(院畓) 마름[舍音] 체문(帖文)을 얻었다. [주D-001]마름[舍音] : 지주(地主)의 위임을 받아서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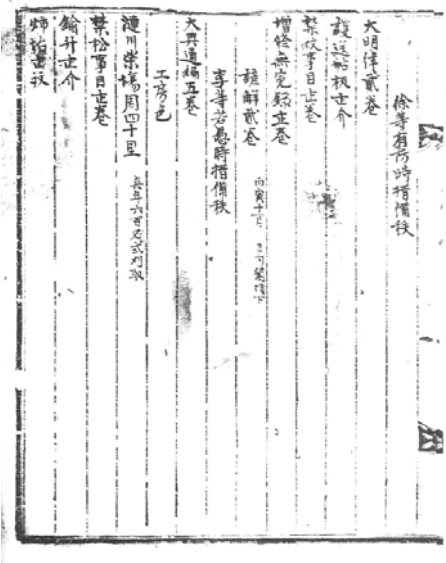
2) 『경기감영각방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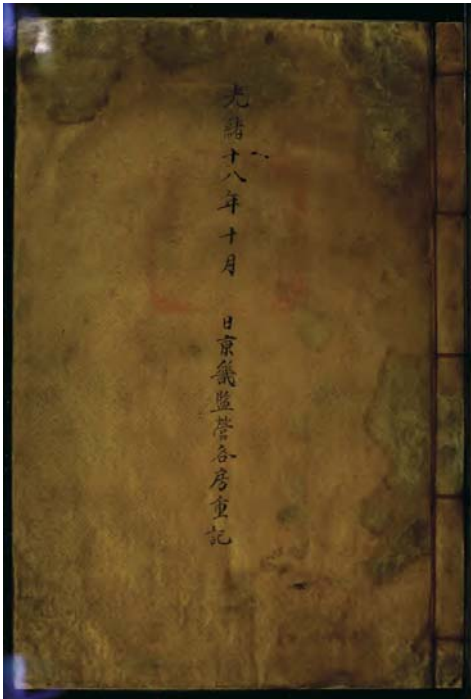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저 자	경기감영	
서지사항	서 명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소 장 처/DB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시 기	1843년 10월(道光二十三年十月)
관련내용	* 내용은 1장 2절 중 “조선 후기 경기감영의 공간구성” 항목을 참고  표지  공방색 첫 면	
비 고		

제 목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저 자	경기감영	
서지사항	서 명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소 장 처/DB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6081)
	시 기	1886년 5월(光緒十二年五月)
관련내용	* 내용은 I 장 2절 중 “조선 후기 경기감영의 공간구성” 항목을 참고  표지  공방색 첫 면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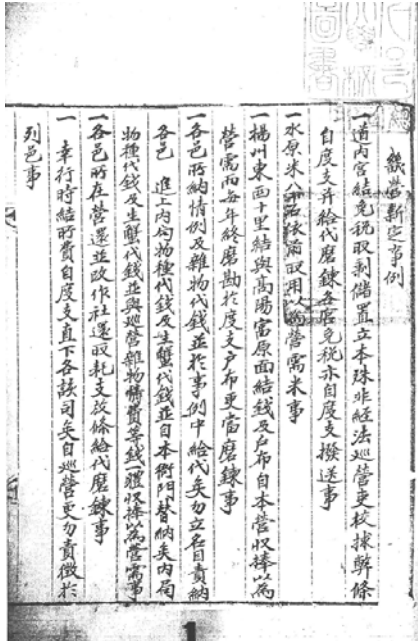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저 자	경기감영	
서지사항	서 명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소 장 처/DB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시 기	1889년 7월(光緒十五年七月)
관련내용	* 내용은 I 장 2절 중 “조선 후기 경기감영의 공간구성” 항목을 참고  표지  공방색 첫 면	
비 고		

제 목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저 자	경기감영	
서지사항	서 명	경기감영각방중기(京畿監營各房重記)
	소 장 처/DB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시 기	1892년 10월(光緒十八年十月)
관련내용	* 내용은 I 장 2절 중 “조선 후기 경기감영의 공간구성” 항목을 참고  표지  공방색 첫 면	
비 고		

3) 『기영신정사례』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 목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	
저 자	탁지아문(度支衙門)	
서지사항	서 명	기영신정사례(畿營新定事例)
	소 장 처/DB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5230)
	시 기	1894년 11월
관련내용	1894년(고종 31) 11월에 갑오경장(甲午更張)에 의하여 새로 마련된 경기감영(京畿監營)의 사례(事例)를 모은 책이다. 1책 13장으로 내용은 요전(料錢)·자유가(柴油價)·의자(衣資)·지가(紙價) 등과 이상의 합계, 소입(所入)의 내역 및 합계와 부족액등. 역(役)에 각 읍 상납전(上納錢)외 읍별(邑別) 내역과 합계 지방례(支放例)가 적혀 있다. 경기감영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당시의 사용 인원, 온돌과 난방시설과 관련된 자재의 수요를 엿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표지  첫 면	
비 고		

2. 회화

1) <경기감영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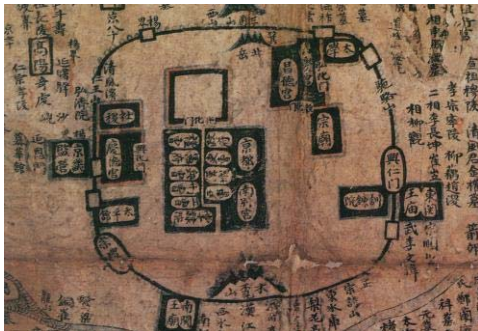
제목	경기감영도
내용	경기감영을 비롯한 돈의문 밖 일대를 그린 12폭 병풍화
규격	135.8x442.2cm
시기	19세기
소장처	삼성미술관 리움
비고	보물 1394호 관련 연구 - 강서연, 「京畿監營圖」로 본 韓國建築圖法의 특징,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희경, 「조선후기 도시풍속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윤영수, 「19세기 한양 도시주택에 관한 연구-경기감영도의 주택을 중심으로」, 경기대 석사논문, 1996 - 주영재, 「경기감영도에 나타난 조선후기 돈의문 밖 도시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작자 미상, <경기감영도>, 19세기, 135.8x442.2cm, 호암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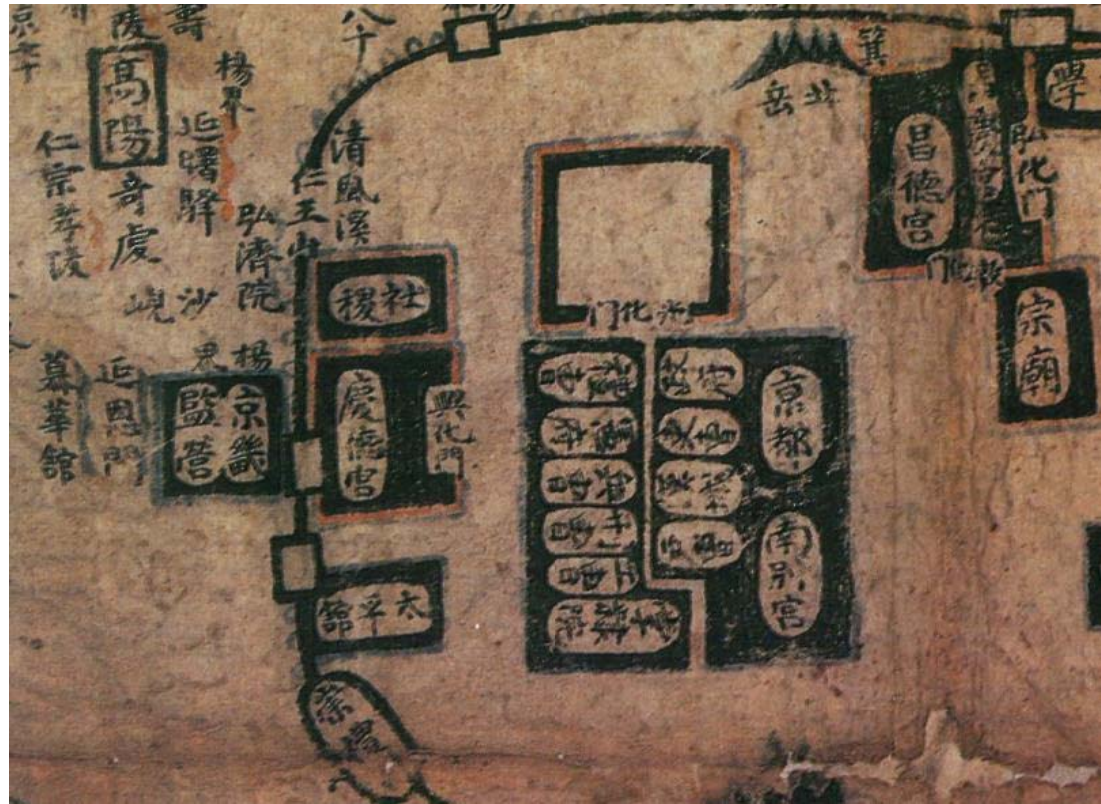
3. 지도

01 (1673년)조선팔도고금총람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조선팔도고금총람도
년도	1673년
규격	127.5×88.4cm
제작자	김수홍(金壽弘)
소장처	개인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서대문 밖으로 경기감영(京畿監營)위치 하며 왼편으로 영은문(迎恩門), 모화관(慕華館)이 차례로 표기.


--



02 (18세기)한양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한양도
년도	18세기
규격	57.0×100.3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기영(圻營)표시 없음 돈의문 밖으로 경교교 표기

03 (1720년대)도성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도성도	
년도	1720년대	
규격	27.8×19.3cm	
제작자	-	
소장처	송신여자대학교박물관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돈의문(敦義門) 밖으로 경기감영표기는 없으며, 서지(西池), 영은문, 모화관이 북쪽으로 표기됨.	


--



04 (18세기 중반)조선장안도형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조선장안도형도	
년도	18세기 중반	
규격	71.0×80.2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시종합자료실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돈의문 밖으로 감영(監營) 표기	



05 (1750년대)도성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도성도
년도	1750년대
규격	75.5×98.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신문(新門)밖으로 경기감영 위치. 빈관터 건너편 남쪽으로 경○고(京○庫)위치하며 북쪽으로 연못(○○池), 영은문, 모화관 등 있으나 글자 확인이 어려움.



06 (1760년대)한양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한양도
년도	1760년대
규격	91.5×80.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돈의문 밖으로 경고교를 지나 기영(圻營) 위치 북쪽으로 연못(池), 영은문, 모화관 표기



07 (1765년)사산금표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사산금표도
년도	1765년
규격	130.0×66.5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기영 표기는 없음 돈의문 밖으로 서지, 모화관, 영은문 표기



08 (1770년대)한양도성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한양도성도
년도	1770년대
규격	128.7×103.2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돈의문 밖으로 감영(監營) 표기 북쪽으로 연못, 모화관 등 확인되나 지도의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





09 (1780년대)한성전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한성전도	
년도	1780년대	
규격	68.5×79.7cm	
제작자	이상권(傳 李尙權)	
소장처	개인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돈의문 밖으로 감영(監營) 표기 북쪽으로 서지, 모화관 위치	



10 (1780년대)한양전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한양전도	
년도	1780년대	
규격	72.0×88.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돈의문 밖으로 기영(畿營)표기 북쪽으로 서지(西池), 중영(中營), 모화 관, 영은문 위치	



11 (1789년)성시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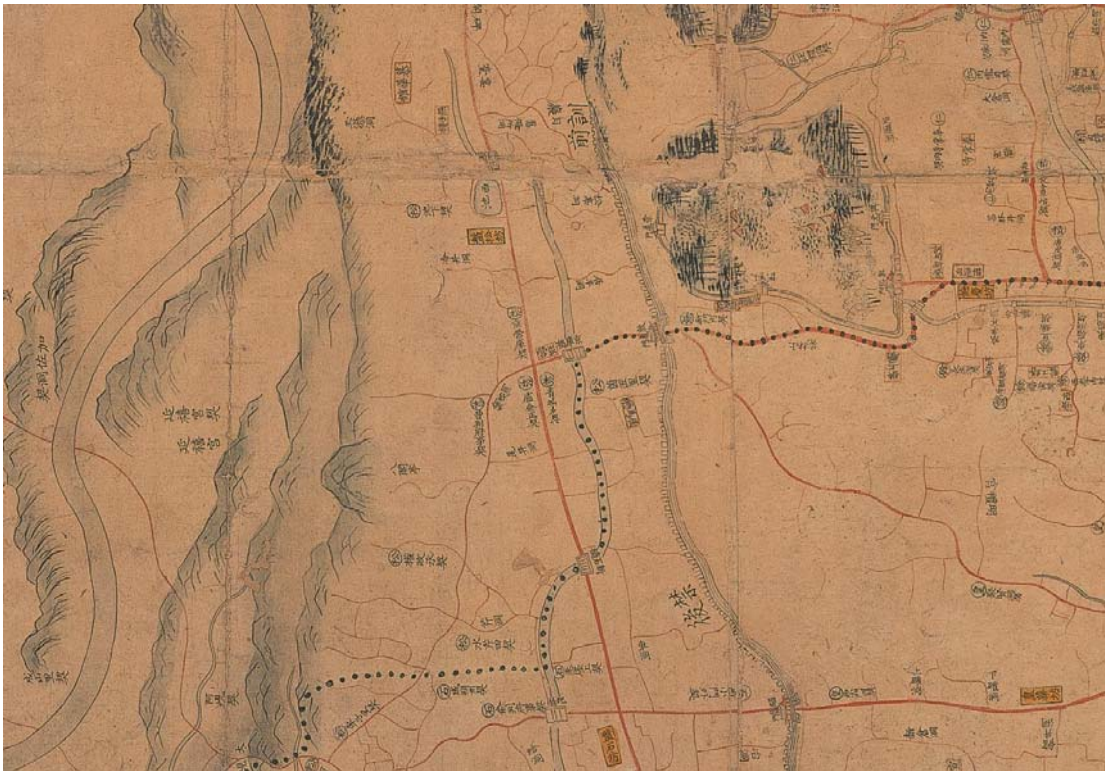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성시전도	
년도	1789년	
규격	71.0×113.0cm	
제작자	-	
소장처	개인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돈의문 밖으로 감영(監營) 표기 북쪽으로 서지, 모화관, 영은문 위치	

12 (18세기 후반)도성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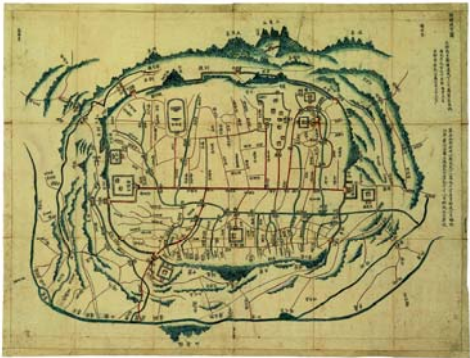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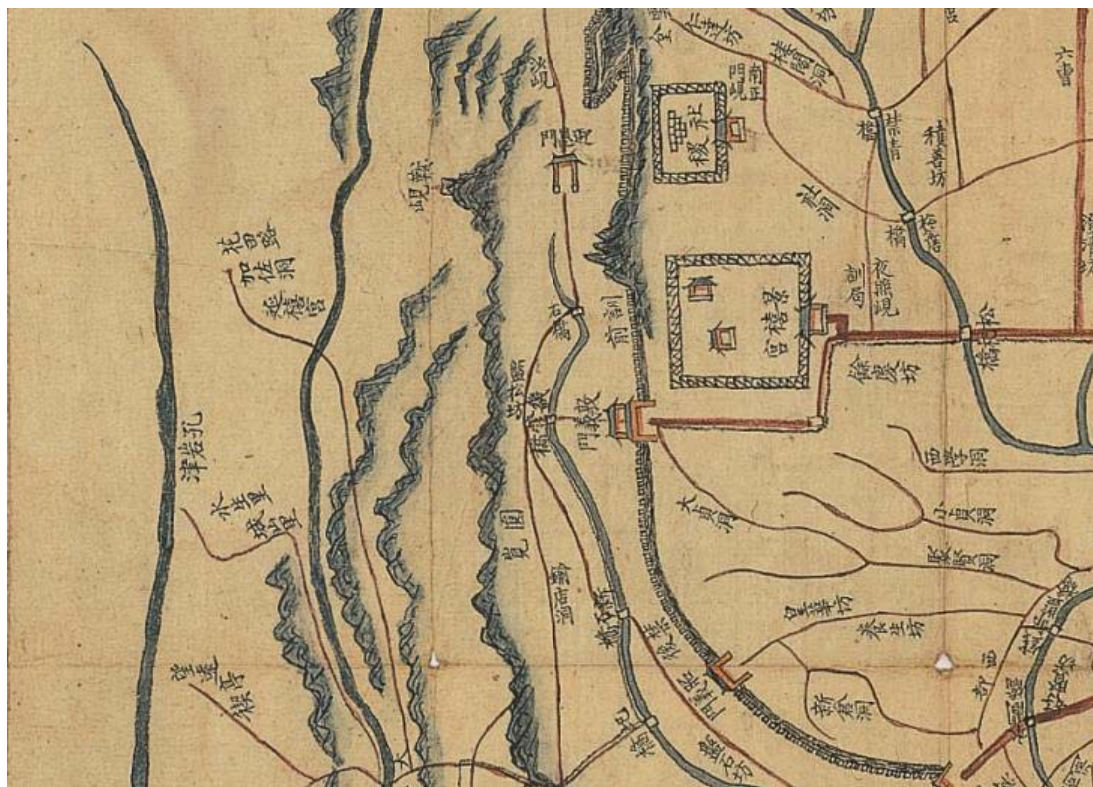
제목	도성대지도	
년도	18세기 후반	
규격	180.0×213.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돈의문에서 경고교(京庫橋)를 지나 감영(監營) 위치 북쪽으로 서지, 모화관 표기	


--

13 (1830년)조선성시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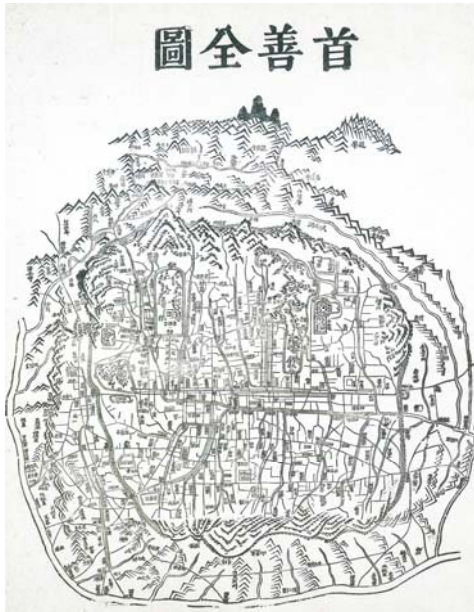
제목	조선성시도	
년도	1830년	
규격	66.0×86.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기영 표시 없음 돈의문, 영은문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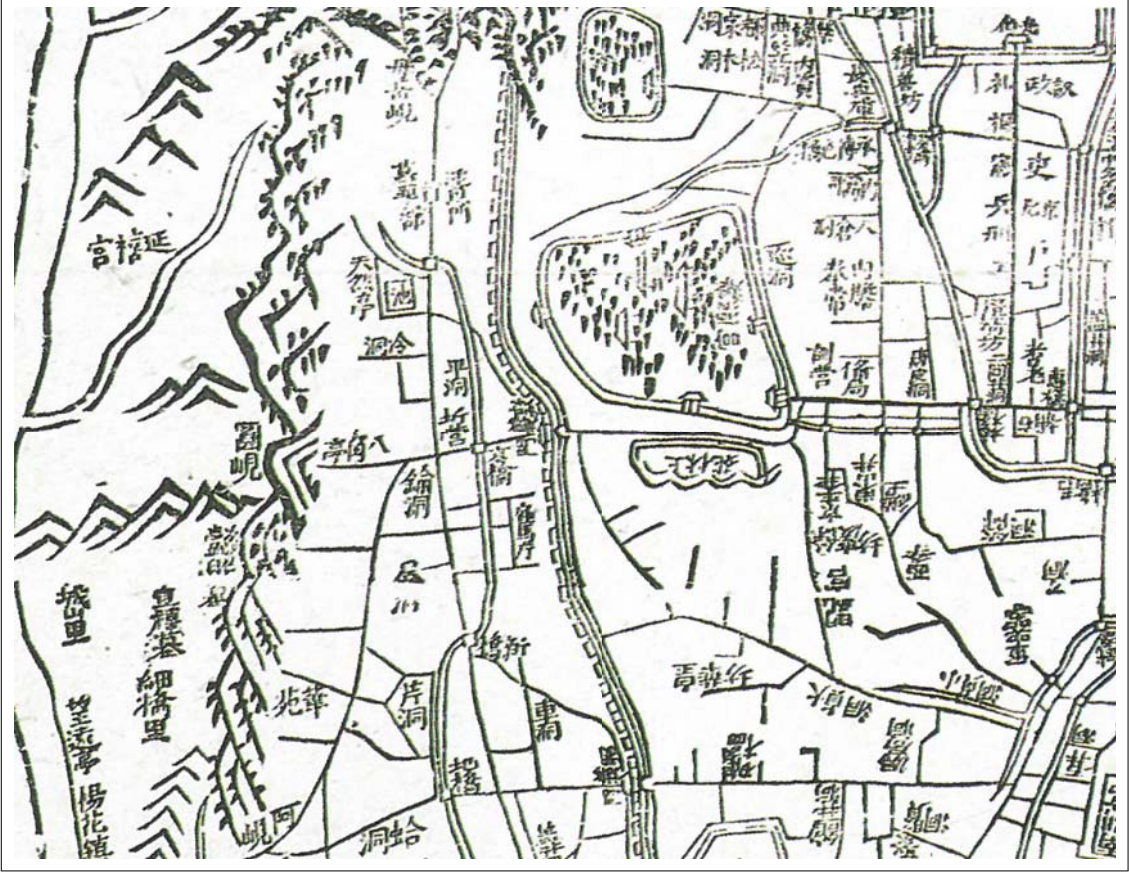


14 (1840년대)수선전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수선전도
년도	1840년대
규격	83.0×65.0cm
제작자	-
소장처	고려대학교박물관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돈의문 밖으로 기영(圻營) 표기 북쪽으로 연못(池), 천연정, 모화관, 영 은문 위치





15 (1856~1872년)경조오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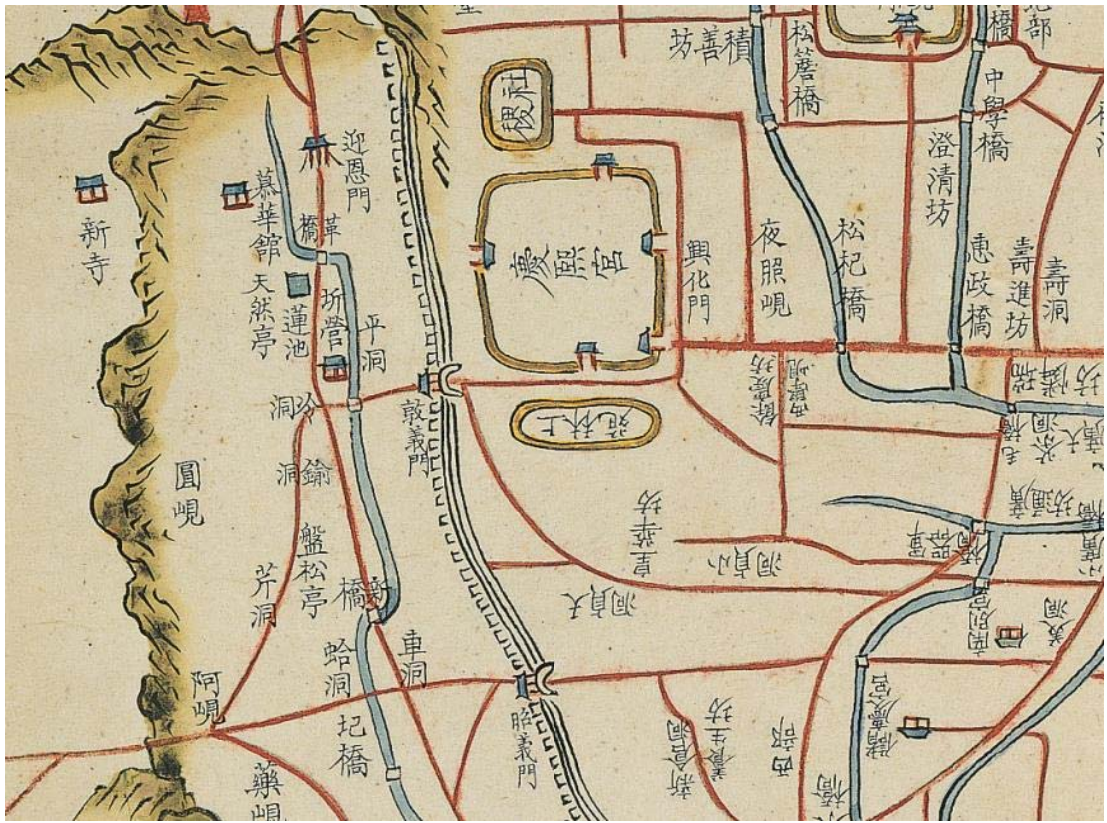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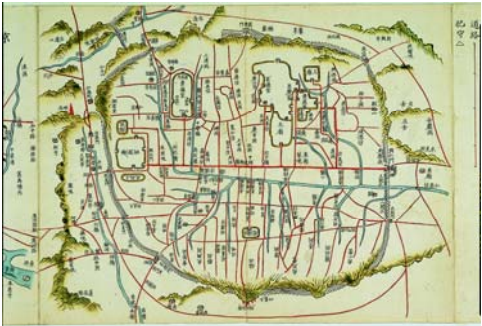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조오부도
년도	1856~1872년
규격	671.0×400.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동여도』에 수록된 「경조오부도」 기영(圻營)표시 있음. 연못이 다른지도 들과 달리 기영보다 아래 그려짐.

16 (1856~1872년)도성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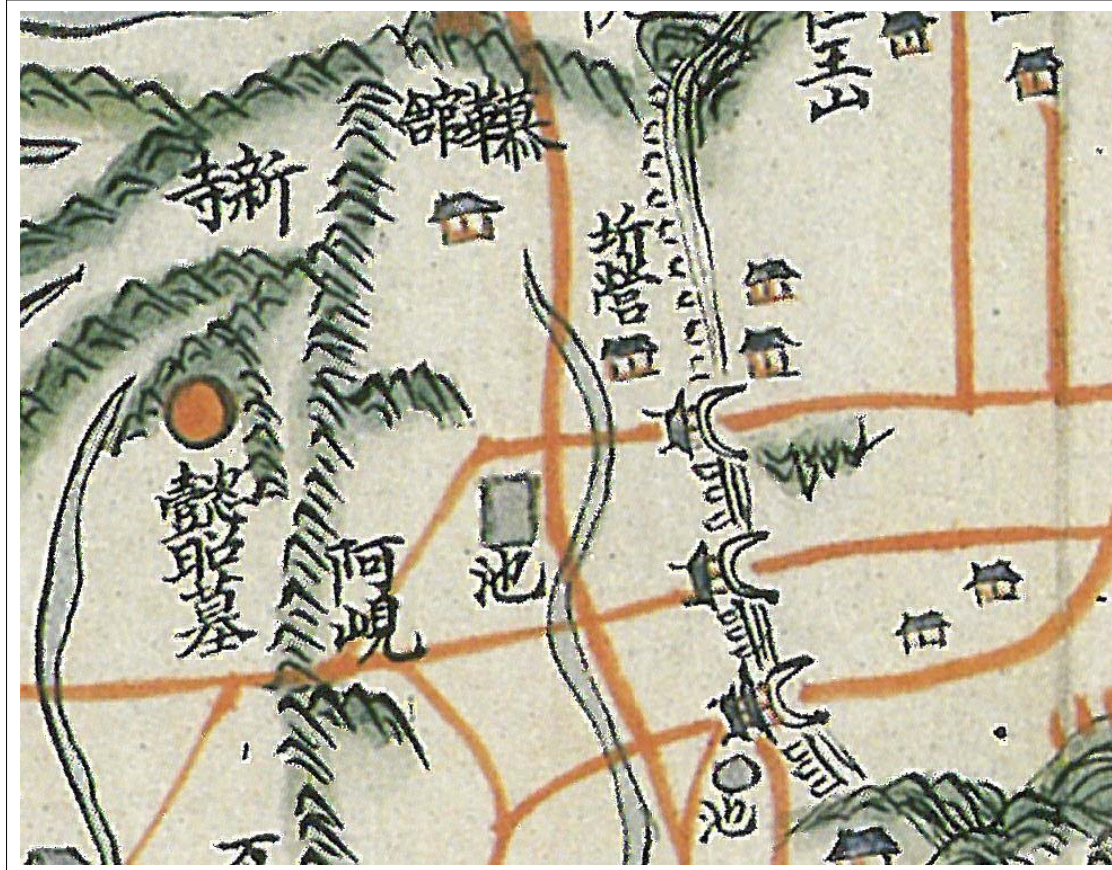
제목	도성도
년도	1856~1872년
규격	671.0×400.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동여도』에 수록된 「도성도」, 보물 제 1358호 기영(圻營)표시 있음. 기영 북쪽으로 천연정, 연지, 모화관, 영은문 있음



17 (1860년대)경조오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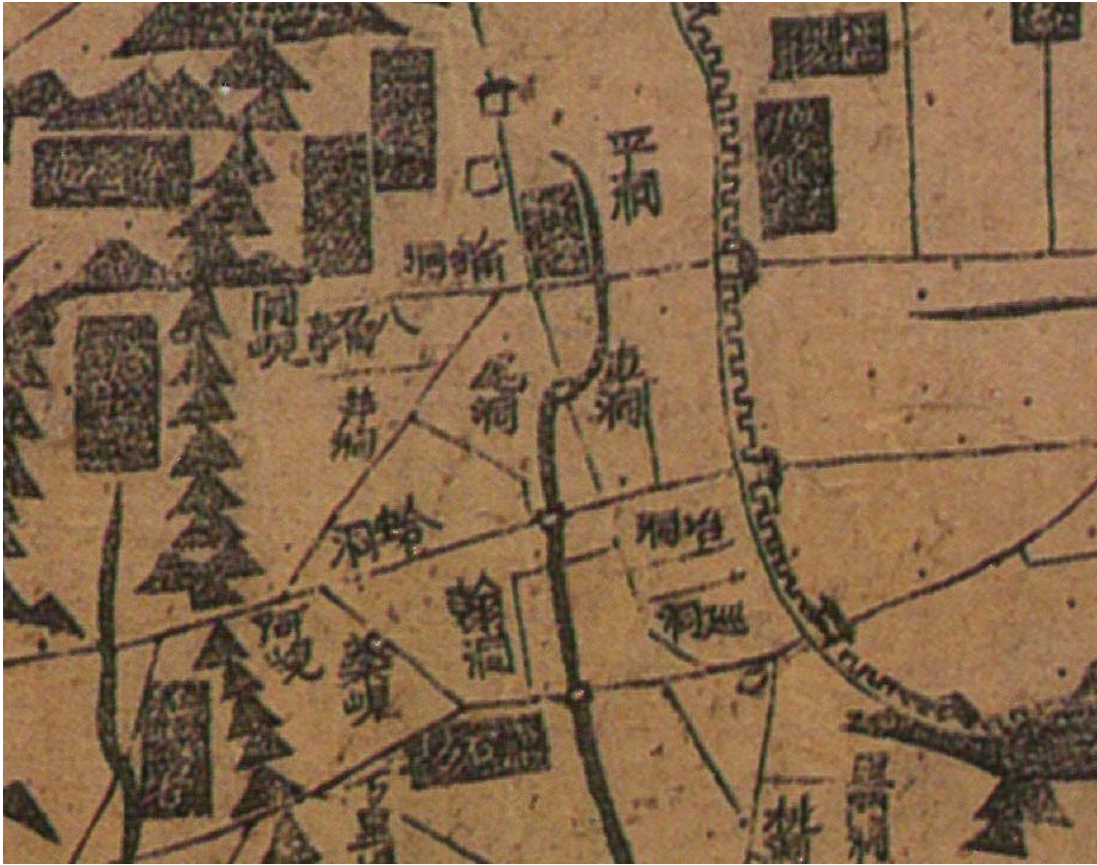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조오부도	
년도	1860년대	
규격	30.5×39.5cm	
제작자	김정호(金正浩)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기영(圻營)표기 남쪽으로 못(池), 북쪽으로 모화관 위치	



18 (1860년대)경조전강도(京兆全疆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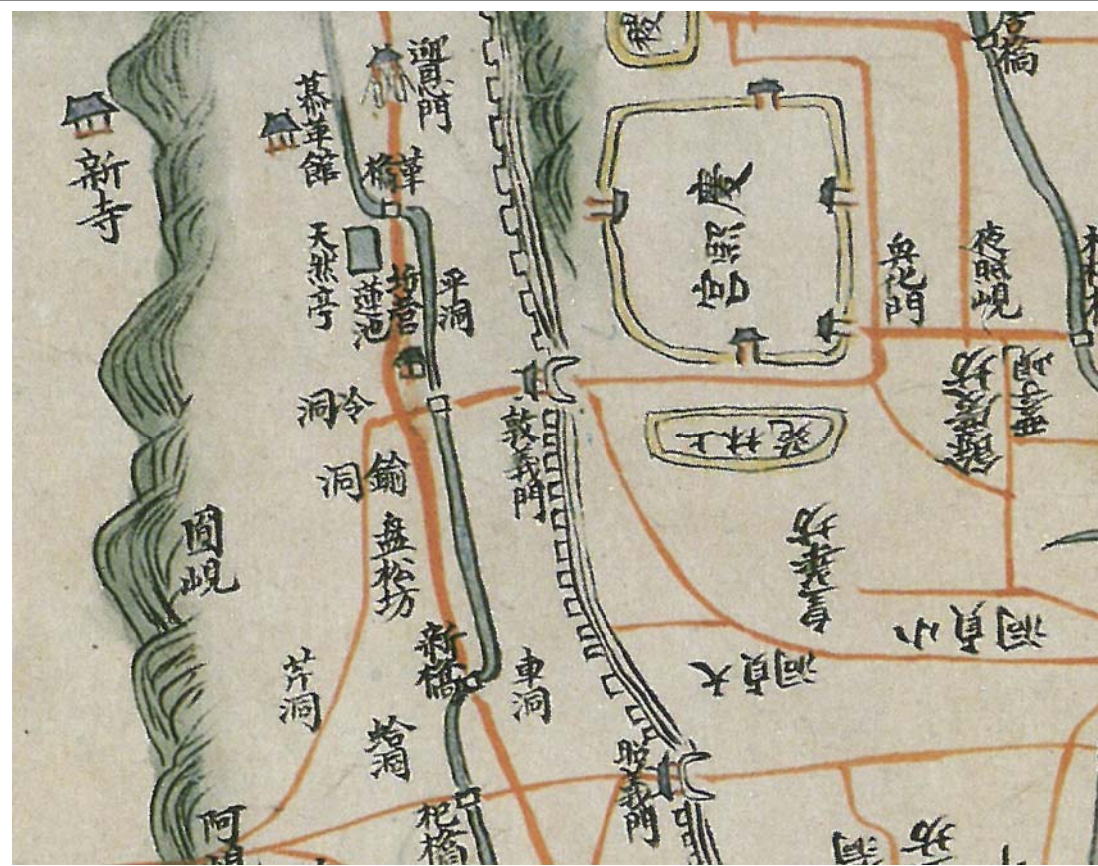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조전강도	
년도	1860년대	
규격	83.0×65.0cm	
제작자	-	
소장처	고려대학교박물관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감영 위치에 표기있으나 글자 확인이 어려움	

19 (1860년대)도성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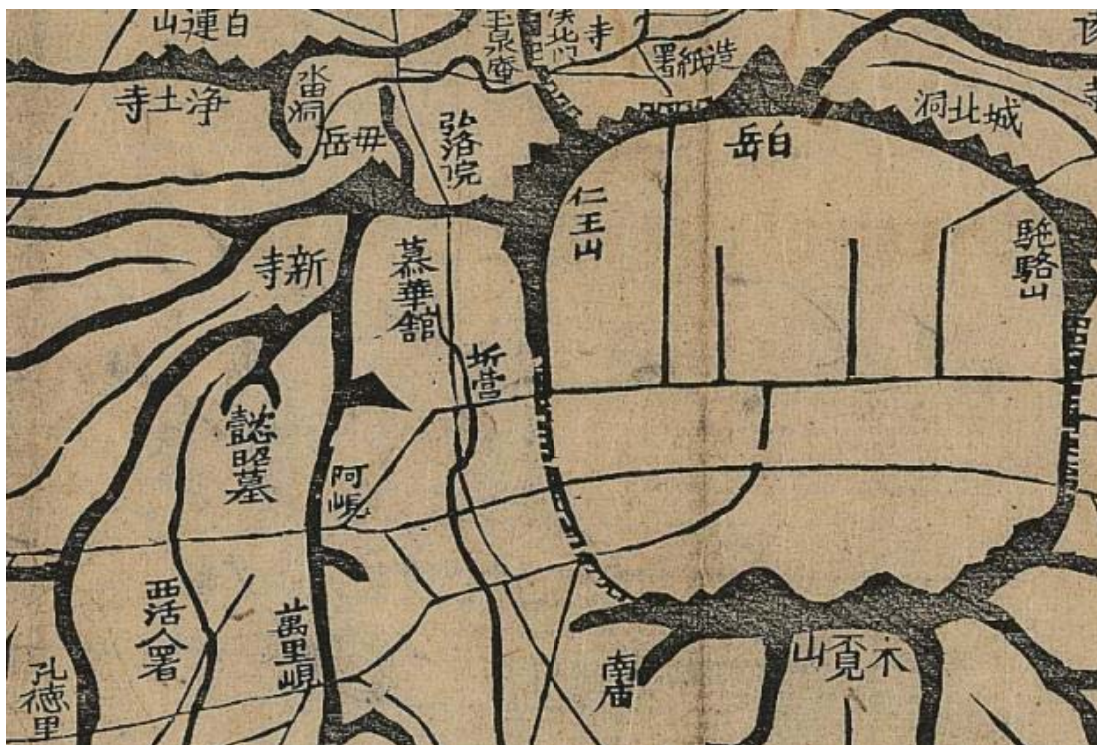
제목	도성도
년도	1860년대
규격	30.5×39.5cm
제작자	김정호(金正浩)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돈의문 밖으로 기영(圻營)표기 북쪽으로 연지, 천연정, 모화관, 영은문 위치



20 (1861년)경조오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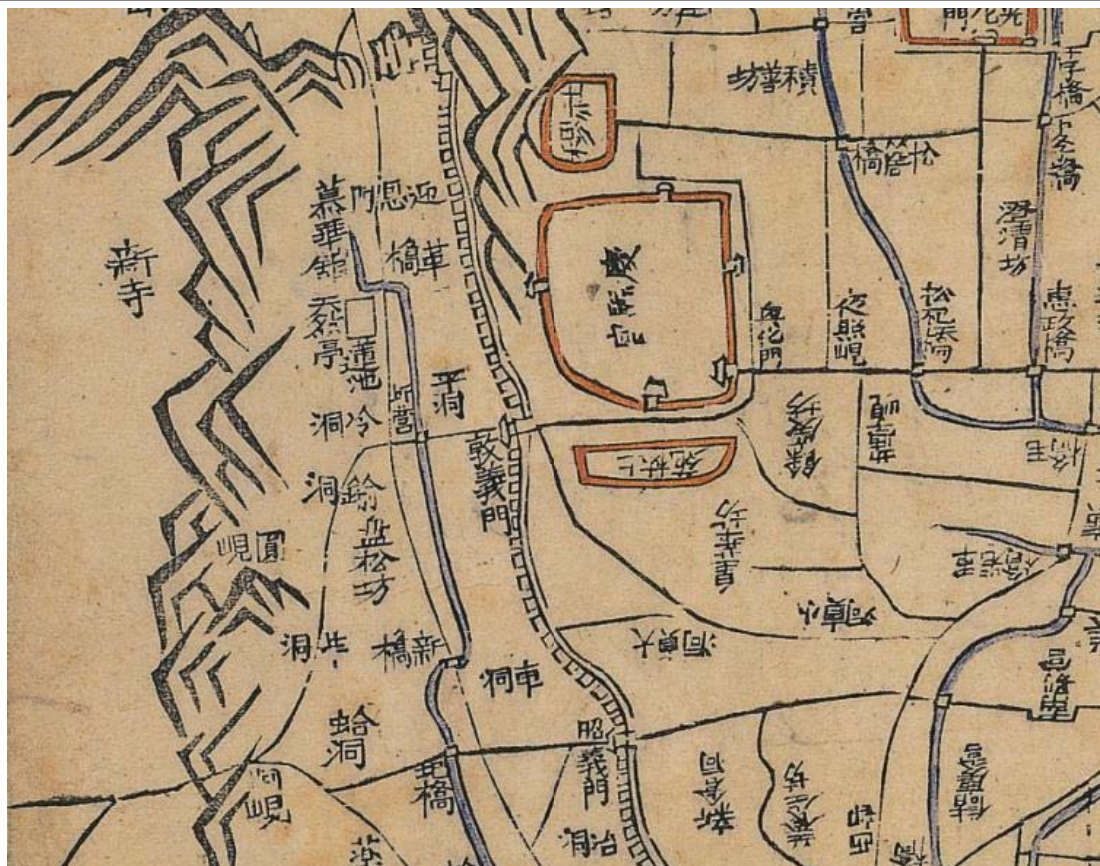
제목	경조오부도
년도	1861년
규격	630.0×520.0cm
제작자	김정호(金正浩)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경조오부도」 기영(圻營)표시 북쪽으로 모화관 존재 보물 제850호



21 (1861년)도성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도성도
년도	1861년
규격	630.0×520.0cm
제작자	김정호(金正浩)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도성도」 기영(圻營)표시 북쪽으로 연지, 천연정, 모화관, 영은문 존재 보물 제850호



22 (1861년)수선전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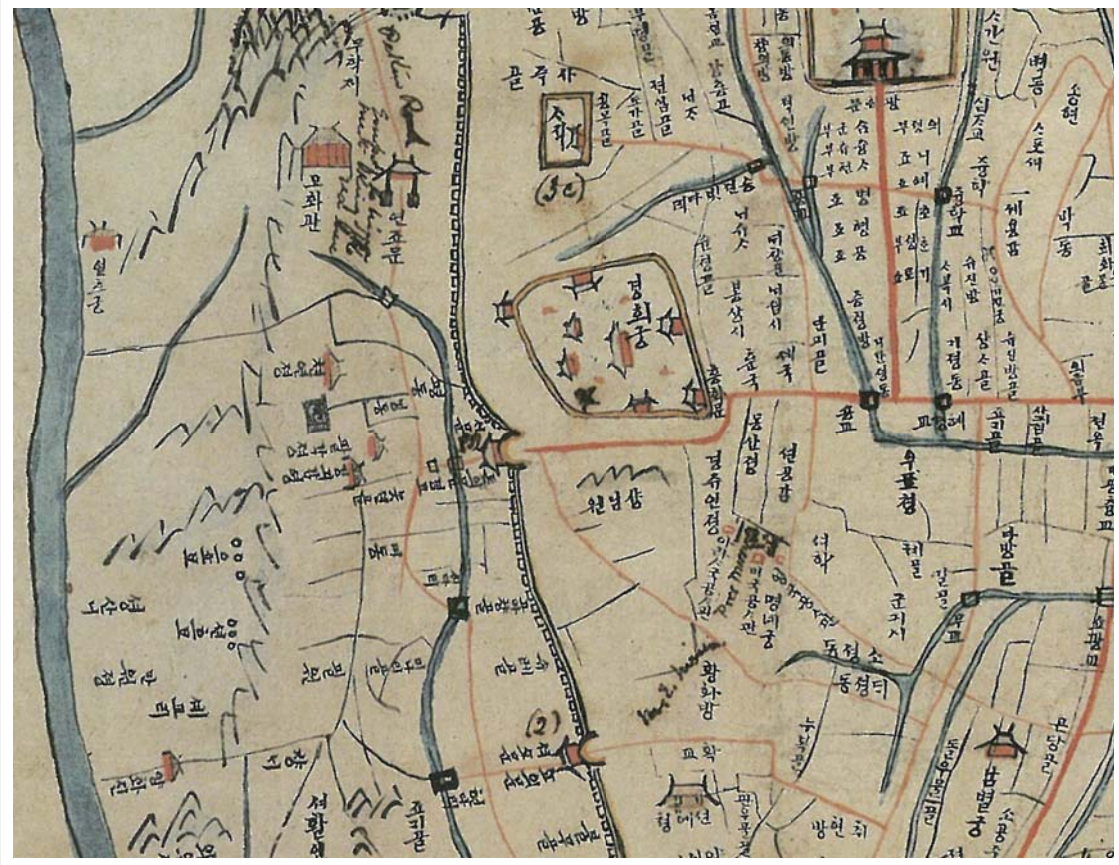
제목	수선전도
년도	1861년
규격	160.8×79.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기영(圻營)표시 우측으로 경교, 북으로 못(池), 천연정, 모화관, 영은문 존재 남쪽에 고마청(雇馬廳)표기



23 (1892년경)수선전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수선전도
년도	1892년경
규격	99.0×70.0cm
제작자	-
소장처	연세대학교박물관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돈의문(서문)밖으로 팔각정, 경기감영 표기(팔각정이 경기감영보다 우측에 표기되어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임) 북쪽으로 연못, 천연정, 연효문, 모화관, 위치



24 (1900년)경성부근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성부근지도
년도	1900년
규격	26.0×34.7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세계전도』에 수록된 「경성부근지도」 기영(圻營)표시, 주변에 모화관 존재





25 (1900년)한양경성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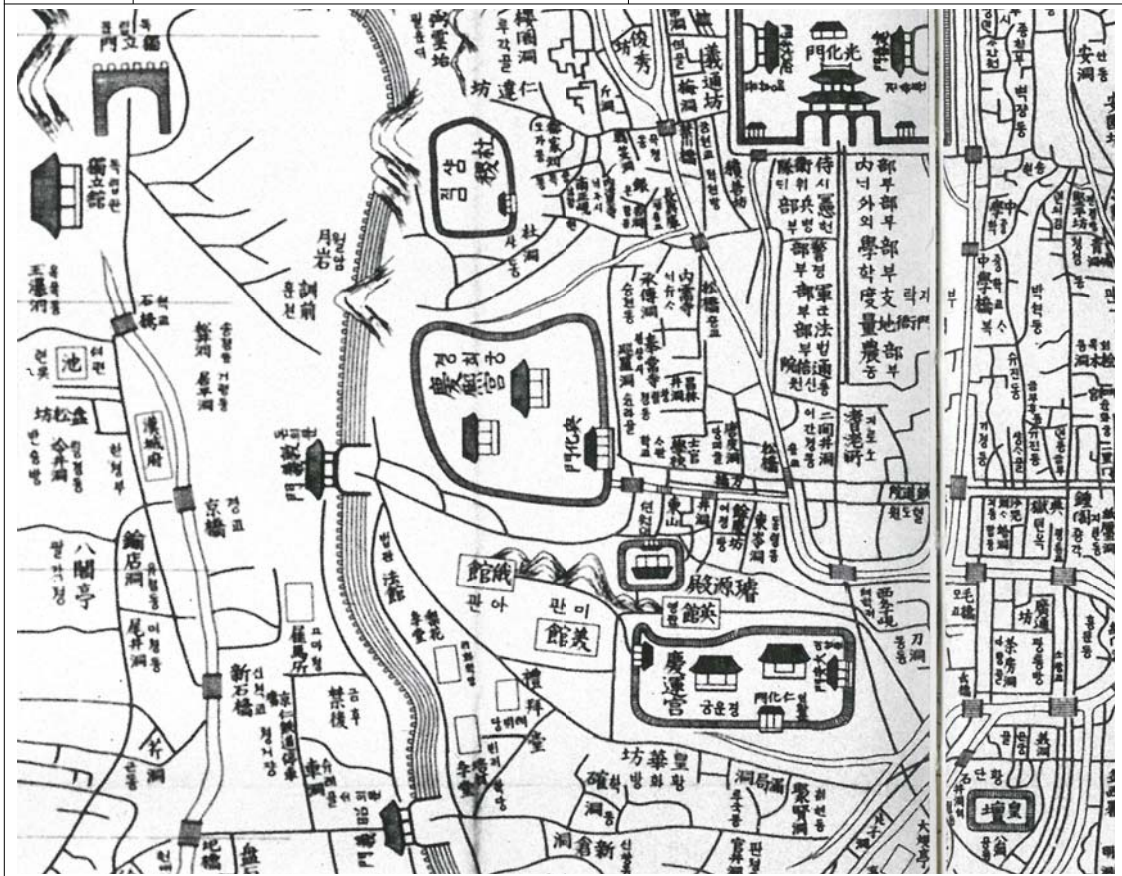
제목	한양경성도
년도	1900년
규격	26.0×34.7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세계전도』에 수록된 「한양경성도」 북으로 천연정, 모화관, 영은문 존재 기영표시는 없으며 기영위치 주변에 옛 일본공사관(旧日本公使館)존재



26 (1900년)MAP OF SEOUL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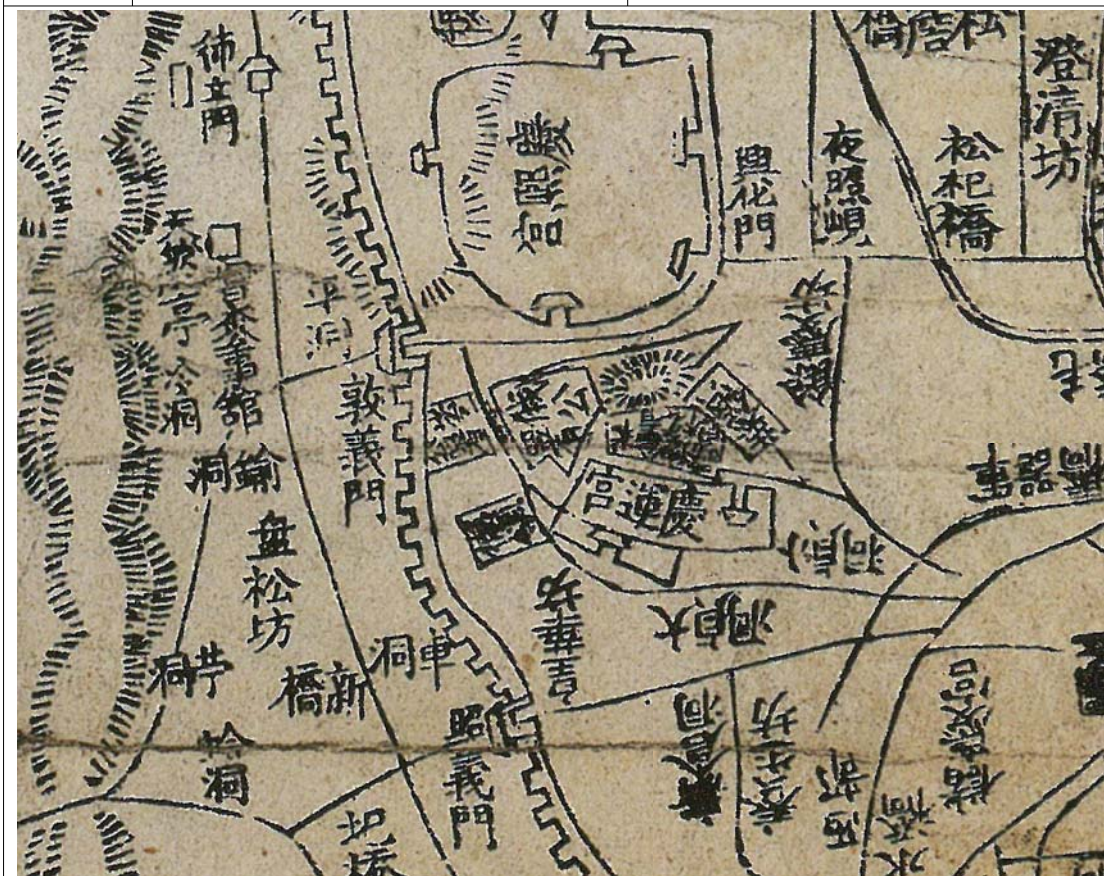
제목	MAP OF SEOUL
년도	1900년
규격	45.0×45.0cm
제작자	-
소장처	영국왕립아세아협회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감영자리에 한성부 표기 한성부 북쪽으로 서편연못, 독립관, 독립문 위치 남쪽으로는 팔각정, 고마청(雇馬廳) 확인 (앞의 1900년 한양경성도에서는 영은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자리에 독립문 표기됨)



27 (1900년경)한양경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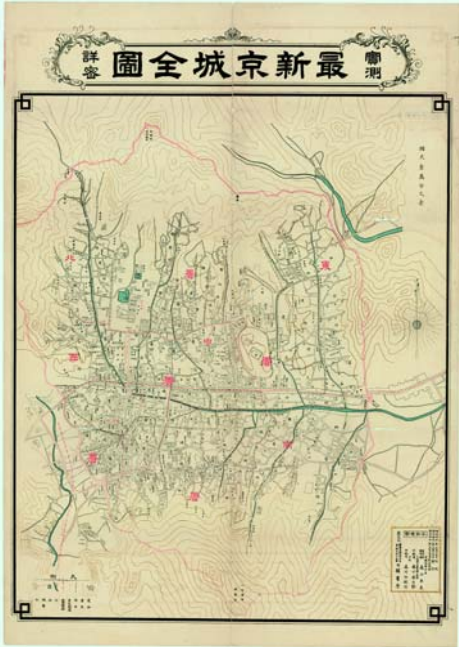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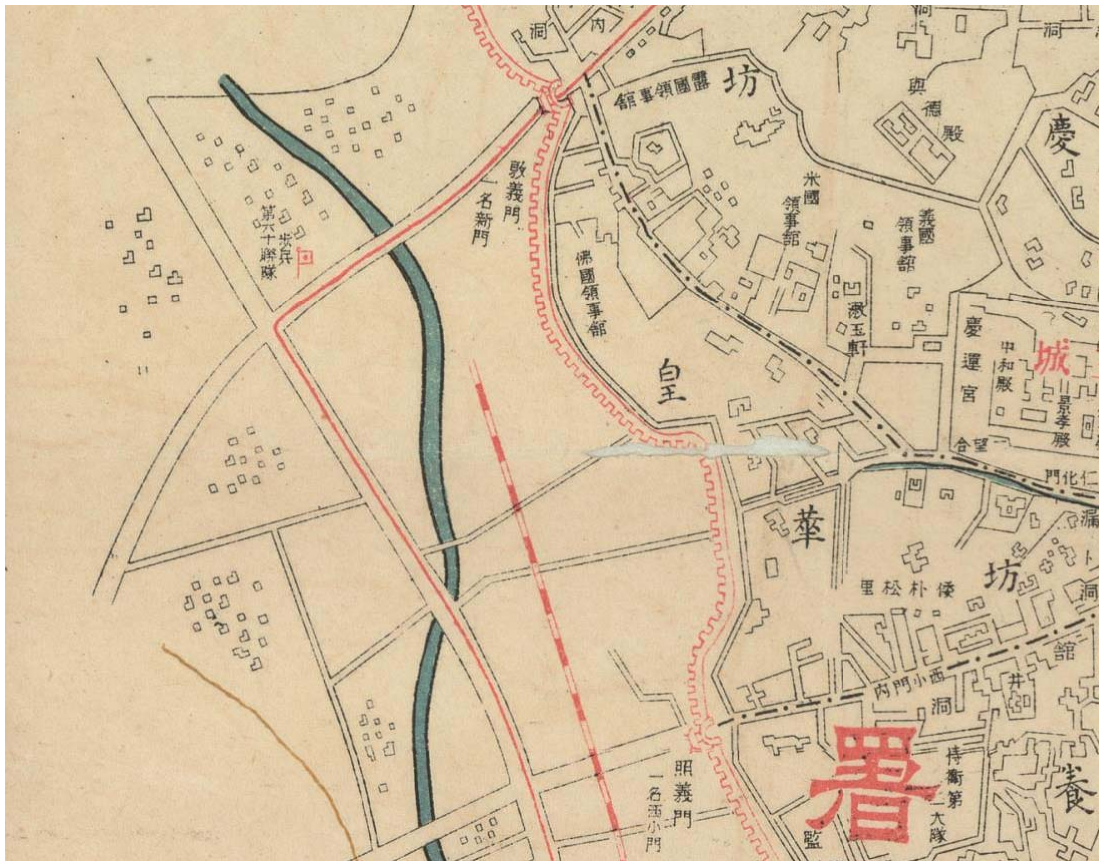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한양경성도
년도	1900년경
규격	20.0×28.0cm
제작자	-
소장처	개인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대한여지도』(152.0×84.5cm)에 수록된 「한양경성도」 북으로 천연정, 일본공사관(旧日本公使館)존재하며 독립문(狹立門)자리



28 (1907년)최신경성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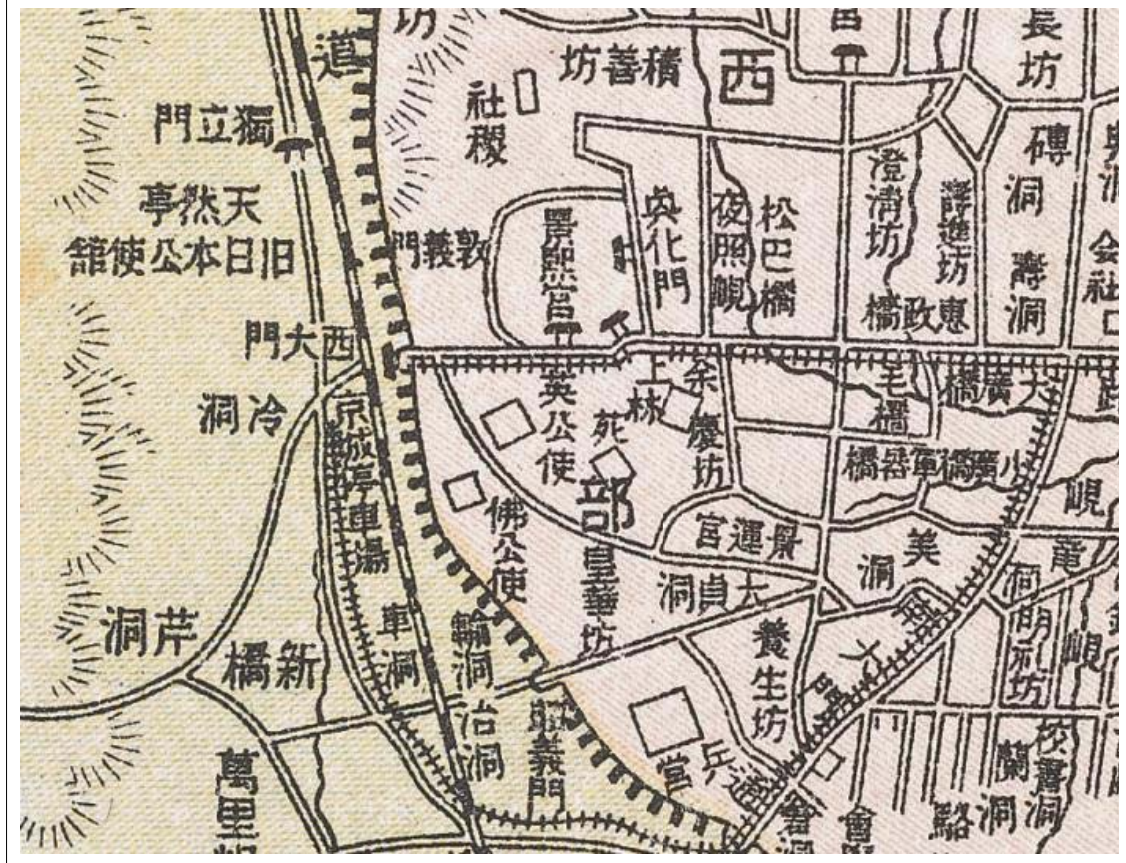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최신경성전도	
년도	1907년	
규격	74.8×52.9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돈의문(一名新門)밖으로 경기감영이 위치했던 자리에 보병제60연대(步兵第六十聯隊) 자리	

29 (1908년)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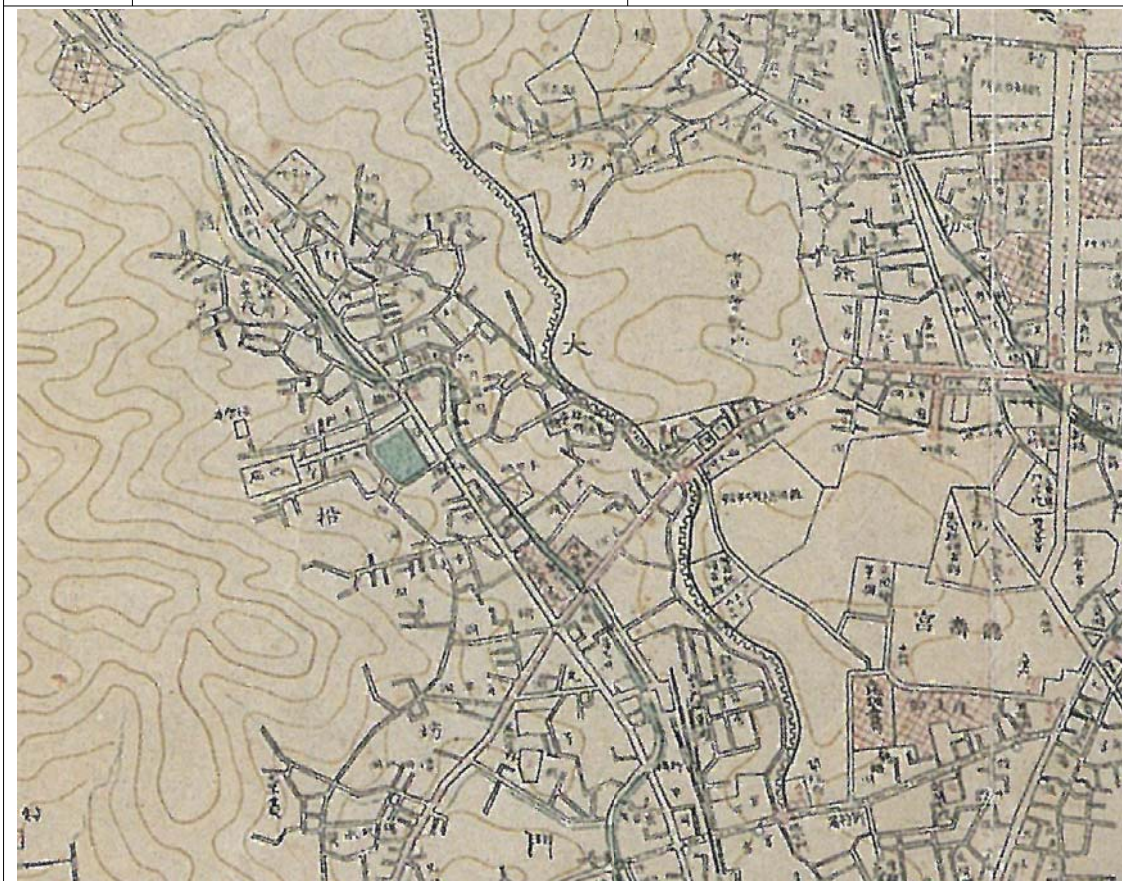
제목	경기도
년도	1908년
규격	26.8×36.8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신정분도대한제국지도』에 수록된 「경기도」 서대문 밖으로 구일본공사관, 천연정, 독립문 위치 남쪽으로 경성정거장 위치.



31 (1910년)경성용산시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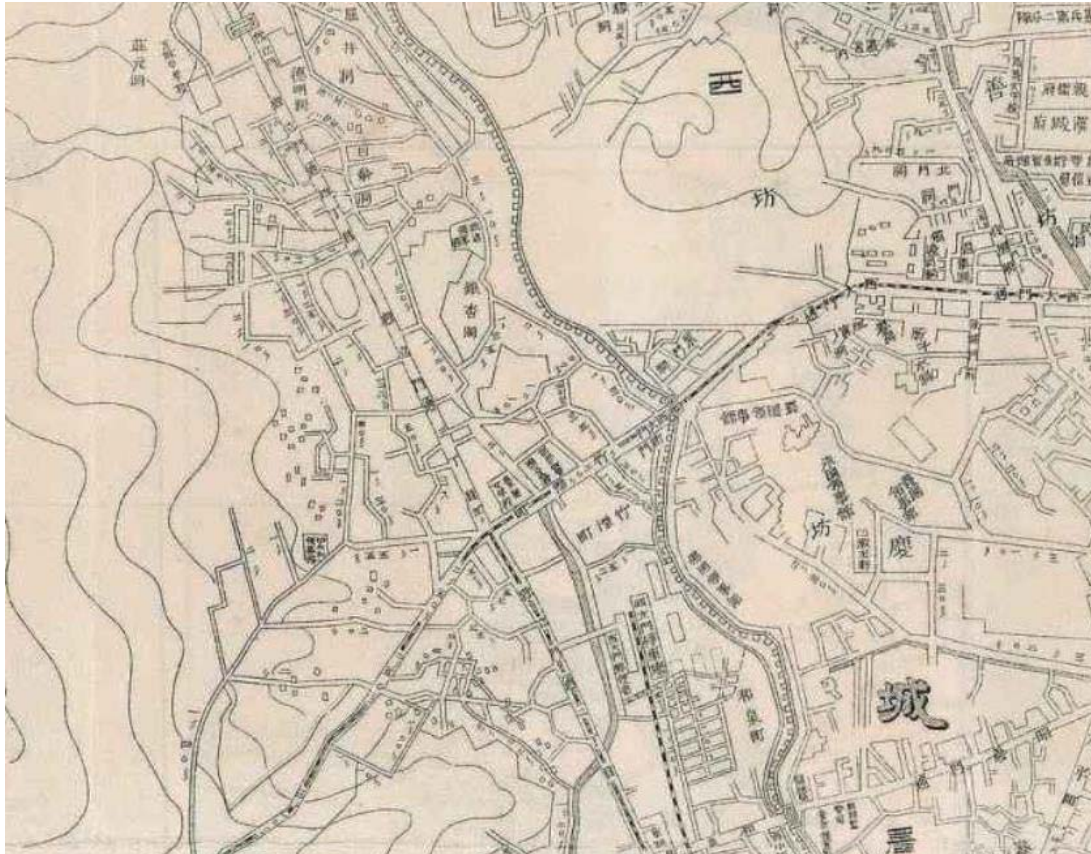
제목	경성용산시가도
년도	1910년
규격	83.0×56.0cm
제작자	-
소장처	윤형두(尹炯斗)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글자가 작아 확인이 어려움



32 (1910년)경성시가전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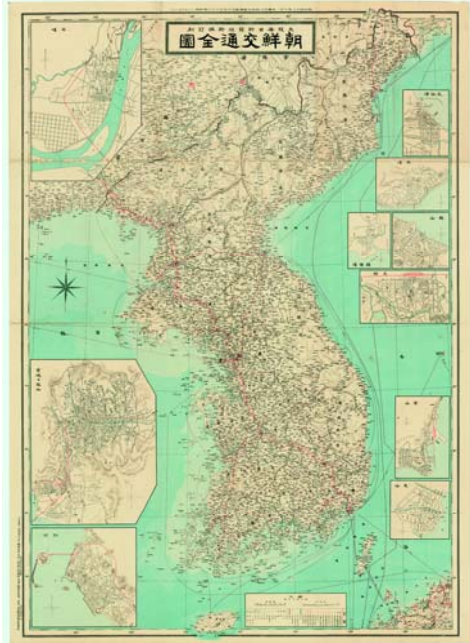
제목	경성시가전도	
년도	1910년	
규격	108.8×115.5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1911년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와 지도 명칭은 동일 경기감영있던 자리에 학교(養〇〇學校) 위치, 우측으로 서부경찰분서(西部警察分署). 북쪽에 못과 독립문, 경성중학교 존재.	



33 (1910년)조선교통전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조선교통전도
년도	1910년
규격	109.2×78.2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조선교통전도』에 별쇄(別刷)된 「경성 및 용산(京城及龍山)」 경기감영이 있던 자리에 가병사(假兵舍)존재, 우측으로 서부경찰서, 서대문(新門) 존재. 남쪽으로는 서대문정거장이 있으며, 북으로는 독립문, 감옥(監獄)위치 ※「정도600년서울지도」 113P에는 1923년도 지도라고 써있음



34 (1911년)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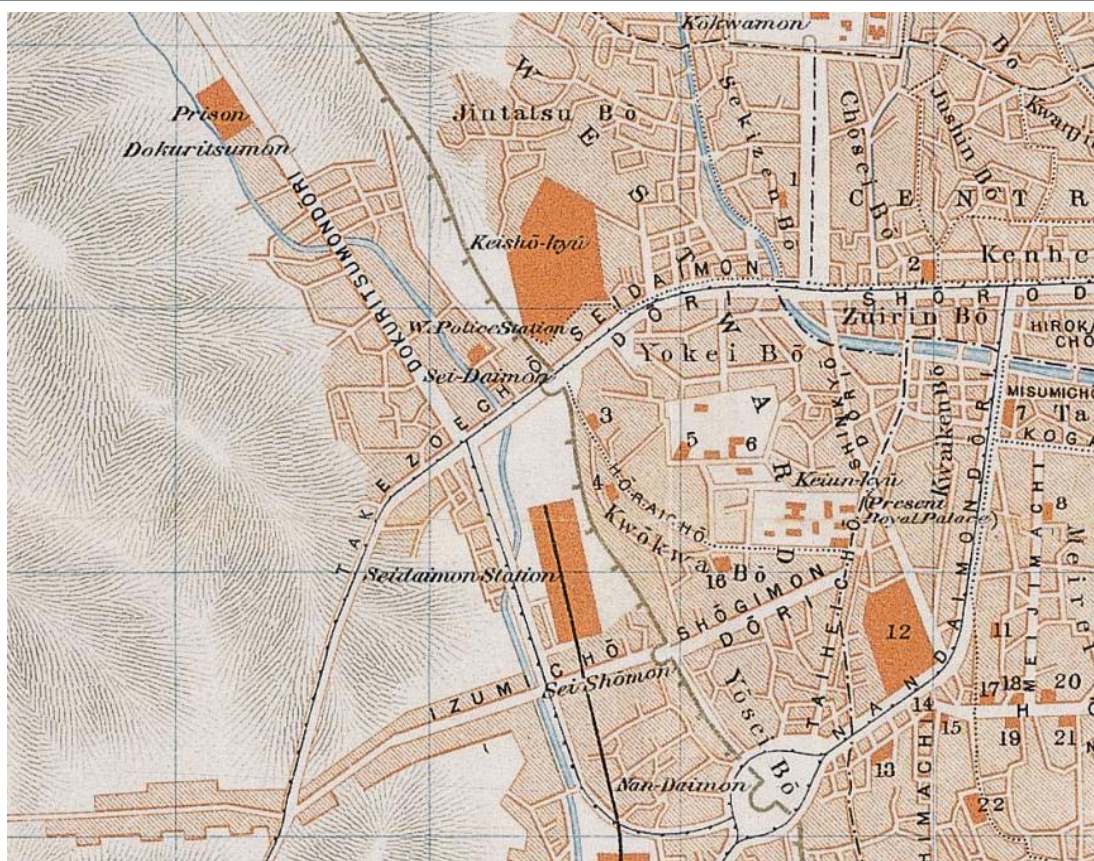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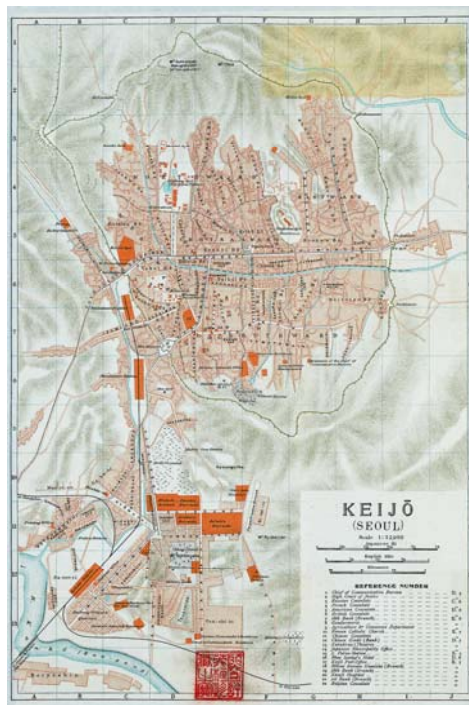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용산합병경성시가전도
년도	1911년
규격	78.2×54.7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있던 자리에 여학교(養女學校)위치, 우측으로 서부경찰분서(西部警察分署). 북쪽에 못과 독립문, 경성중학교 존재.

35 (1913년)경성도 KEIJO(SEOUL)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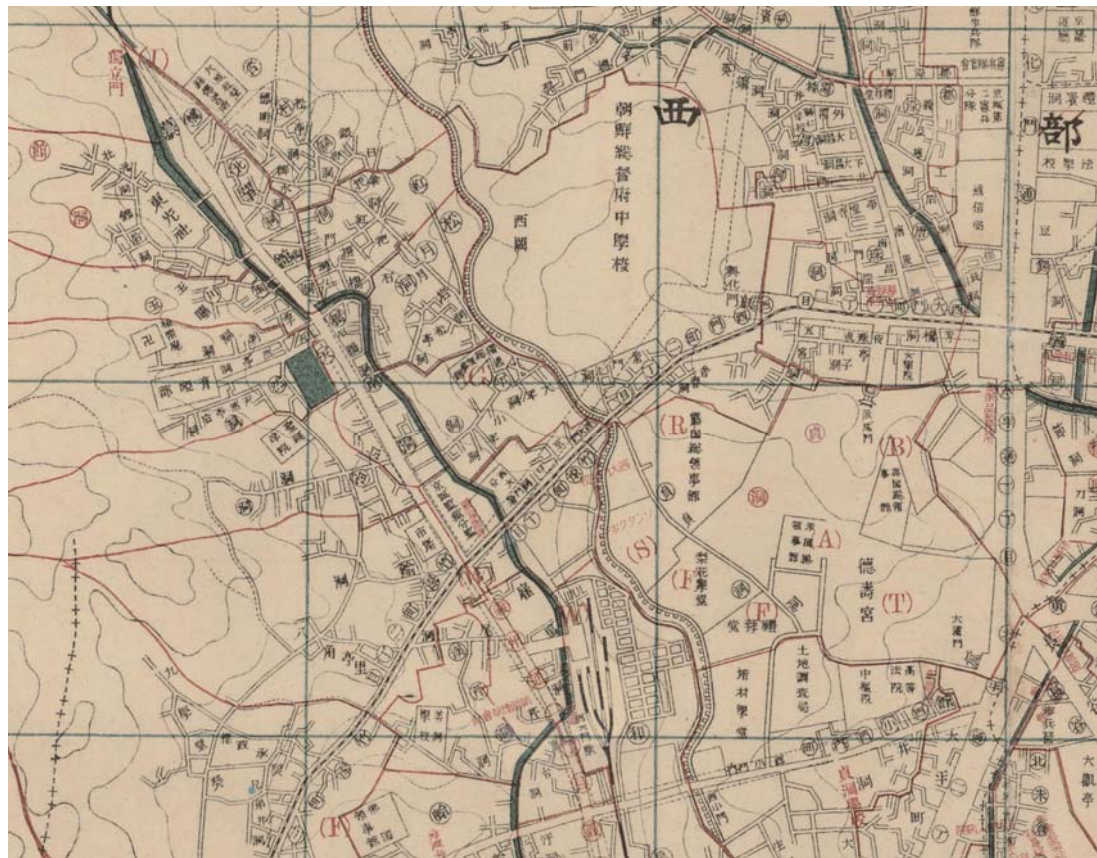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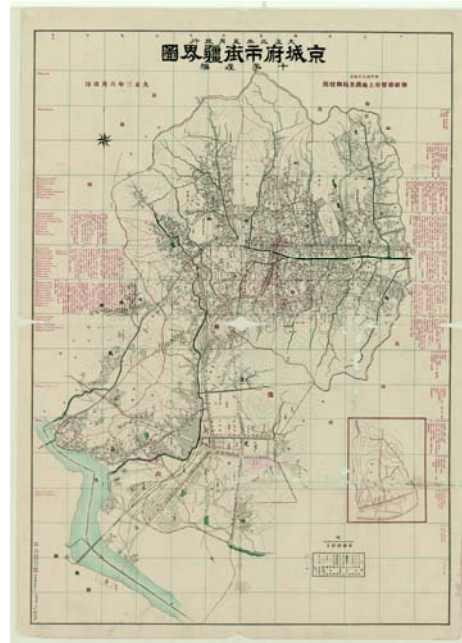
제목	경성도 KEIJO(SEOUL)
년도	1913년
규격	72.7×32.6cm
제작자	일본제국철도국(日本帝國鐵道局)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표기 없음



36 (1914년)경성부시가강계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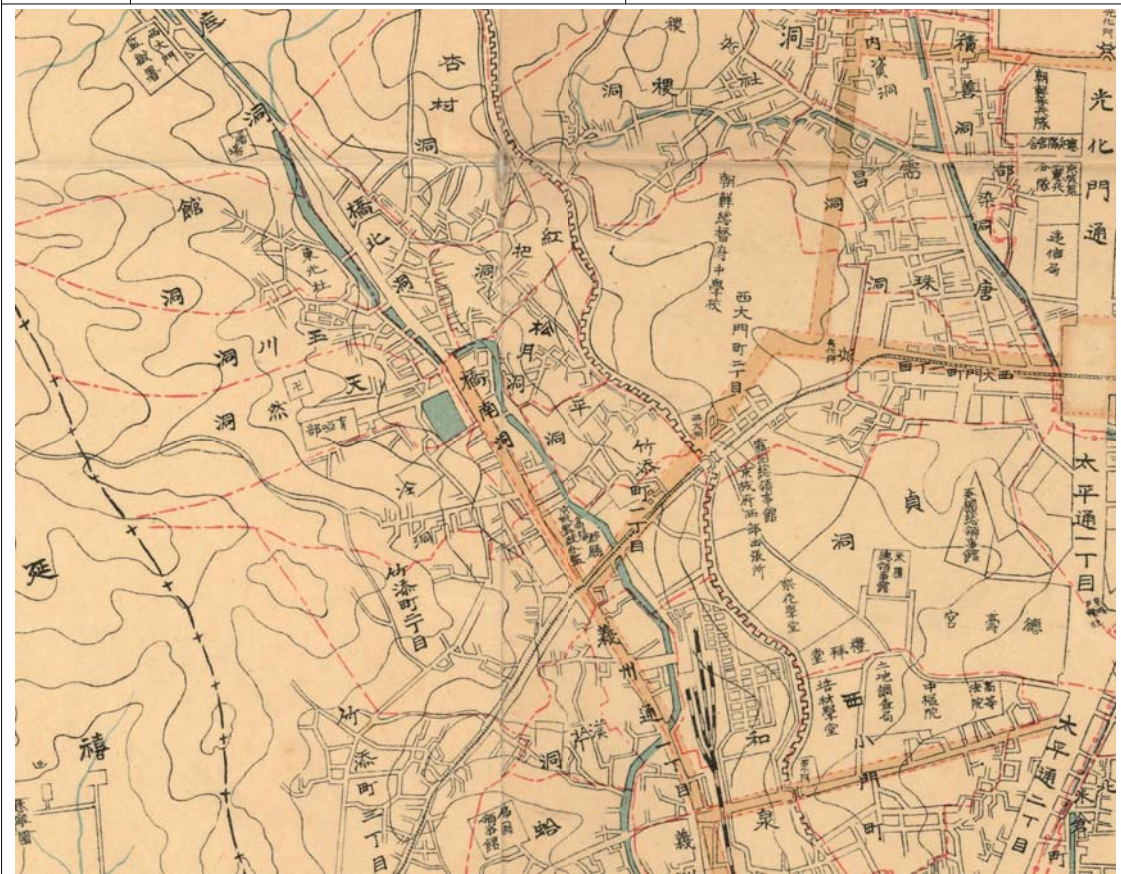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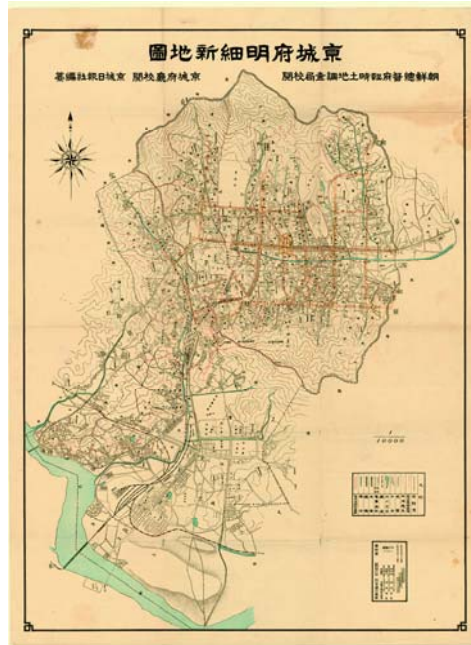
제목	경성부시가강계도
년도	1914년
규격	109.4×77.5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위치에 경성감옥분감(京城監獄分監), 빈관자리에는 서대문분서(西大門分署)위치. 경성감옥분감 우측에는 빨간색으로 고양군청(高陽郡廳)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표기됨. 경성감옥분감 건너편에는 시장(市場), 북쪽으로는 못과 독립문(빨간글자), 우측으로 서대문 존재.



37 (1914년)경성부명세신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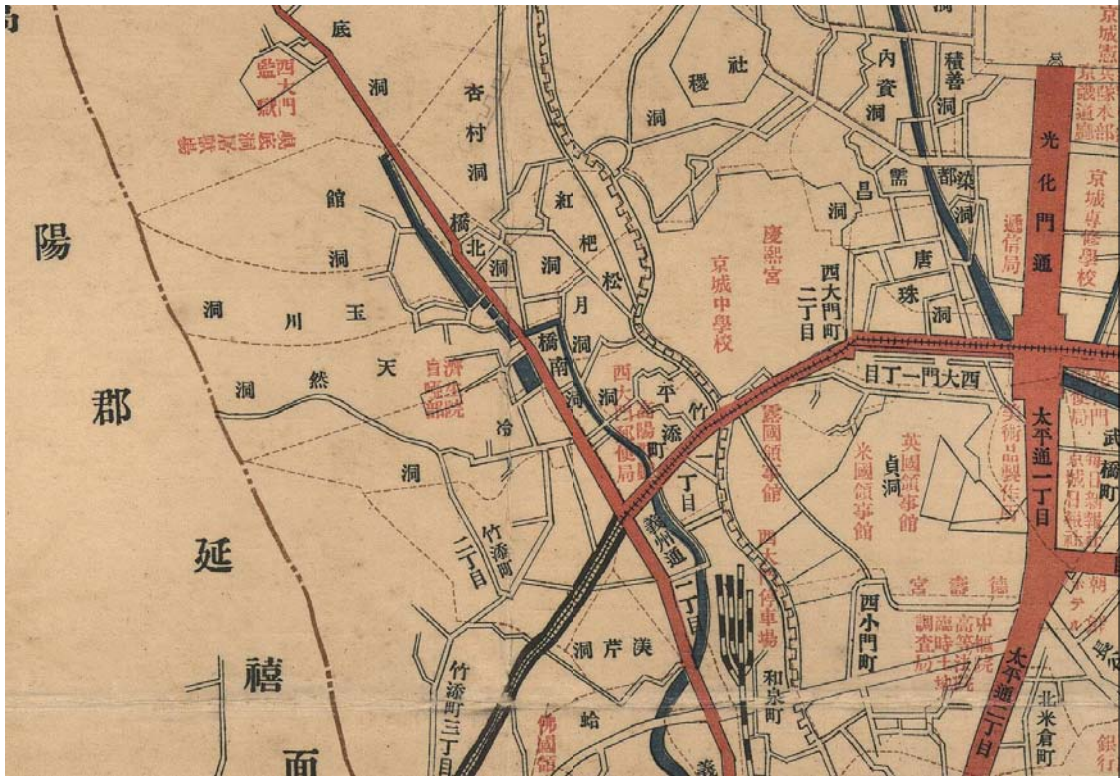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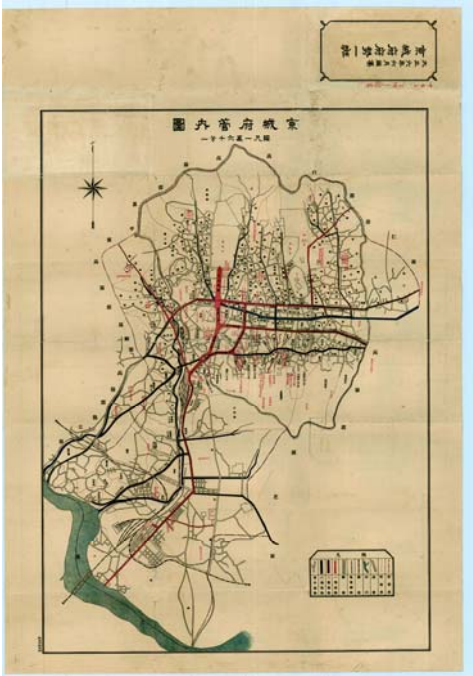
제목	경성부명세신지도
년도	1914년
규격	109.5×80.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위치에 경성감옥분감(京城監獄分監), 고양군청(高陽郡廳)위치. 북쪽으로 연못, 맹아부(盲啞部), 서대문 감옥서(西大門監獄署) 자리.



38 (1917년)경성부관내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성부관내도
년도	1917년
규격	78.4×54.3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성부부세일반』에 수록된 「경성부관내도」 경기감영터에 서대문우편국(西大門郵便局)과 고양군청(高陽郡廳)위치. 북쪽으로 못과 제생원맹아부(濟生院盲啞部), 서대문감옥(西大門監獄) 존재.



39 (1917년)경성시가전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성시가전도	
년도	1917년	
규격	76.0×53.4cm	
제작자	-	
소장처	윤형두(尹炯斗)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글자가 작아서 확인이 어려움	



40 (1922년)경성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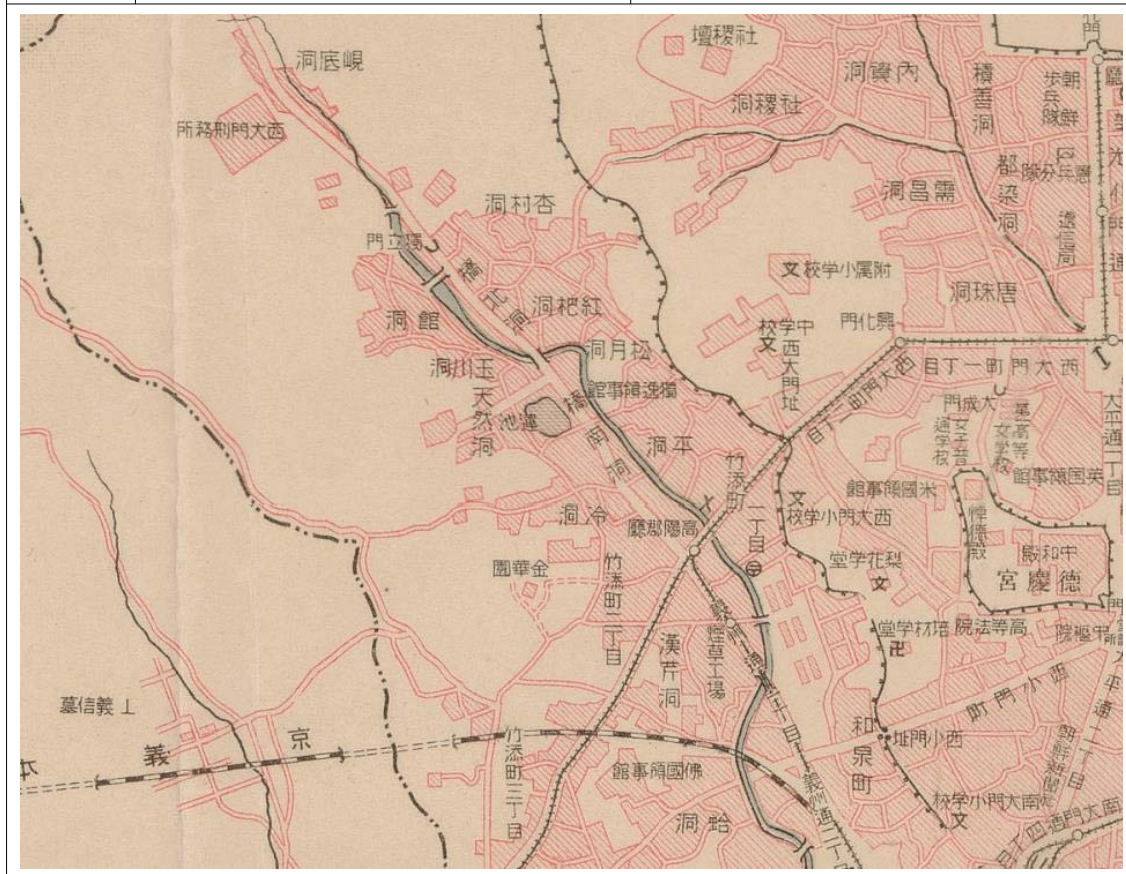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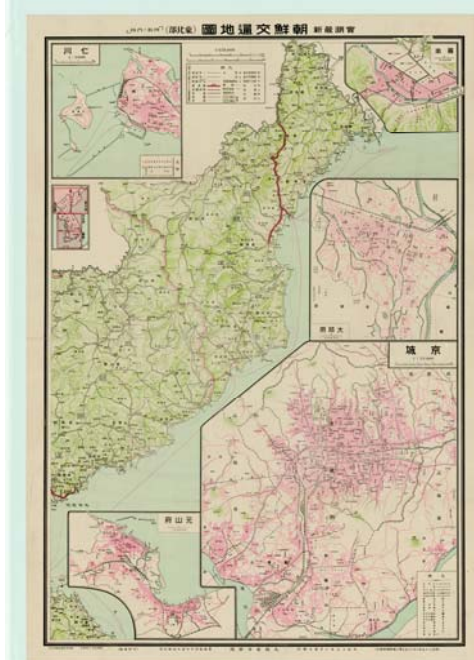
제목	경성도	
년도	1922년	
규격	122.0×129.8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화질이 좋지 않음	



41 (1924년)경성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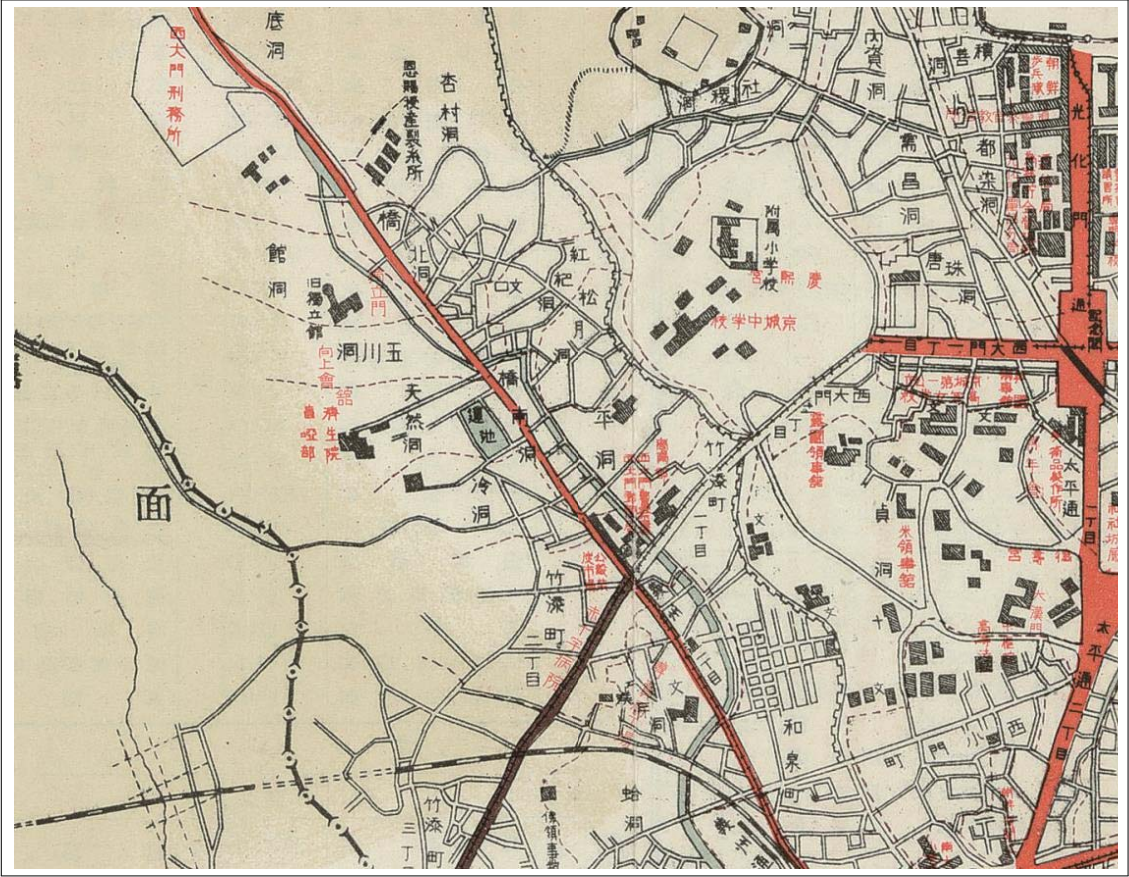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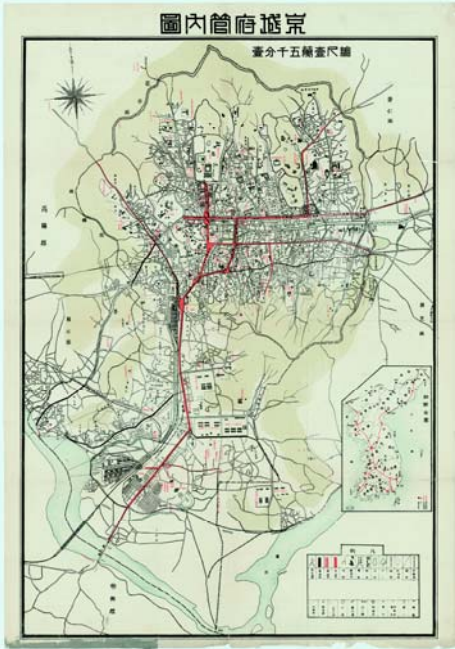
제목	경성도
년도	1924년
규격	77.8×53.7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조선교통지도』에 수록된 「경성도」 경기감영자리에 고양군청(高陽郡廳)위치, 북쪽으로 연지(蓮池), 독일영사관(獨逸領事館), 독립문,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 존재.



42 (1927년)경성부관내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성부관내도
년도	1927년
규격	78.5×54.8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터에 고양군(高陽郡) 서대문경찰서(西大門警察署)와 서대문우편국(西大門郵便局) 위치. 북쪽으로 연못(蓮池)과 제생원맹아부(濟生院盲啞部), 서대문감옥(西大門監獄) 존재.



43 (1927년)경성시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논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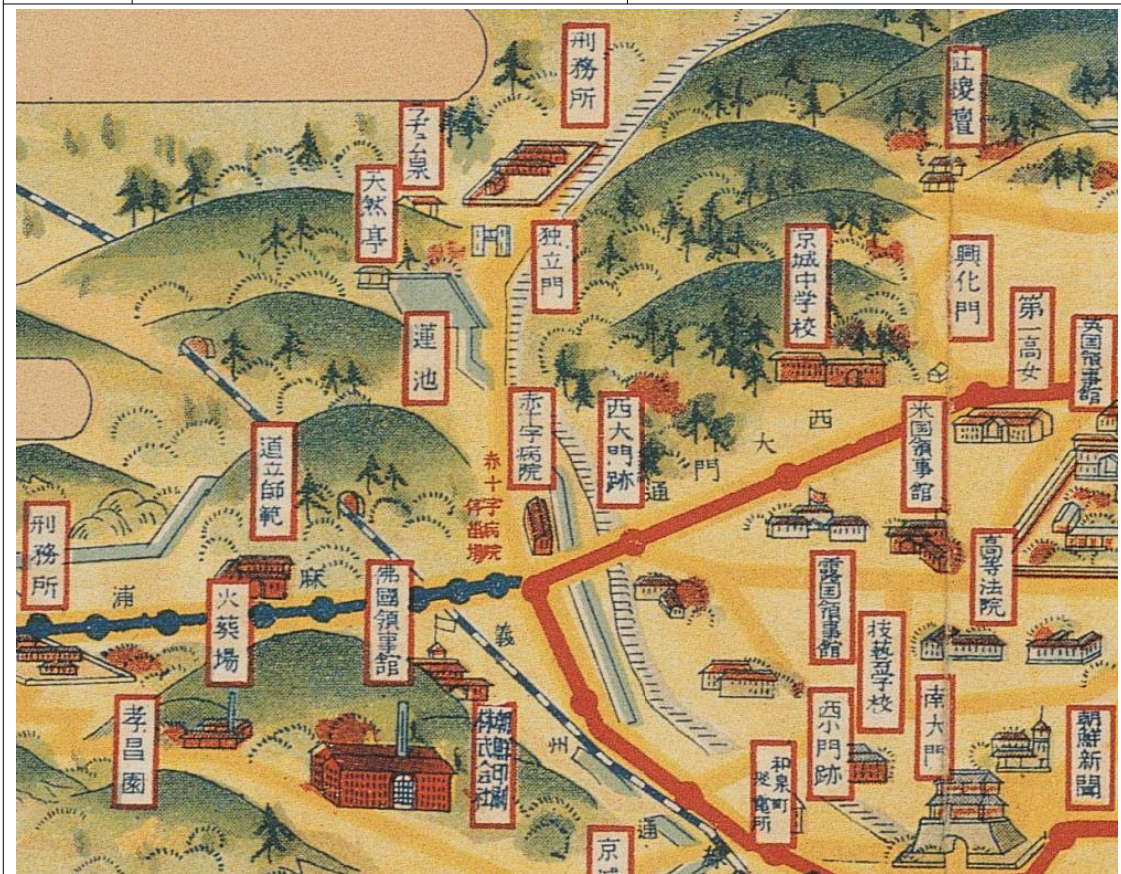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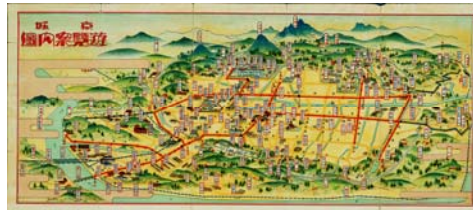
제목	경성시가도
년도	1927년
규격	100.0×95.8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자리에 서대문국(西大門局), 서대문경찰서(西大門警察署), 고양우편(高陽郵便),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 위치. 북쪽으로 연지(蓮池), 제생원맹아부(濟生院盲啞部), ○영사관(領事館), 구독립관,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 존재. ※북쪽으로 추가건물 더 있는데 글자 확인이 어려움



44 (1920년대 후반)경성유람안내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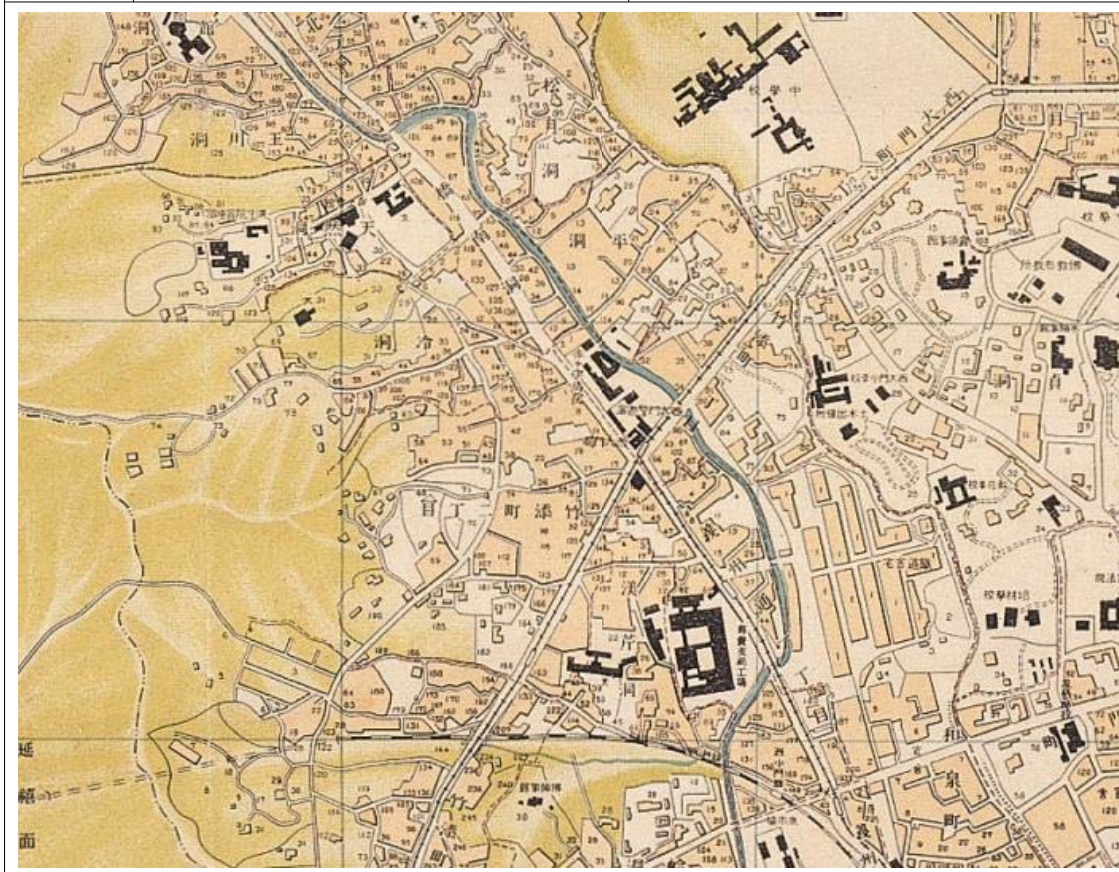
제목	경성유람안내도
년도	1920년대 후반
규격	20.3×46.3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서대문 밖으로 적십자병원 위치



45 (1933년)경성시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성시가도
년도	1933년
규격	99.0×98.4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자리에 서대문국(西大門局), 서대문경찰서(西大門警察署),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 위치. 북쪽으로 연지가 매꿔지고 건물 들어섬. 제생원맹아부(濟生院盲啞部), 구독립관,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 존재.



46 (1933년)경성정밀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성정밀지도
년도	1933년
규격	183.0×113.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자리의 필지분할이 확실하게 보이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글자확인이 어려움.



47 (1934년)경성부관내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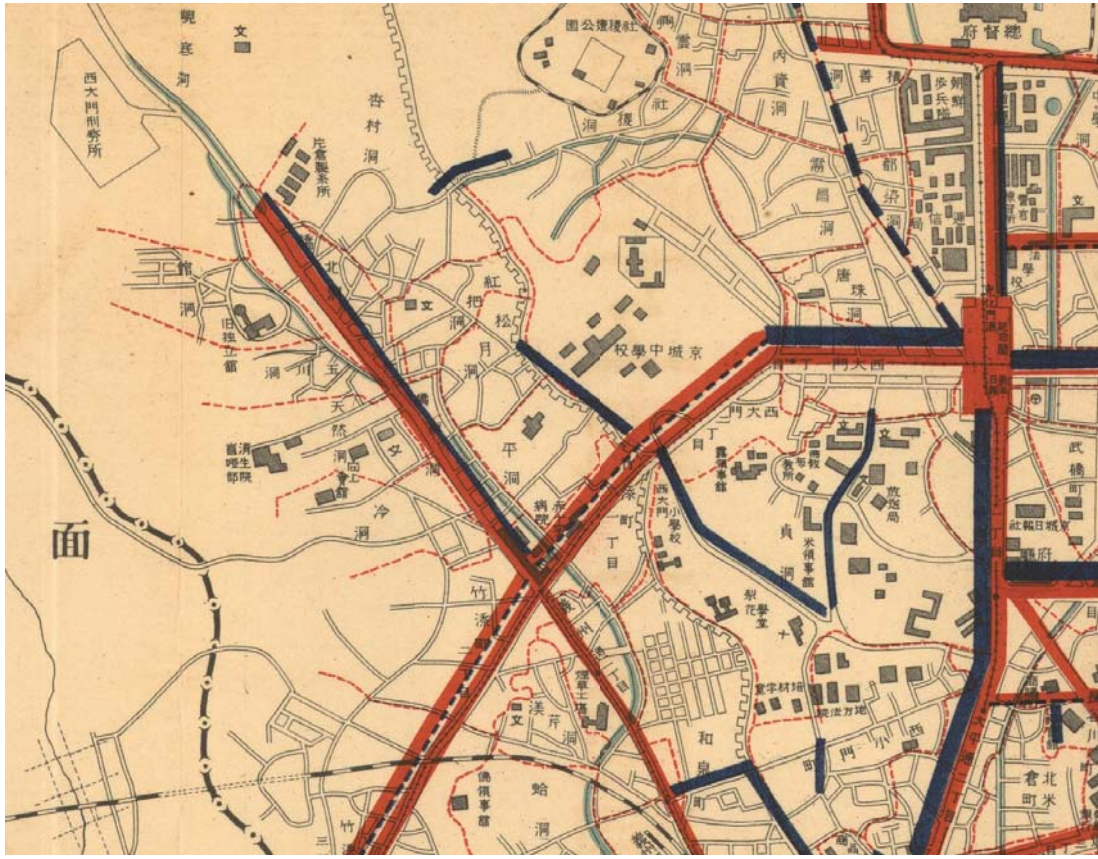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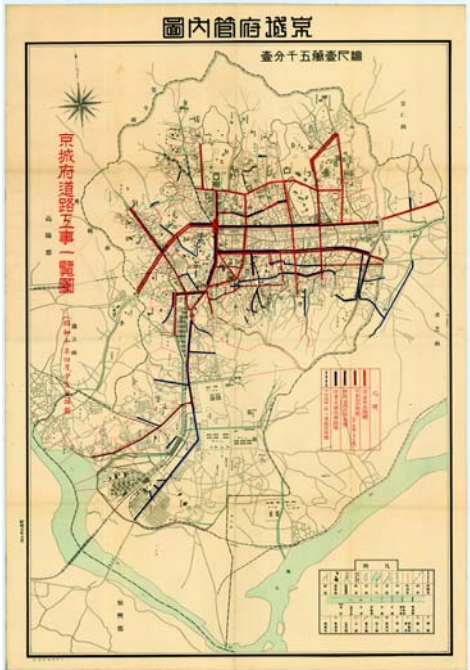
제목	경성부관내도
년도	1934년
규격	79.5×54.8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자리에 서대문경찰서(西大門警察署), 서대문우편국(西大門郵便局),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 존재. 1933년 경성시가도 지도에서는 없어진 연지가 해당 지도에서는 표기됨. 연지 옆으로 회관(會館), 제생원맹아부(濟生院盲啞部) 자리하며 북쪽으로 구 독립관, 서대문형무소 위치.



48 (1935년)경성부도로공사일람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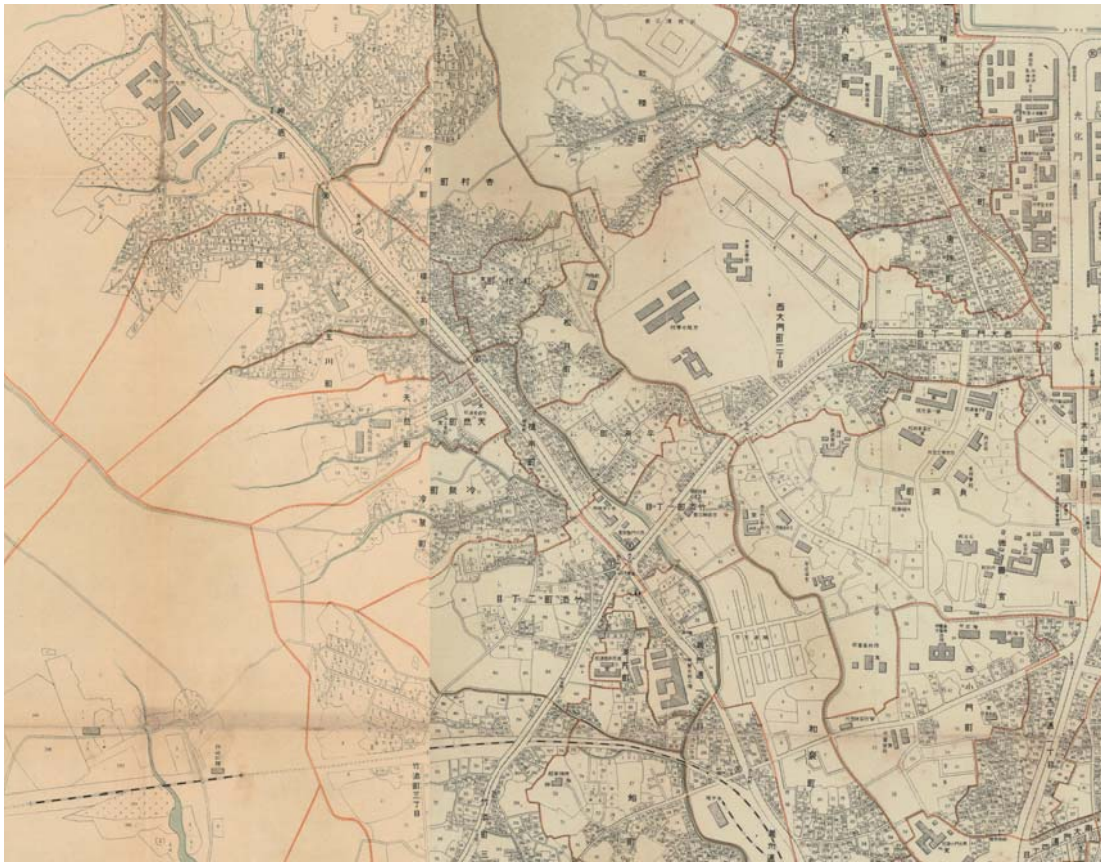
제목	경성부도로공사일람도
년도	1935년
규격	27.3×19.8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성부토목사업개요』에 수록된 「경성부도로공사일람도」 빈관터에는 적십자병원 위치 연지가 있던 자리에는 학교(交) 위치하며 왼편으로 향상회관(向上會館), 제생원맹아부(濟生院盲啞部) 자리.



49 (1936년)대경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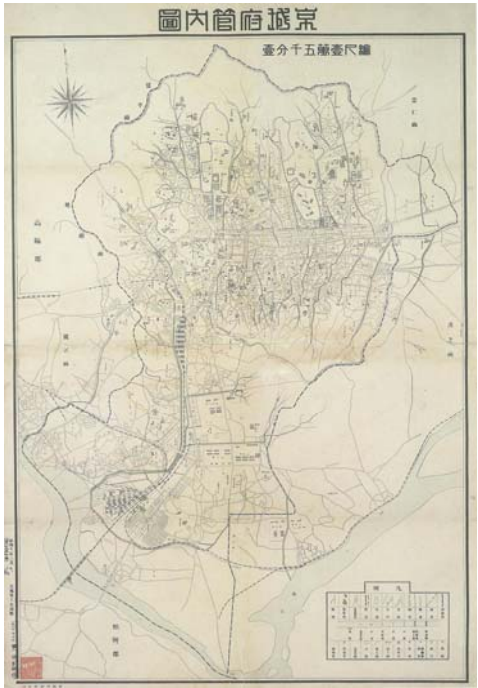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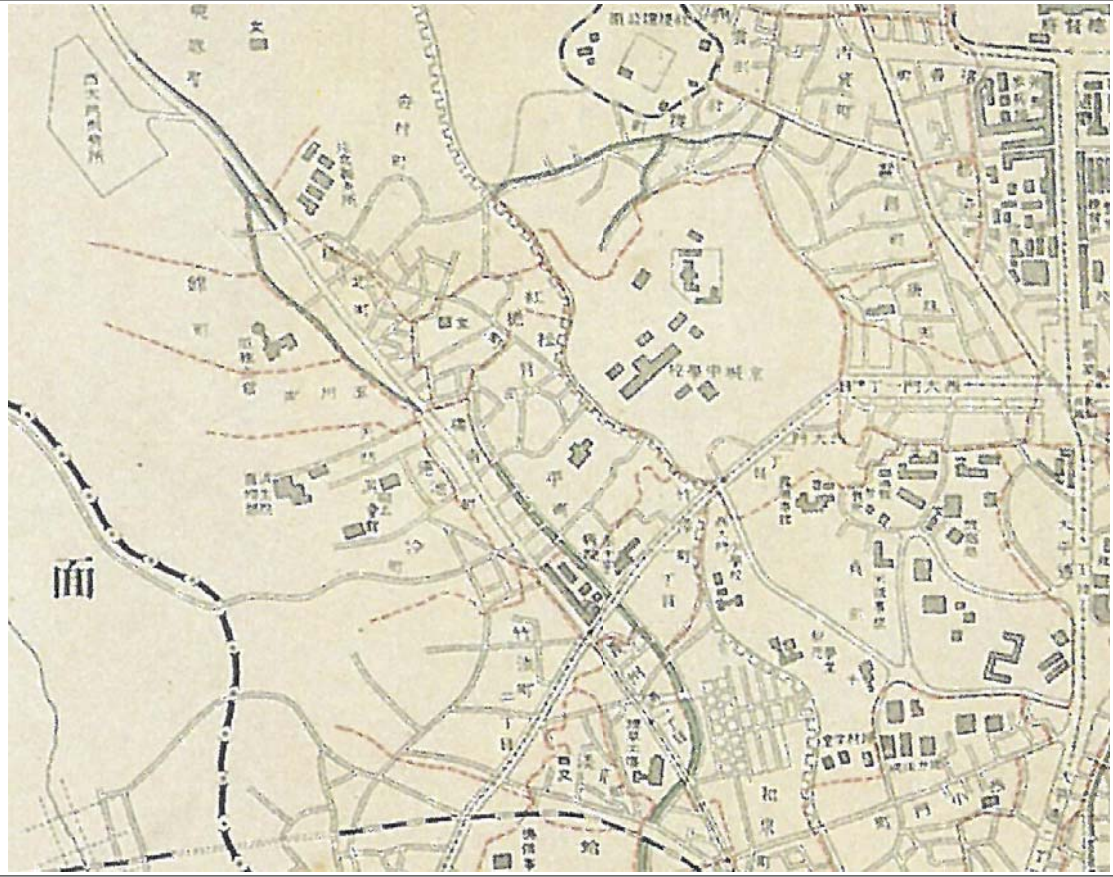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대경성정도	
년도	1936년	
규격	54.2×78.7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자리에 서대문경찰서(西大門警察署),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존재. 서대문경찰서 건너편에 서대문국(西大門局), 한은지점(漢銀支店)위치 연지가 있던 자리에는 죽점보통교(竹添普通校)가 위치하며, 왼편으로 향상회관(向上會館), 제생원맹아부(濟生院盲啞部), 북쪽으로 구독립관,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위치. 빈관터 건너편에는 금조연합회(金組聯合會), 동양극장(東洋劇場)위치	



50 (1937년)경성부관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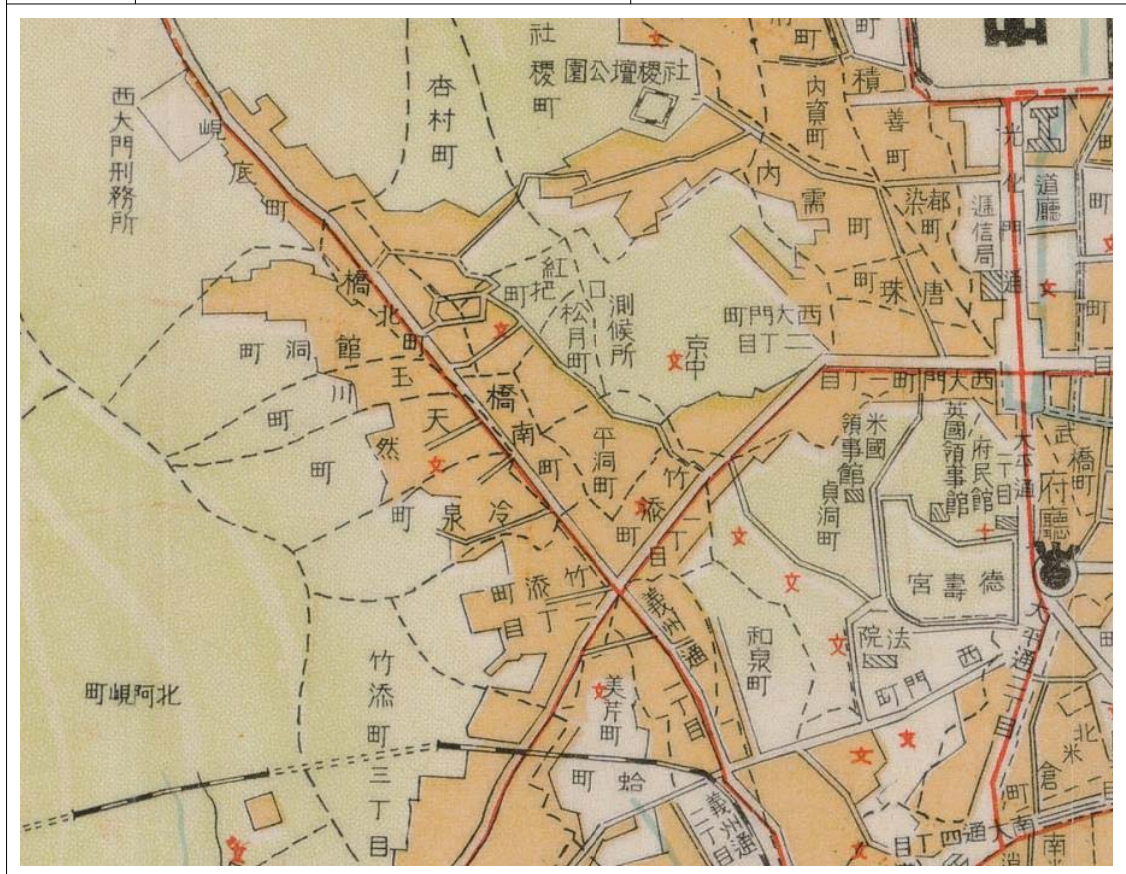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성부관내도	
년도	1937년	
규격	73.0×51.0cm	
제작자	-	
소장처	개인	
출처	허영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66	
비고	서대문 밖으로 빈관자리에 적십자병원 위치. 경기감영터와 빈관터 건물 확인 가능	

51 (1930년대 후반)경성부관내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성부관내도	
년도	1930년대 후반	
규격	154.5×80.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빈관자리에 학교(交)표시 있음. 북쪽으로 서대문형무소 위치.	



52 (1940년)지번입대경성정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지번입대경성정밀도	
년도	1940년	
규격	144.3×76.3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화질이 떨어져 글자 확인이 어려우며 경기감영 자리에는 번지만 표기됨	



53 (1940년)대경성명세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논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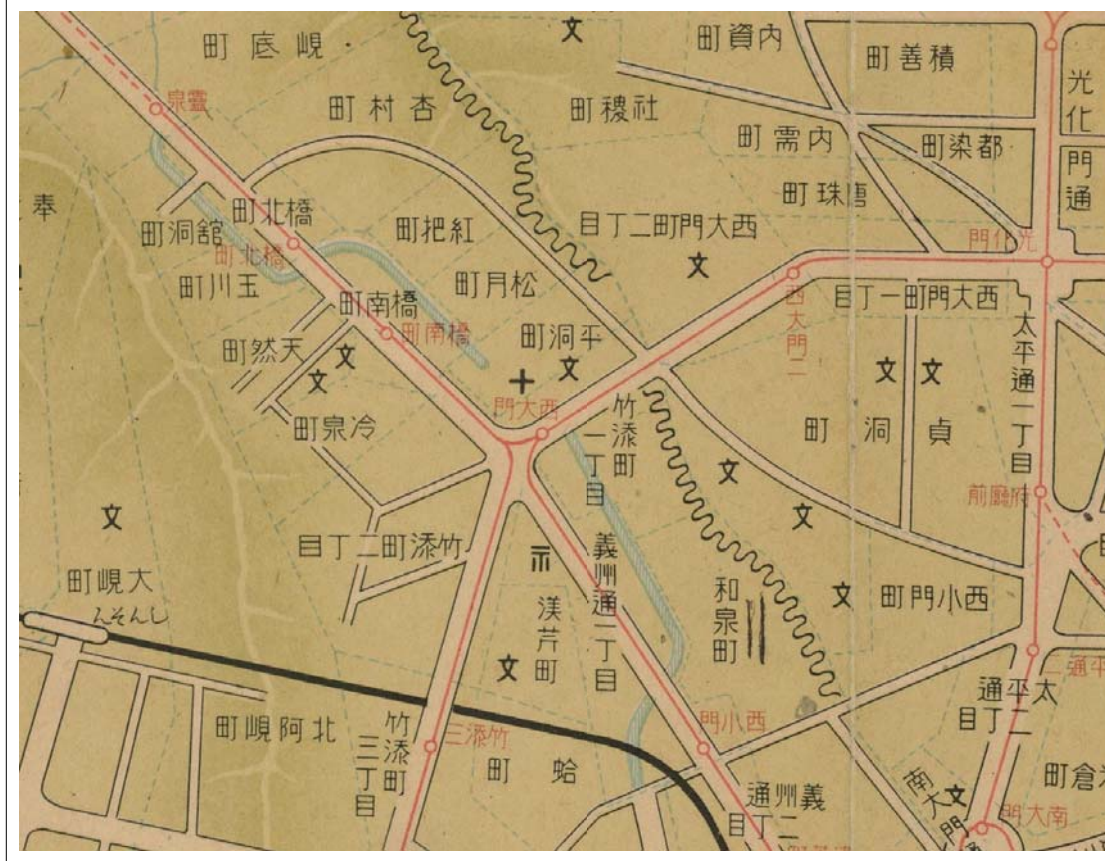
제목	대경성명세도
년도	1940년
규격	77.4×54.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자리에 표기되었던 적십자병원이 빈관자리에 표기됨. 경기감영자리에는 두 회사와 지사 한 곳 위치. 경기감영터 건너편에는 서대문국(西大門局)위치. 빈관터 건너편에는 금조연합회(金組聯合會), 동극(東劇)위치. 북쪽으로는 죽첨○교(竹添○校), 향상회관(向上會館), 구독립관,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위치.



54 (1943년)경성안내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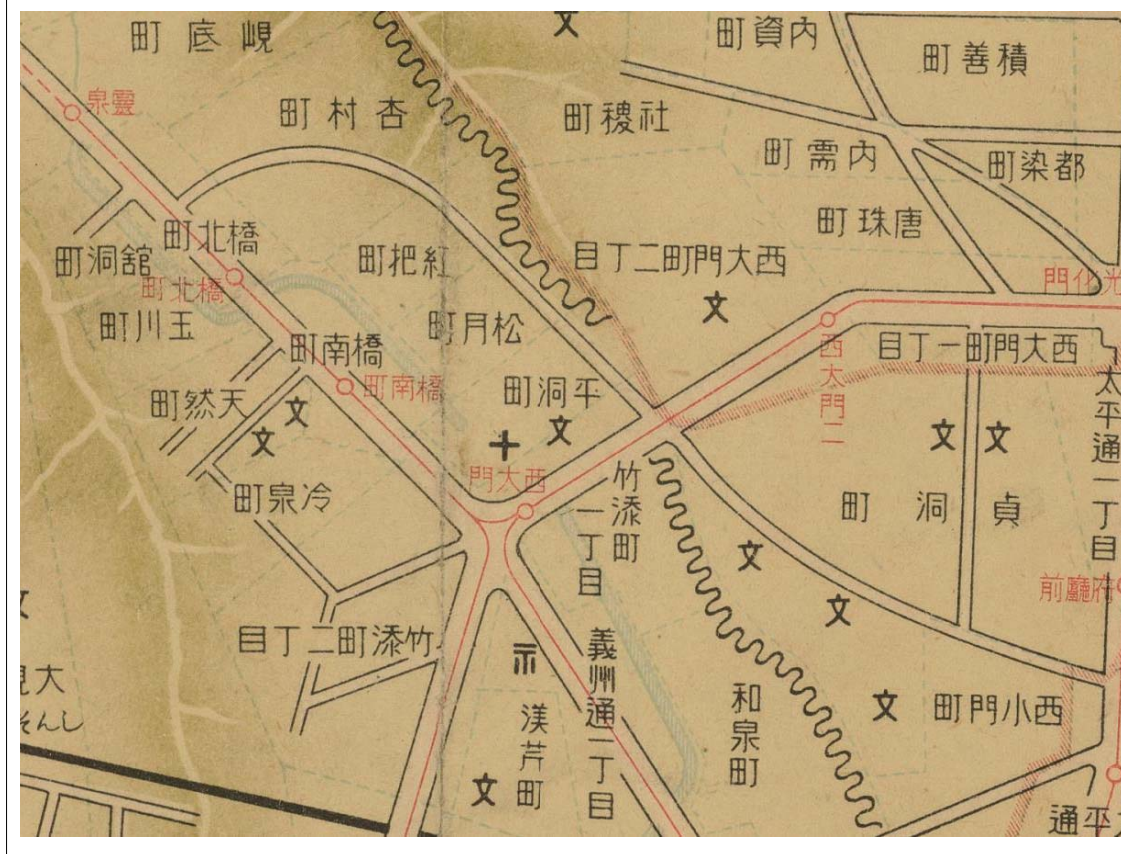
제목	경성안내
년도	1943년
규격	54.2×75.9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터에 병원표시, 빈관터에 학교 표시 있음.



55 (1944년)경성안내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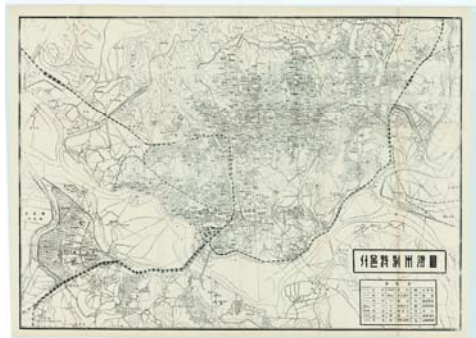
제목	경성안내
년도	1944년
규격	54.0×75.9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터에 병원표시, 빈관터에 학교 표시 있음.



56 (1940년대 후반)서울특별시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서울특별시지도
년도	1940년대 후반
규격	52.7×73.3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터에 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 위치. 빈관터에 ㄴ자 건물 표기되어있으며 빈관터 건너편에 동양(東洋)위치. 경기감영터 좌측건너편에 서대문우편국(西大門郵便局), 남서쪽에 서대문경찰서(西大門警察署)위치함. 우편국과 경찰서는 1934년 경성부관내도에 경기감영터에 위치한 것으로 나와있음.



57 (1946년)지번구획입경성정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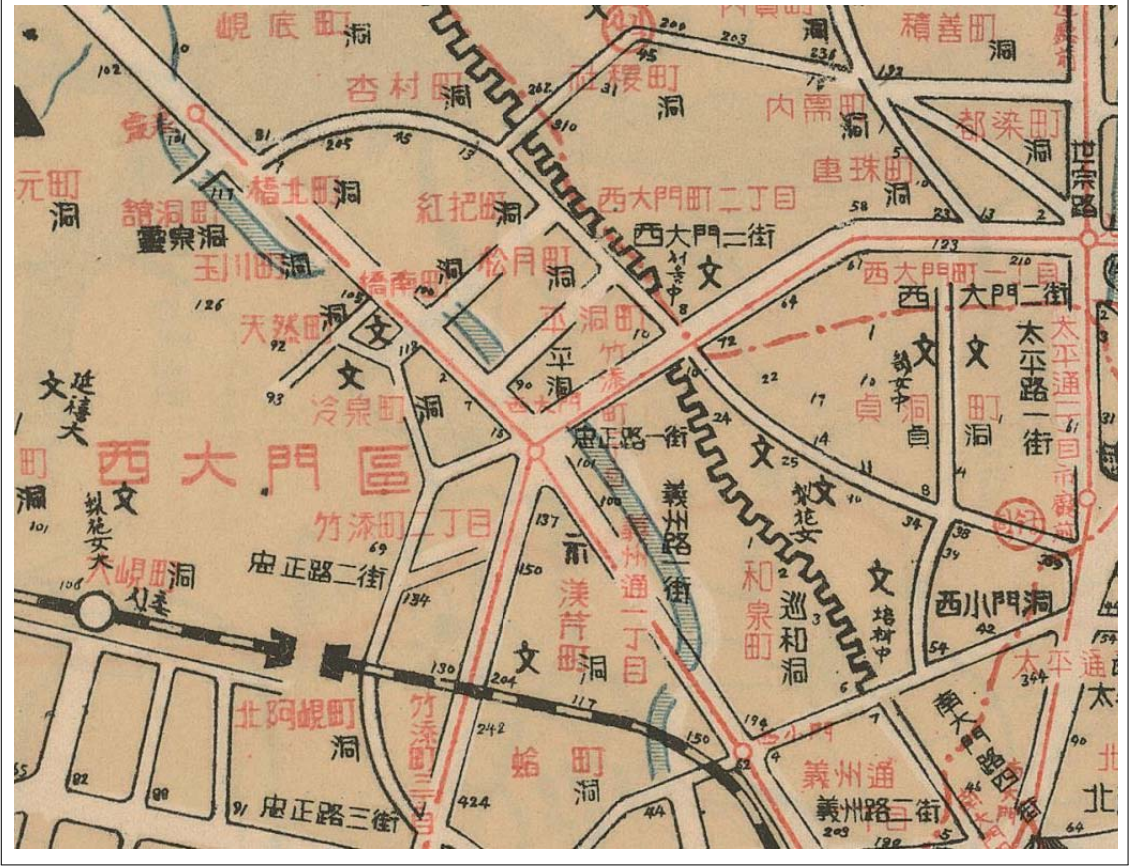
제목	지번구획입경성정도
년도	1946년
규격	37.8×53.6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터와 빈관터에 건물표시되어있으며, 빈관터에 적십자병원 표기됨 경기감영터 좌측 건너편에 서대문국(西大門局), 한은지점(漢銀支店)위치. 빈관터 건너편에는 금조연합회(金組聯合會), 동양극장(東洋劇場)위치 연지있던 자리에는 학교 있으나 글자 확인이 어려우며 좌측으로 향사회관있던 자리엔 여학교(女學校)위치.



58 (1946년)서울안내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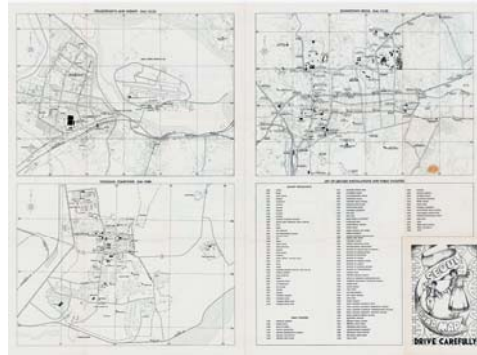
제목	서울안내	
년도	1946년 이후	
규격	36.8×52.6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표기 없음. 경기감영터 우측으로 도로가 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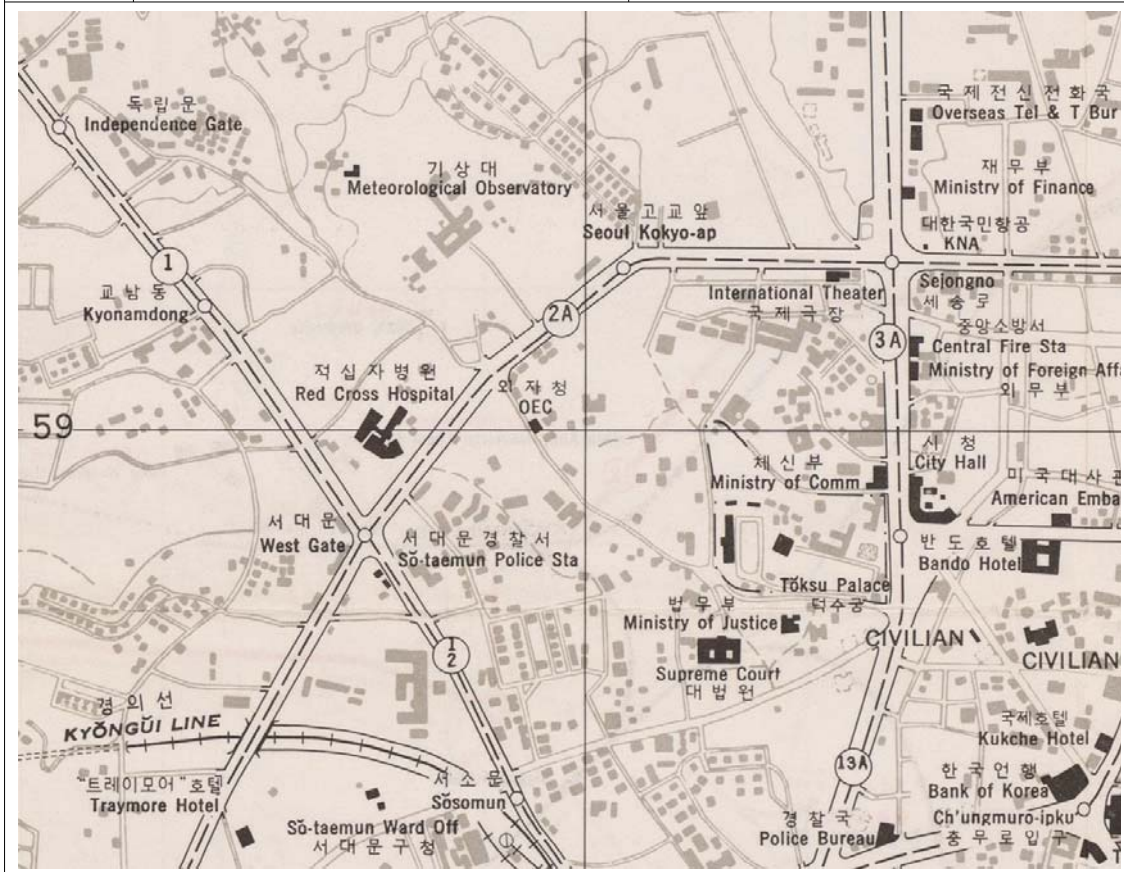
59 (1950년대 중반)서울시가지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서울시가지도Seoul Road Map
년도	1950년대 중반
규격	68.0×92.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터와 빈관터 사이의 길이 사라지고 필지가 병합된 것으로 보이며 적십자병원 건물 확인됨. 사거리 건너편에 서대문경찰서가 위치하며 북쪽으로 독립문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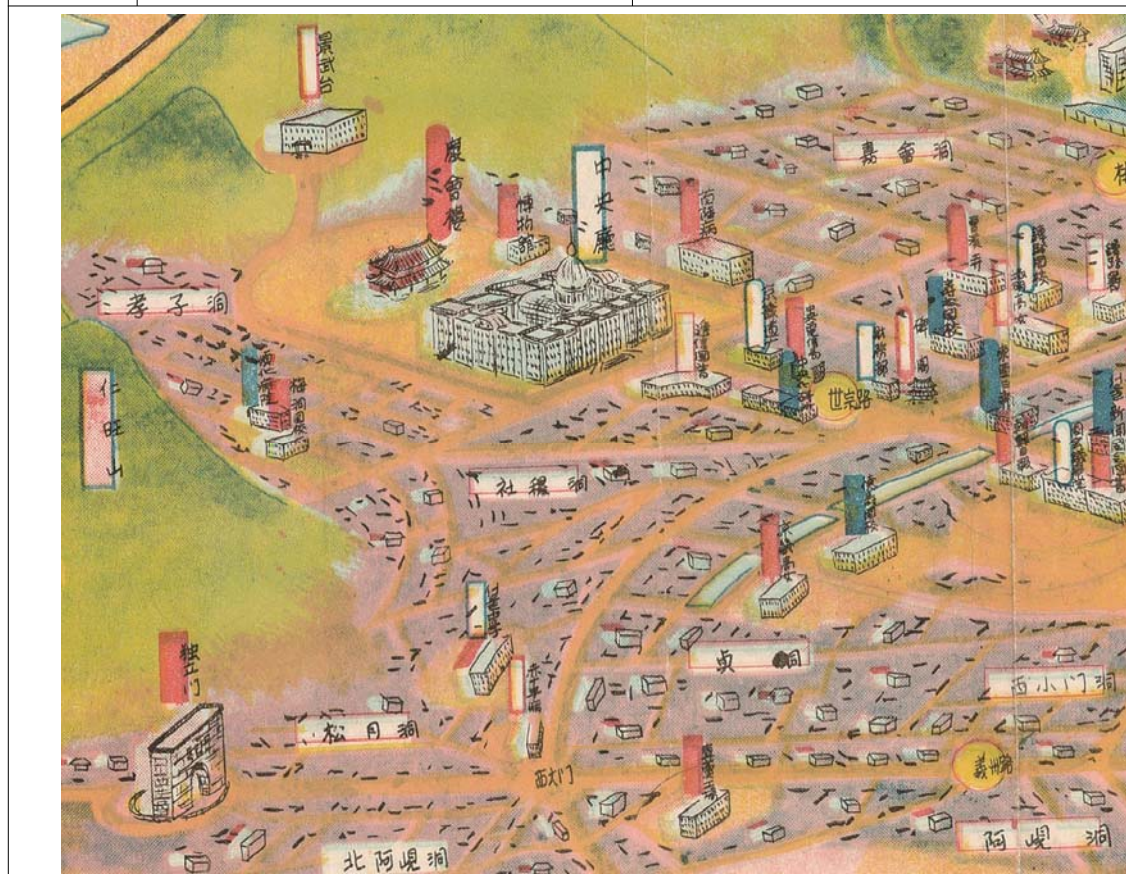
『서울시가지도』의 뒷면



60 (1955년)해방10주년기념산업박람회안내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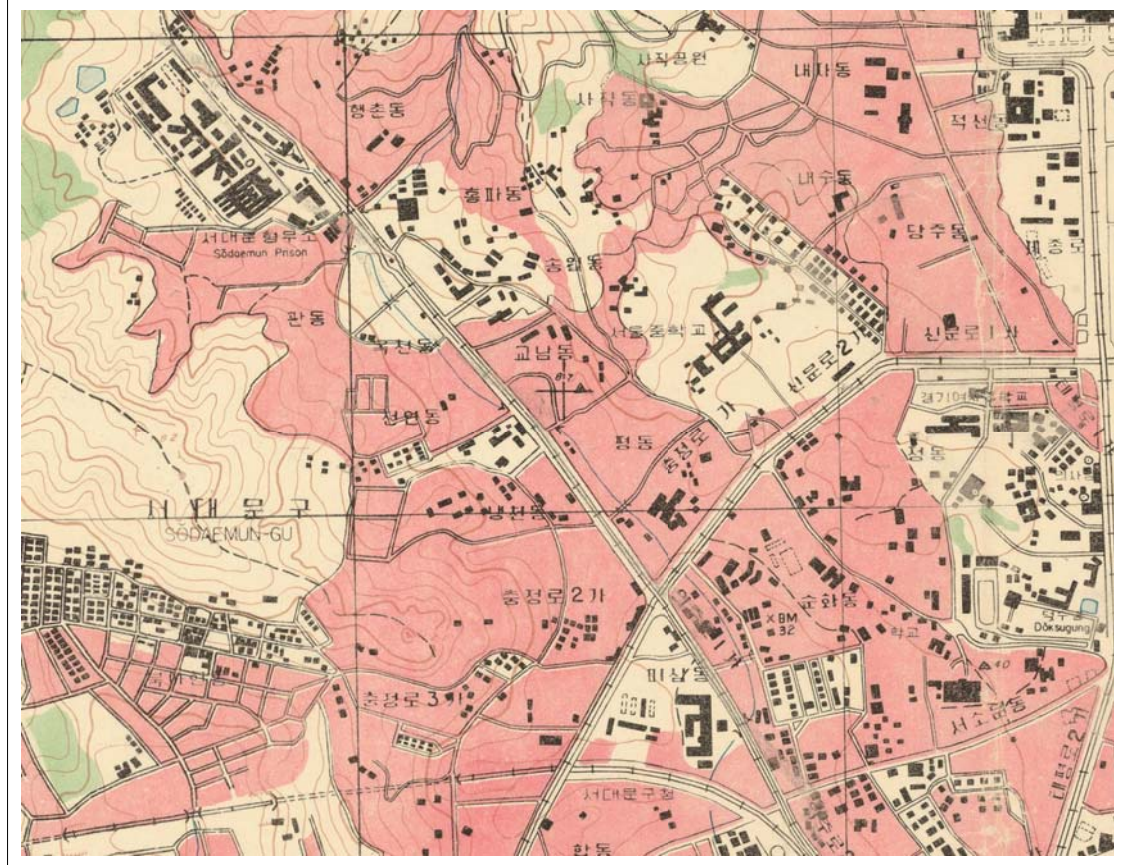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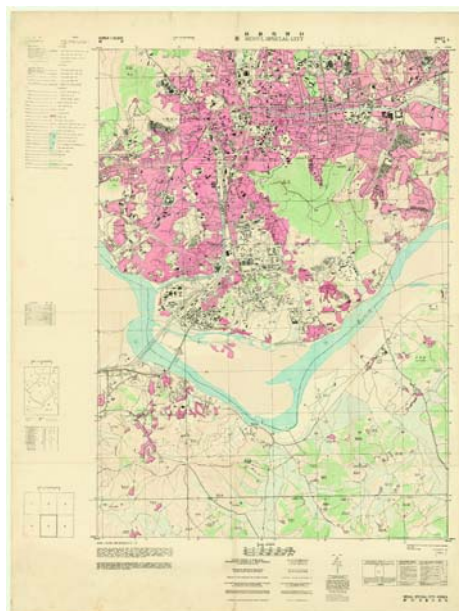
제목	해방10주년기념산업박람회안내도	
년도	1955년	
규격	17.6×71.9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서대문 밖으로 적십자병원 위치	



61 (1957년)서울특별시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서울특별시(SEOUL SPECIAL CITY)지도
년도	1957년
규격	114.0×84.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터에 뚜렷한 명칭은 없으나 건물이 표기되어있음. 경기감영터 우측으로 도로가 변한 것 으로 보임.



62 (1958년)지번입서울특별시가지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지번입서울특별시가지도
년도	1958년
규격	77.0×107.2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1950년대 중반 서울시가지지도에서 경기감영터 우측으로 도로가 변화한 것으로 보였으나 해당지도에서는 도로는 이전과 동일 빈관터에 적십자병원 위치하며 빈관터 건너편으로 동양극장이 있으며 금조연합회가 있던 위치에 농은본점(農銀本店) 위치. 경기감영터 좌측 건너편으로 서대문국과 남쪽으로 서대문서(署)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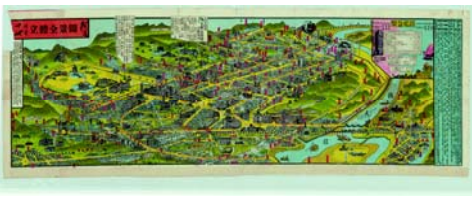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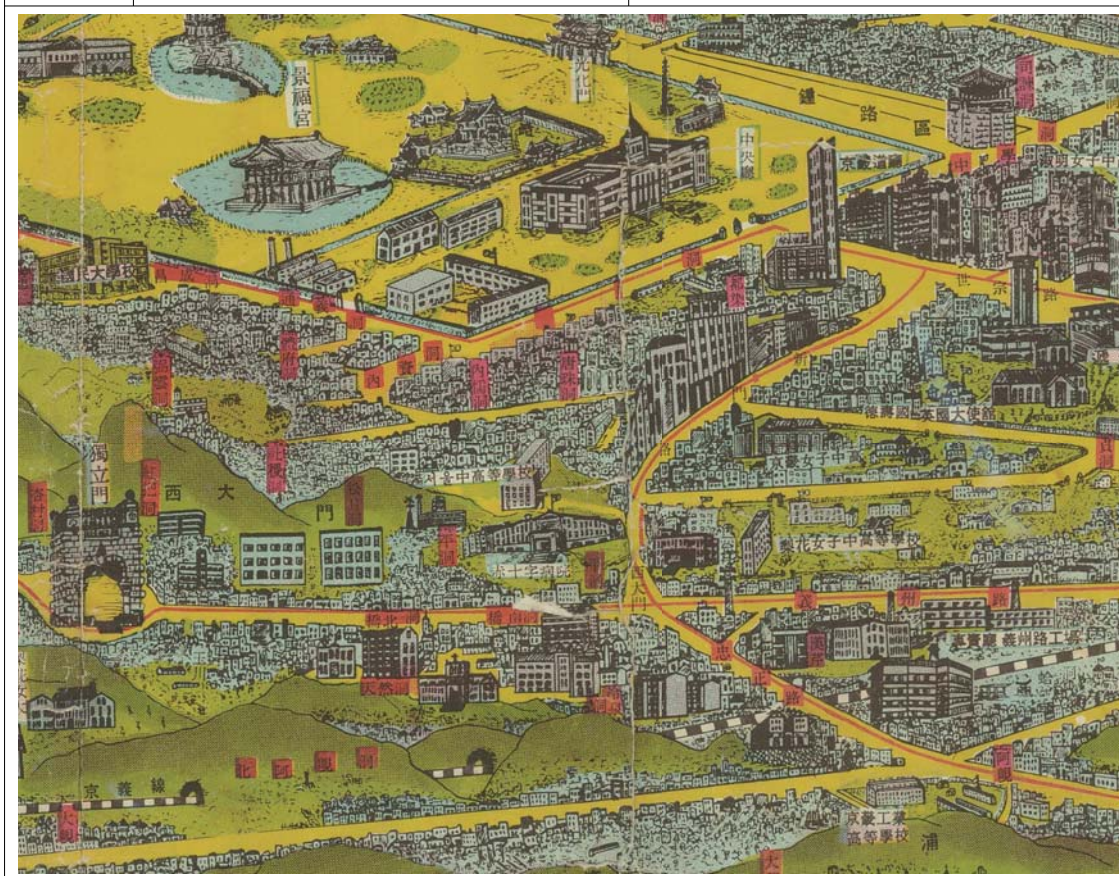
연지터는 좌측필지와 합쳐져 금○국민교(金○國民敎)위치. 북쪽으로 구독립관,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존재.



63 (1962년)서울입체전경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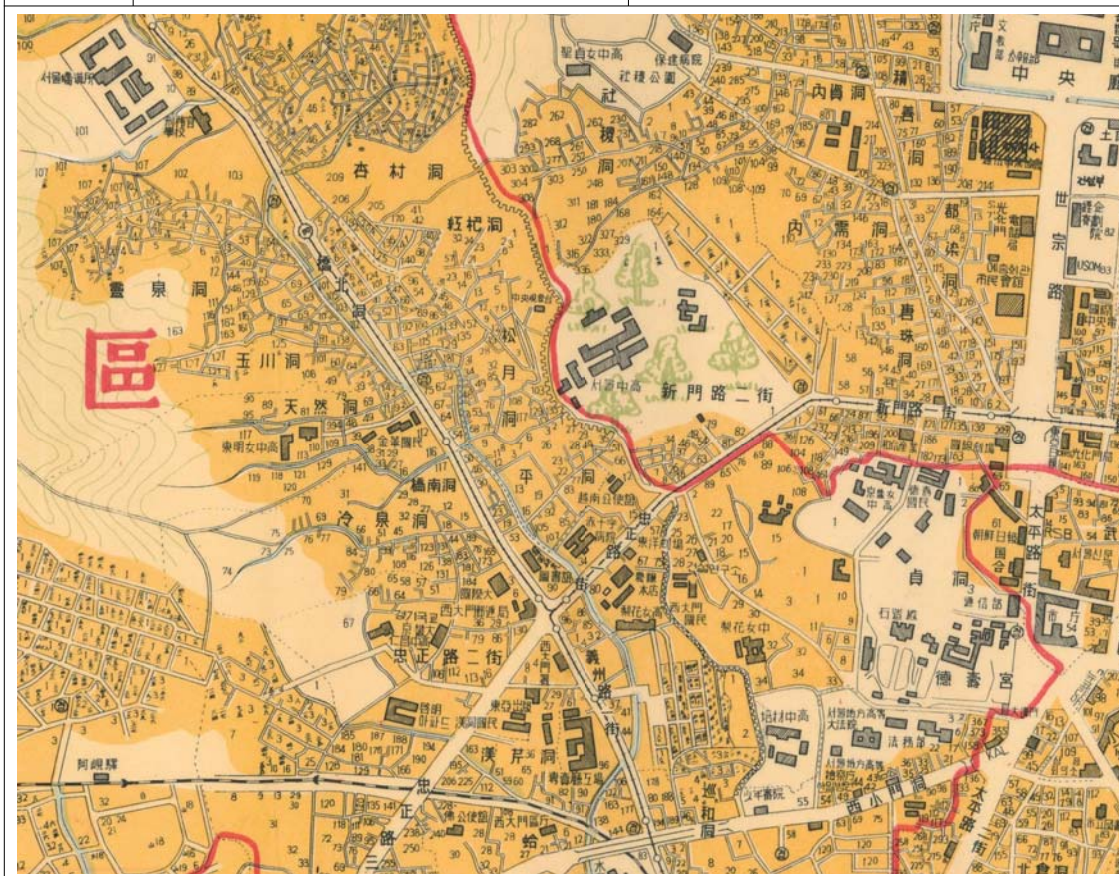
제목	서울입체전경도	
년도	1962년	
규격	21.8×76.0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서대문밖으로 적십자병원 위치	



64 (1968년)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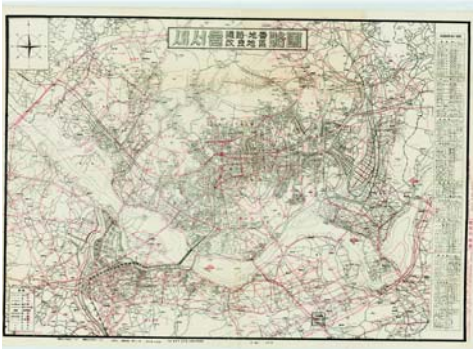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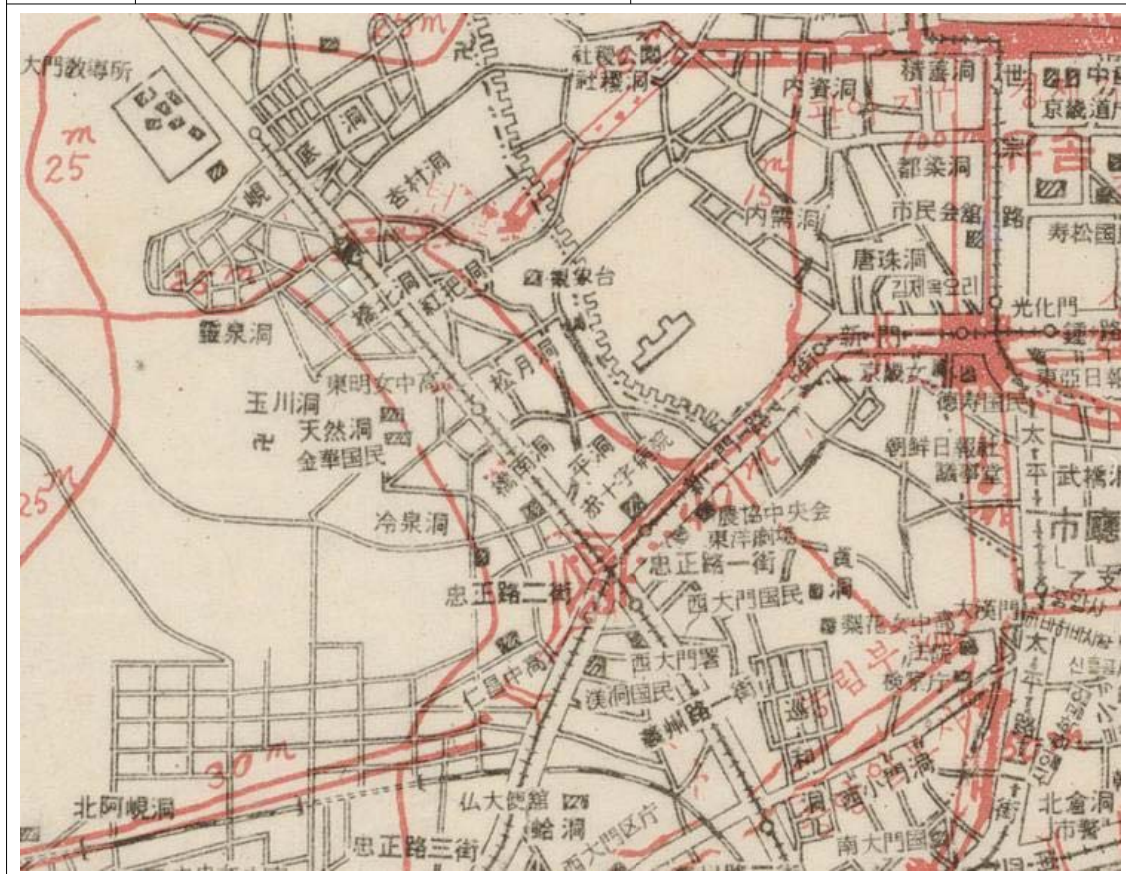
제목	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지도
년도	1968년
규격	78.5×108.6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경기감영터에는 도서관(圖書館)이라 기재되어있으며 위쪽에 한국연구(韓國研究)라고 작게 써인걸 박서는 관련기관으로 보임. 빈관터에는 적십자병원위치하며 건너편에 동양극장, 농은본점 자리. 경기감영터 좌측 건너편으로 대제국(大際國)과 서대문국, 남쪽으로 서대문서(署)위치.



65 (1968년)새서울도로·지번개량지구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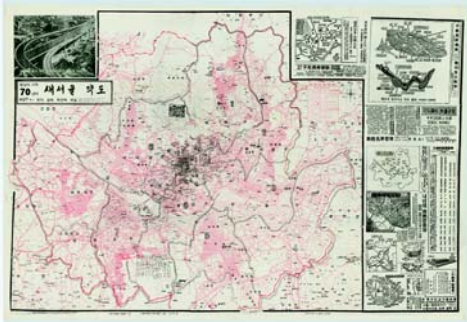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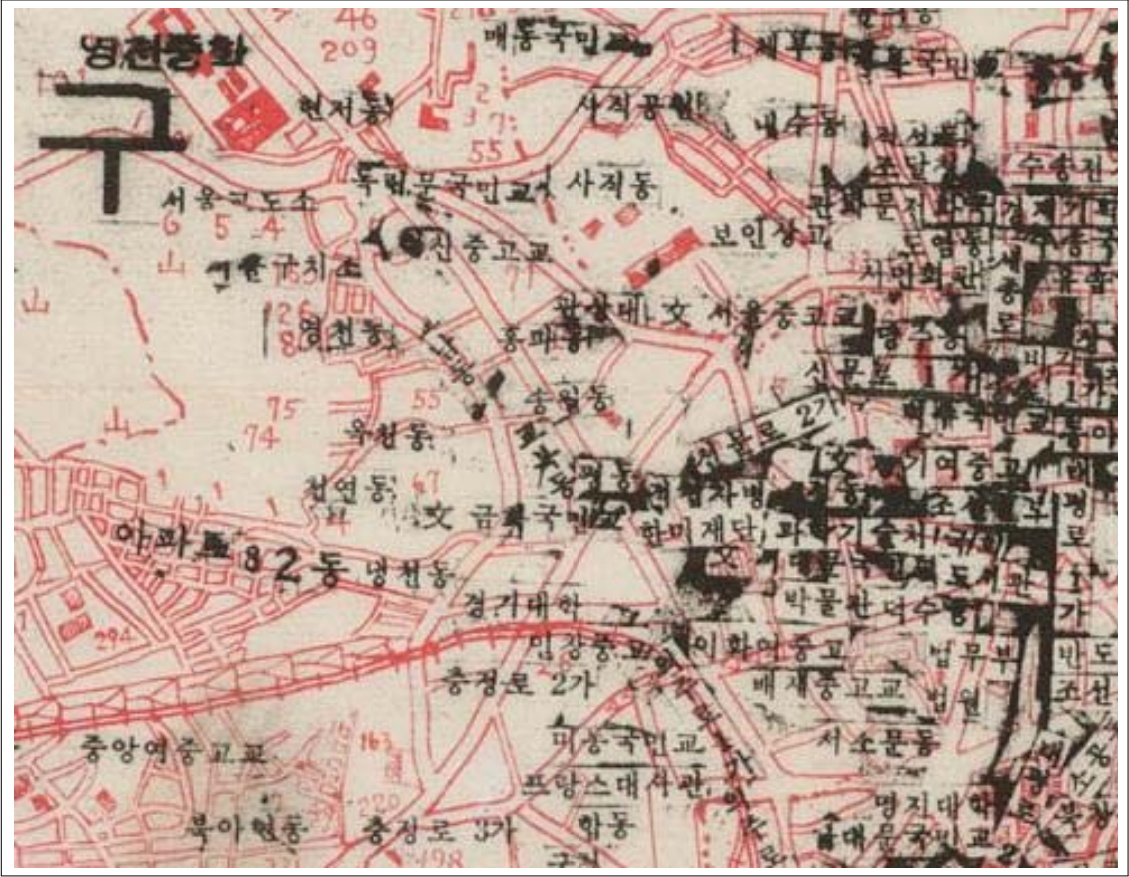
제목	새서울도로·지번개량지구약도	
년도	1968년	
규격	54.6×78.8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서대문 밖으로 적십자병원 위치	



66 (1970년)새서울약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새서울약도	
년도	1970년	
규격	66.1×66.5cm	
제작자	-	
소장처	서울역사박물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비고	서대문 밖으로 적십자병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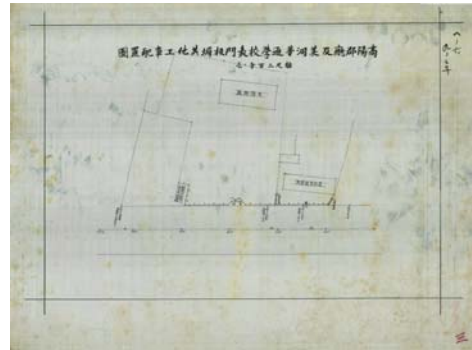


4.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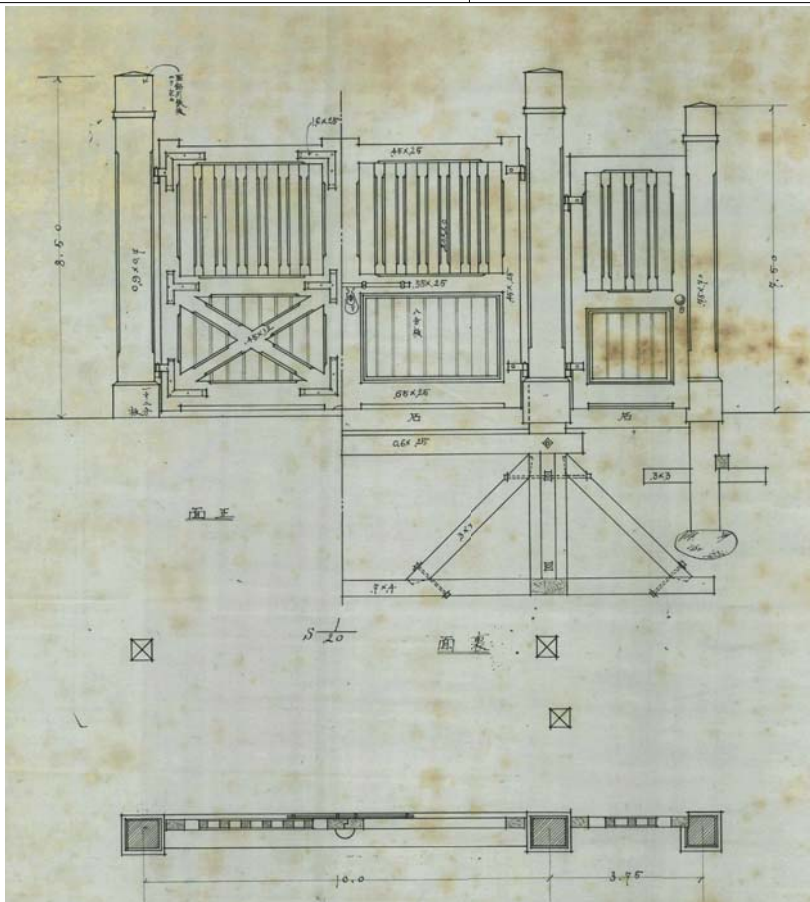
1) 경기감영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도면명	고양군청사급미동보통학교표문판병기 타공사배치도
시설명	고양군청
개별건물명	정문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추정)1910년대
공사유형명	설비신설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고양군청 당시에 정문(표문)과 담장을 신축하기 위해 작성한 도면. - 옛 선화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고양군청”, 우측 하단에 보이는 건물은 “미동보통학교”로 표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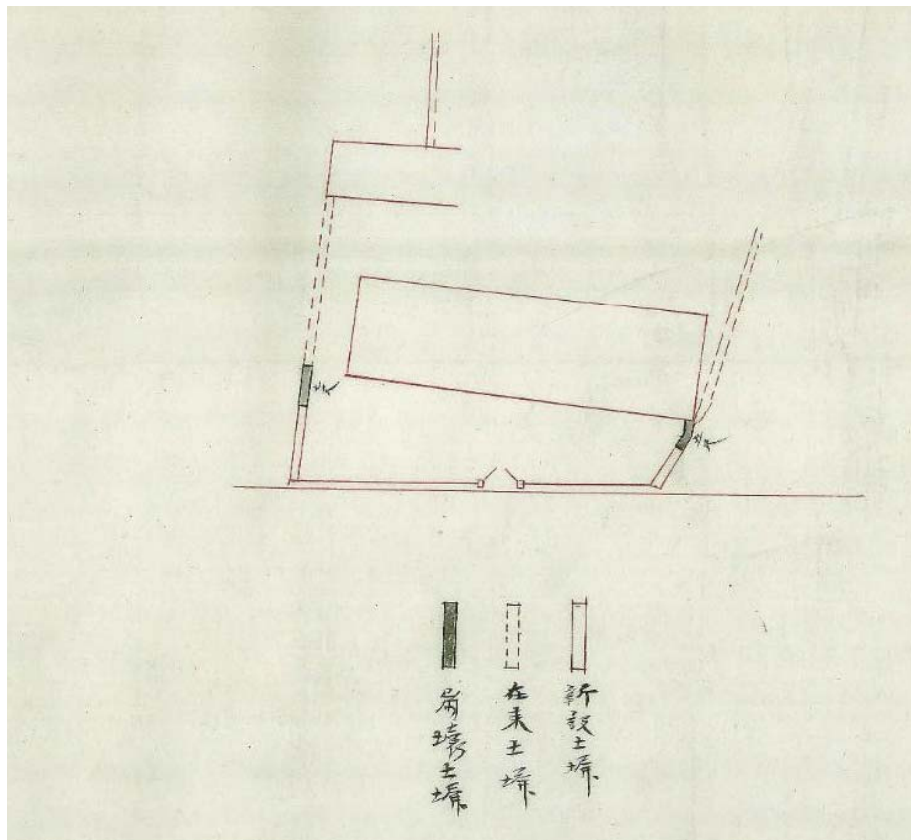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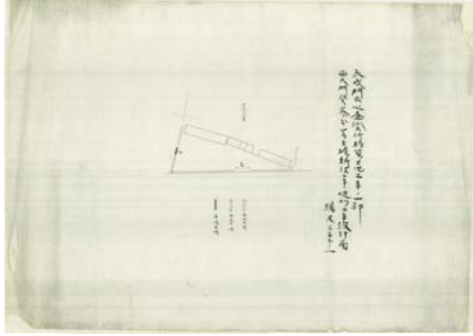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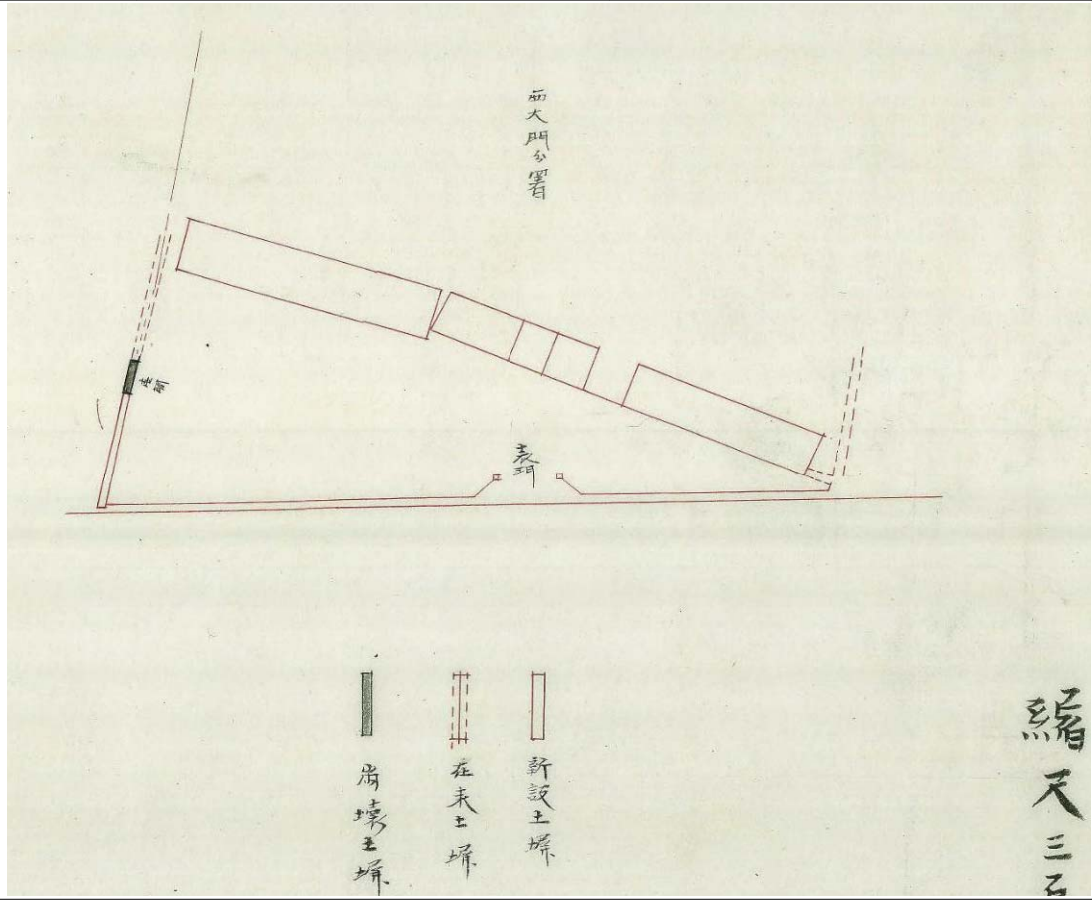
도면명	표문설계도	
시설명	고양군청	
개별건물명	정문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추정)1910년대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고양군청으로 전용된 경기감영 선화당 앞의 정문인 표문 설계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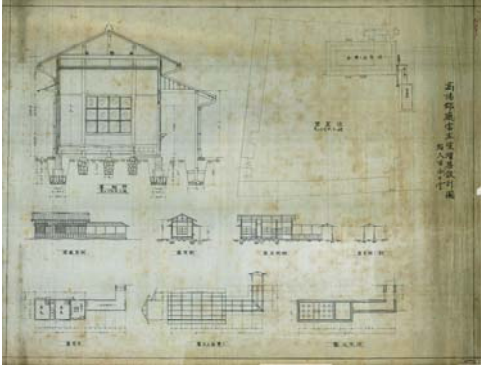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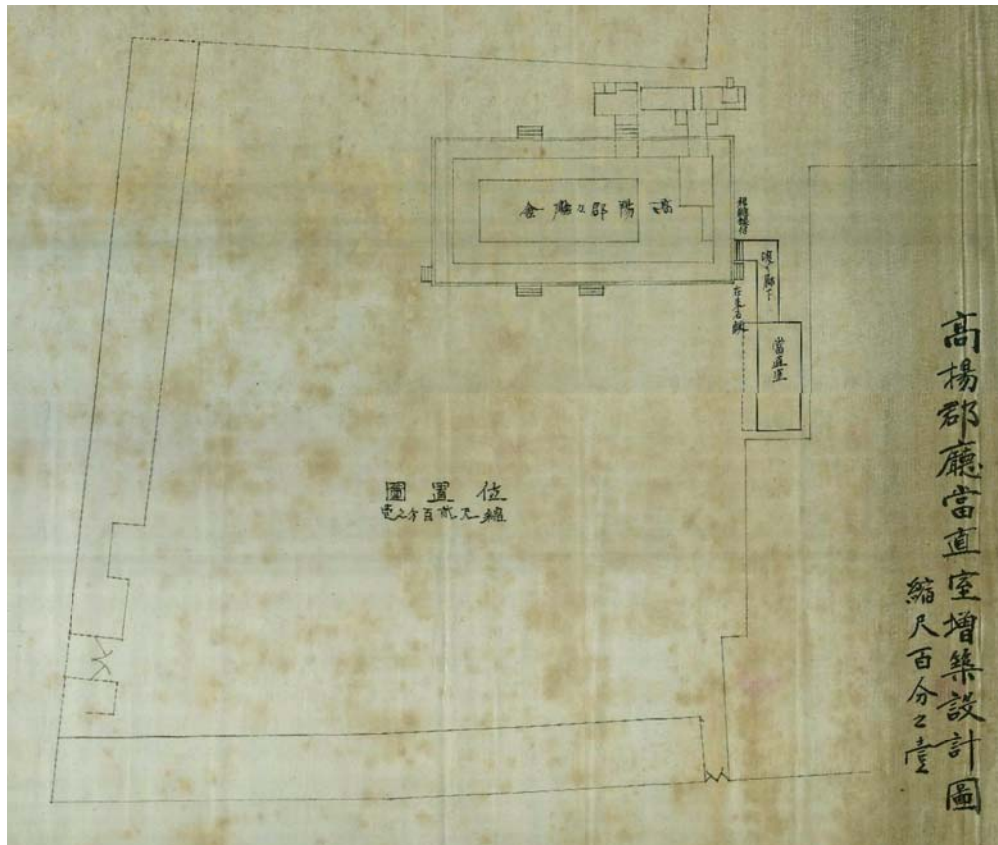
도면명	영성문전순사파출소이축기타공사일부 미동보통학교토병신설공사추가공사설 계도	
시설명	경성영성문순사파출소	
개별건물명	토병	
시설유형명	파출소	
연도	(추정)1910-15	
공사유형명	설비신설	
주제	치안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앞서 살핀 도면에서 미동보통학교로 표시된 옆의 토병 신설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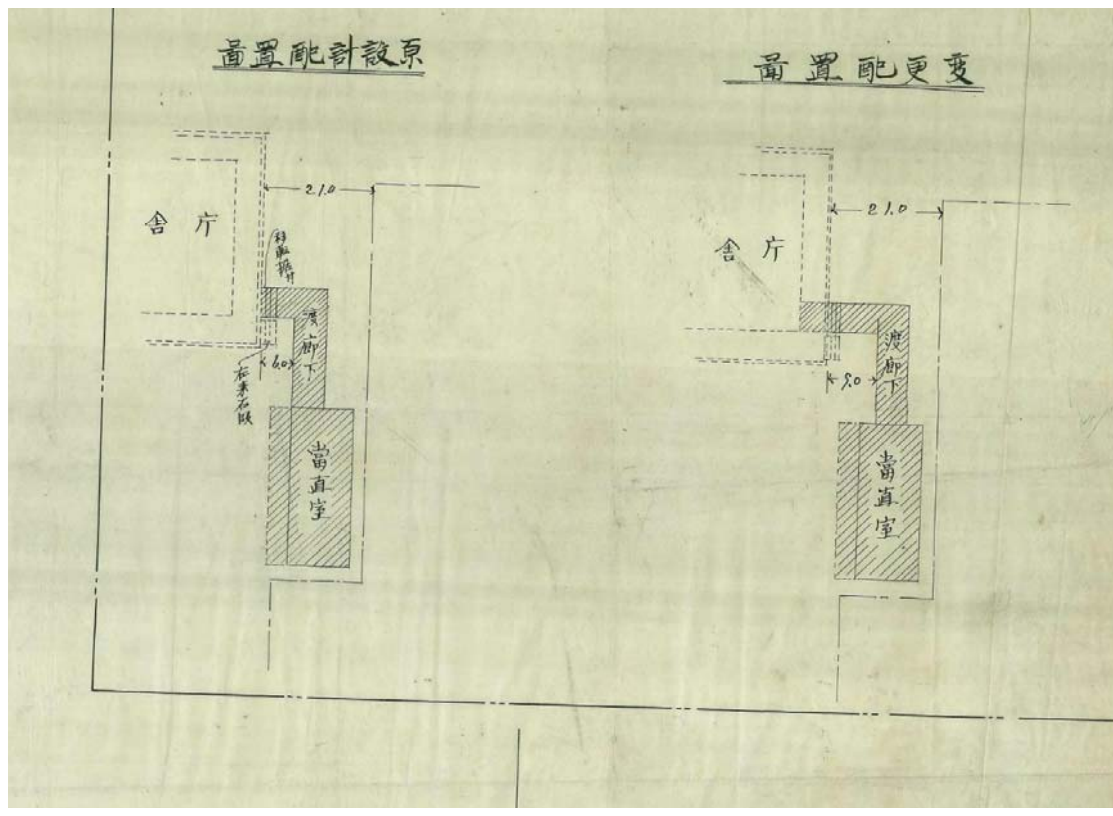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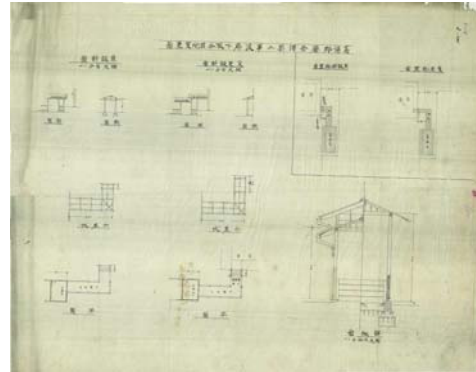
도면명	영성문전순사파출소이축기타공사일부 서대문경찰지서토병신설공사추가공사 설계도	
시설명	경성영성문순사파출소	
개별건물명	토병	
시설유형명	파출소	
연도	(추정)1910-15	
공사유형명	설비신설	
주제	치안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서대문경찰서 앞 토병 공사 설계도면. 도면 상부에 '서대문분서'라고 기입되어 있음. - 지도류에서 서대문분서가 옛 경기감영 일대에 있었던 것이 확인됨. 대지의 모양과 대지를 가로지르는 부속채의 존재로 볼 때, 경기빈관의 터가 전용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도면명	고양군청사당직실증축설계도	
시설명	고양군청	
개별건물명	당직실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추정)1910년대	
공사유형명	건물증개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1910년대의 상황으로 추정되는 고양군청의 량하(복도각) 증개축도면. - 옛 경기감영의 선화당 건물을 1914 ~1928년간 고양군청의 본청으로 사용했으며, 당시 전경사진의 우측에 신축건물이 보임. 이 건물이 도면 상의 당직실일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대지와 가로변의 건물 형태로 볼 때 아닐 가능성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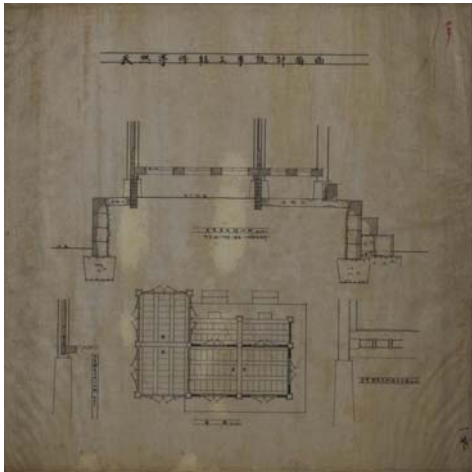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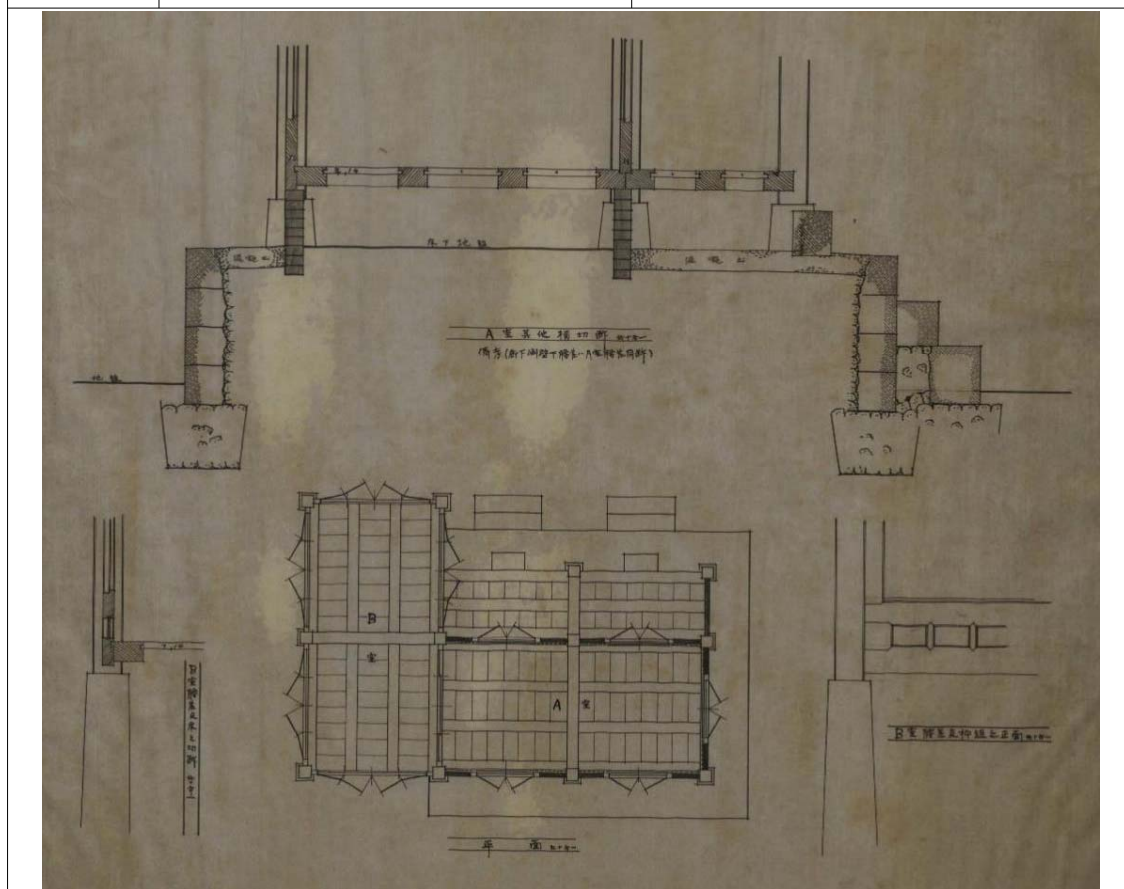
도면명	고양군청사증축사도랑하취합기타변경
시설명	고양군청
개별건물명	랑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추정)1910년대
공사유형명	건물증개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1910년대의 상황으로 추정되는 고양군청의 랑하(복도각) 증개축 도면. - 옛 경기감영의 선화당 건물을 1914 ~1928년간 고양군청의 본청으로 사용했으며, 당시 전경사진의 우측에 신축건물이 보임. 이 건물이 도면 상의 당직실일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대지와 가로변의 건물 형태로 볼 때 아닐 가능성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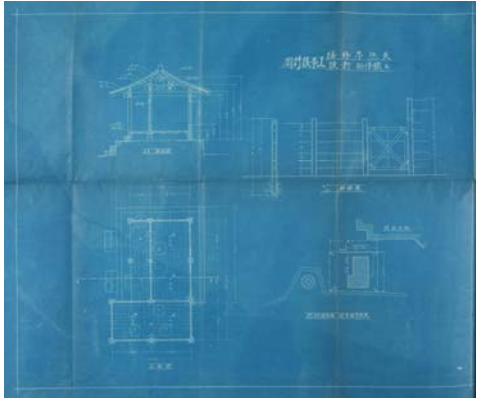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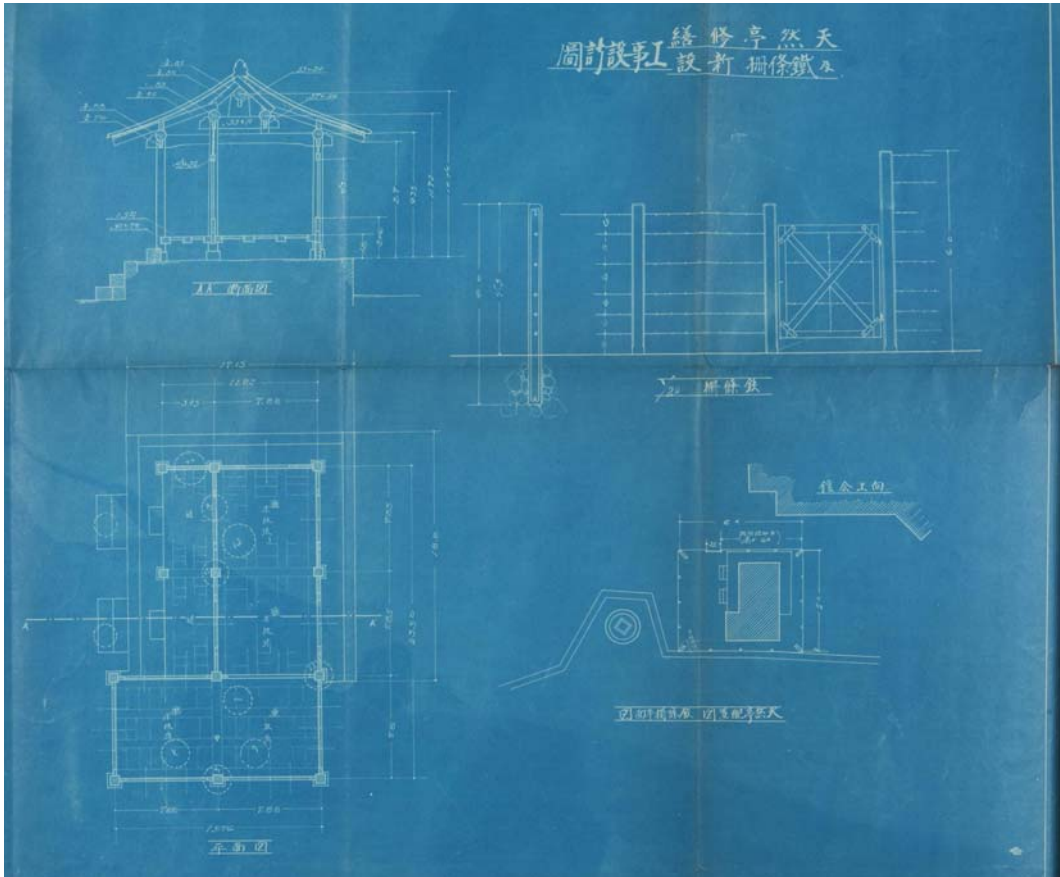


2) 중군영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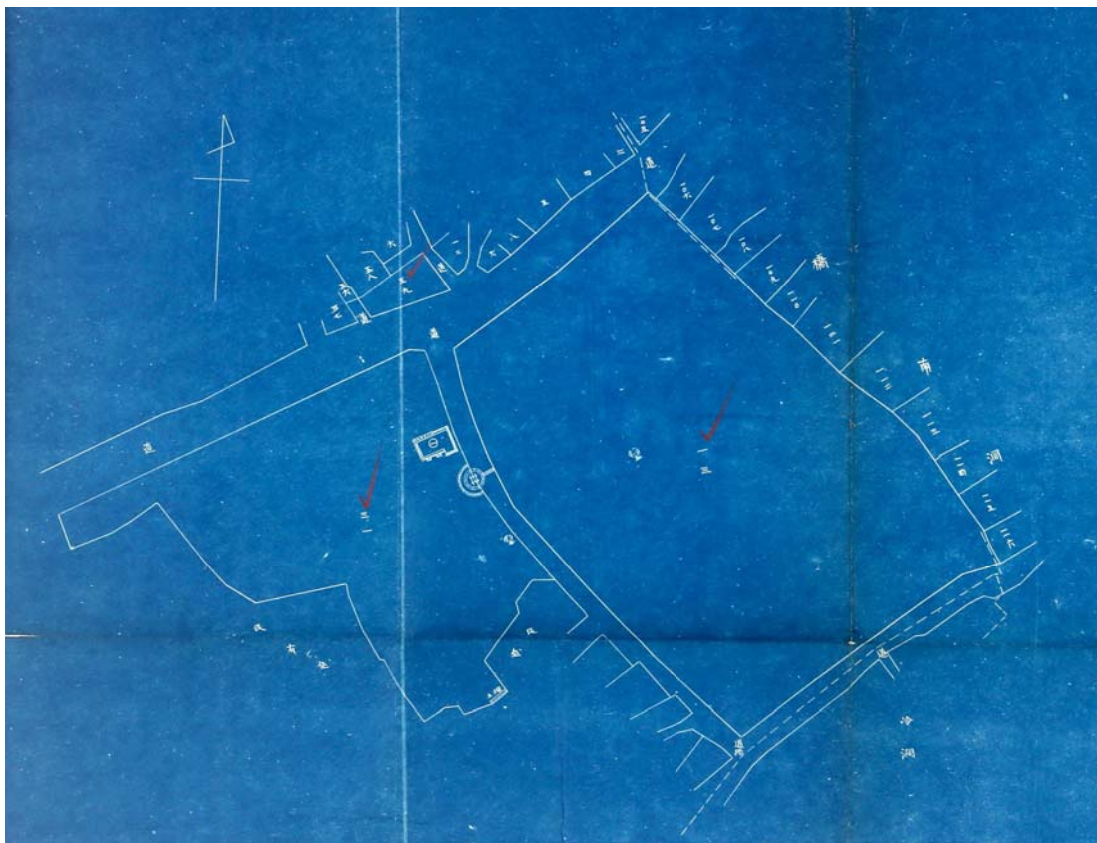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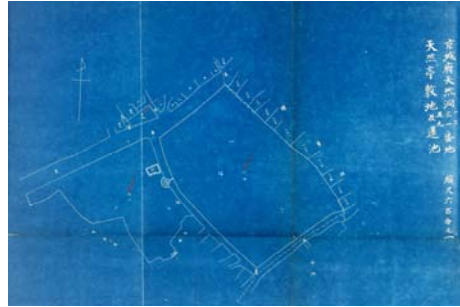
도면명	천연정수선공사설계도면 / 2	
시설명	천연정	
개별건물명	천연정	
시설유형명	누정	
연도	(추정)1910-45	
공사유형명	건물수선	
주제	고적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중군영과 연결하여 서지를 내려다 보는 곳에 자리했던 천연정의 보수공사 내용을 담은 도면. 1882년 임오군란 때 대부분 소실된 중군영 일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던 고적.	



도면명	천연정 수선 및 철조책 신설 공사 설계도	
시설명	천연정	
개별건물명	천연정	
시설유형명	누정, 철조책	
연도	-	
공사유형명	수선, 신설	
주제	고적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비고	- 중군영과 연접하여 서지를 내려다 보는 곳에 자리했던 천연정의 보수공사 내용을 담은 도면. 1882년 임오군란 때 대부분 소실된 중군영 일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던 고적.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도면명	경성부 천연정(天然亭) 부지 및 연지(蓮池)
시설명	천연정, 연지
개별건물명	천연정, 연지
시설유형명	경관시설
연도	-
공사유형명	-
주제	고적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비고	• 중군영과 연결하여 서지를 내려다보는 곳에 자리했던 천연정의 배치와 서지의 규모 실측 도면. • 천연정은 1882년 임오군란 때 대부분 소실된 중군영 일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던 고적.



5. 사진

1) 경기감영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한국병영, 러시아 총영사관
촬영자	헤르만 산더
대상	옛 경기감영 일대 전경
규격	가로14.1cm x 세로8.3cm
촬영시기	1906~1907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비고	• 헤르만 산더가 한국에 다녀간 1906~1907년에 촬영. • 2층 벽돌건물로 개축된 행각부분 입면이 잘 드러나며, 그 오른쪽으로 옛 정문이었던 포정문의 모습이 보임. • 2층 벽돌건물 위쪽으로 양성바름을 한 대규모 기와 건물이 보이는데, 선화당으로 추정됨. • 돈의문에서 경기감영 방향으로 오는 길 부근으로 솟을삼문을 비롯한 경기감영의 출입시설 지붕이 보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경기감영터에 들어선 한성부 건물
촬영자	카를로 로제티
대상	옛 경기감영 포정문(당시 한성부 정문)
규격	-
촬영시기	1900년대 초반
출처	카를로 로제티, 『꼬레아 에 꼬레아니』, 하늘재, 2009, 132쪽

비고

- 한성부 현판이 걸려있어 경기감영 청사가 한성부 청사로 전용될 당시의 사진임을 알 수 있음.
- 정문 왼쪽에 행각을 헐고 군영으로 사용되기 위해 신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층 벽돌건물이 들어서 있음. 좌우측에 단층 행각이 일부 유지된 것으로 보이나, 입면이 벽돌로 되어 있어 원형을 살피기 어려움.
- 헤르만 산더 사진과 달리 문루 2층에 창호가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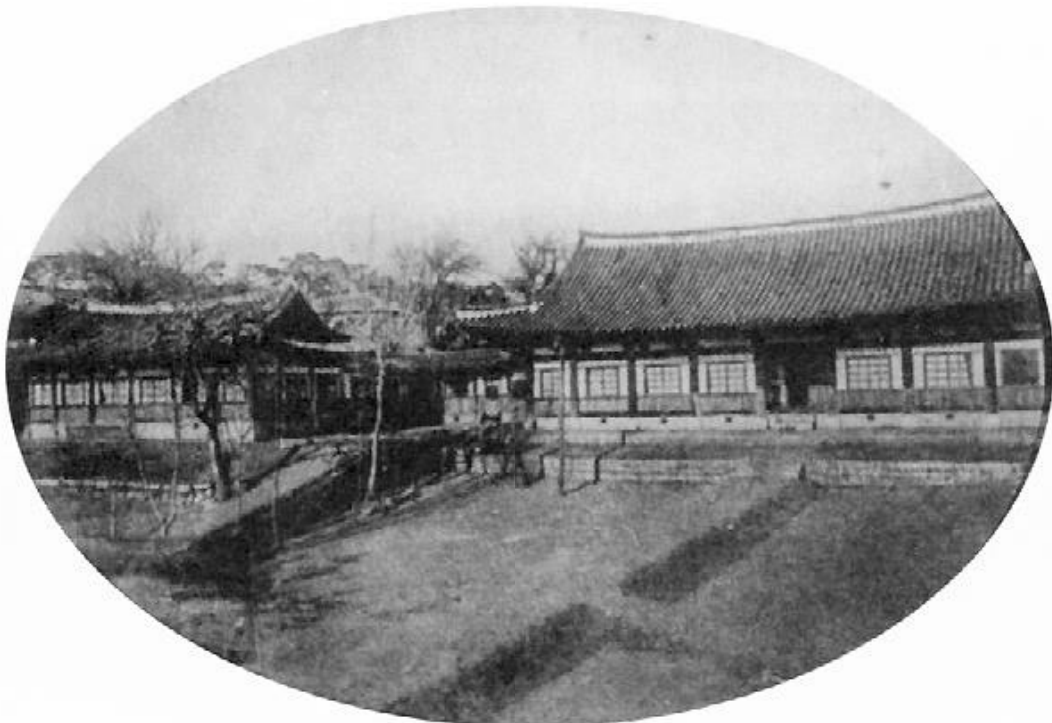


제목	한성부 청사
촬영자	-
대상	한성부 청사(옛 경기감영 선화당 추정)
규격	-
촬영시기	1900~1910년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학연구소, 『서울, 20세기 : 100년의 사진기록』,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2000,
비고	• 지금까지 한성부 청사의 모습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 • 사진 촬영 당시 한성부 청사임은 맞으나, 한성부가 육조대로 변에 있던 청사에 있을 당시가 아닌 옛 경기감영 전용 당시의 사진으로 추정됨. • 현판이 걸린 칸을 중앙의 어칸으로 본다면 이 건물의 정면규모는 11칸이 되어 정상적이지 않음 → <경기감영도>와 같이 중앙 대청이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물려있는 형제일 가능성 높음. • 양성의 얼룩 및 기와골 수를 고양군청 전용 이후의 선화당 사진과 비교해 본 결과 동일 건물일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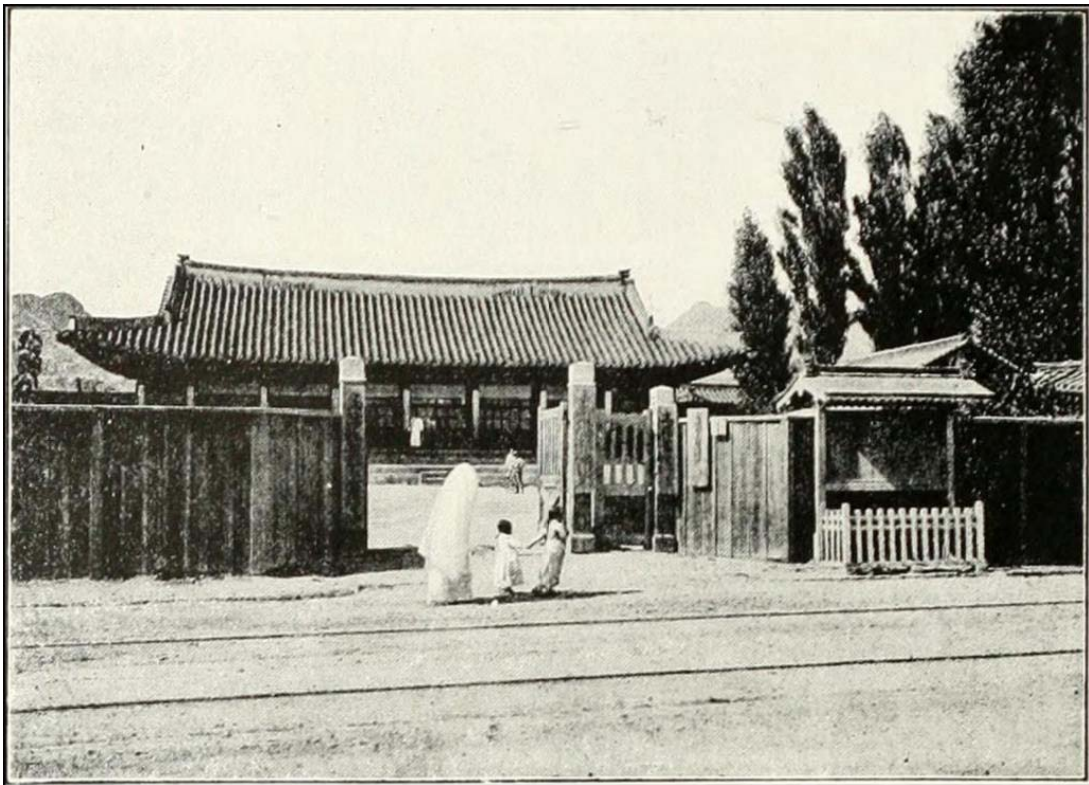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새로운 경기도청 건물
촬영자	-
대상	옛 경기감영 내 선화당, 도사청 건물
규격	- (단행본 수록 도판)
촬영시기	감영 이전 이후 ~ 고양군청 전용 이전으로 추정
출처	Government-General of Chosen, 『Illustrated Chosen : 1920』(경기 플러그인(http://ggplug.com/)에서 발췌)
비고	• 원 출처에는 아래에 제시한 사진과 함께 세종로의 신축 경기도청 청사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 변화한 도청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쓰였던 사진임. • 사진 오른쪽에 정면규모 7칸의 건물이 있고, 왼쪽에 6칸의 건물이 있음. → <경기감영도>의 선화당과 도사청으로 볼 수 있음. • <경기감영도>에 보이는 것과 입면 상태가 크게 다름. • 두 건물 뒤쪽으로도 건물의 입면이 보이는데 정확한 형태는 알기 어려움. • 두 건물 모두 지붕에 양성이 칠해져 있음 → <경기감영도>와 다름 • 두 건물 사이에 영역의 경계를 이루던 담장 혹은 행각이 사진 상에 없음.



제목	고양군청사 전경
촬영자	-
대상	옛 경기감영 선화당 일대와 가로변에서 본 정문
규격	- (단행본 수록 도판)
촬영시기	1914~1919년
출처	조선은행, 『Pictorial Chosen and Manchuria』, 1919, 87쪽
비고	- 정문(표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양군청으로 이관된 이후로 여겨짐. 표문에 고양군청이라 적혀 있음. - 고양군청으로 전용된 이후의 사진이 이 외에도 몇 장 남아있는데, 이 사진만 지붕 뒤쪽으로 적십자병원 건물의 기둥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적십자병원 건물을 짓기 전으로 시기를 좁혀볼 수 있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구경기영빈관(舊京畿營賓館)
촬영자	-
대상	옛 경기감영 선화당 일대와 가로변에서 본 정문
규격	- (단행본 수록 도판)
촬영시기	1914~1928년
출처	『경성부사』 2권
비고	• 『경성부사』의 사진 캡션에 후의 한성부, 고양군청, 일본적십자병원이라 적혀 있음. • 출입용으로 쓰인 칸의 입면 상황이 앞서 살핀 『Pictorial Chosen and Manchuria』(1919)과 다름. • 뒤에 보이는 기둥은 적십자병원 건물의 기둥임.



제목	구고양군청(舊高陽郡廳)
촬영자	-
대상	옛 경기감영 선화당
규격	- (단행본 수록 도판)
촬영시기	1928년
출처	『경성부사』 3권
비고	• 캡션에 사진은 1928년 촬영이며 주소는 죽첨정 90번지로 쓰여 있음. • 『경성부사』 본문 설명에 군영, 한성부의 일부, 일본거류민단립소학교교사사택으로 쓰였다가 1914년부터 1928년까지 고양군청으로 쓰였고, 조선적십자병원 내 간호부양성소로 사용되었다가 동 병원이 인근에 재건축되며 유서 깊은 건물이 철폐되었다고 쓰였으며, 현재는 일산자동차판매회사 경성영업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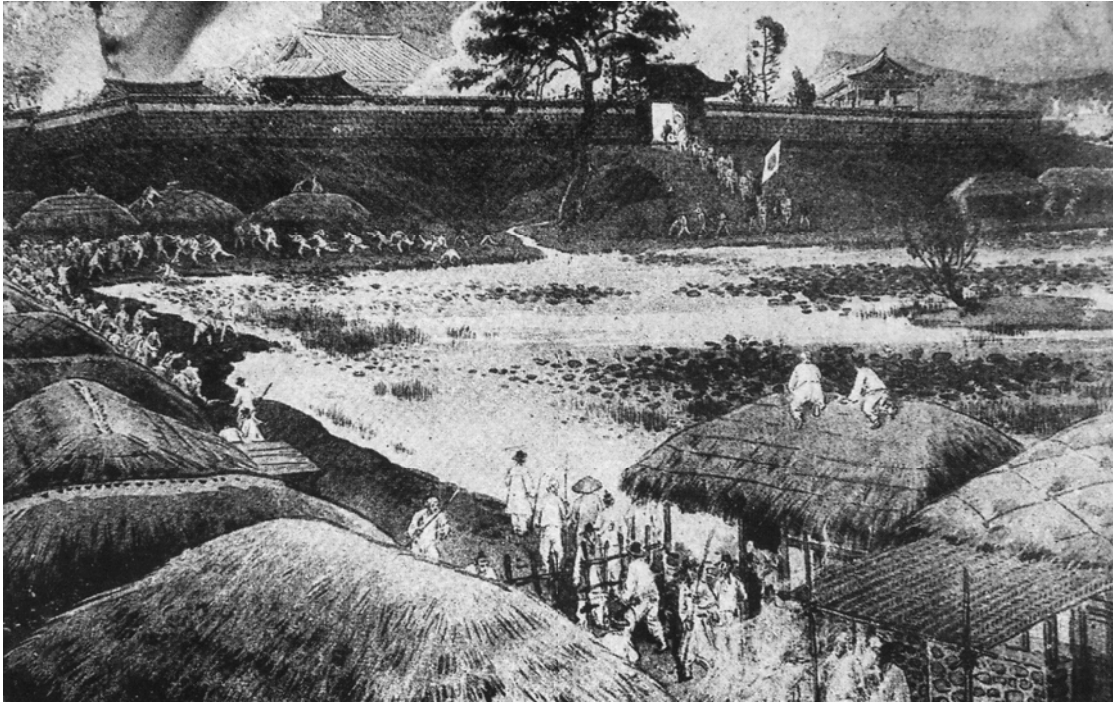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고양군청 조선인 관리 집무 상황
촬영자	-
대상	옛 경기감영 선화당 내부
규격	- (단행본 수록 도판)
촬영시기	1914~1921년
출처	조선총독부, 『朝鮮：写真帖』, 1921
비고	• 선화당 건물을 고양군청으로 전용할 당시의 사무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 • 내부의 원주와 변형된 입면 창호가 보임 • 입면 창호의 모습은 외부에서 촬영된 『경성부사』 사진과 유사함



2) 중군영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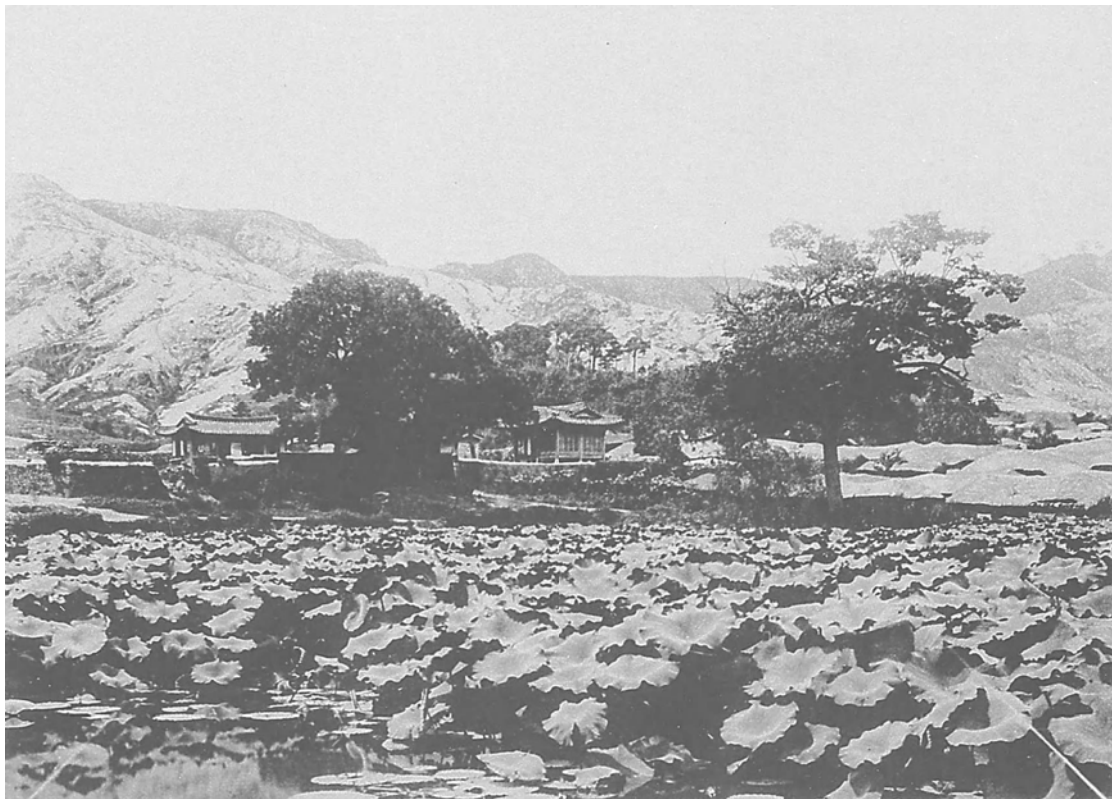
제목	임오군란 기록화
촬영자	-
대상	중군영 앞 서지 일대
규격	-
촬영시기	-
출처	미상
비고	• 임오군란 당시 일본공사관으로 쓰이던 중군영으로부터 일본인 관원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그린 기록화. • 정확한 출처 미상. 많은 발행물들에서 명확한 출처 밝히지 않고 인용 중. • 사진과 문의 모습이 달라 기록화로서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Site of Japanese Legations where the the massacre took place
촬영자	Percival Lowell (American, 1855-1916)
대상	중군영 앞 서지 일대
규격	-
촬영시기	1884
출처	Museum of Fine Arts, Boston Photograph Library
비고	• 임오군란 2년 후의 옛 중군영 일대와 천연정, 서지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 • 옛 중군영의 정문으로 보이는 솟을 삼문과 석축 담장, 헐문이 남아 있음. • 문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건물들이 모두 소실된 상황으로 보임. • 서지도 가물고 연꽃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 퇴락된 상황으로 보임.



제목	서지와 천연정 전경
촬영자	林武一
대상	중군영 앞 서지 일대
규격	-
촬영시기	1892년 이전
출처	林龜子, 『朝鮮国真景』
비고	• 천연정과 서지 일대를 촬영한 사진. • 앞서 살핀 로웰의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중군영 내 건축물의 사진이 보이는데, 신축된 것인지 남아있는 부속채인지 알 수 없음. • 연꽃이 가득한 모습 또한 로웰의 사진과 다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천연정 전경
촬영자	大原氏
대상	서지 앞 천연정
규격	-
촬영시기	1932년 5월 31일
출처	宮武外骨, 『임오계림사변(壬午鷄林事變)』, 花房太郎, 1932
비고	• 천연정의 모습을 담은 사진 • 지붕과 입면 수장 상태, 주변 목책, 수목으로 보았을 때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임. • 공사관내 사변 때의 건물이라는 부기가 있음



3) (추정)고마청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돈의문 밖 경기감영

제목	西大門 附近(2)
촬영자	조선사편수회
대상	돈의문 밖 일대 전경
규격	-
촬영시기	1925~1934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등록번호 : 사자 1431)
비고	• 돈의문 밖 일대 전경이 찍힌 사진으로, 사진 좌측에 돈의문에서 경기감영으로 이어지는 가로가 보임. • 가로 끝에 솟을 삼문으로 보이는 문이 있고, 그 앞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고마청일 가능성이 높은 기와집이 보임.
 	

III. 세종로 경기도청 연혁

1. 세종로 경기도청사 및 부지의 연혁
2. 대한제국기 이전
경기도청사 터와 본관 건립
3. 일제강점기 경기도청사의 변화
4. 해방 후 변화
5. 경기도청사의 주요 근대건축물

1. 세종로 경기도청사 및 부지의 연혁

1) 세종로 경기도청사의 연혁

- 1910년 : 구 내부청사 건물로 경기도청 이전
- 해방 후 : 경기도청 건물을 미군정이 사용함에 따라 태평로 전 조선제련회사 사옥(중구 태평로1가 25, 현 한국프레스센터 자리), 조선일보사옥, 토목회관 등에 나누어 수용
 - 조선제련회사 사옥 (1945. 12. 24.~) : 도지사실, 도참여관 사무실, 내무부사무실, 경기도재산 관리과 사무실 등
 - 조선일보사옥 : 철공국 철공과
 - 토목회관 : 광공국 토목과
- 한국전쟁 : 부산으로 피난
- 1951년 3월 : 수원 소재의 화성군청(현재 선경도서관 자리)으로 자리를 옮겨 운영
- 1953년 8월 28일 : 세종로 소재 청사 건물로 복귀
- 1963년 : 수원 이전 결정
- 1967년 6월 23일 : 수원 이전

2) 세종로 경기도청사 부지의 연혁

시기	기관	내용
1863~1894.12	의정부	1894.12 경복궁 수정전으로 이전
1894~1910.8	내부	내부, 이조터에서 이전 한일병합에 이르기까지 머물
1910.12~1945.8	경기도청	1910.10 일제강점으로 한성부가 경기도 소속의 경성부로 개편됨에 따라 수원에서 서울로 도청을 이전
	경기도 경무부 →경기도 제3부(1919.8) →경기도 경찰부(1921.6)	1910.10 경기도청이 이전해오면서 수원에서 함께 이전 1919.8 경무부가 폐지되고 제3부 신설 1921.6 제3부를 경찰부로 개칭
해방 후	미군정	
1948.08	경기도청	11월까지 여러 부서가 차례로 재이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외무부	
1953.08.28	경기도청	
1967.07	내무부	경기도청 수원 이전에 따라 임시로 내무부청사로 사용 이 외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이 들어섬
1968	건설부	
1970.12	내무부 치안국, 농업경 영연구소	내무부 치안국(본관·외곽별관), 농업경영연구소(4별관)
1986.09	서울시경 별관	
1989.11~1990.04	철거	
1996	시민 열린광장	

2. 대한제국기 이전 경기도청사 터와 본관 건립

1) 대한제국기 이전 시기 터의 현황

(1) 조선시대 의정부

○ 조선시대 의정부의 변화

조선시대 세종로 경기도청 터는 줄곧 의정부의 터였다. 의정부란 조선시대 백관의 통솔과 서정을 총괄하던 기관으로 시기에 따라 위상에 부침은 있었으나 조선 전 시기에 걸쳐 명목상 국정최고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조선 건국 후 수도 한양을 계획하면서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앞 동측에 도평의사사를, 좌측에 의흥삼군부를 배치하여 문무 최고 관청을 동서로 배열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정종대에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긴 후 도평의사사는 의정부로 개칭되었고 의흥삼군부도 삼군부로 개칭되었다. 1405년 한양 재건도 이후 의정부와 삼군부는 원래 위치로 복귀하였고, 도성 간선 도로에 장랑을 건설하면서 광화문 앞 거리에도 장랑이 좌우로 길게 도열하게 되었다. 또한 태종 5년에는 3품에 머물러 있던 육조 관청들을 정2품 관청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비로소 육조 관청이 의정부, 삼군부와 함께 광화문 앞 대로에 좌우로 도열하여 온전한 육조거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을 재건하지 않고 동궐만을 재건하여 법궁으로 사용하면서 경복궁 터는 방치되었으나, 광화문 앞 육조거리에는 여전히 의정부를 비롯한 육조 관청들이 좌우에 도열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의정부를 비롯한 육조거리의 관청들은 전각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의정부의 경우에도 영조대에 중심 전각인 정본당이 복구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던 것 같다.¹⁾

육조거리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고종대 경복궁 중건 이후이다. 고종 2년에는 임진왜란 이후 국정을 주도해 오던 비변사를 의정부에 합설하도록 하여 의정부 권한을 강화하였고, 퇴락해 있던 의정부 청사도 번듯하게 고쳐 짓도록 하였다.

○ 고종 연간 의정부 중건

고종 연간의 의정부 중건은 대략 1865년 3월경 시작하여 같은 해 5월경에 주요부 공사가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²⁾ 또한 이 공사는 임진왜란 이전의 의정부 배치를 대체로 준수한 것이었다.³⁾

당시 공사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료를 통하여 당시 주요 건물의 명칭과 기능을 알 수 있고, 또 대략적인 배치를 추정해볼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의정부터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 2016, 42쪽.

2)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위의 책, 192쪽.

3)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위의 책, 195쪽.

당시 주요 건물의 명칭과 기능

당시 주요 건물의 명칭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의정부 중건을 다룬 여러 기문과 상량문이 있다. 이를 통하여 주요 건물 5개의 용도와 사용하는 관원, 품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⁴⁾ 각 청사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정본당 : 삼공청사(三公廳舍). 영의정과 좌의정, 우의정의 근무처.

협선당 : 이공삼사재(二公三宰)의 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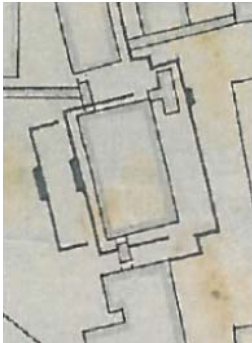
석화당 : 제재(諸宰)의 거처

좌성당 : 사인검상(舍人檢詳)의 거처

숙야당 : 공사관(公事官)의 처소

당시 배치 추정⁵⁾

고종연간초 중건된 의정부의 배치 추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는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1908년(순종 1) 초반)와 「청의서」 제85호 첨부도면(1909년(순종 2), 「청의서」 제132호 첨부도면,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1910년대 후반), 『지방청건물대장(地方廳建物臺帳)』(1917년)이 있다.

구분	기준도면		부분참고도면
의정부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1908년 초반) 의정부 부분	『청의서』 제132호 첨부도면	

이 중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1908년(순종 1) 초반)와 「청의서」 제85호 첨부도면(1909년(순종 2)⁶⁾은 알려진 자료 가운데 가장 시기가 올라가고, 실측자료로서 신뢰도도 높으며, 도면 간 내용이 거의 일치하며 각각 누락된 부분에 있어 상호보완이 가능하나, 중건 이후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문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위의 책, 1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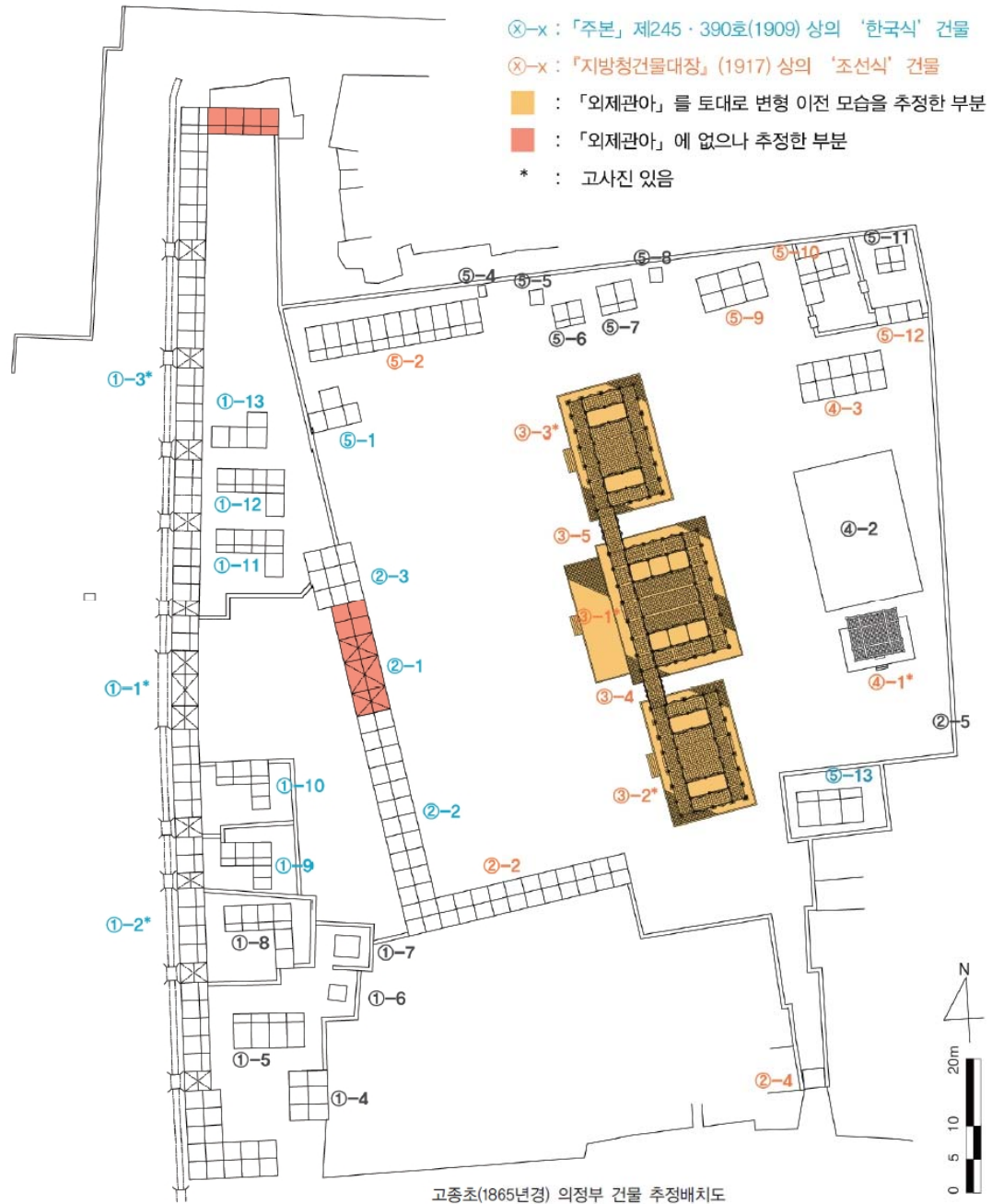
5)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위의 책, 281-302쪽.

6) 주본 제245호와 관련된 것으로 내부 청사 건립을 위해 훼손할 건물에 대한 내용과 함께 도면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건물들은 한국식고가로 표시되어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일 가능성이 높음.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1910년대 후반)는 더 후대의 것이지만, 일부분 참고가 가능하다.

『지방청건물대장(地方廳建物臺帳)』(1917년)은 1917년 현재 경기도청의 전체 시설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잔존한 건물들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들의 고증에 의하여 「의정부터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에 의한 고증한 배치안은 다음과 같다.



고종초(1865년경) 의정부 건물 추정배치도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의정부터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 2016.)

전체 구성은 육조거리에 면하여 남북방향으로 행랑이 늘어서 전체 영역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고, 안쪽의 주요 건물군을 둘러싼 영역이 하나 더 존재하여 크게 2종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중심 건물군과 이를 둘러싸는 서측 행랑의 축은 육조거리의 축보다 서북-동남 방향으로 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두 행랑 사이에 삼각형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이 사이 공간 안에는 복수의 건물들이 자리하는데 대부분은 ㄱ자 평면을 가지고 있다.

중심 건물들인 정본당(중앙), 협선당(남측), 석화당(북측)의 세 채는 규모가 더 큰 정본당을 가운데 두고 협선당과 석화당이 이 양 옆에 자리하여 하나의 건축군을 이루는 구성을 취하는데, 이런 구성은 마찬가지로 고종 연간에 중건된 삼군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⁷⁾ 여타 육조의 관아들은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3명의 당상관이 소속되는 여타 관아들과 다르게 의정부에는 당상관만 7명이 소속되어 있던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⁸⁾

이 세 건물 앞에는 큰 마당과 월대로 비워져 있고, 정본당 뒤편에는 방형의 연못이 자리하는데 이는 육조거리의 기타 관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이다. 이는 당상관이 근무했던 중심 건물 대청에서 못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의정부 청사에는 못에 연접한 정자를 확인할 수 있어 휴식과 접객 등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중심 건물군 북측으로는 좌우로 작은 부속채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다.

이 시기 영역 내부를 찍은 사진은 없으나 1890년대와 1900년 초에 광화문 혹은 육조거리를 촬영한 사진들에서 가장 바깥 행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에서 보았듯이 거리 좌우로 길게 행랑이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며, 중간중간에 대문으로 여겨지는 솟을지붕이 보이고, 행랑 앞쪽 바닥에는 도랑이 이어지고 있다.



육조거리(1902~1903, 『고려아 고려아니』)

7)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위의 책, 144쪽.

8)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위의 책, 212-213쪽.

(2) 조선 말 ~ 대한제국기 내부

○ 내부로의 변화

조선시대 내내 의정부로 사용되었던 터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은 1894년(고종 31)의 일이다.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하여 국왕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정부를 정치 중추기구로 삼는 체제가 만들어졌고, 육조는 내무·외무·택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의 8개 아문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육조거리 동측에는 차례로 의정부, 내무아문, 학무아문, 택지아문, 한성부, 기로소가 들어서게 되었고 서측에는 차례로 장위영, 중추원, 농상아문, 군무아문, 법무아문, 공무아문이 들어서게 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2차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의정부는 내각으로 이름을 고치고 자리도 경복궁 편전인 수정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남은 터에는 바로 남측에 자리하던 내무아문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 건국 후 처음으로 터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

1895년 3월에는 다시 7부 편제로 관제가 개편되었고 종전 내무아문은 내부로 이름을 바꾸었다.⁹⁾ 이후 1897년 대한제국 공포를 전후하여 새로운 관제 변화가 있었고¹⁰⁾, 1900년 현재 육조거리에는 동측으로 내부, 외부, 학부, 탁지부·양지아문, 농부가, 서측으로는 시위대, 헌병부, 경부, 군부, 법부, 통신부가 자리하게 되었다.

○ 1908년 현재 내부의 배치

1908년에 작성된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는 대한제국기 내부 시절의 건물 배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1907년)

9) 이 외에 외무아문은 외부, 택지아문은 탁지부, 법무아문은 법부, 학무아문은 학부, 군무아문은 군부. 공무아문과 농상아문은 합병되어 농상공부가 되었다.

10) 아관파천을 계기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붕괴되고 신내각이 구성되었다. 신내각은 갑오개혁 이전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일환으로 1896년 9월 의정부가 복설되었다. 신내각 체제하의 의정부는 국왕이 주도하는 내각체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는데 이는 왕권 강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의정부는 그 후 1907년(고종 44)에 다시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소멸되었다.

여기서 보이는 배치는 앞서 살펴본 고종연간 중건시 추정 배치도와 거의 유사한데 이는 그 고종 작업이 이 배치도에 기대는 바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추정 배치도와 이 도면 비교하면 먼저 눈에 띄는 변화로는 육조거리에 면한 행랑을 지난 후 원편(북측)에 위치하는 ㄱ자 부속채들이 소실된 점, 정본당과 석화당 평면에 변화가 일어난 점, 석화당 전면에 부속채가 들어선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구성에 비해 미묘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1907년 현재의 내부의 배치는 고종 연간 초에 중건된 의정부의 공간 구성과 배치를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내무아문 터의 변화

한편 원래 내무아문 터에는 내무아문 이전 이후 차례대로 중추원, 외부, 한국통감부 등이 들어섰고 이후 통감부 법무원과 중추원, 경찰관연습소, 한성부가 겸용하였다. 통감부 법무원 폐지 후에는 임시토지조사국 광화문분실이 들어서면서 호조터와 함께 넓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되어 토지조사국이 폐지되자 경관연습소와 경찰참고관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일제강점기 내내 유지되었다.¹¹⁾

2) 대한제국기 내부 청사 본관 건립

(1) 본관 건립 과정

1908년(순종 1)이 되면 내부 청사 본관 신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 당시에는 내부 뿐 아니라 여러 청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청사 신축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08년 7월 30일자 황성신문 기사에 의하면, 기존 탁지부청사 터에 각부 청사를 합동으로 건축할 생각이 있었던 듯 하나 이는 결국 자금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대신 현재 청사로도 업무가 가능한 관청은 그대로 두고 불가피하게 신축해야 할 청사에서는 각자 건축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현 청사의 앞마당에 이를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건물은 서양식(洋制)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 시점에서의 계획은 1908년도 안에 준공하는 것이었다. 동년 10월에는 도면 측량을 실시하였다.

各部廳舍는 前度支部廳舍基址에 合同建築할터인디 其所入費略四十萬圓을 現今財政窘絀한 境遇에 辦出함이 困難함으로 其方針을 變更하야 各部의 現在廳舍中視務上無碍한 者는 仍置하고 不可不新築할 者는 各廳舍를 各其建築하기로 하야 内部에서는 現廳舍前庭에 建築하기로 決定하고 近近히 始役하야 本年中에 竣工케 할터이라더라

「황성신문」 1908년 7월 30일자, 「廳舍始役」

各府部院廳을 洋制로 新建築한다함은 已報어니와 學部에서는 現今建築中이오 内部에서도 本年度에 建築工役을 着手한다는디 該圖面을 測量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10월 3일자, 「圖面測量」

11)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위의 책, 144쪽.

1908년에 11월에는 대체적인 계획이 황성신문에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령청과 창고를 휘철하고 2층 양옥을 지으며, 1909년 5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內部에서는 今年內에 該部使令廳及庫間을 毀撤하고 貳層洋屋으로 廣大히 建築하야 上層은 大臣官房及次官官房과 地方局長官房及警務局長官房과 秘書課와 應接室兩處를 設하고 下層은 地方局、警務局、會計課、文書課、地理課와 大廳直房을 設하고 衛生局은 現今應用하는 大廳으로 設하고 土木局은 衛生局으로 移接하고 現用하는 警務局은 使令廳으로 應用한다는디 該建築은 明年度五月에 竣工하기로 定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08년 11월 4일자, 「內部建築」

그러나 실제로 설계도는 1909년 5월에 되어서야 완료가 되었다. 바로 다음 달인 6월 3일에는 청사 내의 오래된 가옥 10동과 담을 입찰로 매각하였고, 6월 7일에 드디어 삼문을 휘철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各部廳舍中學部本廳舍는 新築하얏스나 其他 各部는 度支部建築所에서 工事を 計算中인디 其中 內部와 農商工部는 製圖가 完了됨으로 來月初旬부터 工事に 着手하야 總히 煉瓦製二層洋屋으로 建築하되 內部는 面積이 二百五十坪이오 農商工部는 面積이 二百坪이라 하며 又位置는 內部는 現廳內前面廣地로 農商工部는 明治町衛戍病院所建地라 하고 此外에 法部는 今年內로 新築하기로 現今 設計中이인 位置는 確定이 無하며 度支部는 本廳舍에 設築할 터이오 軍部는 新築치 아니한다는디 內農二部에 建築費는 三十萬圓으로 豫算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09년 5월 15일자, 「建築費豫算」

內部廳舍基址內所有古屋拾座及塀를 六月三日에 入札로 賣却할 터이니 詳細한 內容은 本所에 來하야 揭示를 見할 事 建築所

「황성신문」 1909년 5월 26일자, 「古屋及塀賣却廣告」

內部를 洋制로 新建築한다 囑은 已報하얏거니와 昨日부터 該工役에 着手하야 三門間을 毀撤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09년 6월 8일자, 「工役着手」

내부청사는 이듬해인 1910년 3월에만 해도 연말에 완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8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대체로 공사가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9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대략 17개월 걸린 셈이다.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지연된 것은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진행된 중앙행정시설의 수량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 한편 완공 후 9월 30일까지는 경성이사청으로 사용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행정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해 왔다고 추정하는 연구도 있다.¹³⁾ 그러나 실제로 이 건물의 주인이 된 것은 경기도청이었으며, 11월 말 경 이전이 결정되었다.

12) 서울특별시·(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 위의 책, 175쪽.

13) 손정목, 「일제하의 도청이전(1)-경기, 함북, 평북」, 『지방행정』34, 1985, 104~105쪽.

内部廳舎及農商工部廳舎는 昨年부터 建築工事に 着手함은 人所共知함바어니와 該工事を 本年末에 竣工하기로 預定함앗다더라

「황성신문」 1910년 3월 9일자, 「建築竣工期」

目下新築함는 内部廳舎는 本月末日頃에 大畧終了될터이오 來月中旬頃에는 新廳舎로 移接視務함 豫定이라더라

「황성신문」 1910년 8월 7일자, 「内部廳舎竣工期」

내무부구내에신축한청사는대략고성된고로내삼십일경에경기도청이외경기부청과경성헌병대본부급도청 경무부등을이전할터이러다.

「매일신보」 1910년 11월 11일자, 「잡보: 경기도청의 이전기」

내부 청사가 경기도청으로 사용되게 된 배경에는 한일합병 직후 진행된 지방관제 개편으로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가 경기도 소속의 경성부로 격하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청은 수원에서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은 「조선총독부관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가 공포된 9월 30일~10월 1일에 즉시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기물은 옮기지 않고 약간의 서류를 가지고 일부 인원만 서울로 와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에 있던 경기도관찰은 소멸되고 관찰사와 이하 직원은 모두 퇴직 처리되었다.¹⁴⁾

한편 경기도청과 더불어 경기도 경무부도 함께 이전하였다. 경무부는 1910년 6월 24일 「경찰 사무의 위탁에 관한 각서」로 헌병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새로 조직된 것으로, 기존의 경기도 경찰부도 경기도 경무부로 변경되었다.¹⁵⁾

(2) 내부청사 본관 신축에 따른 배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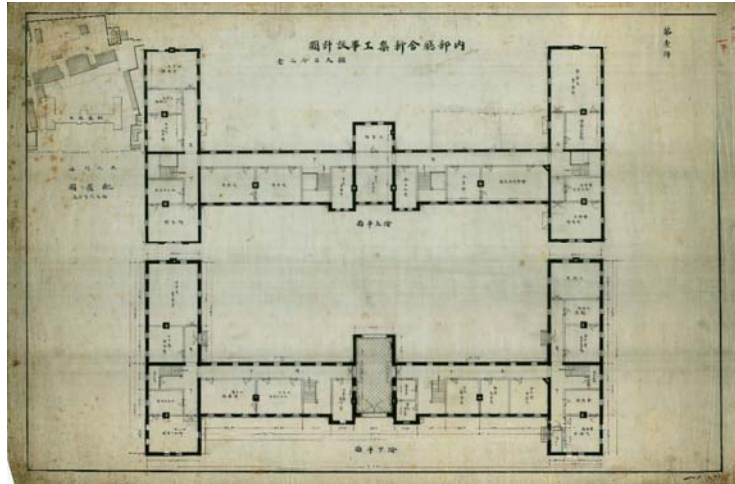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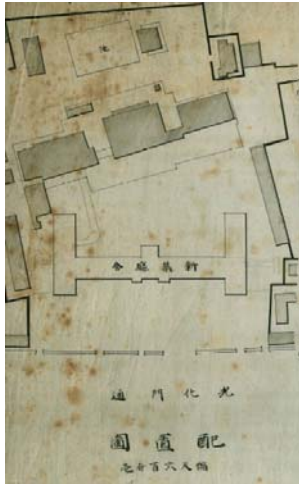
내부 청사는 벽돌조 2층 건물로, 일자형 평면 양 끝에 수직으로 날개채가 붙는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신청사의 배치는 탁지부에서 작성한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의 배치도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향은 서향으로 육조거리와 평행하게 배치되었고, 위치는 대략 기존의 안쪽 행랑 자리에 해당 하는데, 이로써 안쪽 행랑과 내삼문이 모두 철거되었다. 한편 본청사 건물이 바로 거리에 면하여 정면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서양식 건물 배치에 의거하여 앞에 있던 외행랑 및 외행랑과 내행랑 사이에 있던 건물들도 대거 철거되었고, 청사 전면에 걸리지 않은 남측 외행랑 및 건물 일부만 남게 되었다.

신청사 바로 뒤에는 의정부 시대부터 있었던 3채의 중심건물이 위치하는데 이들의 축이 서로 달라 비스듬한 형태의 마당이 형성되었다.

14) 손정목, 앞의 글.

15) 이후 1919년 8월에 경무부가 제3부로 개편되었으며, 1921년 6월에는 다시 경찰부로 개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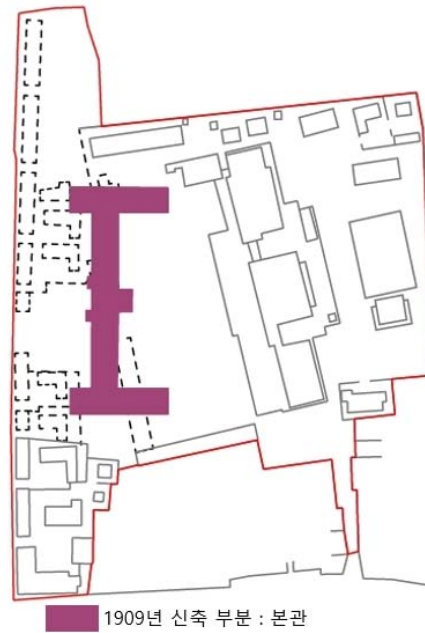
내부 청사 배치도(「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내부 청사 층별평면도(「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1 외삼문 철거

2 내삼문 철거

3 6조거리에 면한 행랑 및 건물(조방 추정) 철거



1909년도 훼손 부분과 신축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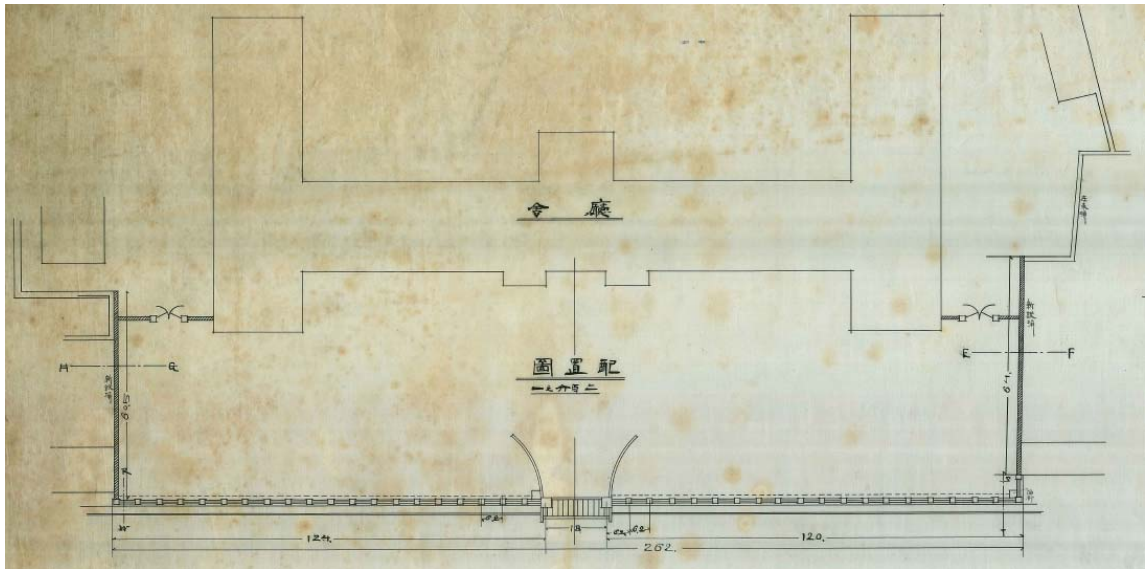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요람』, 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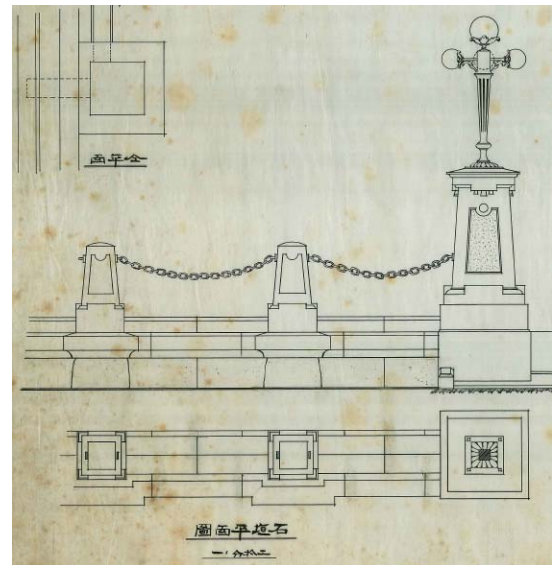
경기도청 전경 (사진엽서, 일제강점기)

기존에 시설의 경계를 형성하던 외행랑 등 건축물을 대신하여 외부와의 경계에는 서양식의 석조 담장이 설치되었다. 담장은 육조거리와 평행한 면 뿐 아니라 신청사로 향하는 좌우에도 수직으로 설치되었고, 이 수직 담장과 신청사 사이에는 다시 짧은 담장이 설치되어 신청사 앞의 폐쇄적인 앞마당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서 신청사 뒤의 건물군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면 담장 중앙의 정문을 통과한 후 청사 중앙의 홀을 관통하거나 양옆 담장의 문을 통과해야 하게 되었다.



신청사 전면 담장 및 앞마당 구성 (『내부청사문및석장신설세상도』,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도면에 의하면 정면 담장의 구성은 약 60cm 높이 정도의 석조 담과 약 190cm(6.2척) 간격으로 배치되는 약 120cm 높이의 고대가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 대와 대 사이 상부에 쇠사슬이 걸려 있다. 즉 담장의 총 높이는 120cm이지만 실제로는 60cm라 할 수 있어 시각적 차폐의 기능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의 사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담장의 성격은 기존 외행랑의 시각적으로도 폐쇄적인 성격과는 매우 다른 것이며, 신청사의 규모 및 배치와 더불어 권위 건축의 새로운 공간 구성과 배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면 담장 (『내부청사문및석장신설세상도』,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3. 일제강점기 경기도청사의 변화

1) 1910년대의 변화

1910년대의 변화는 1908년 제작의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1910년경에 작성한 「내부 청사신축공사설계도」와 1910년대 후반의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 등의 비교 분석 및 「경기도청 부속측급도당하신축지도」, 1916년경 작성된 「경기도청사증축공사설계도」, 1917년에 작성된 「지방청건물대장」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19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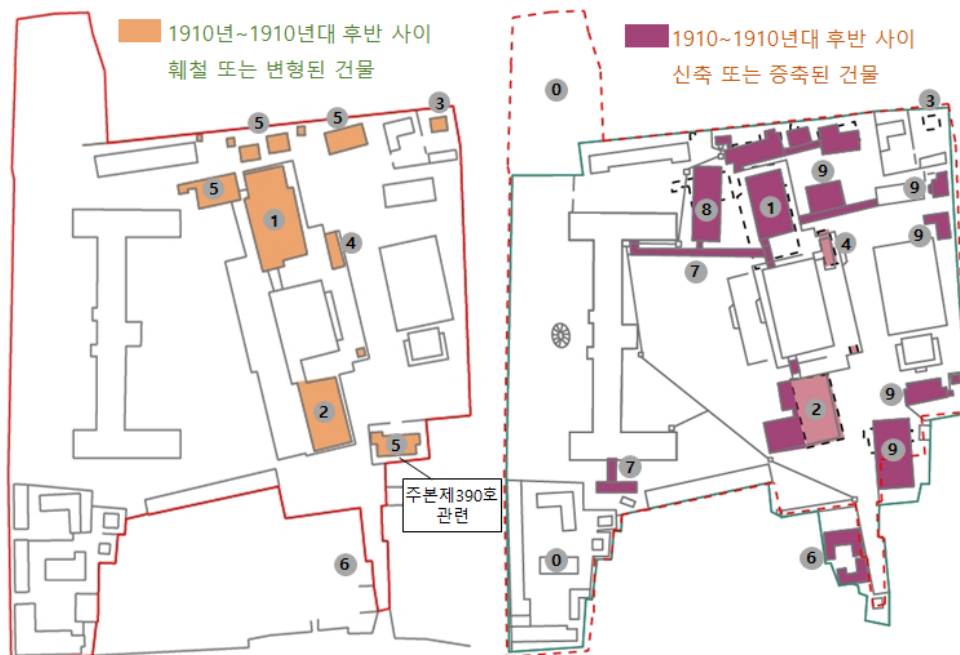


1910년대 후반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



내부 청사 배치도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이 도면들을 바탕으로 1910년대에 획철 혹은 변형된 건물과 신축 또는 증축된 건물을 표시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1910년대 건물 변화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세종로에 면한 북측과 남측 땅이 각각 별도의 구역으로 구획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서술했던 신청사 앞에 설치된 담장으로 구획된 것이다.(⑩) 1910년대 후반의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에서 이 부분은 각각 조선군사령부와 승정원 및 사헌부(탁지부 분실)로 기술되어 있어, 각각 별도의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동남쪽 입구 근방의 필지를 흡수하여(⑥) 이 부분에 관사가 건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화당 건물(①)과 협선당 건물(②)에도 평면 변화가 보이는데, 석화당의 경우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협선당의 경우 도면에서 전면이 증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항공 사진을 통해서도 기존 목조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 앞에 평지붕 건물이 증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10년 11월에 본관 남쪽에 덧대어 목조의 변소가 증축되었고(⑦), 뒷면 북측 안쪽 모서리 입구 부분에 덧붙여 동쪽 석화당과 정본당 사이 복도각을 향하여 목조 복도각(渡廊下)이 증축된 것을 알 수 있다.¹⁶⁾(⑦) 둘 다 단층에 일본식 철판지붕을 가지고 있다. 이 복도각에는 후에 권업계·이재계 건물도 연결되며, 본관 후면 마당을 찍은 사진을 통해서 위에 지붕이 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면 하부는 기둥 사이에 판벽이 있으나 상부는 뚫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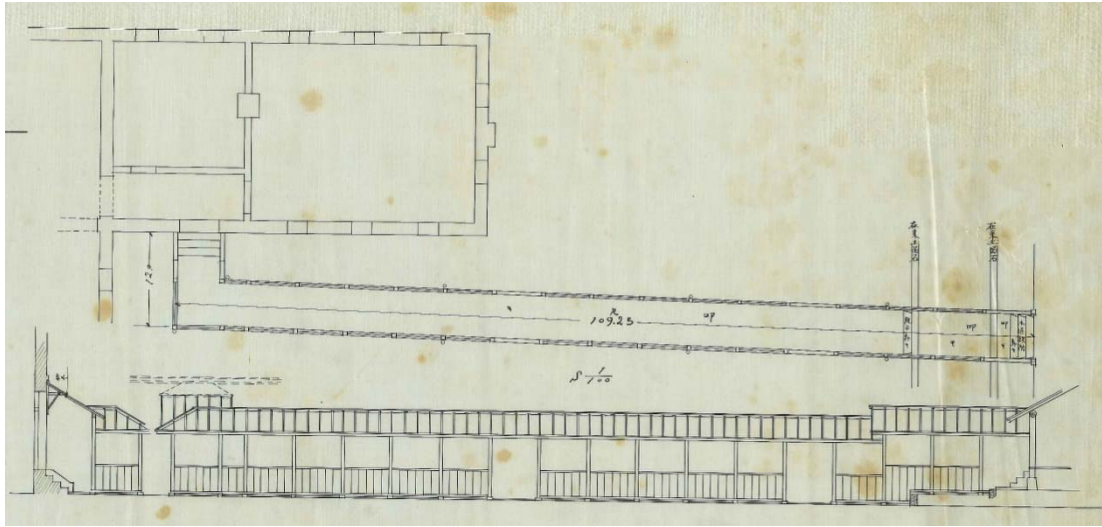


본관 후면 정원의 모습. 정원 안쪽에 설치된 연결복도(⑦)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건물의 배치 등으로 보아 1910년대 사진으로 생각됨 (출처 : 경성부사 6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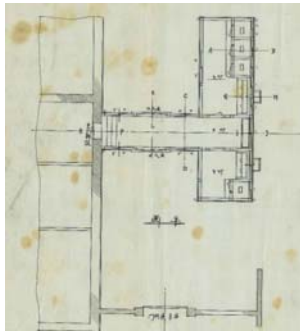


협선당(②). 건물의 배치 등으로 보아 1928년에서 1931년 사이에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됨. (출처 : 砂本文彦著 「図説 ソウルの歴史 漢城・京城・ソウル 都市と建築の六〇〇年」河出書房新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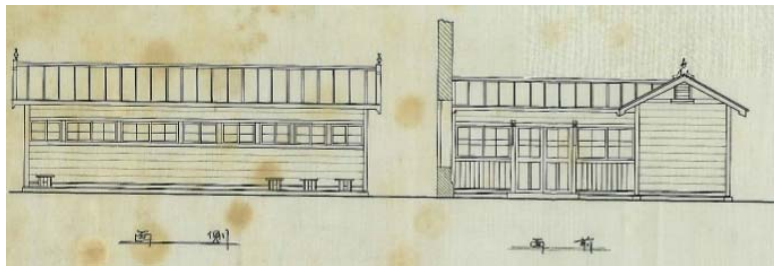
16) 건립시기는 「지방청건물대장」(1917)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복도각의 평면 및 입면 (「경기도청부속측급도랑하신축지도」, 1911년경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변소의 평면(「경기도청부속측급도랑하신축지도」, 1911년경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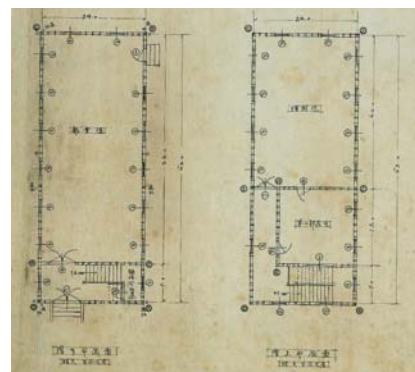


변소의 입면 (「경기도청부속측급도랑하신축지도」, 1911년경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필지 북측에서는 석화당 앞의 건물을 포함한 소규모 건물들이 뒤흔들렸고(⑤), 1916년 10월에 석화당 앞에 2층 규모의 목조 건물이 신축되어 1층은 권업계로, 2층은 이재계로 사용되었다.¹⁷⁾(⑧) 이 건물은 양식 목조 건물이며,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이었다.



신축된 권업계·이재계 건물 입면 (「경기도청사증축공사설계도」, 1916년경, 국가기록원 소장)



신축된 권업계·이재계 건물 평면 (「경기도청사증축공사설계도」, 1916년경, 국가기록원 소장)

17) 「경기도청사증축공사설계도」 및 「지방청건물대장」(1917)을 통하여 건설시기를 추적하였다.

한편 1917년에 작성된 『지방청건물대장(地方廳建物臺帳)』을 통해서도 당시 존재한 건물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건립 시기를 기준으로 정렬한 표는 다음과 같다.

1917년 현재 건물 현황 (내무국제1과, 『지방청건물대장(地方廳建物臺帳)』, 1917, 국가기록원 소장(CJA0002574))

년	월	건물 명칭	동수	구조	양식	지붕	층수	건평
1907		변소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2
1909		창고	1	연와조		기와지붕	2층	53.04
1909		탕비소(湯沸所)	1	목조	일본식	기와지붕	단층	26.87
1909		취사장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6.75
1909		창고(物置)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1.28
1909		변소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8.75
1909		욕실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2.48
1909		변소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68
1910	11	본관	1	연와조		철판지붕	2층	253.47
1910	11	복도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9.12
1910	11	변소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8.25
1910	11	복도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3
1911	7	회의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97.12
1911	7	사무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69.76
1911	7	사무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47.94
1911	7	창고(物置)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32.1
1911	7	창고(物置)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2.32
1911	7	사무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0.74
1911	7	사무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17.28
1911	7	순시힐소(巡視詰所)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15.07
1911	7	식당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14.98
1911	7	순시실(巡視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10.01
1911	7	소사힐소(小使詰所)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9.5
1911	7	소사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4.94
1911	7	문사(門舍)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97
1911	7	복도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25
1911	7	복도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1
1915	8	창고(物置)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20
1915	8	복도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1.25
1915	12	청사진실	1	연와조		콘크리트지붕	단층	6.6
1916	3	인쇄실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7.5
1916	10	사무실	1	목조	양식	슬레이트지붕	2층	42
1916	10	복도(이측)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0.83
1916	12	변소(이측)	1	목조	일본식	기와지붕	단층	8
1916	12	복도(신측)	1	목조	일본식	기와지붕	단층	2

이에 따르면 본관 건립 이전에도 1907년과 1909년에 많은 일본식 목조 건물과 한 동의 연와조 창고 건물이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11월에는 본관과 함께 앞서 언급한 본관에 부착한 변소 및 복도각이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11년 7월에는 많은 조선식 기와지붕 건물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건물을 이때 대장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건물 중 평수가 큰 가장 위의 세 개 건물은 각각 정본당, 협선당, 석화당으로 추정되며, 정본당이 회의실로 협선당과 석화당이 사무실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5년에는 일본식 목조 건물인 창고와 복도, 그리고 벽돌조에 콘크리트 지붕을 가진 청사진실이 신축되었고, 1916년에는 일본식 목조 건물인 인쇄실과 전술한 이재과·권업과로 사용되는 양식 목조 사무실 건물이 신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1920년대의 변화

(1) 1920년대의 변화

○ 증축 관련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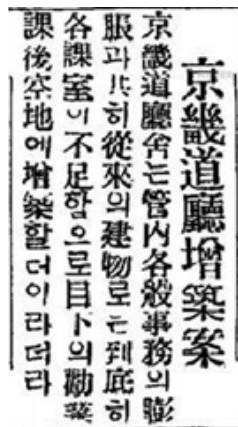
경기도청에 관하여 1923년 및 1927년에 증축 관련 신문기사가 존재한다.

1923년 증축 기사는 <동아일보> 1월 12일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 내용은 업무량 증대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권업과 뒤쪽 공지에 증축 예정이라는 것인데, 이 공지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이 기사 내용의 실현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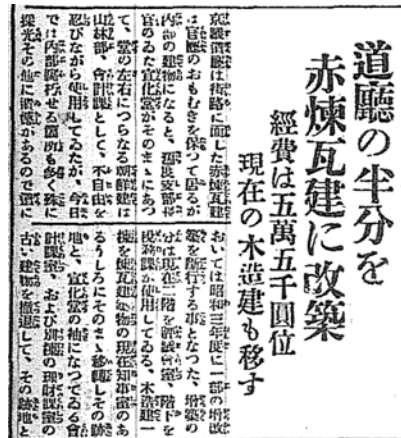
1927년 증축 기사 는 <경성일보> 1927년 12월 4일자¹⁸⁾, <매일신보> 1927년 12월 5일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청은 가로에 면한 적벽돌 건물은 관청의 면목(趣)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건물은 구 탁지부장관이 있던 선화당이 그대로 있고, 당 좌우에 이어지는 조선 건물은 산림부, 회계과로서 부자유를 참으면서도 사용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내부 부후(腐朽)한 곳도 많고 특히 채광 기타에도 유감이 있으므로 도에서는 1928년도에 1부 증개축을 단행하게 되었다. 증축 부분은 현재 2층을 평의회실, 1층을 세무과가 사용하고 있는 목조 건물 한 동을 연와 건축물의 현재 지사실이 있는 뒤에 그대로 이전하고 그 터와, 선화당 옆의 회계과실 및 별동 이재과실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 터와 합쳐, 그곳에 적벽돌의 미려한 건축물을 짓고, 현재 산림부인 선화당의 남측 동도 또 개축하여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비로부터는 5만5천원을 지출하고 국가 보조에 대해서는 목하 본부와 교섭중인데 대체로 8,9만원을 받게 되어 오랜 현안을 해결하게 되었다.

『경성일보』 1927년 12월 4일자, 「道庁の半分を赤煉瓦建に改築 経費は五萬五千圓位 現在の木造建も移す」



동아일보 1923년 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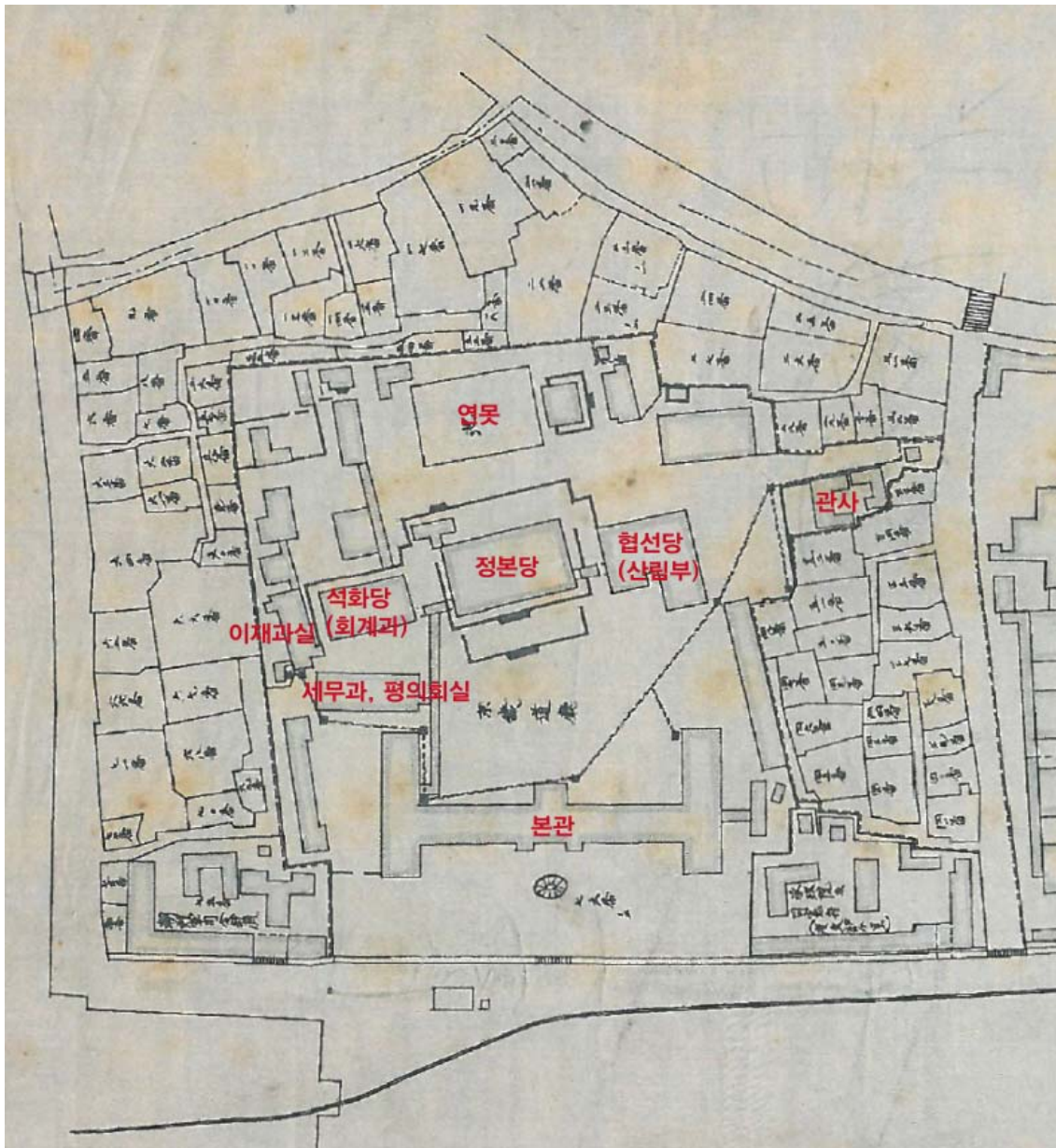
경성일보 1927년 12월 4일



매일신보 1927년 12월 5일

18) 「道庁の半分を赤煉瓦建に改築 経費は五萬五千圓位 現在の木造建も移す」 경기도청은 가로에 면한 적벽돌조는 관청의 취(趣)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 건물은 구탁지부장관이 있던 선화당이 그대로 있고, 당의 좌우에 이어지는 조선건물은 산림부, 회계과로서, 부자유를 참으면서 사용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내부 腐朽하는 곳도 많고 특히 채광 기타에 유감이 있으므로 도에서는 1928년도에 일부 증개축을 단행하게 되었다. 증축 부분은 현재 2층을 평의회실, 1층을 세무과가 사용하고 있는 목조건물 한 동을 연와건축물의 현재 지사실이 있는 뒤에 그대로 이전하고 남은 땅과, 선화당 옆의 회계과실 및 별동 이재과실의 오래된 건물을 철거한 땅을 합쳐, 그곳에 적벽돌의 미려한 건축물을 짓고 현재 산림부인 선화당 남측 건물도 개축하여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비로부터 5만5천원을 지출하고 국가 보조에 대해서는 목하 본부와 교섭중인데 대체로 8,9만원을 받게 되어, 오랜 현안을 해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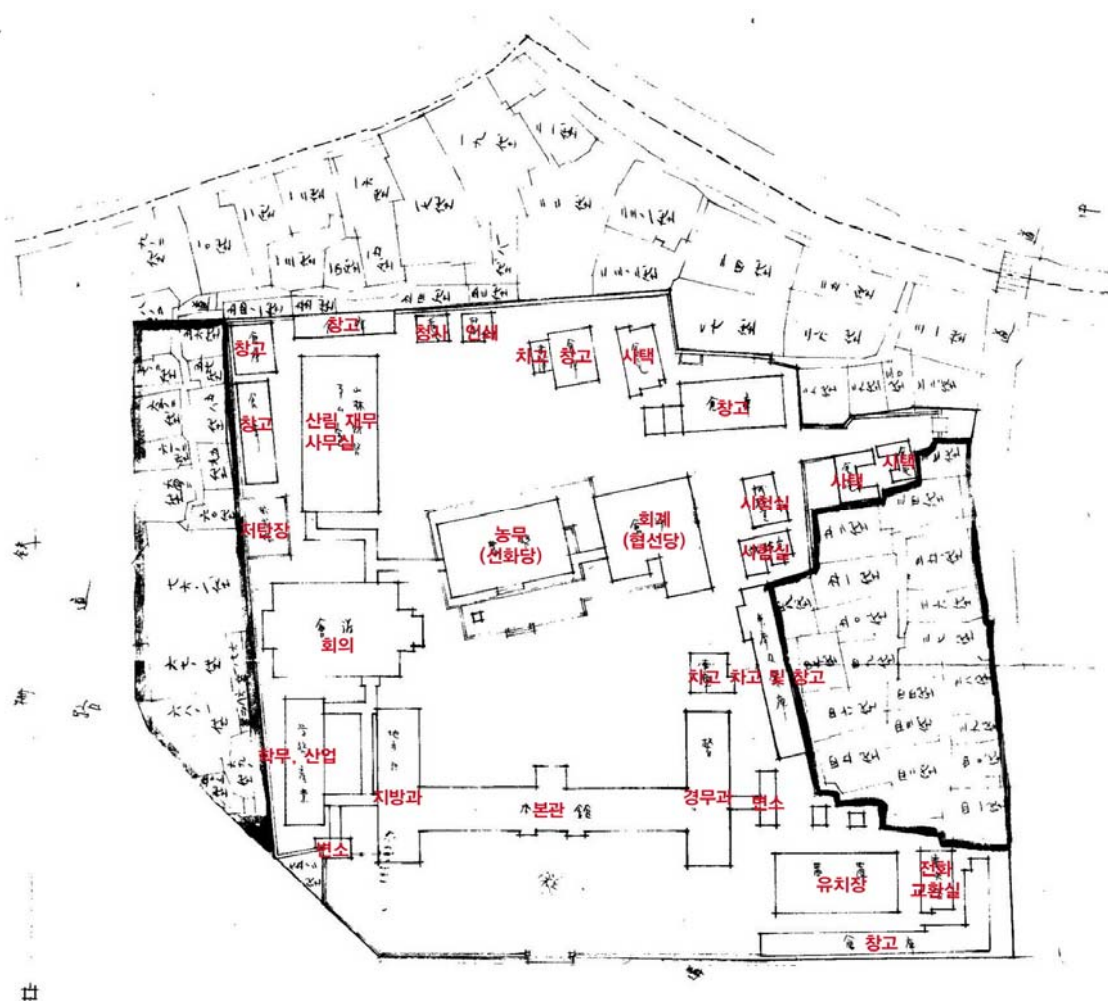
일단 이 기사를 통하여 당시 본관 외 의정부 시대부터 존재해 온 조선가옥들의 노후화 상태가 심했음을 알 수 있고, 석화당은 회계과로, 협선당은 산림부로 사용되었으며, 석화당 북측의 건물은 이재과실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이건을 논의하고 있는 목조건물은 1916년에 신축되어 권업계·이재계로 사용되었던 양식 목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당시에는 1층을 세무과, 2층을 평의회실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도평의회가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것이 1920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 변경은 이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대략적인 건물별 기능을 정리한 것이 다음 그림이다.



1927년 말 현재 확인 가능한 주요 건물 및 용도 (배경지도 : 1910년대 후반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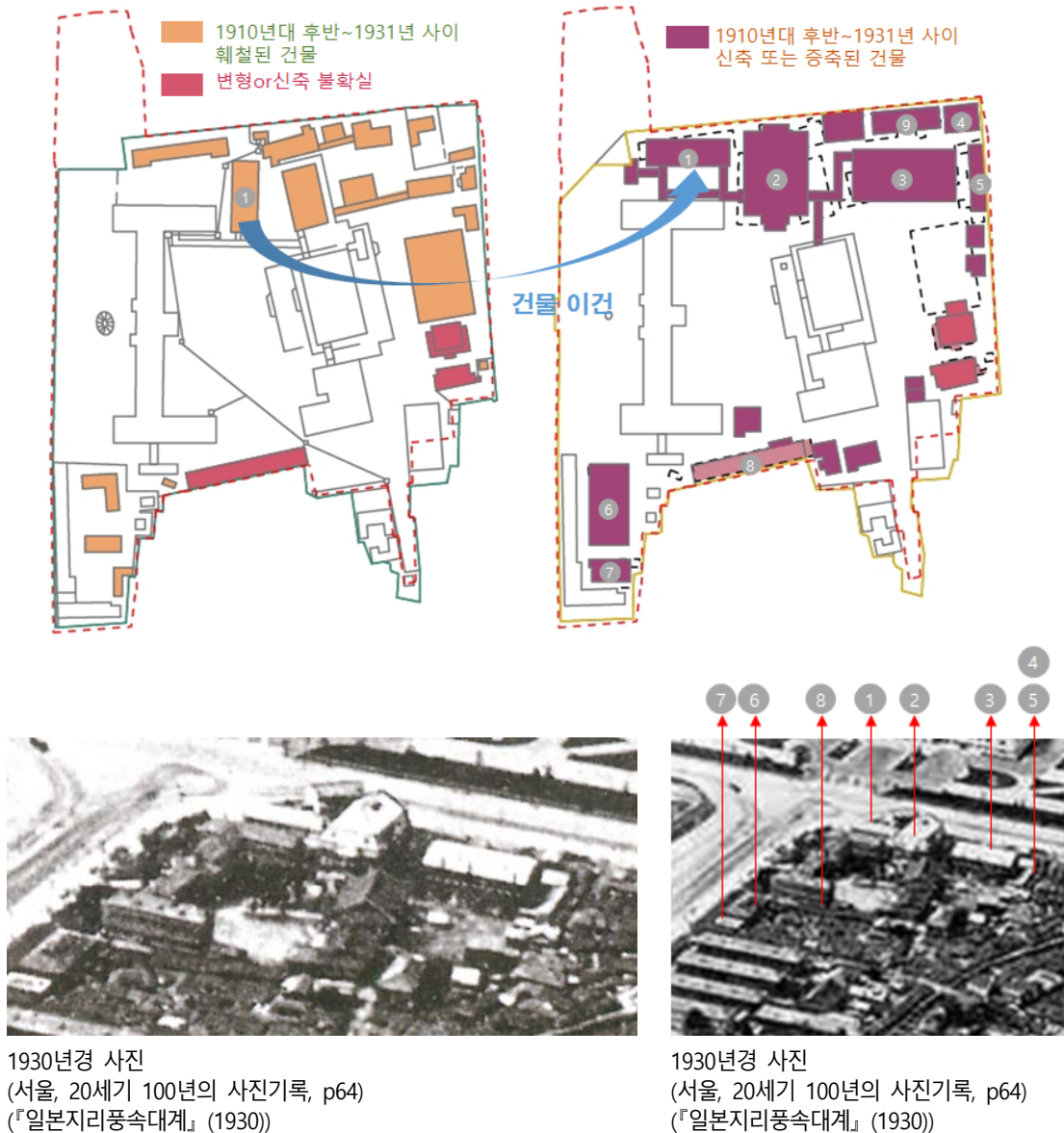
○ 1920년대의 변화

1910년대 후반에 작성된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 이후에 경기도청의 전체 건물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은 1930년에 경기도에서 작성한 「소화육년도세출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 현황도면이다.



1930년 현재 경기도청 현황 도면 (경기도, 「소화육년도세출계획서」, 국가기록원, CJD0002793)

따라서 이 두 도면을 비교하면 1920년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1927년 기사에 나온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두 도면을 비교하여 건물 변화를 과정을 정리한 것이 다음 그림이다.



먼저 기사에서 나왔던 세무과 및 평의회실 목조 2층 건물(①)이 이 건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서는 이 건 위치를 ‘연와 건축물의 현재 지사실이 있는 뒤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연와 건축물은 본관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지사실은 북측 익랑에 자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¹⁹⁾ 이 위치는 본관의 북측 부지로 여겨진다. 이는 1930년 지도에 이 위치에 유사한 크기와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 건물은 1930년에는 학무과와 산업과로 사용되고 있다.



① 건물 (01-01-07-m1026-06_유리건판)

19) 1940년 도면에 따르면 지사실은 본관 왼쪽 익랑 2층의 북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음.

한편 석화당과 이재과실 건물, 그리고 그 동쪽 부지의 작은 규모의 건물들은 대부분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목조건물(①) 이건 터와 석화당 및 이재과실 건물 훼손 터에는 기사 내용과 같이 건물 한 동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②) 이 건물은 1930년 현재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규모나 평면 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회의실로 의도되어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²⁰⁾

한편 ③번 건물은 사진 상으로 보아 벽돌조의 2층 건물인데, 1930년 현재 산림, 재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규모나 의장 등으로 보아 회의실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신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③번 (서울, 20세기 100년의 사진기록, p64)



③번 (01-01-07-m1026-06_유리건판)

②번 회의실 동측에도 여러 건물 신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④, ⑤, ⑨번 건물은 1931년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층 건물이다. ⑨번 서측 건물은 1931년 현재 저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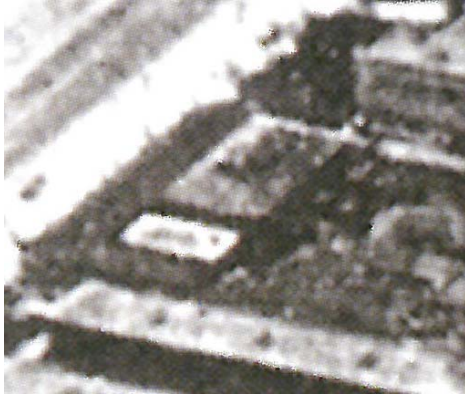
부지 동측의 연못은 메워지고 동측 경계부에는 소규모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다. 1931년 현재 이 건물들은 각각 청사진실 및 인쇄실인데, 1917년의 『지방청건물대장(地方廳建物臺帳)』에서는 청사진실은 1915년 신축된 단층 벽돌조 건물. 인쇄실은 1916년 신축된 단층 목조 건축으로 기록되어 있다.²¹⁾

한편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에서는 별도 부지로 분리되어 탁지부 분실로 기록되어 있던 서남쪽 부지는 다시 경기도청 부지에 편입되었고, 도로변 행랑 건물만 남긴 채 안쪽 건물은 훼손된 되었고 이후 새로운 건물들이 신축되었다. 이 중 ⑥번 건물은 단층의 유치장 건물이며 1921년에 새로 지어졌다. ⑦번 건물 역시 단층 건물이며 1931년 현재 전교실(전화교환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치상 유치장 관련 시설로 여겨지며, 정확한 건립시기는 알 수 없으나 유치장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유치장 건물은 1920년 말에 기공하여 1921년 4월경 준공하였으며, 공사비는 1만2천여원이었다. 이 유치장 준공 전에는 육군청 소관의 건물을 빌려 사용했었다. 새로운 건물은 흰 벽을 가지며, 건물 양쪽 가로 방 세 개씩 여섯 개의 유치실이 있

20) 당시 일반적으로 도·부청사의 회의실에서는 도평의회(道評議會), 학교비평의원회(學校費平議委員會)의 회의 등이 개최되었다. 도평의회는 1920년 10월 1일에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도평의회는 1930년에 의결기관인 도회(都會)로 대체되었다. 도평의회(도회)의 의장은 해당 도의 도지사가 맡았다. (김명선, 「일제강점기 신축된 도청사·부청사의 평면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5호, 2008년 5월, p.155.) 1927년의 기사에는 '평의회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1930년 이후의 문서와 도면에서는 '회의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의 명칭과 성격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21) 그러나 1916년 이후에 작성된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에는 이 위치에 건물들이 없다.

고, 건물 출입구 쪽으로는 사무실과 형사실이, 다른 편에 심문실, 형사실, 사진현상실이 있는 구성을 취한다.²²⁾



유치장과 전교실
(서울, 20세기 100년의 사진기록, p64)



유치장
(01-01-07-m1026-06_유리건판)

(2) 1930년도 현재 이용 현황과 증개축 계획

○ 1930년 현재 이용 현황

「소화육년도세출계획서」의 첨부 도면에 따라 1930년 현재 경기도청의 전반적인 이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본관은 상세 실 배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크게 북측 익랑을 지방과, 남측 익랑을 경무과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관 남측으로는 경무과와 관련 있는 시설인 유치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부지의 북측 영역에는 학무과 및 산업과가 사용하는 2층 목조 건물이 있고, 그 옆으로 2층 벽돌조 건물이 두 동 있는데, 하나는 회의실, 다른 하나는 산림과 및 재무과가 사용하고 있다. 한편 선화당은 농무과, 협선당은 회계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기타 부속 건물로 저탄장 1동, 창고 6동, 차고 2동, 차고 및 창고 1동, 청사진실 1동, 인쇄실 1동, 시험실 2동, 사택 3동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이 시기 경기도청에서는 본관 외에는 여러 동의 중소규모 건물에 여러 과가 분산되어 업무를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930년도 경기도청 증개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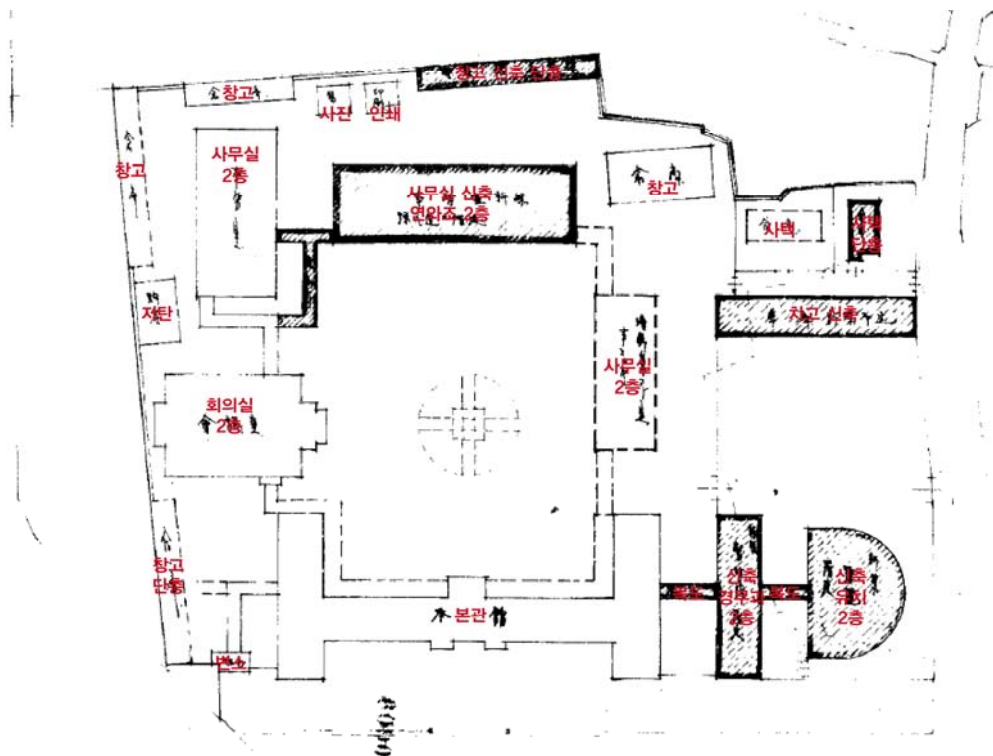
「소화육년도세출계획서」는 원래 1931년의 경기도청 부지 확장 및 증개축 계획에 대한 예산 청구를 위한 서류로, 현황 도면 및 증개축 계획 도면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이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청사개축 및 부지 확장 사유는 아래와 같다.

본도청사는 1910년의 건축의 본관 및 구감찰관 시대의 건축인 조선식 부속청사의 일부를 사무실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종래 청사가 협소해져 필요할 때마다 사무실 등을 증축할 때는 협소한 부지에

22) 「매일신보」 1921년 4월 24일자, '경기도유치장 일만이천여원을 드려 새로이 지어노아'

당장의 불편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식적인 증축 리노베이션(模様替え)을 하여 급한 불을 꺼 왔으며, 이는 현재 건물 위치가 불규칙하고 작은 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도세의 진전에 따라 현저히 제 설비의 필요가 급해져, 개중에도 내무부, 산업부로 사용하는 사무실(1동) 및 복도, 또 경찰부에 요하는 사무실, 자동차 격납고 및 유치장은 1931년도에 개축(별도 경무국에 경무과로부터 요구)을 요하여 이 기회에 건물의 배치를 완비하고 부지의 완화를 조절하기 위하여 부지의 확장을 요하여 청사부지 서쪽에 돌입하는 별지 감도 제1기 매수예정지로 하는 민유지(민가로부터 왕왕 소화재 종종 있어 이들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다)를 동년도에 매수하고 부지 확장을 도모하고, 을도처럼 전기 건물을 증개축하여 차년도에는 감도 제2기 매수예정지를 매수하고 축년 청사 등의 증개축에 노력하여 현금 청사 앞 노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검사장 등도 설치하여 청사의 완성을 기하고자 함.

즉 공간 부족과 여러 건물의 난립에 의한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민유지는 위의 현황 도면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후 자료와 대조해 보면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증개축 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1930년에 작성된 증개축 계획안 (경기도, 「소화육년도세출계획서」, 국가기록원, CJD0002793)

계획의 개요는 본관 뒤의 정본당과 협선당 일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두 동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본관, 회의실과 함께 너른 중정을 가진 ㅁ자형 건물 배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 시대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자리를 지켜오던 의정부의 중심 건물들 뿐 아니라 그 배치와 축마저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 외에 남측에 차고를 신축하고, 서남쪽 유치장 일곽에는 2층 경무과 건물과 유치장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것도 알 수 있다. 유치장 건물은 반원형으로 계획되어 원호를 따라 수감실이 늘어서는 실배치를 가지는데 이는 팬옵티콘을 모델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축 예정인 유치장 및 경무과 건물 도면 (CID0002791, 1930년, 53쪽)

3) 1930년대의 변화

(1) 1930년대의 변화

○ 1937년 증개축

앞절에서 살펴본 1930년의 증개축 계획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다 6년이 지난 1936년에 새로운 증개축 계획안이 만들어졌고, 1937년 6월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해 연말에서 이듬해 초경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들은 아래와 같다.

현재 경기도청사에는 3부15과에 직원 528명이 사무를 보고 있는것과 도세의 진전에 따르는 사무의 번다로 인하여 청사의 협애를 보고있서 직원수용에 여력이 없으므로 이번 12년도(1937년) 예산에 공사비 7만5015원을 계상하여 중앙에 본관을 신축하기로 되었다한다. 신축할 본관은 2층 양옥으로 건평이 162평으로 공사비는 건물에 7만1715원, 설비기타에 33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월이나 4월경에 착수하리라고 하는데 기지는 청내 농무과와 회계과 전 광장이라 한다.

『매일신보』 1937년 2월 24일자, ‘칠만여원으로 경기도청사 증축 3,4원경에 착공’

최근의 경기도는 산업경제상 비상한 발전과 함께 도세확충에 인한 사무도 대단 번다해짐으로 이번 신년도부터는 백여명의 증원까지하여 현재 3부15과에는 6백여명의 대직원이 사무를 보고 있음으로 자연 청사가 협착해져서 이번에 새로히 8만원을 드려 도청 중앙부에 2층 양옥을 건축케 되었다 한다. 그리하여 건평 166평여의 중앙청사를 연와철근 『콩크리트』로 세우기로되어 수일전 공사에 대한 입찰까지 끝나서 아베구미(矢部組)에서 곳 착수를 할터인데 대체로 2층에는 회의실 겸용의 대 『홀』을 만들고 제1층에는 15과중 제1 협착을 느끼는 과가 이리로 이사를 하게 되리라고 한다. 그리고 도청의 살림살이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로 내청하는 객도 만함으로 현재의 도청 대현관을 수축하여 화초를 심은 전면정원을 일부 삭제하여 자동차차로를 넓힐터이며 이에따라 차고로의 통행하는 길과 자동차도 별

개로 신설하리라고 한다. 금반 중앙청사를 신설하는 것은 면목일신해질 도청의 제1기공사이며 명년도에 다시 제2기공사를 하여 농무과에서 쓰는 구청사를 철거하고 신청사로 대체하리라고 하는만큼 매년 도청의 면목은 새로워지리라는 것이다.

「매일신보」 1937년 4월 25일자, ‘경기도청사 신축 호화설계로 면목일신 팔만원공비로 착공’

지난 6월부터 8만 1천원의 예산으로 증축을 해오던 경기도청청사는 현재 청사의 뒤에다 새로 330여평의 2층 양관 신청사를 지어왔고 구청사뒤에다 2백여평의 창고를 짓는 동시 현관을 개수하여 『스톱』 식으로 하는 것은 근근공사를 다하게 되어 이달 말일 중에 외부 공사는 끝을 막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부공사가 내월 초순까지에 손을 떼고 곳 신청사로 일부분만 이전을 할터인데 이 신청사에는 1천여명 수용의 대강당과 기타 내부장치를 가장 첨단적으로 사무실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될 곳은 경찰부의 일부와 산업부의 일부가 되리라고 한다.

「매일신보」 1937년 11월 26일자, ‘첨단적으로 증축한 경기도신청사 천여명 수용의 대강당도 있서’

경기도 명년도 예산은 1120여만원의 심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전시체제하에 긴급한 사업과 또는 산업 개발에 중요한 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새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산업과의 활약은 명년도 예산 수행상 적지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으로 동과의 내용과 기능을 더욱 확충강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활한 활동과 범위가 넓은 활동을 함에는 먼저 사무적 능력을 높히게 하는 데 잇다하여 이번에 동과를 신축한 청사로 옮기어 동과의 면목을 일신케 하였다. 현재 직원만 하드라도 30명 각가운 직원이라 넓은 사무실을 필연적으로 요구케 되어 타과에 출선하여야 신사무실로 이전을 단행하는 동시 여러 가지로 기구를 확장하였고 인원까지도 증식식혀 대대적으로 비상시작 활약을 하게 되었다.

「매일신보」 1938년 2월 17일자, ‘경기도산업과 신청사로 이전’

증축 이유는 업무 및 인원 증가로 인한 장소의 협착이며, 이는 이미 1930년부터도 요구되어 왔던 사실이다. 공사는 1기와 2기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었으며, 1기 공사의 경우 대략 8만원의 공사비로 벽돌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양옥 건물을 정본당과 협선당 앞의 공터에 짓기로 하였고, 2기 공사에서는 정본당과 협선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다. 1기 공사에서는 이 외에 자동차 방문객의 증가에 대응하여 본청사 현관 개수 및 자동차차고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1기 공사의 입찰은 1937년 4월경에 이루어져, 야베구미(矢部組)가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공사는 6월에 시작되었고, 신청사 증축과 현관 개수 뿐 아니라 정본당과 협선당 뒤에 2백여평의 창고도 건설되었다. 새로 지은 청사는 2층은 회의실, 1층은 사무실로 계획되었는데, 1층에는 경찰부 및 당시 업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던 산업과가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1938년에 시행이 예정되었던 정본당 및 협선당 철거 및 신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정본당 이전에 관한 기사를 1937년 7월 22일자 동아일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²³⁾ 내용은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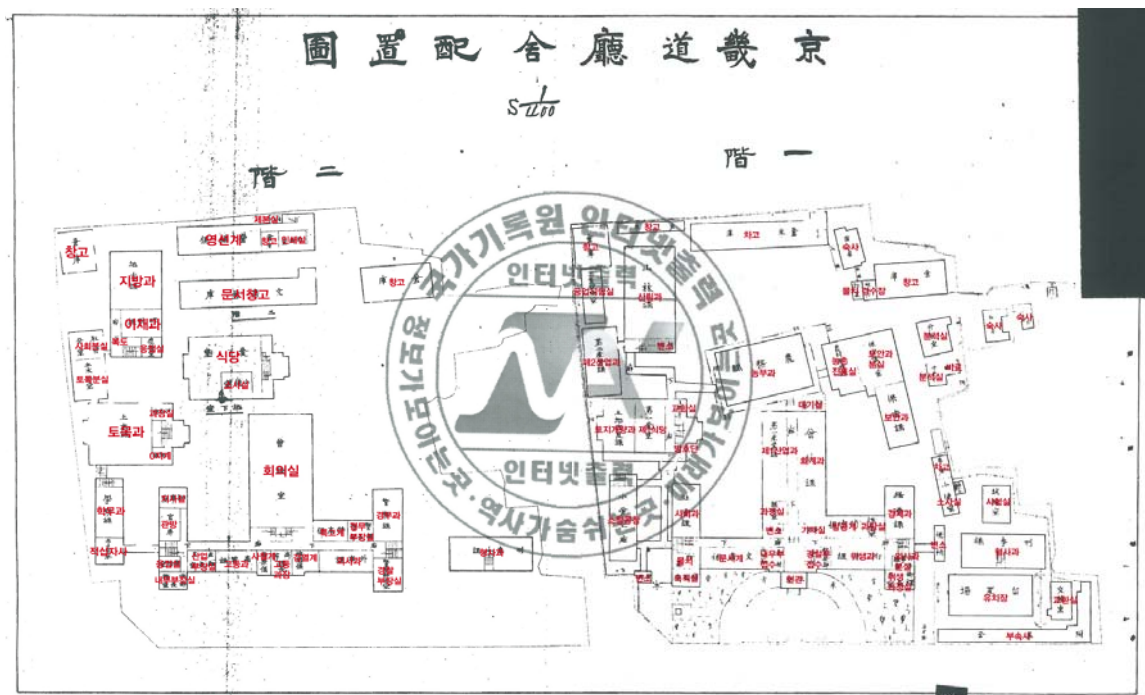
23) 「동아일보」 1937년 7월 22일자, ‘호화도시(豪華都市) 인천(仁川)에 정본당 유적이건(政本堂 遺蹟移建) 장광순씨(張光淳氏) 비용독담(費用獨擔)’

‘인천의 명소 도산공원(桃山公園)으로 의정부(議政府) 시대의 정본당(政本堂)이 서울서 시집을 오게 되었다 한다. 동 건물은 그후 경기도청 내에 있어 선화당(宣化堂)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던 옛날의 정청으로서 장차 경기도 농림과의 확장으로 헐릴 운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펍 유감된 일이라 하여 처치에 고려중이던 바 드디어 인천부(仁川府)가 이것을 양여를 받게 되어 그 이전경비가 난관이던 바 부회의원 장광순(張光淳)씨가 이번 임부 장석우(張錫佑)씨의 라인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 이전비 2만원을 단독부담하기로 인천부윤에게 언명하였다는데 그 기지

청 농림과를 확장하면서 정본당을 헐 예정이었으나, 이를 인천부에 양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건 장소는 인천의 도산공원(桃山公園)이며, 이전비 2만원은 부회의원인 장광순²⁴⁾씨 단독 부담 하며, 이건 이후에는 저렴한 요금으로 결혼식, 회갑축하연, 기타 연회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 회당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정본당 철거는 1938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 었으므로 1937년 7월에 나타난 이러한 움직임은 조만간 이루어질 철거에 대비한 사전적 움직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40년도에 작성된 배치도를 확인해 보면 정본당은 여전히 잔존 하고 있어, 2기 계획 자체가 일단 무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1930년대의 변화

1930년대에 일어난 부지 내 건물 변화는 앞절에서 살펴본 1930년의 「소화육년도세출계획서」에 첨부된 현황 도면과 1940년에 작성된 경기도청사 배치도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해볼 수 있 다. 평면도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실의 용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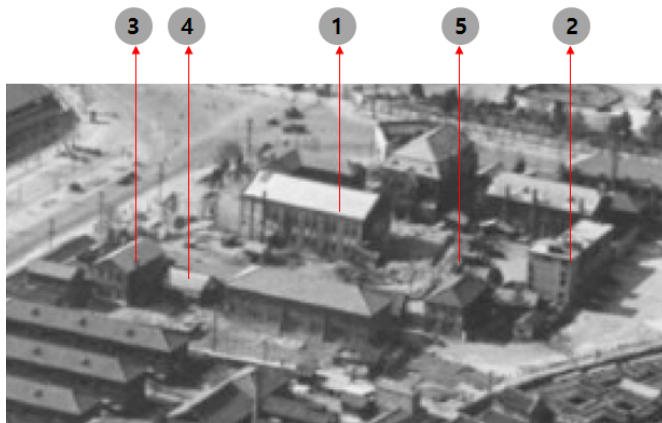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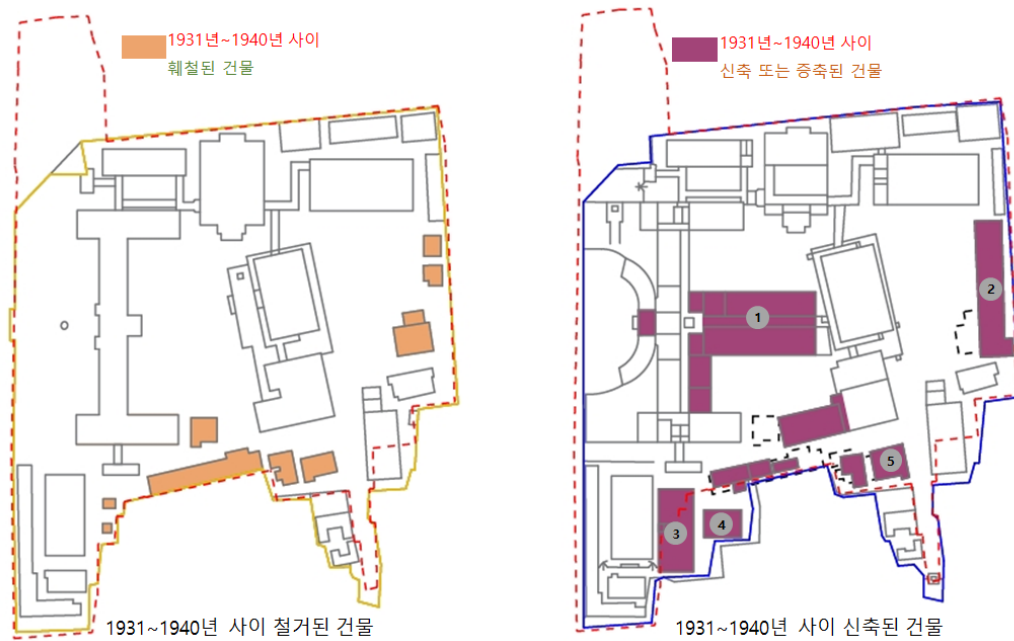


1940년도 경기도청사 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3566)

는 도산공원이라 하며 그 이름은 공회당 모양으로 할 터로 결혼식, 회갑축하연, 기타 연회장 같은 것으로 요금을 저 려하게 하여 이용시킬 터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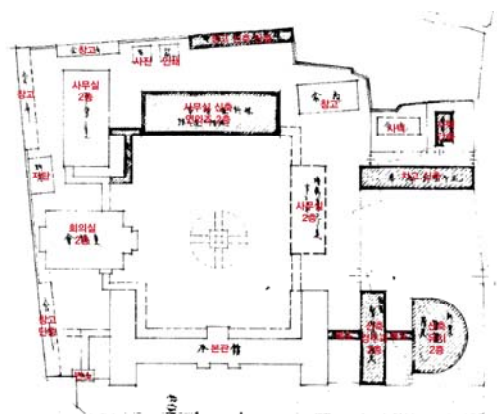
24) 장광순(1907~1998) 인천소화고등여학교(1940년 설립) 초대이사장

이 배치도를 1930년의 현황 배치도와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을 표시한 것이 다음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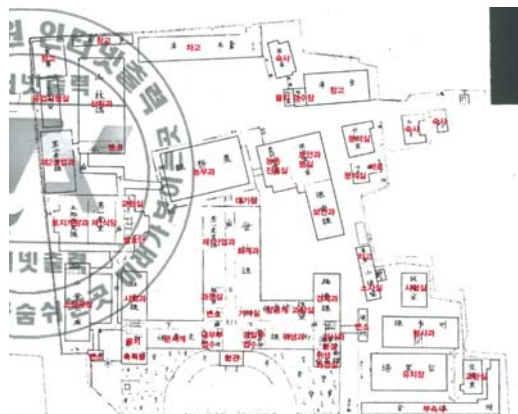


1946년 이후
경기도청 모습

한편 다음은 1930년의 증축계획도 및 1940년도 배치도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1930년에 작성된 증개축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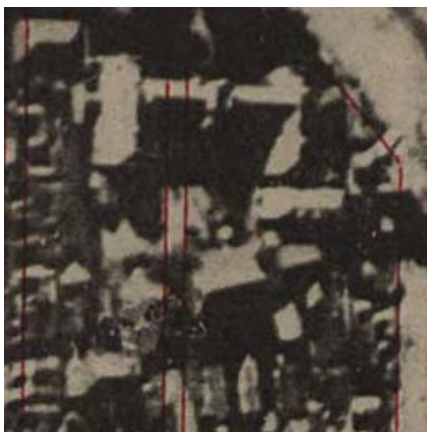


1940년 현재 배치

실제로 시행된 안은 1930년 증축 계획과 같이 본관을 그대로 두며 본관 동측에 중정을 사이에 두고 연와조 2층의 사무실을 증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관 중앙에서 동측으로 폭이 넓은 익랑을 돌출시켜(①) 전체적으로 산자형 평면을 이루는 방식으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는 1937년 기사의 정본당과 협선당 앞 빈터에 짓는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1940년 현재 증축부 1층은 중복도 형식으로 양측에 각각 산업과, 회계과가 사용하고, 2층은 거의 전체 공간을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2층을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은 신문기사에서 이야기한 초기 계획과 같으나, 1층은 기사에서는 경찰부와 산업부 일부가 사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산업과와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보인다. 또한 본관의 남동측 익랑부 역시 복도 동측으로 공간이 증축되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기사의 내용대로 정면 현관도 개축이 되어 기존 현관 앞에 돌출된 포치가 마련되어 아래에 차를 댈 수 있는 구루마요세(車寄)가 마련되었고 차도가 이를 정점으로 하여 반원형으로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28년경 지어졌던 벽돌조 2층 건물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본관 북측 목조 2층 건물은 1940년 현재 소창공창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동측 벽돌조 2층의 원 회의실 건물은 회의실이 본관 증축부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토목과(2층), 토지개량과(1층), 식당(1층 일부 및 지하)로 사용되고 있다. 또 그 동측의 벽돌조 2층 건물은 1930년과 거의 동일하게 산림과 및 지방과, 이재과가 사용하고 있다.

정본당 및 협선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철거 및 이건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1940년 현재 여전히 같은 위치에 같은 규모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정본당의 경우 여전히 농무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협선당은 앞부분 증축 부분이 확장되어 있다. 일부는 농무과와 관련이 있는 농촌진흥실로, 일부는 보안과 및 보안과 분실로 사용되고 있다. 1945년 광복 직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정본당 위치에 한식기와의 건물을 확인할 수 있어 결국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시체제로 인한 부재 부족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30년대 중반 항공사진
(출처 : 1938-경성도시계획조사서-항공사진)



1945년 광복 직후 항공사진

본관 증축부 외에도 여러 동의 신축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지 동측 끝에 3층 평지붕 건물(②)이 지어졌는데, 지상층은 차고, 2층은 영선계 등, 3층은 문서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1937년 기사에서 정본당과 협선당 뒤에 창고 건축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 건물이 그 건물로 여겨지나 기능은 다소 변경되어, 1층을 당시 시급했던 차고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부분적인 영역 확장도 이루어졌는데, 유치장 동측 부분이 확장되어 신축 건물(③④)이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번 건물은 2층 건물이고, 1,2층 모두 형사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④번 건물은 단층 건물이고 시험실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 기존 북측 저탄장 자리에는 2층 건물 신축되어, 1층은 제2산업과, 2층은 사회분실 및 토목분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의 두 건물과 복도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산림과 건물 북측의 원래 창고 건물은 공업시험실로 사용되고 있다.

(2) 1930년대 계획안 미시행 이유 추정

1930년대에 작성된 계획안이 시행되지 않고 이후 1937년에 새로운 계획안에 의한 증축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직원수 증가에 따른 필요 공간의 증가

일제강점기에 각 도청의 직원은 상시 증가 추세에 있었다. 예를 들어 경상도청의 경우 1929년에 514명이었던 직원이 1943년에는 1,495명으로 늘었고, 전남도청에서는 1929년에 468명이었던 직원이 1,458명으로 늘었는데,²⁵⁾ 경기도청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1930년 계획안은 가운데 중정을 크게 취하여 여유로운 공간 구성을 보이는데 반하여 1940년 실제 배치는 본관과 정본당 사이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증축을 했으며,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정본당과 협선당 부지도 건물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훨씬 밀도 높은 계획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밀도 계획으로의 변화 이유 중 하나는 1930년 계획 당시보다 증가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처사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당시 산자형 평면의 유행

증축 후의 본관과 같은 산자형 평면은 당시의 도부청사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면형 중 하나였다. 유사한 사례로 신의주에 1924년에 신축된 평북도청사, 1920년 나남에 신축된 함북도청사, 1926년에 신축된 경성부청사, 1936년에 신축된 부산부청사가 있고, 함남도청사는 처음에는 ㄷ자형 평면을 가졌으나, 1940년에 경기도청과 같이 중앙 후면을 증축하였다.²⁶⁾ 이

25) 김명선, 「일제강점기 도사무분장과 도청사의 규모 및 평면구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3호, 2008.09. p.58.

26) 김명선, 「일제강점기 신축된 도청사·부청사의 평면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5호, 2008년 5월,

들 청사는 모두 중앙 돌출부 2층에 회의실을 두고 있다. 즉 1920년대 이후 청사 본관 평면을 산자형으로 하고 중앙 돌출부 2층에 회의실을 두는 유형이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3. 넓고 관방실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회의실에 대한 요구

위에서 언급한 산자형 평면 외에도 청사 평면 유형에는 E자형 평면(산자형과 유사하나 중앙 돌출부가 양측 날개채보다 짧은 경우),凸자형 평면,一자형 평면, 기타 유형이 있다. 도, 부마 다 청사 본관 내에 회의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자형 평면과 E자형 평면에는 회의실이 있고, 기타 평면의 경우 도부에 따라 유무를 달리한다. 본관에 회의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경기도청과 같이 별도 건물에 회의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자형 평면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본관 중앙 돌출부 2층에 회의실이 자리하며, 중앙 돌출부가 작은 E자형 평면의 경우에는 양측 날개채 중 하나에 회의실이 자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실은 다른 실보다 넓은 폭을 요구하므로 건물의 양측이 비대칭을 이루게 된다.

경기도청이 중앙 후면에 증축을 한 이유 중 하나는 기존보다 넓으면서 관방실 등 고위 관료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회의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요구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도·부청사의 회의실에서는 도평의회(道評議會)·도회(都會), 학교비평의원회(學校費平議員會)의 회의 등이 개최되었으며, 이들 의장은 해당 도의 도지사가 맡았기에²⁷⁾, 도지사의 접근 회의실로의 손쉬운 접근은 당연한 요구사항이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본관 2층 공간을 회의실로 전용하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본관 기존 구조물 폭이 원하는 회의실의 폭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기타 청사들에서 이미 시행되었던 산자형 평면을 본따 중앙 후면에 새로운 회의실이 요구하는 폭의 증축부를 계획하여, 이 회의실 공간의 요구 및 전체적인 청사 부지의 공간 부족 상황을 타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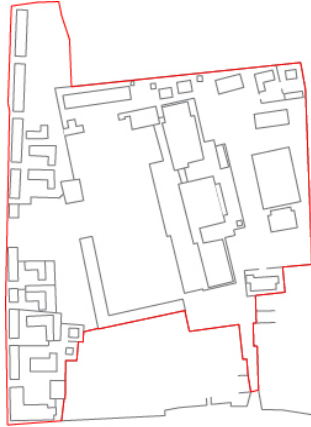
pp.151-152.

27) 김명선, 「일제강점기 신축된 도청사·부청사의 평면유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5호, 2008년 5월, p.155.

4) 일제강점기 건물 변화와 원 의정부 건물의 훼손 과정

(1) 일제강점기 건물 변화

지금까지 살펴 본 일제강점기의 경기도청사 부지 건물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08년 상황



1909년 훼손



1910년 신축



1910-1910년대 후반 훼손



1910-1910년대 후반 신축



1910년대 후반-1930년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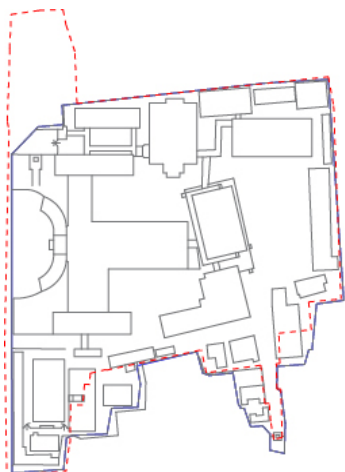
1910년대 후반-1930년 신축증개축



1931-1940년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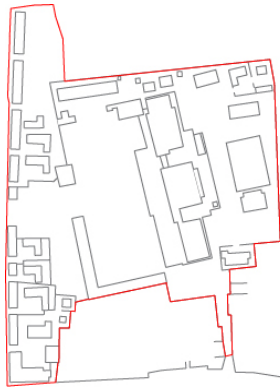
1931-1940년 신축증개축



1940년 상황

(2) 원 의정부 건물 훼손 과정

지도를 통해 살펴 본 일제강점기 원 의정부 건물 훼손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08년 상황



1909년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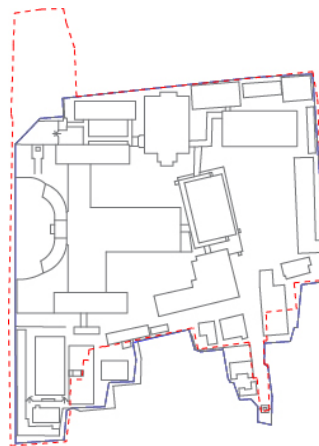
1910-1910년대 후반 훼손



1910년대 후반-1930년 훼손



1945년 현재 잔존한 원건물 (푸른 색)



1940년 현재 건물

의정부 원청사 건물 중 1945년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정본당과 협선당, 그리고 서남측 행랑채이다. 이들 건물은 1940년 도면에서도 확인이 되며, 정본당의 일부는 1945년 광복 직후 항공사진에서도 볼 수 있다. 협선당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증축이 이루어졌지만 건물은 훼손되지 않았다. 한편 서남측 행랑채 역시 1945년 사진에서 그 존재를 확인 가능하다. 서남측 행랑채가 그대로 남은 것은 행랑채 안쪽을 유치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폐쇄적인 행랑채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45년 광복 직후
항공사진



1945년



1920년대 이후



구한말

4. 해방 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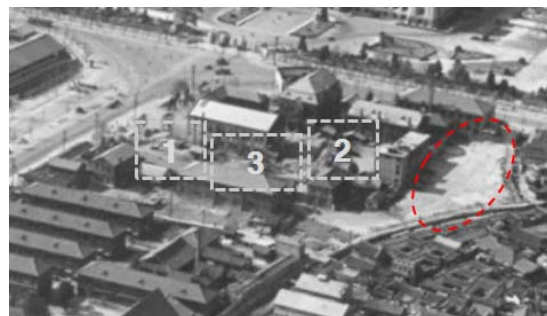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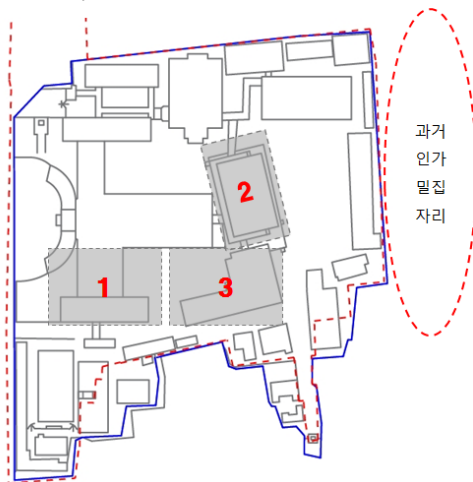
1) 1940년대~1960년대 변화

(1) 해방 직후 상황

해방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로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광복 직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전체 부지의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정본당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7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몇몇 변화가 감지된다.



1947년 사진



먼저 본관 남쪽 익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① 이는 1946년 1월 23일에 경찰부 취조실 근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원인이다.²⁸⁾

28) 「중앙신문」, 19946년 1월 24일자, '경기도청화재'



남쪽 익랑이 없는 본관의 모습 (195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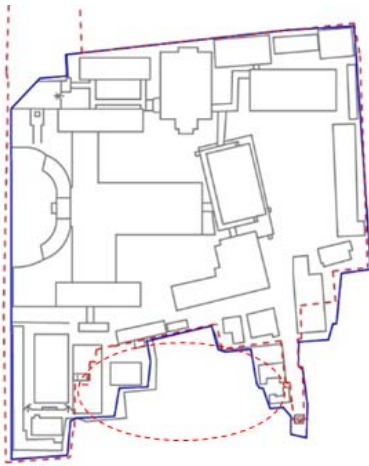
한편 정본당이 있던 자리(㉠)와 협선당이 있던 자리(㉡)가 공터가 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쪽 인가가 밀집했던 필지 역시 공터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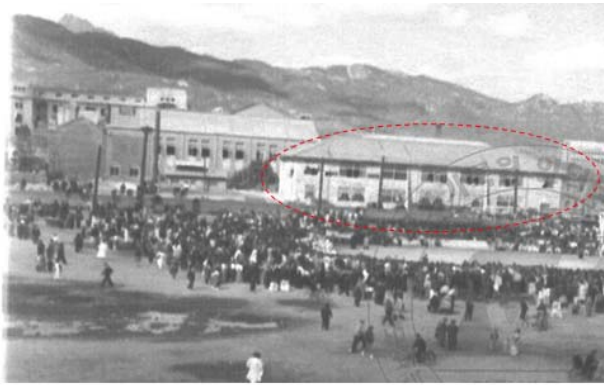
1940년대 사진

1940년대의 다른 사진에서는 유치장 건물 역시 멸실된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장은 본관 남측 익랑 바로 옆에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1946년의 화재로 같이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기 남측에 면한 부지들에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경계 남측의 민유지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다. 또한 옛 이조 자리였던 큰 필지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경관강습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1940년대 사진에서 보이는 여러 동의 긴 건물들이 그것인데, 경기도 경찰과의 관계성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 건물들은 1959년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건물들은 1947년에서 1954년 사이에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공터는 경기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 터에는 1960년대에 들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민유지 부분에 새로 들어선 건물 (1947년 사진)



민유지의 새로운 건물과 경관강습소 타(옛 이조타)의 공터 (1959년)



1960년대 사진(김한웅)

한편 1947년의 사진과 1954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1947년에는 존재했던 서남측 외행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서 이 시기 사이에 원 의정부 건물들이 모두 소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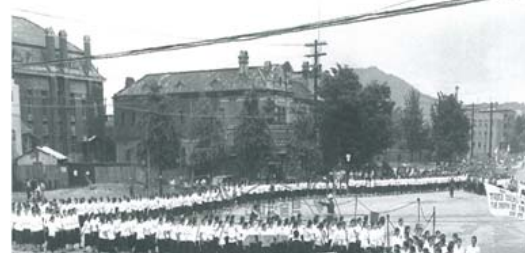
1954년 (그때그모습)



1954년 (그때그모습)



1954년 (그때그모습)



1954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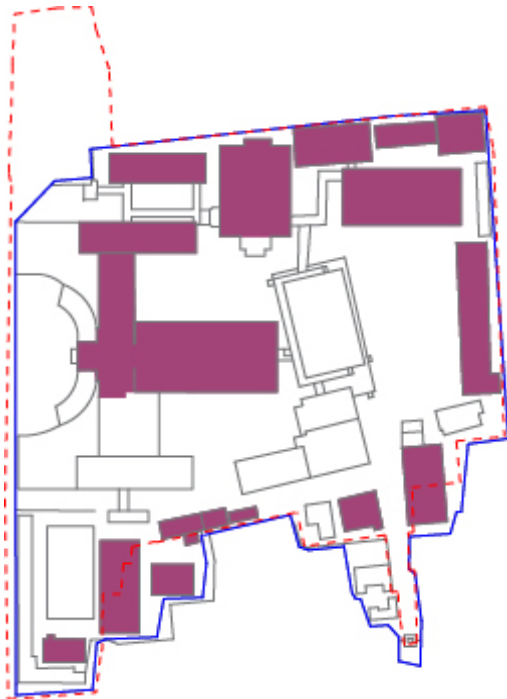


1956년 사진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1965년 사진(대한민국정부 기록사진집)

1960년대까지의 사진을 통하여 당시까지 남아 있던 건물을 표시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화재로 소실된 본관 남측 날개채와 정본당, 협선당, 유치장, 서남측 행랑채를 제외하고는 1940년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60년대
경기도청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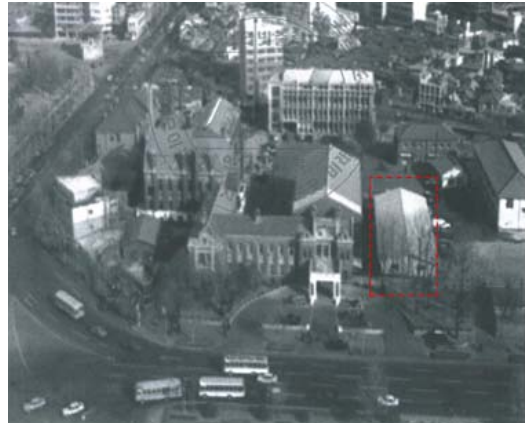
2) 경기도청 이전 및 이후 부지 변화

1967년 6월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자 이 터와 건물은 건설부 청사, 내무부 치안국, 서울시경 별관 등으로 사용되었다.

경기도청이 이전한 1967년과 1970년 사이에 본관 남쪽 소실된 날개채 공터 부분에 단층 건물이 신축되어 정부종합청사별관으로 이용되었다.



1970년 사진



1970년 사진 (신축된 건물)



1976년



1978년 위성사진

1986년부터 서울시경 별관으로 사용되던 이 터는 철거가 결정되어 1989년에서 1990년에 걸쳐 철거가 진행되었다. 이후 정부종합청사 별관건물 신축 계획(1992년)이 세워지기도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1996년에 시민 열린광장이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7년 현황도



1998년 항공사진

5. 경기도청사의 주요 근대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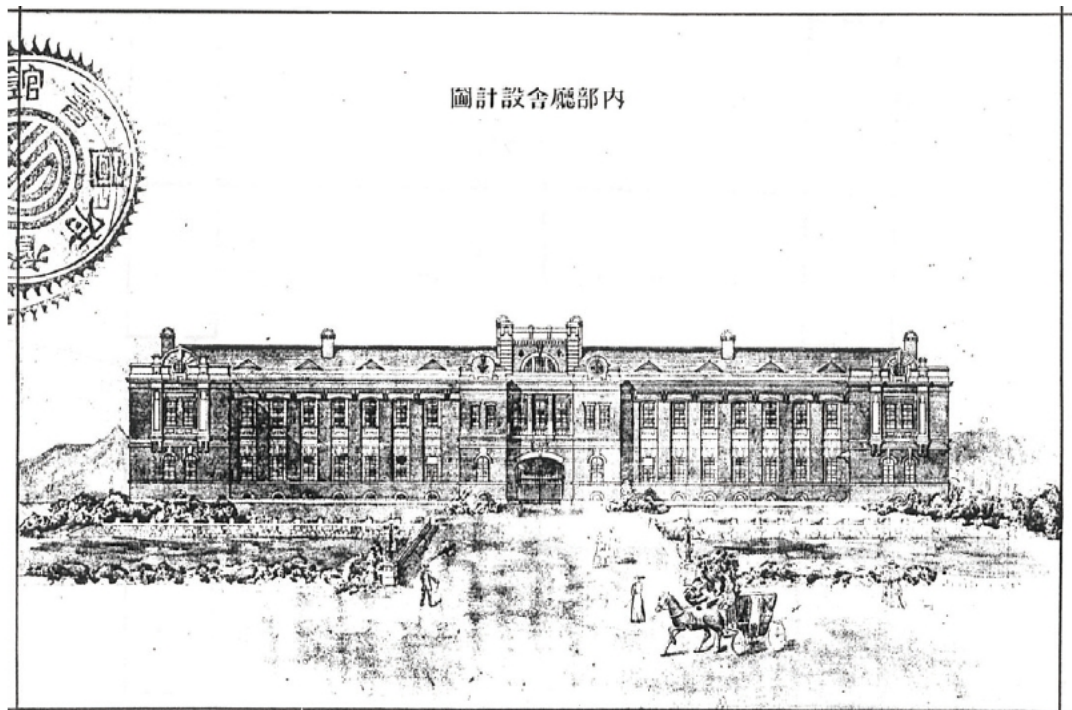
1) 본관

(1) 개요

본관은 1910년 대한제국기 내부 청사의 본관으로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일본인 고스기(小杉根人)가 설계하였고, 탁지부 건축소가 시공하였는데, 탁지부건축소가 1910년에 12월에 1906년 탁지부 설립 이후 시행한 사업의 개요를 기술한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 기술된 기록과 남아 있는 건축 도면을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의 글이 쓰일 당시 청사는 아직 건설 중이었는데, 청부공사비는 2만 5888원 5전, 관급재료 기타 지출 결정비는 3만2878원 66전 7리라 기록되어 있다.

건물은 벽돌조 2층으로 지어졌고, 지붕 재료로는 함석(トタン)을 사용하였다. 총 연면적은 236평 3합 3척이며, 지반으로부터 2층 지붕까지의 높이는 32척 5촌이다. 기초는 지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9척 2촌을 팠고, 길이 15척, 단면 5촌의 말뚝을 2척마다 지그재그로 설치하여 건물의 기초를 안정하게 하였다. 벽돌은 마포연와제조소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벽의 두께는 1층은 두겁, 2층은 1.5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간벽도 벽돌을 사용하여 구획하였다. 이 외에는 모두 목조인데, 바닥은 장마루(板張)이고, 천장은 회반죽(漆喰)칠 마감을 했며, 지붕가구는 목조 지붕틀 위에 함석을 깔았다. 내부 청사에 사용된 목재는 대부분 관급 자재인 압록강산 영림창(營林廠) 제재를 사용하였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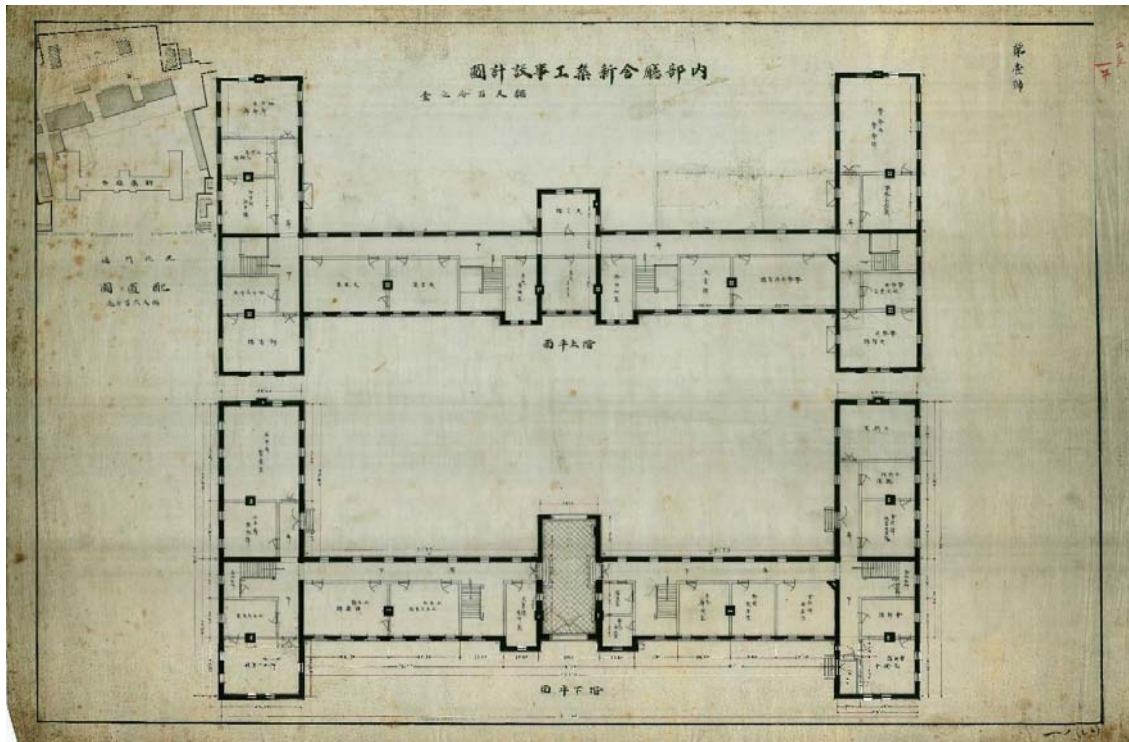


내부 청사 정면도 (탁지부건축소,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 건축소, 1909)

29) 政府에서 今年度에 各府廳舍와 其他 地方官官舍 等を 新建築하랴는디 其建築費는 合計 二百五十萬圓에 達함으로 建築材料는 鴨綠江木材를 使用할 터인디 森林面積은 七萬尺이오 價額은 七十萬圓이라더라 (『황성신문』 1909년 5월 15일자, '鴨綠江木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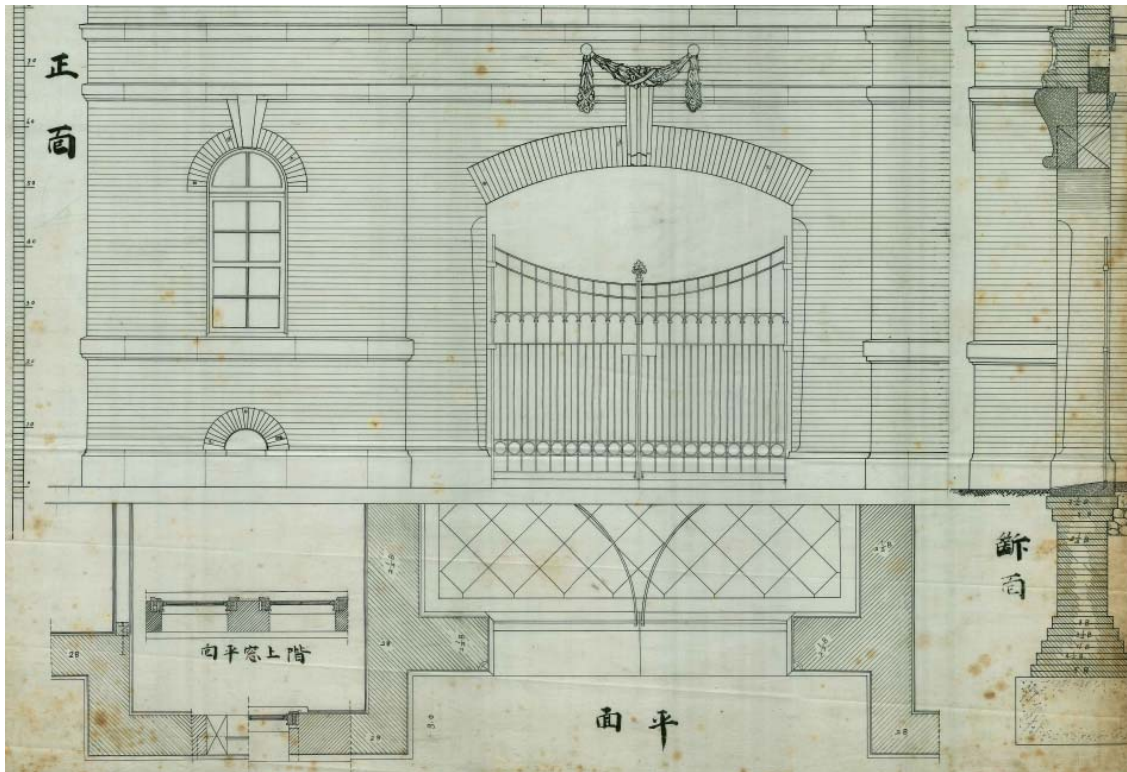
(2) 평면

건물은 일자로 긴 본체의 끝에 직각 방향의 날개채가 붙어 있어 전체적으로 ㄷ자형 평면을 가지고 있다. 단 중앙부에서 홀이 다소 뒤로 돌출되어 있고, 홀 좌우 부분이 약간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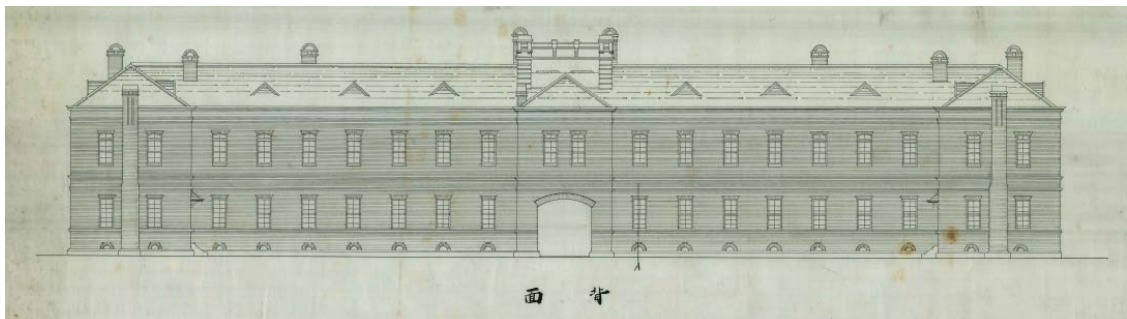


내부 청사 층별평면도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정면 중앙에는 너비 11척 5촌, 높이 11척 6촌의 주출입구가 있는데, 안쪽 홀(廣間)로 이어진다.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 의하면 이 홀은 바깥 지반과 높이가 같아서 마차나 인력거를 쉽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홀 좌우에는 너비 7척의 복도(廊下)가 좌우로 곧게 뻗어 있어 각 실로 통할 수 있는데, 홀에서 복도로는 계단을 통하여 오르도록 되어 있고, 그 입구에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뒷면의 개구부에는 아예 문이 달려있지 않다. 즉 이 홀은 마차나 인력거를 타고 온 사람이 비를 맞지 않고 승하차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본청사 뒤 건물군으로 연결되는 반 외부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건물 정면의 주출입구에 달린 문이 철재 울타리 모양이며 상부는 개방되어 있는 점, 복도와의 경계에 문을 설치한 점 등을 통해서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용도의 공간으로는 소위 구루마요세(車寄)라고 하여 건물 출입구 앞에 포치를 붙이고 이 하부공간을 자동차, 마차, 인력거 등의 승하차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청사의 사례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청사의 정면 주출입구의 입면도 및 평면도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청사 배면도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홀 옆에 붙어 있는 좌우 채는 후면에 편복도에 두고 전면으로 실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한편 좌우 날개채는 앞뒤 가장 끝의 두 방은 전체 폭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부에는 안쪽을 향해 편복도가 있고 바깥쪽으로 실 및 계단실이 자리하고 있다. 계단실은 중앙부 양측에 2개, 날개채 중앙부에 2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외벽이 내력벽의 역할을 하는 조적식 구조이며, 내부에도 일부 내력벽과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건축 양식

외관의 건축양식은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 의하면 근세 영국의 르네상스, 즉 소위 콘벤션 스타일이라 하는 것에 의거하여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 옥상에 방형 노대를 만들고 입구 좌우에는 2개 소탑을 두었다. 또 좌우 양단부에는 돌출한 날개채(翼屋)를 두어 건물의 외관을 좌측, 중앙, 우측의 3부로 구성하였는데, 이를 같은 양식의 기둥과 창이 병렬하는 ‘링크’로 이음으로써 전체를 통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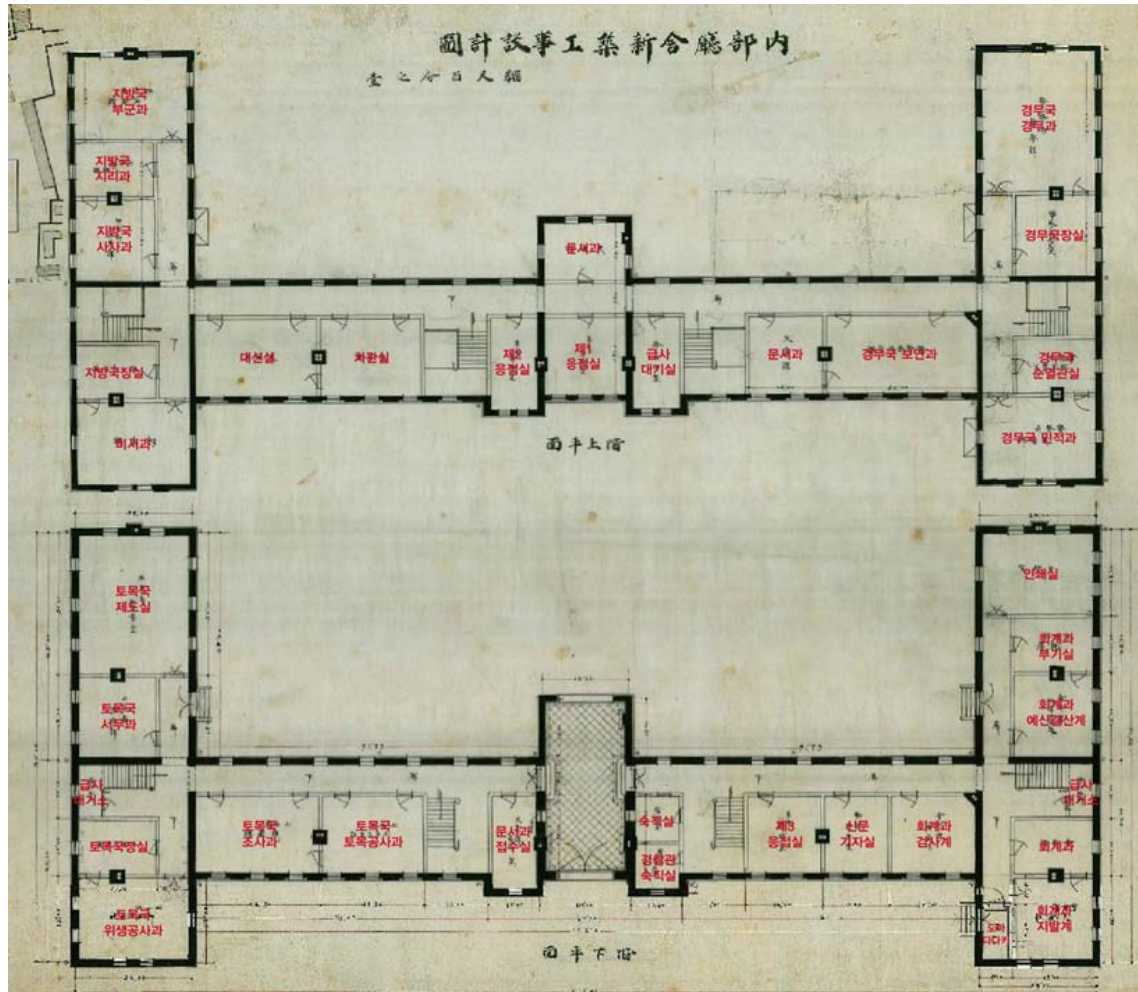


내부 청사 정면도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2」,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4) 실 배치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를 통해서 건물 내부의 평면 및 실 기능을 알 수 있다.



① 건립 당시 건물 내부 실 배치 - 1910년

내부청사로 건립할 당시의 실 배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층 현관홀 바로 양옆의 실은 좌측으로는 문서과 접수실, 우측으로는 숙직실과 경찰관 숙직실이 있어, 접수 및 숙직에 관련된 실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층 좌측부에는 계단실 너머로 토목국 토목공사와, 토목국 조사과가 있고, 좌측 날개채에는 앞에서 순서대로 토목국 위생공사와, 토목국장실, 계단실(계단실 계단참 아래 급사 대기소), 토목국 서무과, 토목국 제도실이 있어, 거의 전체를 토목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1층 우측부에는 계단실 너머로 제3응접실, 신문기자실, 회계과 검사계가 있고, 우측 날개채에는 앞에서 순서대로 회계과 지발계, 회계과, 계단실(계단실 계단참 아래 급사 대기소), 회계과 예산결산계, 회계과 부기실, 인쇄실이 있어, 거의 대부분을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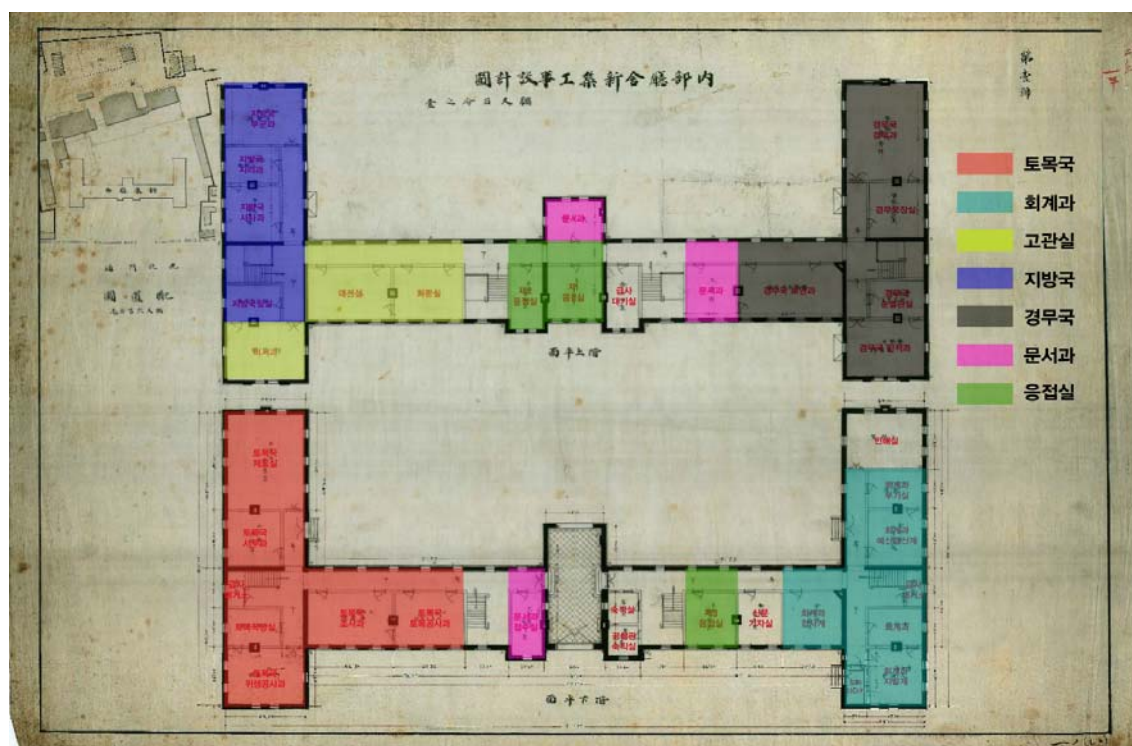
2층 중심부에는 중앙 전면으로 제1응접실, 후면으로는 문서관, 좌측에 제2응접실, 우측에 급사 대기실이 자리하고 있다.

2층 좌측부에는 계단실 너머로 차관실, 대신실이 있고, 좌측 날개채에는 앞에서 순서대로 비서과, 지방국장실, 계단실, 지방국 사사과, 지방국 지리과, 지방국 부군과가 있어, 전면은 중앙부와 함께 대체적으로 차관이나 대신 등 고위관료의 사무실 및 응접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후면은 지방국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층 우측부에는 계단실 너머로 문서과, 경무국 보안과가 있고, 우측 날개채에는 앞에서 순서대로 경무국 민적과, 경무국 순열관실, 경무국장실, 경무국 경무과가 있어, 전면 일부는 중앙부와 함께 문서과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을 경무국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 기능 및 구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본채 좌우 중간에 있는 기둥의 위치가 서로 다른 점인데, 이는 처음부터 내부청사에 필요한 실을 면적에 따라 배치한 후 칸막이벽이 들어가는 위치에 맞추어 기둥을 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즉 실 배치를 먼저 고려한 후 구조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한편 화장실, 세면실 등의 위생공간은 실내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당시 경성의 상하수도 시설 미비로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지 않아 화장실이 별도 부속건물로 존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건물이 경기도청사로 사용되는 것과 거의 동 시기인 1911년에 건물과 복도각으로 연결된 변소 건물이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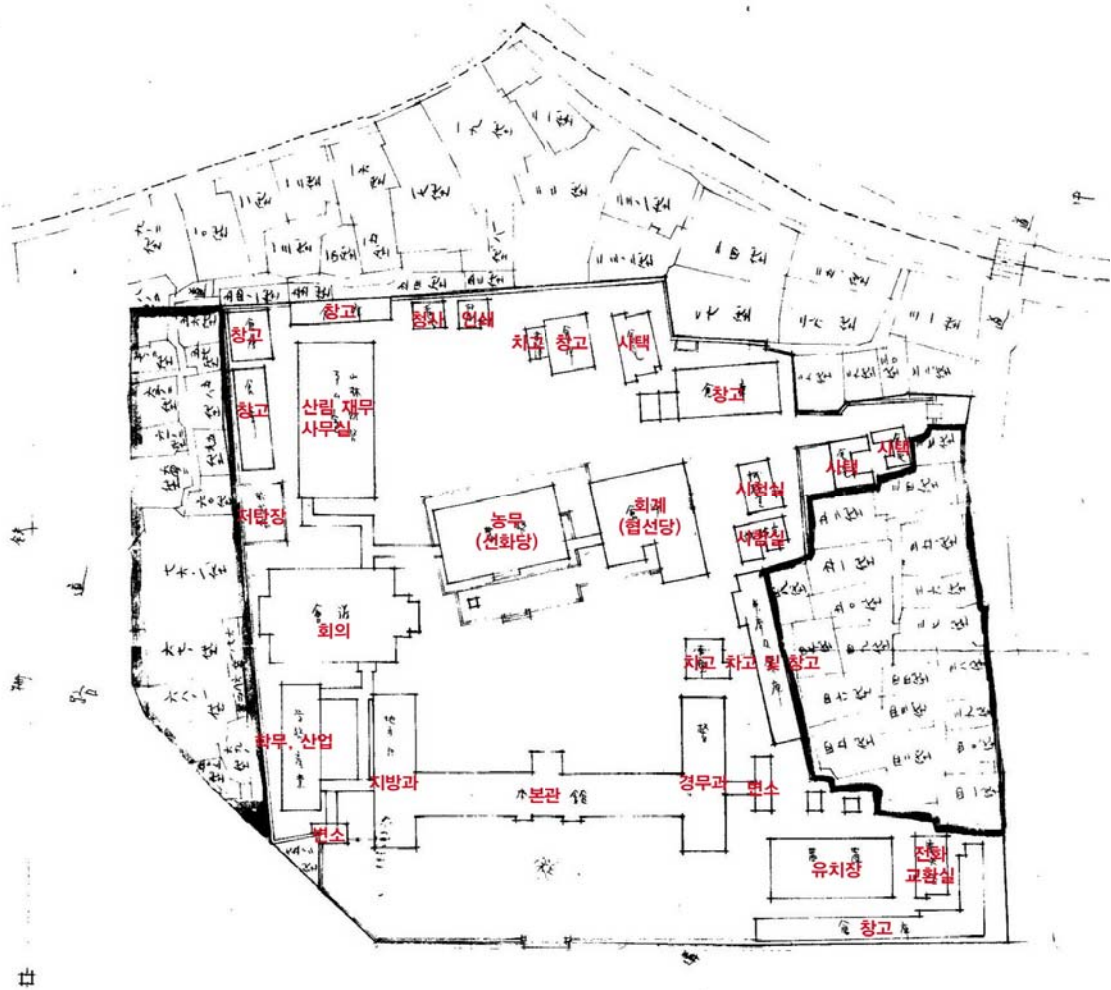


② 1930년 당시 기능

경기도에서 작성한 「소화육년도세출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 현황 도면이 이 건물이 경기도청사로 사용된 이후 처음으로 간략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다. 이에는 자세한 실 배치 및 실명칭은 없고 단지 우측 날개채에 경무과, 좌측 날개채에 지방과라는 표시만 되어 있다. 건

물의 기능이 내부에서 경기도청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지방과, 우측에 경무과가 자리하는 기능 분화가 계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지 전체를 살펴보면 본관 우측에 유치장이 자리하여 경무과와 한 영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부청사 당시 1층에 자리 하던 회계과는 별도 건물(회계과-협선당)에 수용되어 있으나, 토목과 표시는 없는 것으로 보아 토목과는 본관 건물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0년부터 1930년까지 본관 건물 자체에 대한 증개축은 없으나, 주변 건물과 연결되는 복도각이 건물에 접하여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1911년에 양쪽 날개채 근처에 화장실이 각 한 동씩 마련되었고 이것이 본관과 복도각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③ 1940년 당시 실배치 및 기능

1937년에는 본관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먼저 중심부 뒤쪽으로 2층의 폭이 넓은 매스가 수직 방향으로 증축되었고, 본채 우측 뒤쪽의 복도 너머로 실이 증축되어 증복도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 건물은 전체적으로 山자 모양으로 이루게 되었다. 또한 본관 정면에는 포치가 부착되어, 아래에 차를 대서 사람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의 기능을 통하여 살펴보면 경기도청 산하기구는 크게 내무부, 산업부, 경찰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층에는 왼쪽 날개채 부분에 지사실, 관방, 응접실, 내무부장실이 있고, 그 옆으로 산업부장실이 있어 이곳에 고위관직 관련 실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사실은 왼쪽 날개채의 동쪽 끝에 자리하여, 건물의 정면이 아니라 후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 본관이 처음에 내부청사로 지어졌을 당시 대신실과 차관실이 2층 정면을 향한 곳에 자리한 것과 대비된다. 이렇게 왼편 날개채 끝에 자리하게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경기도청의 정면이 서향이고 정면 실들의 경우 후면에는 복도가 있기 때문에 환경상 좋지 않은 서향으로만 창이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사실이 자리한 방의 경우 남, 북, 동 세 방향으로 창이 나게 되며, 채의 끝에 자리하여 복도의 소음 등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1930년도의 도면에는 상세 실 명칭이 기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당시에도 이 왼쪽 날개채 공간에 지사실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⁰⁾

京畿道廳舍配置圖

Stage 1

階一

階二

Legend:

- 내무부 (Internal Affairs)
- 산업부 (Industrial)
- 경찰부 (Police)
- 지사실 (City Hall)
- 회의실 (Meeting Room)

The floor plan shows various departments and meeting rooms, including:

- 창고 (Warehouse)
- 지하차 (Underground Car)
- 이재과 (Disaster Relief Section)
- 식당 (Cafeteria)
- 회의실 (Meeting Room)
- 토목과 (Civil Engineering Section)
- 도시계획과 (Urban Planning Section)
- 환경과 (Environment Section)
- 문화체육관광과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ction)
- 교통과 (Transportation Section)
- 농림축산식품과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ion)
- 보건복지과 (Health and Welfare Section)
- 교육과 (Education Section)
- 청소년과 (Youth Section)
- 여성가족과 (Women and Family Section)
- 고령자과 (Elderly Section)
- 장애인복지과 (Disability Welfare Section)
- 문화체육관광과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ction)
- 교통과 (Transportation Section)
- 농림축산식품과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ion)
- 보건복지과 (Health and Welfare Section)
- 교육과 (Education Section)
- 청소년과 (Youth Section)
- 여성가족과 (Women and Family Section)
- 고령자과 (Elderly Section)
- 장애인복지과 (Disability Welfare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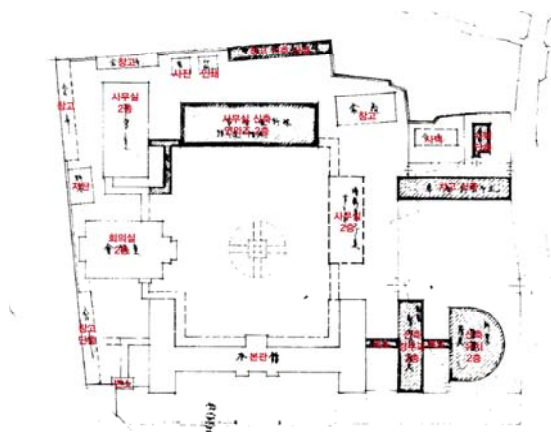
30) 1910년대 후반 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 1930년 현재 경기도청 건물 배치 (CJD0002793), <경성일보> 1927년 12월 4일자 기사 등을 통하여 유추하였다.

○ 경찰부 위치에 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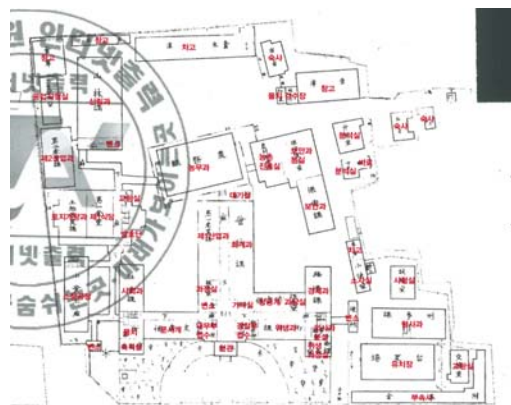
이렇게 1,2층의 오른쪽 부분을 경찰부에서 사용하는 전통은 이 건물이 내부청사의 본관으로 계획되었을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부지 전체를 통틀어 살펴보아도 경찰부 관할 공간은 부지의 오른쪽에 집중되어 있고, 내무부와 산업부는 부지 왼쪽에 혼재되어 있다. 나머지 과들이 건물의 신축, 증축에 따라 다양하게 자리를 옮긴 데 비하여 경찰부의 위치에는 변동이 거의 없는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경찰부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내무부 및 산업부와 함께 도청 기능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인데, 특히 본관 1층의 실 배치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중앙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는 내무부 접수실, 오른쪽으로는 경찰부 접수실이 있어 방문객은 방문 용건에 따라 해당 접수처에 접수를 한 후 이동하게 된다. 둘째로는 1930년대 이전에 이미 본관 우측에 유치장 등이 건설되었기에 이후로는 경찰부의 자리를 옮기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³¹⁾

○ 증축부 및 회의실에 관한 고찰

본관 후면의 증축부는 기존 본관의 폭보다 크며, 지붕 역시 기존 건물보다 높다. 이는 이 증축부가 회의실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초기에는 정본당을 회의실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1927년에는 1916년에 건립한 목조 2층 건물(원래 이재과·권업과로 건립)의 2층을 평의회실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1928년에 석화당 자리에 신축한 벽돌조 2층 건물이 회의실로 사용되면서 면적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 건물은 1937년 본관 증축시까지 회의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37년에 본관 후면을 증축하면서 증축부 2층이 회의실로 사용되게 되었고, 이로써 회의실의 넓이는 2배 정도 늘어나게 되며, 고위관직실과의 접근성도 더 좋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앞절에서 분석하였듯이 1930년의 증개축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이후 다른 방식으로 증개축이 일어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1930년에 작성된 증개축 계획안



1940년 현재 배치

31) 기타 도청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본관 2층에 도지사실, 참여관실, 각 부장실, 응접실 등의 개별 집무실 및 회의실이 자리하고, 1층에는 각 부실, 과실, 부속실 등이 자리한다. 도지사실의 위치는 2층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 혹은 좌측 혹은 우측 모서리에 위치하는 경우도 나뉜다. (김명선, 「일제강점기 도사무분장과 도청사의 규모 및 평면구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3호, 2008.09. p.60.)

○ 증축부 및 정면 포치에 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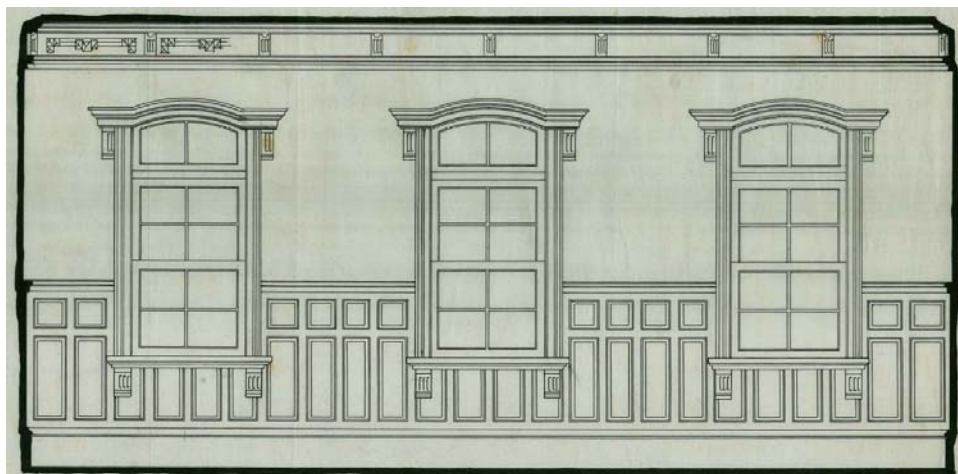
1937년에는 후면 증축부와 함께 정면 출입구 앞 포치도 증축된다. 이 포치는 소위 구루마요세(車寄)로서, 하부 공간에 차가 정차하여 비를 맞지 않고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신문기사에서는 이를 증축한 이유를 차량 이용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원래 승하차장 역할을 했던 홀이 후면 증축부 건설로 인하여 더 많은 교통을 처리하게 된 것이 건물 외부에 승하차장을 만들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5) 실내 장식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는 주요 실의 장식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대신실과 차관실, 응접실에는 5척 높이의 장두리널(腰羽目)을 둘렀고, 천정 중심 장식 및 프리즈의 문양으로는 ‘제체션’(セセッション, Secession)식의 화초를 페인트로 칠하여 그림으로써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이 방식을 취한 까닭에 대해서는 경비 절감 및 서양 최신 수법 도입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 방들은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고 실용과 편익을 주로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상기 방의 장식에 대해서는 도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신실, 차관실의 장식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대신실 정면 입면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1909~1910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

2) 회의실

회의실은 1928년 경기도 회계과 영선계에서 설계, 건설하였다.³²⁾ 벽돌조의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상당히 지붕 경사가 심하며, 그 높이가 같은 2층인 본관보다 더 높다. 경기도청 건물 중 유일하게 지하실이 있는 건물이기도 하다.



(01-01-07-m1026-06_유리건판)



청사 모델 (경기도의회 소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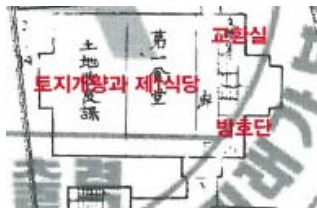


건립 2년 후인 1930년 도면에 회의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건립 초부터 회의실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 도면에는 각 층별 기능은 기입되어 있지 않아 각 층의 기능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1937년에 본관 후면이 증축되어 회의실 기능이 이전한 이후에 기능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데, 1940년의 도면에는 지하를 식당 및 소사실, 1층은 제1식당, 토지개량과, 교환실, 방호단, 2층은 토목과 및 동 과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후에 이 건물은 제1대~2대의 경기도의회 건물로 사용되면서 첫 건설 시의 기능을 복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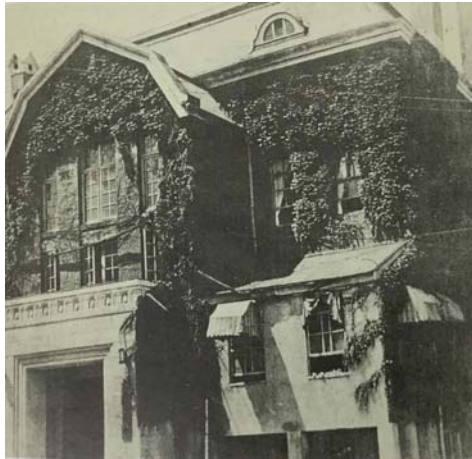
평면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며, 앞뒤로 돌출부가 있다. 돌출부 매스는 본채 매스보다 높이가 낮아 전체 실루엣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면 돌출부는 입구 포치 및 각 층 계단참을 형성하며 후면 돌출부는 특별한 기능 없이 인접하는 실과 통합되어 사용되는데, 이 사실로 보아도 돌출부가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면은 전면부의 계단실과 후면의 실로 나뉜다. 계단실 양측 공간은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작은 실이 형성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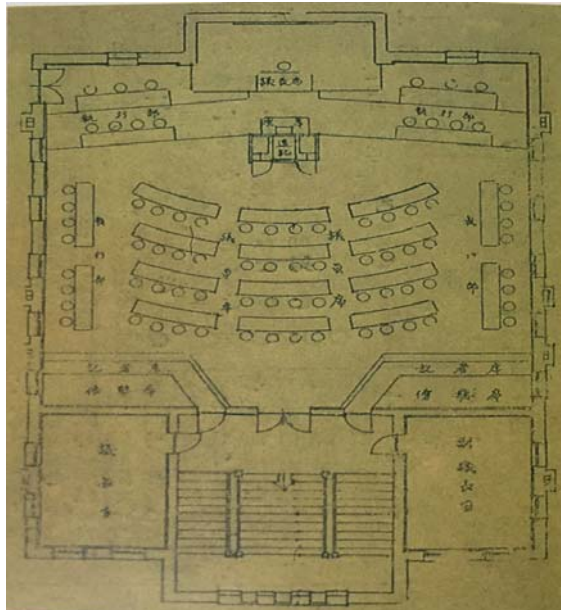
32) '역시 3월에 들어 드디어 일부 설계를 시작하고 그래도 예년보다 상당히 빨리 4월부터 6월에 걸쳐 대체로 정리되었지만, 올해는 발아래, 저희들이 있는 집의 대개조를 하게 되어서, 이에 상당한 능력을 쓰고 있으며, 또 국비는 본부 지령 관계상 6월에 들어 드디어 착수한 상황이다. 그래도 올해는 대마력을 발휘하여 11월 말까지 대체로 완료하고자 계획하여 일동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堤芳助, 「경기도의 영선공사 실황」, 『朝鮮と建築』, 1928.06.)



1940년
배치도



경기도의정회, 경기도의회사 입면 전경



경기도의정회, 경기도의회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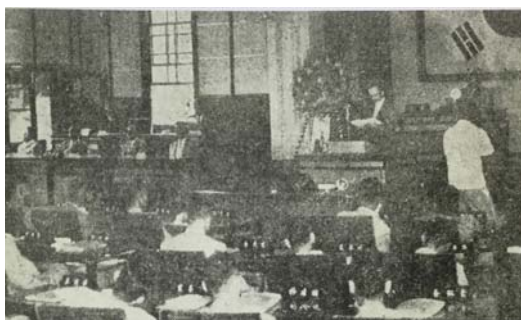
입면에는 기본적으로 적벽돌이 사용되었지만 스패드럴 등에 흰색이 사용되어 본관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면 하부 및 현관 포치는 흰색 재료(화강석으로 추정됨)으로 마감되어 있다. 또한 측면과 후면에 굴뚝이 여러 개 늘어서 있는데, 이는 본관의 굴뚝과 비교해도 규모에 비해 그 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동측에 건립된 또 다른 2층 벽돌조 사무실 건물 역시 거의 유사한 입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표결



경기도의회 개원 후 첫 본회의



제1회 임시회 개회식



초대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1956.9.3)

IV. 세종로 경기도청 자료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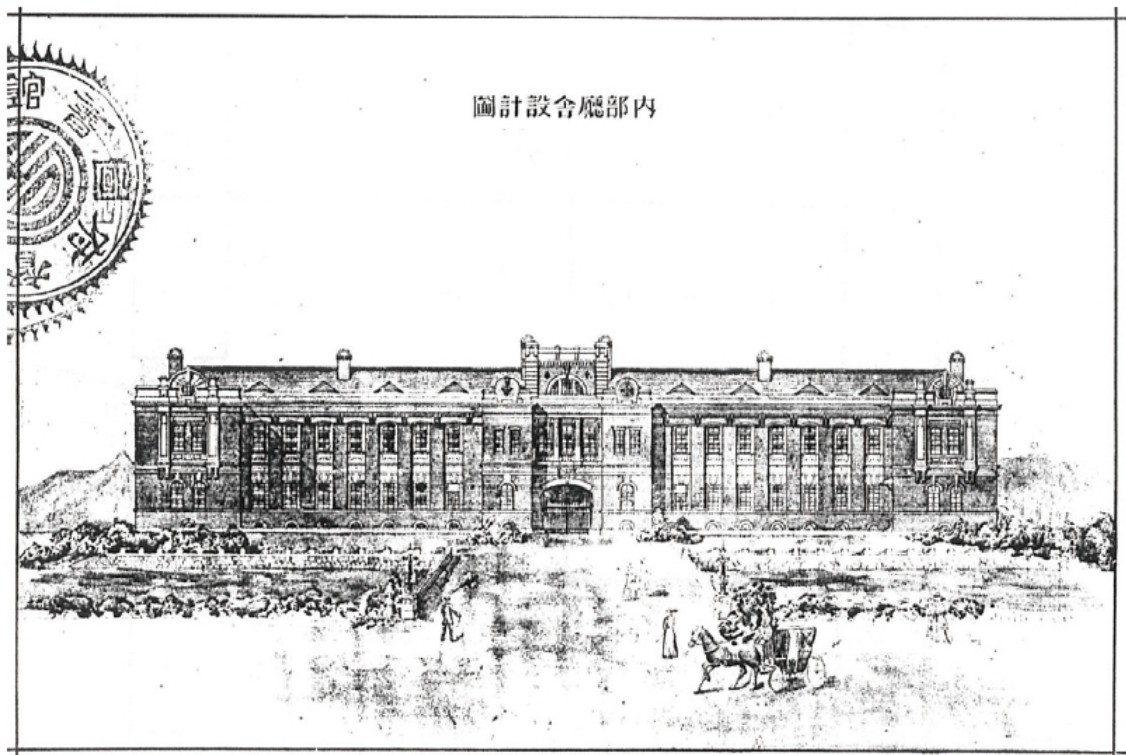
1. 문헌
2. 도면
3. 사진

1.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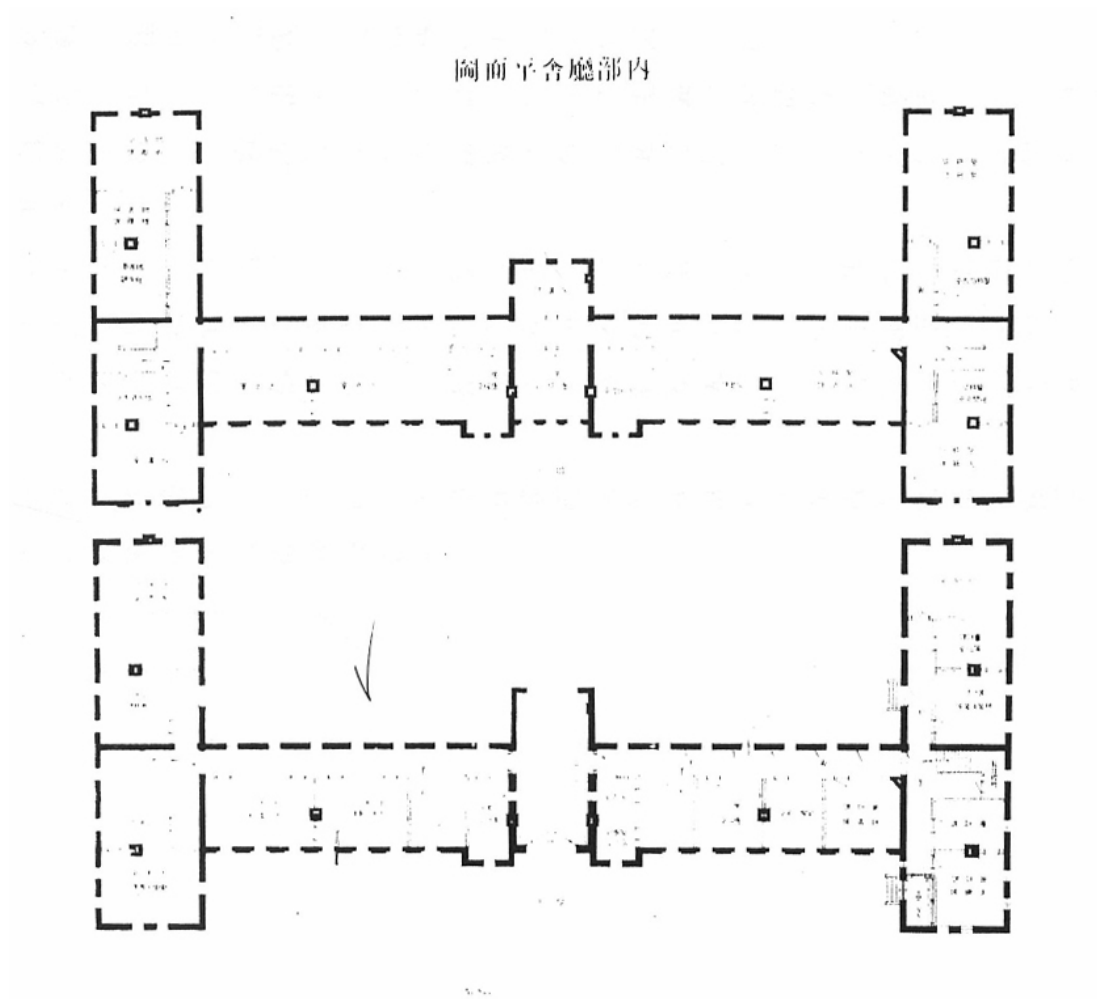
1)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

탁지부건축소가 1910년에 12월에 출간한 책으로, 1906년 탁지부 설립 이후 시행한 사업의 개요를 기술한 것이다. 제3장 건축공사 중 제1절 각부청사신영공사 중에 내부청사 건축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내용은 양식 및 외관, 배치, 구조 및 재료, 장식, 공사비에 관한 간략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케치 형식의 정면도 및 평면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내부 청사 정면도
(탁지부건축소,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 건축소, 1909)



내부 청사 평면도
(택지부건축소,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 건축소, 1909)

2) 조선총독부, 「지방청건물대장(地方廳建物臺帳)」, 1917

1917년 현재 경기도청의 건물들을 정리한 대장이다. 건물별 건립일시, 명칭, 동수, 구조, 평수가 기입되어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다. (CJA0002574)

[illegible]

406 0465

기입된 내용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이 다음 표이다.

1917년 현재 건물 현황

(출처 : 내무국제1과, 『지방청건물대장(地方廳建物臺帳)』, 1917, 국가기록원 소장(CJA0002574)

년	월	건물 명칭	동수	구조	양식	지붕	층수	건평
1907		변소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2
1909		창고	1	연와조		기와지붕	2층	53.04
1909		탕비소(湯沸所)	1	목조	일본식	기와지붕	단층	26.87
1909		취사장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6.75
1909		창고(物置)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1.28
1909		변소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8.75
1909		욕실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2.48
1909		변소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68
1910	11	본관	1	연와조		철판지붕	2층	253.47
1910	11	복도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9.12
1910	11	변소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8.25
1910	11	복도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3
1911	7	회의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97.12
1911	7	사무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69.76
1911	7	사무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47.94
1911	7	창고(物置)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32.1
1911	7	창고(物置)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2.32
1911	7	사무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0.74
1911	7	사무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17.28
1911	7	순시힐소(巡視詰所)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15.07
1911	7	식당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14.98
1911	7	순시실(巡視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10.01
1911	7	소사힐소(小使詰所)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9.5
1911	7	소사실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4.94
1911	7	문사(門舍)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97
1911	7	복도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25
1911	7	복도	1	목조	조선식	기와지붕	단층	2.1
1915	8	창고(物置)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20
1915	8	복도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11.25
1915	12	청사진실	1	연와조		콘크리트지붕	단층	6.6
1916	3	인쇄실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7.5
1916	10	사무실	1	목조	양식	슬레이트지붕	2층	42
1916	10	복도(이축)	1	목조	일본식	철판지붕	단층	0.83
1916	12	변소(이축)	1	목조	일본식	기와지붕	단층	8
1916	12	복도(신축)	1	목조	일본식	기와지붕	단층	2

3) 경기도, 「소화육년도세출계획서(昭和六年度歳出計劃書)」, 1930

- 1930년 6월 경기도청이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듬해 1931년도의 특별회계세출계획서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2종류 확인되며, 서류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CJA0002791 및 CJA0002793)
- 이 자료는 경기도 소재 관청 및 관사의 수선 및 신축 공사 예산 신청을 위한 서류로, 예산 및 상세 내역, 각 사안에 대한 사유(일부), 상세 내역(일부), 도면(일부, 배치도·계획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중에 경기도청사 관련 항목으로는 경기도청사개축 및 부지의 확장, 경기도청구내배수공사, 도청사담개조, 경찰부사무실 및 유치장 신축계획이 있다.
-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다.¹⁾

- 소화육년도척무성(拓務省)소관조선총독부특별회계세출계획서
 - 동상 세부 내역
- 소화육년도영선공사계획서 수선의 부 : 인천부청, 수원군수관사, 여주군청, 고양군청
 - 동상 내역 설명
- 소화육년도영선공사계획서 신영의 부
 - : 청사 - 경기도청사신축공사(부지구입포함), 인천부청개축공사, 시흥군청증축공사, 장비군청신축공사, 강화군청증축공사
 - : 관사신축 - 농무과장관사신축, 이재과장관사신축, 시흥군수관사신축
 - : 각부 - 용인군수관사이전공사, 여주군청배수공사, 이천군청담공사, 용인군청배수구개조, 경기도청배수공사, 부천군청철조책신설, 도청사담개조, 안주군수관사토류, 판담, 창고, 안성군청배수공사, 용인군청철조책신설, 포천군청철조책신설
- 동상 세부 내역
- 경기도청사개축 및 부지의 확장
 - 사유
 - 내역
 - 지도 : 경기도청확장민유지매수배치도
 - 지도 : 소화육년도계획경기도청확장안배치도
- 인천부청사개축 사유
 - 사유
- 시흥군회의실신축공사
 - 사유
 - 지도 : 시흥군청회의실신축계획배치도
- 강화군수실증축공사
 - 사유

1) 문서 자체에 목차 페이지는 없어 필자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내역
- 지도 : 강화군청군수실증축계획도
- 용인군수관사이전공사
 - 사유
 - 지도 : 용인군수관사이축계획도
- 광주군청사배수공사
 - 사유
 - 지도 : 광주군청배수구신축배치도
- 이천군청사주위담신설공사
 - 사유
 - 지도 : 이천군청배치도
- 용인군배수공사
 - 사유
 - 지도 : 용인군청사부지
- 경기도청구내배수공사
 - 사유
 - 지도 : 경기도청구내배수배치도
- 부천군청철조책신설공사
 - 사유
 - 지도 : 부천군청부지
- 파주군수관사토류계단판벽물치(창고)신설
 - 사유
 - 지도 : 부천군청부지
- 안성군청배수설비공사
 - 지도 : 안성군청배수설비공사
- 경찰부사무실 및 유치장 신축계획 (CJA0002793에는 미포함)
 - 사유
 - 내역
 - 지도 : 제5안 고등과신축계획서
 - 지도 : 제5안 경기도청확장안

- CJA0002791 및 CJA0002793 비교
- 두 서류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CJA0002793에는 경찰부사무실 및 유치장 신축계획이 없다. 또한 CJA0002793의 글씨가 더 깔끔한 것으로 보아 CJA0002793는 CJA0002791를 정서한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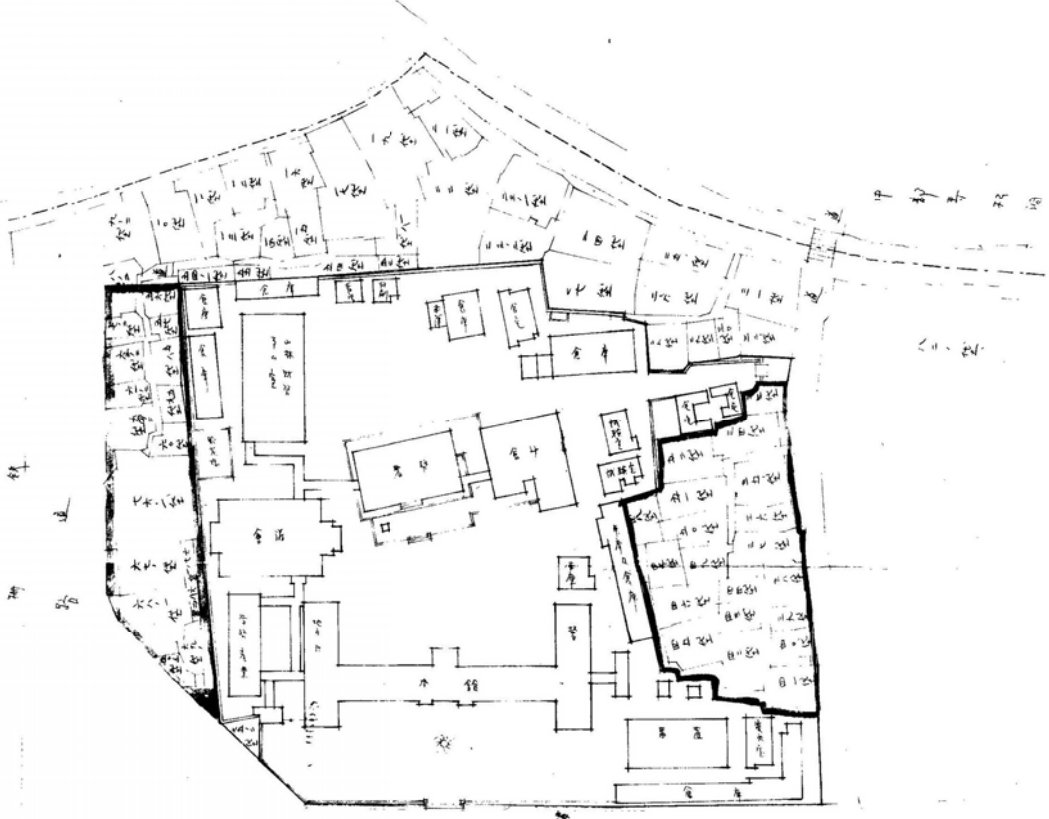
- 각 사업의 상세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청사신축및부지확장공사)
- 예산(부지구입비 포함) : 81,273.200원

구분	구조	동수 혹은 칸수 등	원수	단가	금액(원)	완급 순위	비고
부지구입					26,733.20	1	사유 및 내역 도 면 별지와 같음
지장물건이전 기타 보상비					15,200.00	1	
사무실	연와조 2층	1	308평	120	36,960.00	1	
복도	목조 단층	1	12평	65	780.00	1	
청내감독사택 이축			20평	80	1,600.00	1	
계					81,273.20	1	

-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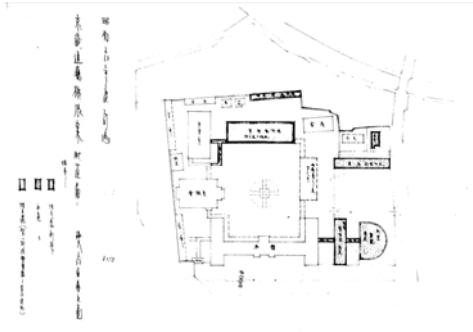
본 도청사는 1910년의 건축의 본관 및 구감찰관 시대의 건축인 조선식 부속청사의 일부를 사무실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종래 청사가 협소해져 필요할 때마다 사무실 등을 증축할 때는 협소한 부지에 당장의 불편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고식적인 증축 수선을 하여 간신히 임시변통 해 왔으며, 현재 건물 위치의 불규칙하고 작은 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도세의 진전에 따라 현저히 제 설비의 필요가 급해져 안에도 내무부, 산업부로 사용하는 사무실(1동) 및 복도 또 경찰부에 요하는 사무실, 자동차 격납고 및 유치장은 1931년도에 개축(별도 경무국에 경무과로부터 요구)을 요하여 이 기회에 건물의 배치를 완비하고 부지의 완화를 조절하기 위하여 부지의 확장을 요하여 청사부지 서쪽에 돌입하는 별지 감도 제1기 매수에 정지로 하는 민유지(민가로부터 왕왕 소화재 종종 있어 이들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다)를 동년도에 매수하고 부지 확장을 도모하고, 을도처럼 전기 건물을 증개축하여 차년도에는 감도 제2기 매수에정지를 매수하고 축년 청사 등의 증개축에 노력하여 현금 청사 앞 노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검사장 등도 설치하여 청사의 완성을 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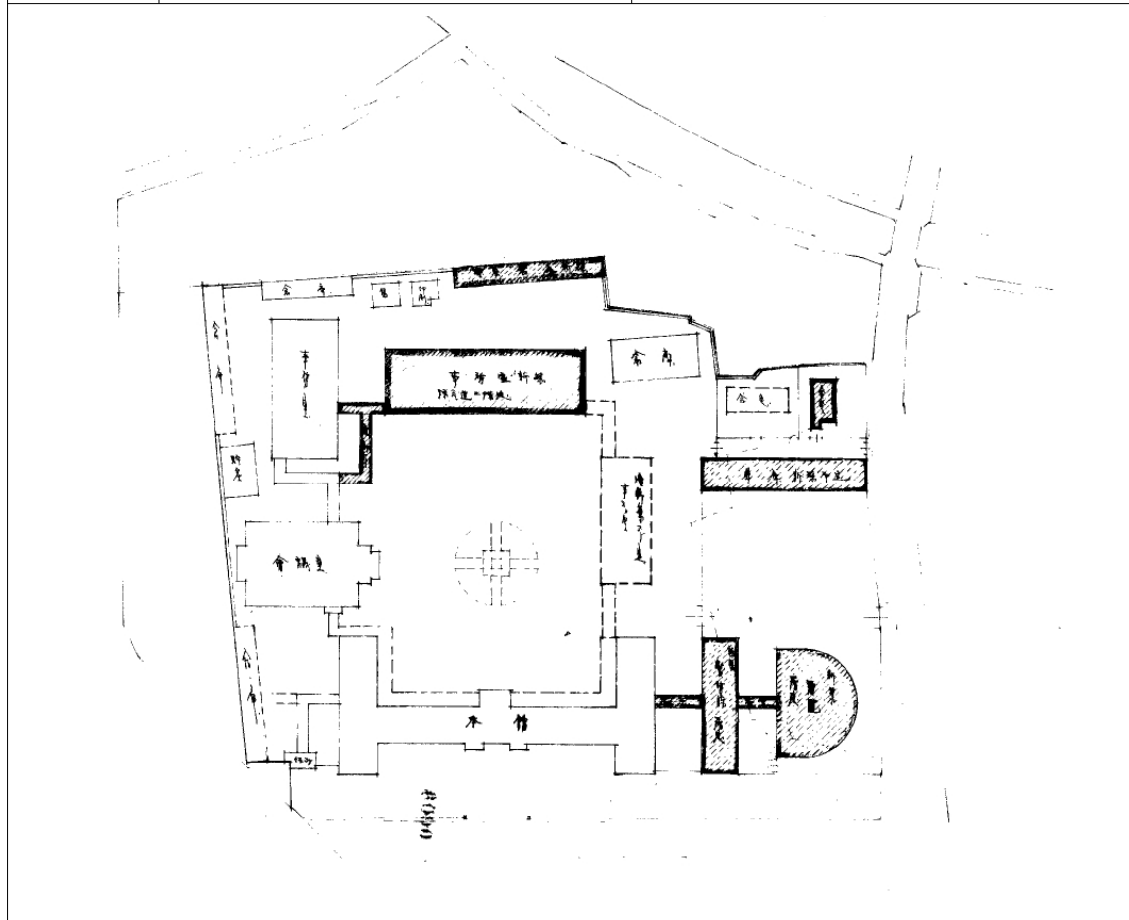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청확장민유지매수배치도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30년	
공사유형명	현황배치도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CJA0002793	
비고	- 경기도청 확장을 위한 주변 민유지 매수 계획도 1930년 현재 경기도청 건물 배치 및 간략한 건물 용도를 알 수 있음 - 건물 내 실배치까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청확장안배치도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30년
공사유형명	건물 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CJA0002793
비고	1931년도 사업 예산 신청을 위하여 첨부한 경기도청 확장 및 신축 계획안 - 실현되지 않음





(경기도청구내배수공사)

- 예산 : 1,216. 2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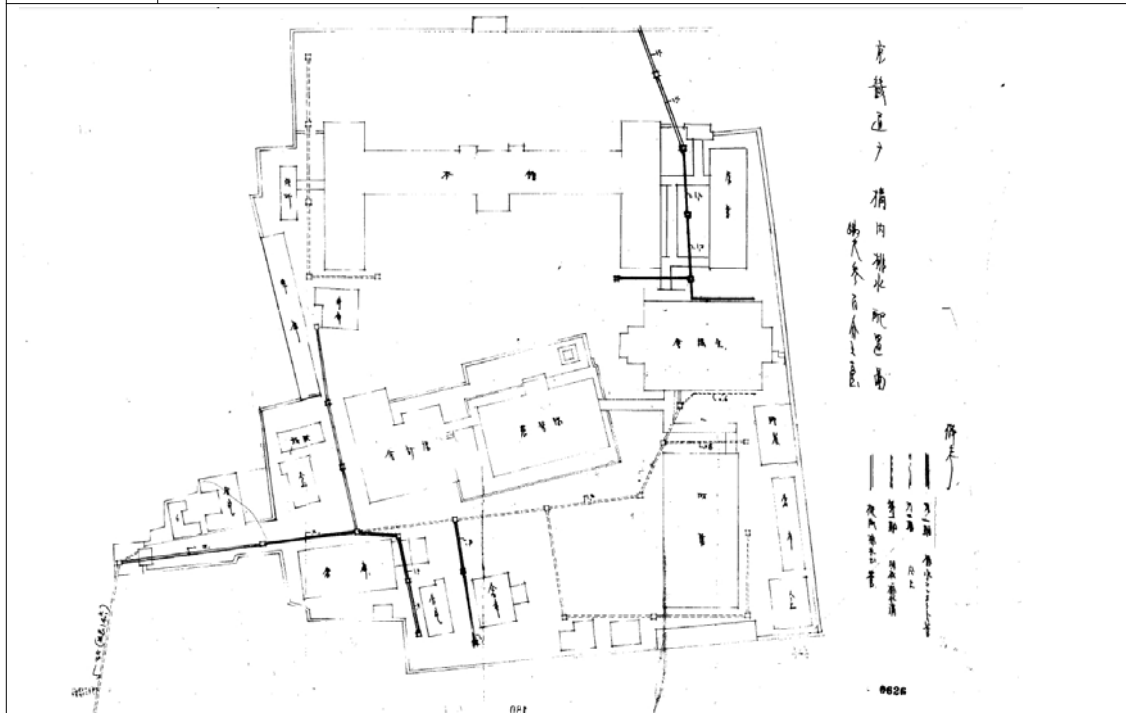
구분	구조	장수 혹은 칸수 등	원수	단가	금액(원)	완급 순위	비고
구내배수공사					1,216.25	5	사무내역 및 도 면 별지통

- 사유

본 도청 구내의 배수 설비는 미설비의 곳 있어 특히 매년 우기에는 홍수 상태가 되어 이의 완성이 가장 급하다. 제1기 계획의 부분부터 설비를 하고자 한다.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청구내배수배치도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30년
공사유형명	배수로 공사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CJA0002793
비고	경기도청 부지 내 배수로 공사를 위한 배치도면



(경찰부사무실 및 유치장신축계획)

- 예산 : 76,0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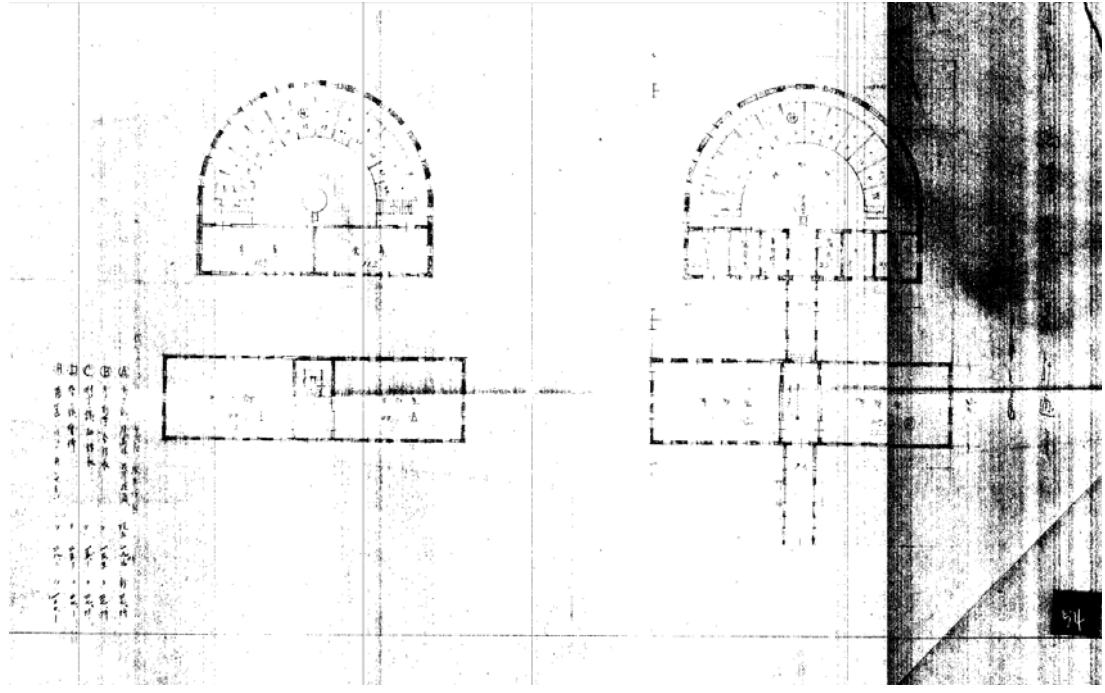
명칭	원수	단위	단가	금액(원)	적요
경찰부 증축	180	연평	130	23,400	연와조 2층건물 증축
유치장 신축	300	연평	140	42,000	동상 신축
복도 신축	15	연평	100	1,300	동상 단층건물 신축
창고 개축	50	연평	90	4,500	동상 단층건물 개축
차고 개축	54	연평	90	4,860	동상
계				76,060	

- 사유

(1) 현재의 경찰부 사무실은 구 경기도 경찰부 당시의 각실 배치 그대로로서 그 후 사무의 팽창 인원의 증가에 따라 각과는 매우 협애해져 집무상 곤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신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하지 못하여 이대로는 도저히 집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발 실현되었으면 한다. 또 경찰부 유치장은 원래 경무총감부(대화정)에 있었던 것을 대정9년(1920년)에 이축한 것인데 설비 불완전하고 또 방수 적어 최근 사상범의 검거 취조는 항상 일시에 다수의 공범 피의자를 구금해야 하는데 현재의 설비로서는 도저히 그 수요에 응할 수 없다. 또 부내 각 경찰서의 유치장도 항상 유치인 총만하여 곤란한 실황을 보아 경찰부에 완전한 유치장을 신축하여 부내 각소에 수용할 수 없는 자는 이를 경찰부에 수용하기로 하고 이의 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도저히 형사경찰의 실적을 올릴 수 없다. 특히 사상범의 검거 같은 것은 현재의 상태로는 충분한 성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제발 이의 신축의 검토를 부탁한다.

(2) 본 도청 구내는 부지 협애하여 불편할 뿐 아니라 건물 도처에 있어 매우 난잡하기 때문에 이의 확장 정돈의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요구를 예정하고 있어 이에 순응하여 피복 창고도 다른 곳에 이축하는 것이 시급하여 내년도에 신축의 검토를 부탁한다.

(3) 자동차고는 건물 이미 부구하여 위험할 뿐 아니라 별도 도에서 계획 중인 전기 부지 확장, 각 건물 정돈 계획에 따라 다른 곳에 이축할 필요가 있으니 내년도에 신축의 검토를 부탁한다.

도면명	제오안 고등oo축계획서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유치장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30년
공사유형명	유치장 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CJA0002791
비고	• 경찰부 사무실동 및 유치장동의 신축 계획 도면 • 1, 2층으로 나누어 표시 • 실현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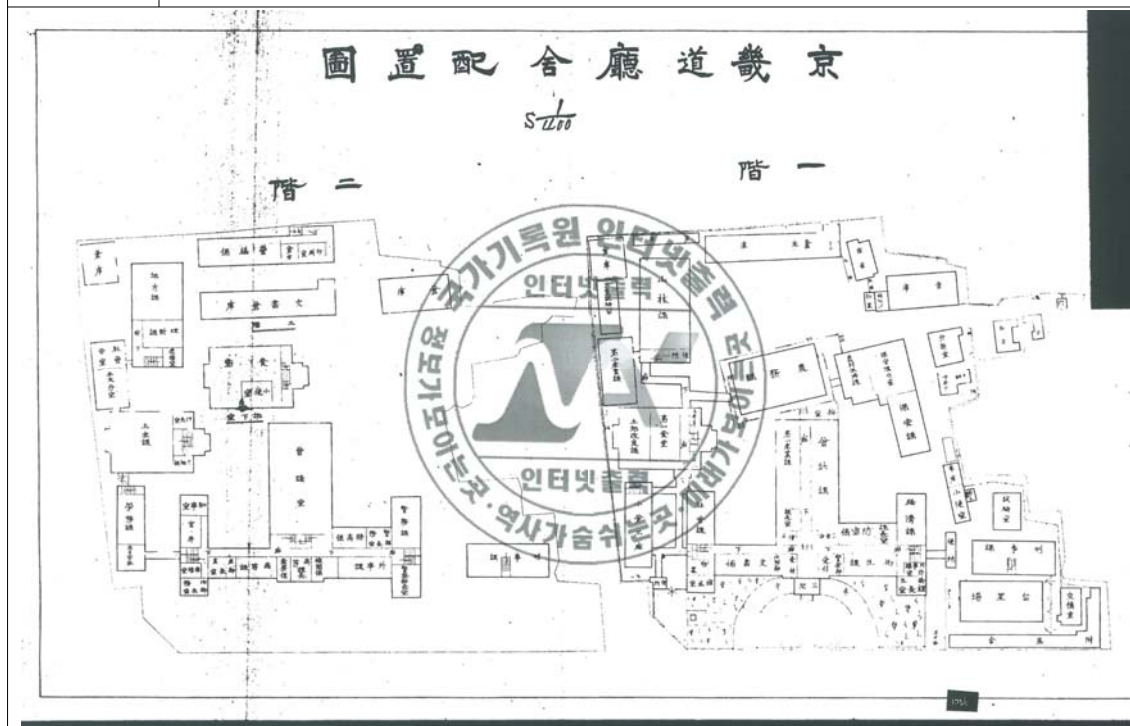
- 이 중 「경기도청사신축및부지확장공사」, 「경기도청구내배수공사」, 「경찰부사무실 및 유치장신축계획」에는 각각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도면 중 현 상황 도면을 통해서 1930년 현재의 건물 배치 현황 및 건물별의 간단한 용도를 알 수 있다. 또 경기도청사신축및부지확장공사, 경찰부사무실 및 유치장신축계획에는 각각 신축 계획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들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당시 경기도청 부지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경기도, 「도청사에관한조사의건(道廳舍ニ関スル調査ノ件)」, 1940

-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다. (CJA0003566)
- 1940년 현재 경기도청사에 대한 건물별 연면적(坪), 별도 자리에 있는 순사교습소 연면적(坪), 직원수, 최근5년간 도청사 및 기타 부속건물 등의 신증축, 수선, 리노베이션 등에 요한 경비, 실명이 기입된 배치도가 있음.
- 특히 배치도는 당시 도청사의 배치 및 실별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청사배치도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30년
공사유형명	현황배치도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CJA0003566
비고	• 1940년 현재 건물 배치 및 실 배치를 보여주는 배치도 • 1, 2층 배치도 • 2층 배치도에는 남은 공간에 지하실과 3층이 있는 건물의 지하실 및 3층 평면이 함께 기입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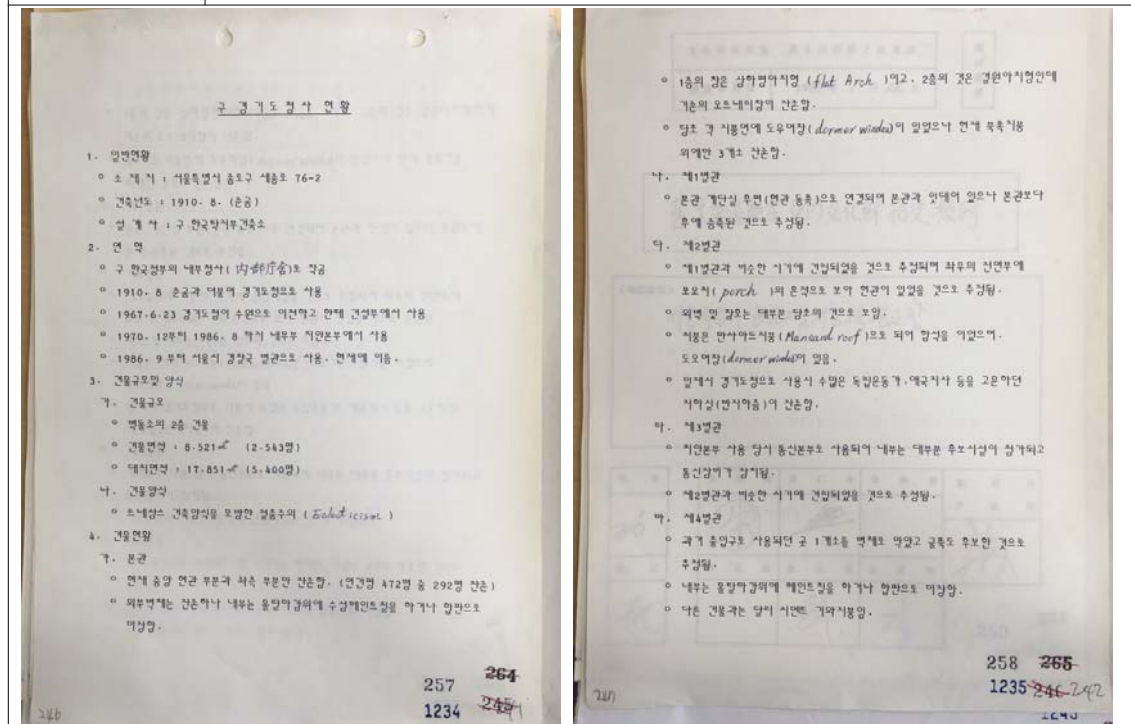
5) 기타 문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제 목	현대여명기 건축물 및 역사유적 조치계획	
작성	작성처	문화재관리국
	작성년도	1986
서지사항	서 명	현대여명기건축물조사
	소 장 처/DB	국가기록원
	청구기호	BAO812241
관련내용	248-250쪽 <보고요지> 86.08.05 독립기념과 사고 경위 보고서 대통령각하로부터 아래의 현대 여명기 건축물 및 역사유적에 대한 사적지정 검토지시가 있어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문화재 소위원회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1. 조사대상. 가. 구 경기도청(현 서울시경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2) 나. 구 경성감옥소(현 서울구치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 다. 벽제관 싸움터(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벽제읍, 신도읍 일월) 2. 현지조사 및 소위원회 개최 가. 현지조사. - 조사기간: '86.8.25-9.30 - 조사자 : (생략) 나. 소위원회 개최 - 일시: '86.10.15 16:00 - 참석자 : (생략) - 회의결과 : 구 경기도청, 구 경성감옥소 및 벽제관 싸움터의 사적 지정 보존은 필요없음. 3. 유적현황 및 조치계획 <u>구 경기도청</u> 가. 현황 - 벽돌조 2층 건물로 본관 및 수개의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장 오래된 본관(1910년 건축)은 현재 중앙현관과 좌측부분만 잔존함. 나. 조치계획 - 건축양식이나 보존상태, 역사적 가치로 보아 사적으로 지정보존할 필요 없음.	

	257쪽 <u>구 경기도청사 현황</u> 1. 일반현황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2 -건축년도: 1910.08 (준공) -설계자: 구 한국탁지부건축소 2. 연혁 -구 한국정부의 내부청사(內部廳舍)로 착공 -1910.8 준공과 더불어 경기도청으로 사용 -19678.6.23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고 한때 건설부에서 사용 -1970.12부터 1986.8까지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사용 -1986.9부터 서울시 경찰국 별관으로 사용. 현재에 이름. 3. 건물규모 및 양식 가. 건물규모 -벽독조의 2층 건물 -건물면적: 8,521㎡(2,543평) -대지면적: 17,851㎡(5,400평) 나. 건물양식 -르네상스 건축양식을 모방한 절충주의(Eclecticism) 4. 건물현황 가. 분관 -현재 중앙 현관 부분과 좌측 부분만 잔존함 (연건평 472평 중 292평 잔존) -외부벽체는 잔존하나 내부는 몰탈마감위에 소성페이트칠을 하거나 합판으로 미장함. -1층의 창은 상하평아치형(flat Arch)이고, 2층의 것은 결원아치형인데 기존의 오르내리창이 잔존함. -당초 각 지붕면에 도우머창(dormer window)이 있었으나 현재 북쪽지붕 위에만 3개소 잔존함 나. 제1별관 -본관 계단실 후면(현관 동쪽)으로 연결되어 본관과 잇데어 있으나 본관보다 후에 증축된 것으로 추정됨 다. 제2별관 -제1별관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좌우의 전면부에 포오치(porch)의 흔적으로 보아 현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외벽 및 창호는 대부분 당초의 것으로 보임. -지붕은 만사아드지붕(Mansard Roof)으로 되어 함석을 이었으며, 도오머창(dormer window)이 있음. -일제시 경기도청으로 사용시 수많은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등을 고문
--	---

	하던 지하실(반지하층)이 잔존함. 라. 제3별관 -치안본부 사용 당시 통신본부로 사용되어 내부는 대부분 후보시설이 첨가되고 통신장비가 장치됨 -제2별관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마. 제4별관 -과거 출입구로 사용되던 곳 1개소를 벽체로 막았고 굴뚝도 후보한 것으로 추정됨. -내부는 몰탈마감 위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합판으로 미장함. -다른 건물과는 달리 시멘트 기와지붕임.
특기사항	- 1986년 당시 경기도청이 서울시 경찰국에서 사용되던 당시의 주요건물 현황을 기록함. - 경기도청은 사적으로 지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정함.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제 목	구 경기도청 건물모형 인계인수	
작성	작성처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작성년도	1995
서지사항	서 명	영구보존문서 이관철(6)
	소 장 처/DB	국가기록원
	청구기호	DA0526653
관련내용	• 세종로 경기도청의 축소 모형을 보관하고 있던 정부청사수급관리소에서 정부기록보존소로 모형을 인수인계한다는 공문. • 세종로 경기도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모형을 만들었음을 확인.	
특기사항	• “1990년 7월 건물철거에 따라 보존용으로 만들-기획과에서”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음. • 현재 경기도행정역사관에서 전시 중인 세종로 경기도청사 모형에 국가기록원을 출처로 삼고 있으므로, 이 모형이 1995년에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인 계 인 수 서 품 명 : 구 경기도청 건물 모형 * 1990 7 건물철거에 따라 보존용으로 만들 - 기획과에서 수 량 : 1 점 (출원) 가 액 : 7,920,000원 (철배구십이만원정) 측 적 : 100분의 1 1995년 9월 4일 인계자 : 정부청사수급관리소 관리과 행정사무관 김 성 결 행정주사 김 종 익 인수자 : 정부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 행정사무관 김 경 환 사서주사 유 환		

4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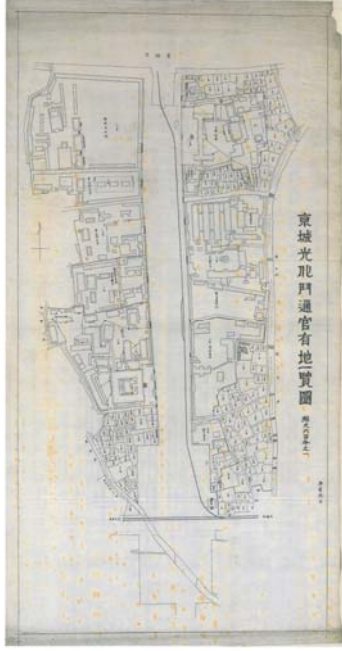
2. 도면

1) 배치도류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
시설명	광화문외제관아
개별건물명	제관아
시설유형명	기타
연도	1907년
공사유형명	기존건물
주제	고적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1907년 현재 세종로 사거리 양 옆의 관청들의 건물 배치도 • 내부청사의 간단한 건물 배치를 파악할 수 있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성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	
시설명	광화문통 관유지	
개별건물명	광화문통 관유지	
시설유형명	기타	
연도	1910년대 후반	
공사유형명	기존건물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1910년대의 세종로(당시 광화문통) 양옆의 관유지의 배치도 - 당시 경기도청사의 간략한 건물 배치를 파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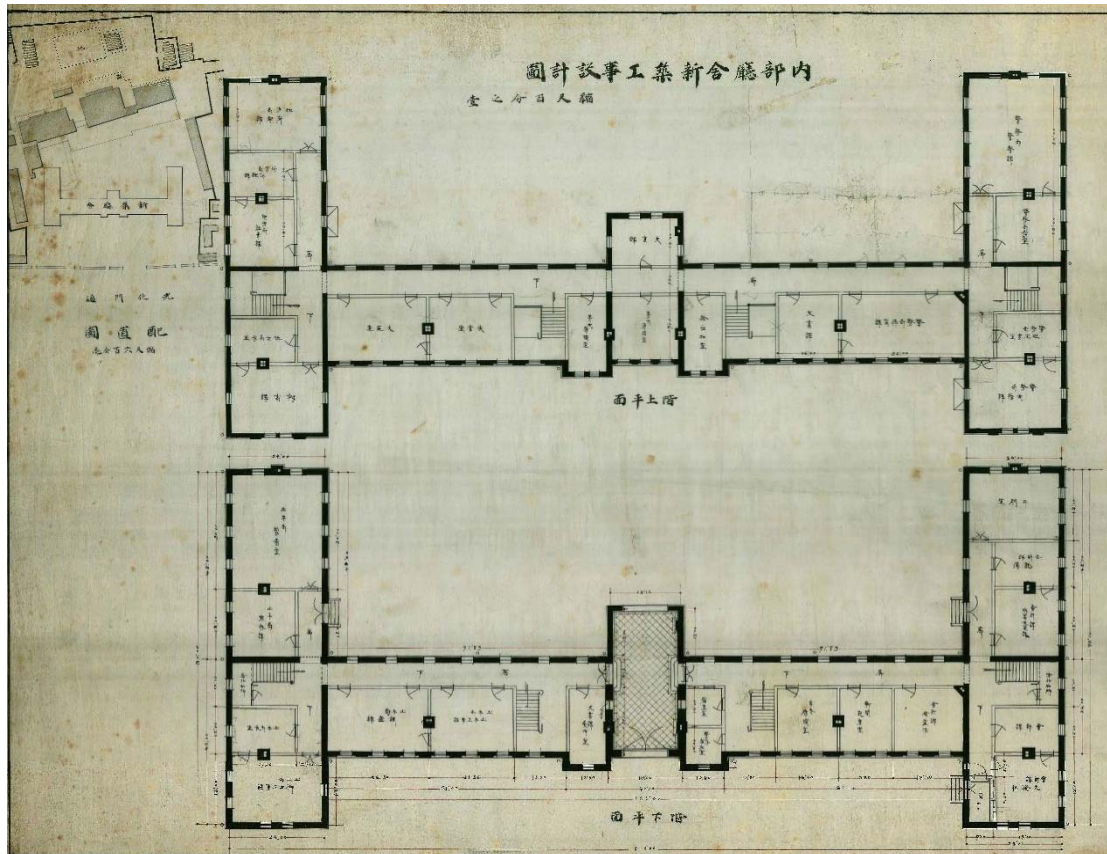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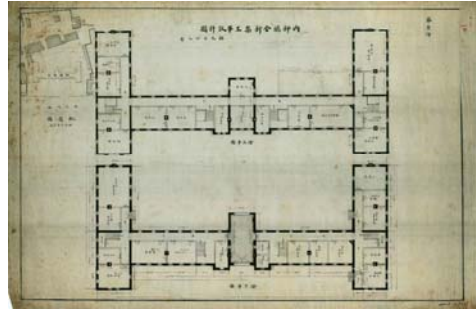
2) 내부청사 도면

- 1909년 내부청사 건립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현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음. 광화문통의 청사 도면 및 대화정의 관사 도면이 있음.
- 청사 도면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장에 대해서는 제1호~제12호로 도면 번호가 붙어 있음.
- 각 도면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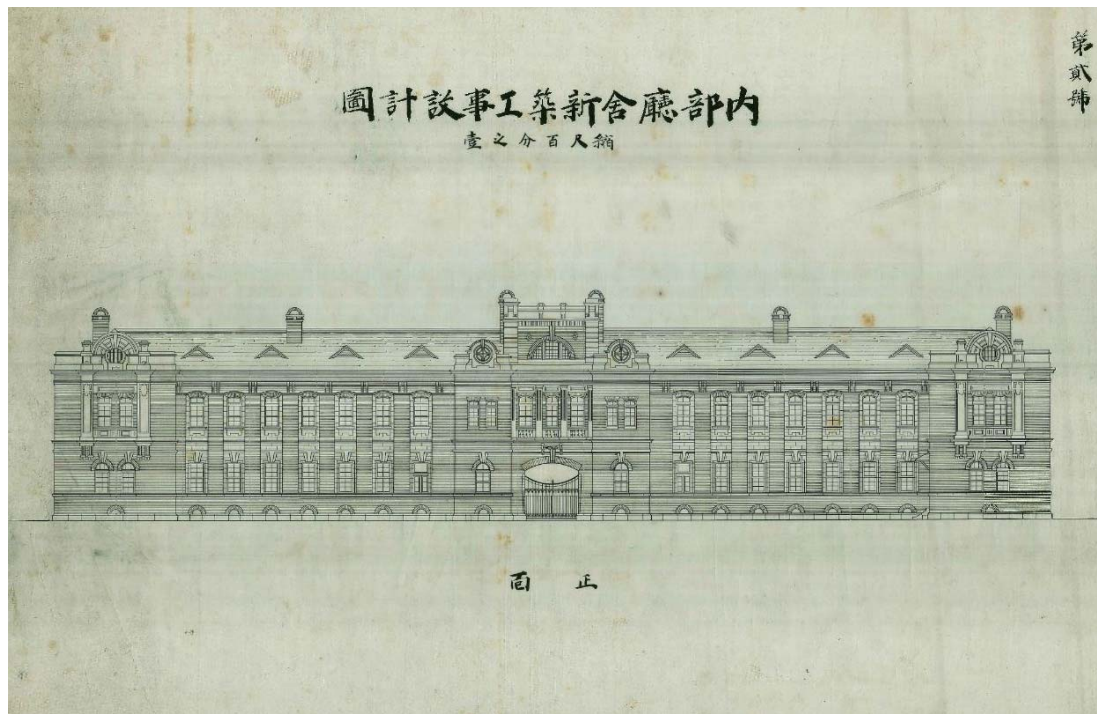
호수	지도 제목	내용
제1호		배치도 및 평면도
제2호	정면도	정면도
제3호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내면도, 중앙 일부 종단면도, 단면도
제4호	지형항타평면(地形杭打平面)	기초 평면도
제5호	지형급상복(地形及床伏)	1층 바닥틀 구조 양시도, 지형 양시도, 연돌(굴뚝)하 지형상세도, 중앙지형상세도, 목조칸막이아래지형동자주상세도 등
제6호	상복급소옥복(床伏及小屋伏)	지붕틀 구조도, 지붕 평면도, 2층 바닥틀 구조 양시도
제7호	현관정면상세	본관 정면 중앙부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제8호	중앙상세	지붕틀 구조 상세도, 중앙 상부 단면도, 계단 하부 평면도, 천장 양시도, 복도 승강구 정면도, 내면도, 단면도
제9호	구계상세(矩計詳細)	횡단면도 및 전면 일부 입면도, 후면 일부 입면도. 창면부 평면도, 굴뚝 입면도 및 단면도
제10호	각가상세(角家詳細)	건물 양끝 돌출부 정면의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일부 상세도
제11호	표입구지발구급수부구응접상세(表入口支撥口及受付口應接詳細)	본관 좌우측의 사무동 입구의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 본관 지발구(支撥口)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본관 현관 안 접수창구의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 응접실 장식 상세도
제12호	계단상세	본관 계단 상세도 / 계단부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 계단실 창의 외부 입면도, 내부입면도
	내부청사문급석장신설상세도(內部廳舍門及石牆新設詳細圖)	내부청사 앞 담장 및 대문 퍼면도, 입면도, 단면도
	내부청사당호급요당호설계변경도(內部廳舍唐戶及腰唐戶設計變更圖)	내부청사 본관에서 설계 변경된 당호 및 요당호의 입면도, 단면도, 일부 평면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1호 배치도 및 평면도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내부청사 본관을 신축하기 위해 작성한 도면. • 좌측 상부에 작게 간략한 배치도가 있고 중앙에 1층 및 2층의 평면도가 있음. • 평면도에는 실명칭까지 기입되어 있어 당시 조직 및 구성 파악에도 도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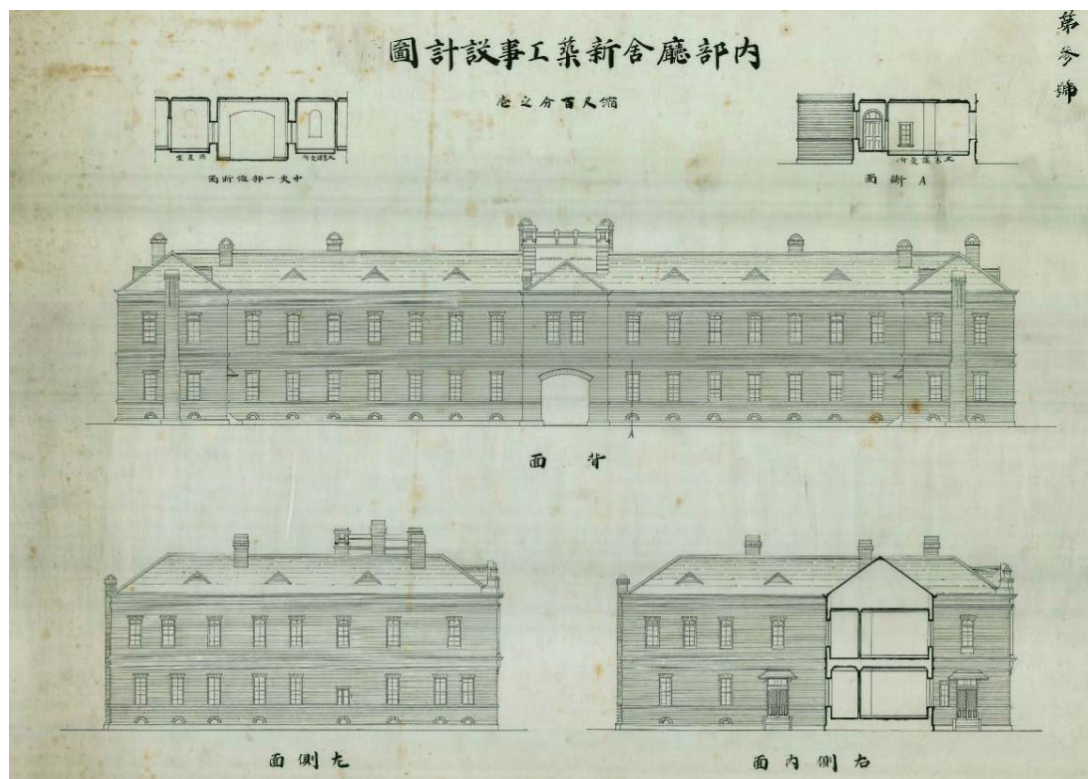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2호 정면도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내부청사 본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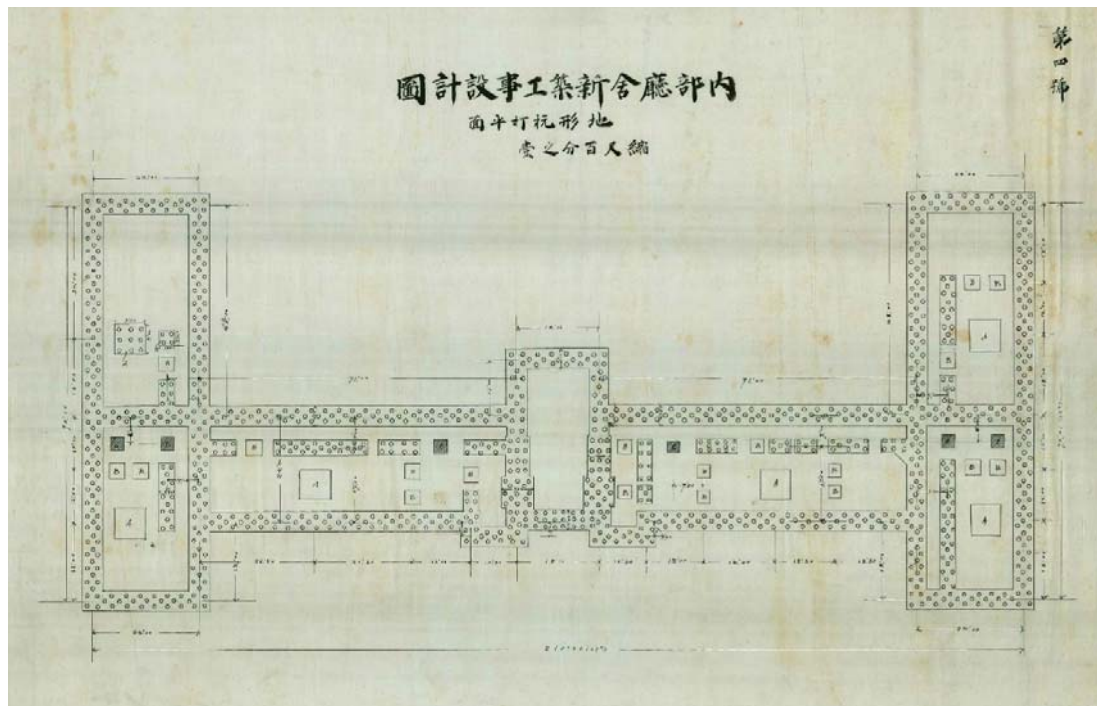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3호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내면도 등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내부청사 본관의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내면도, 중앙 일부 종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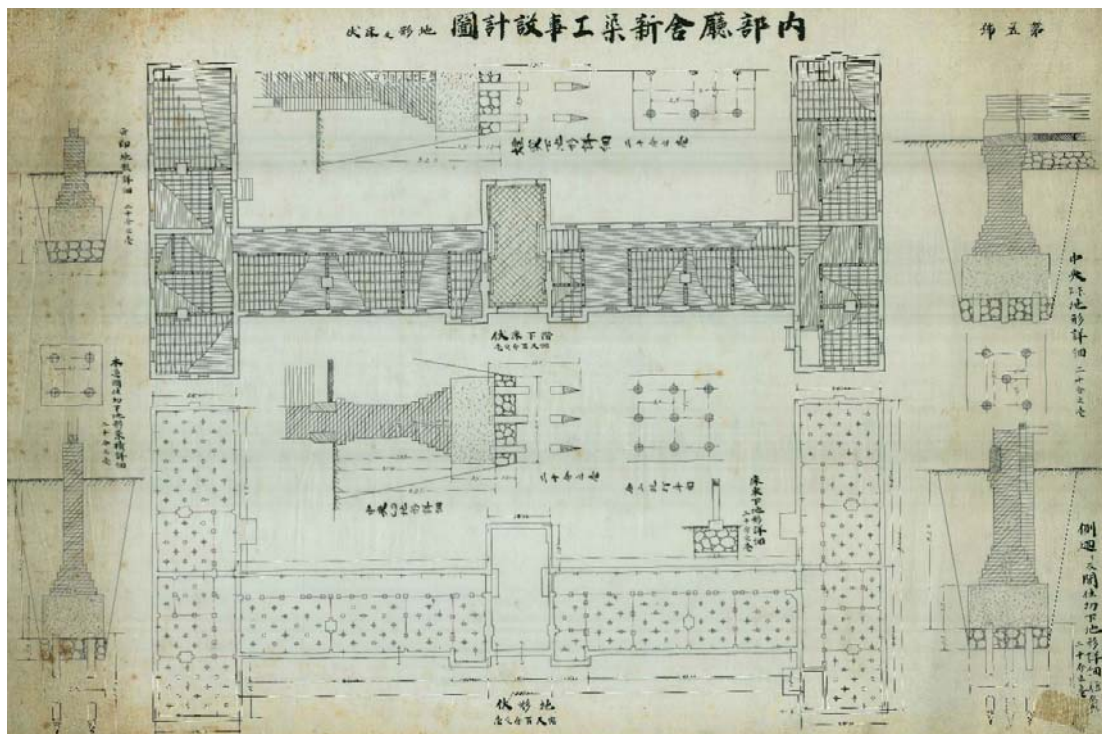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4호 지형항타평면(地形杭打平面)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내부청사 본관의 기초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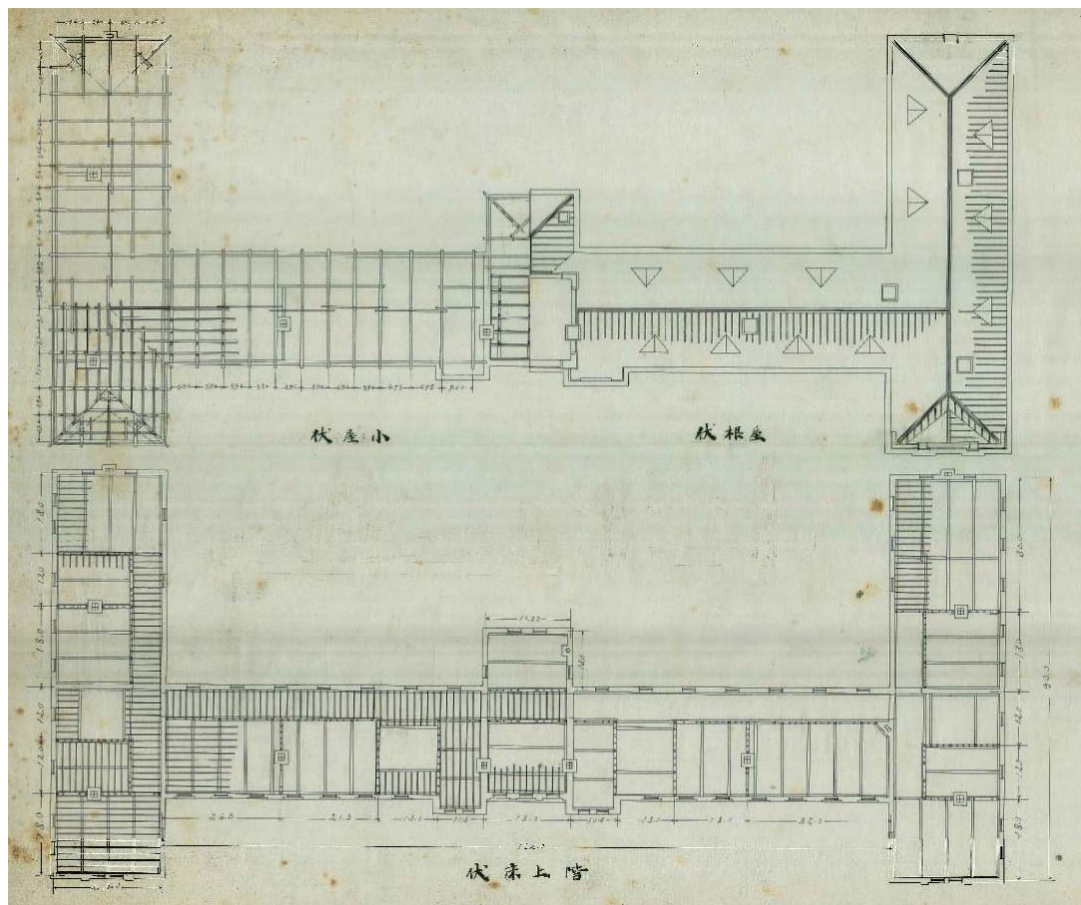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5호 지형급상복(地形及床伏)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1층 바닥틀 구조 양시도 • 지형 양시도 • 연돌(굴뚝)하 지형 상세도 • 중앙지형상세도 • 목조칸막이아래지형동자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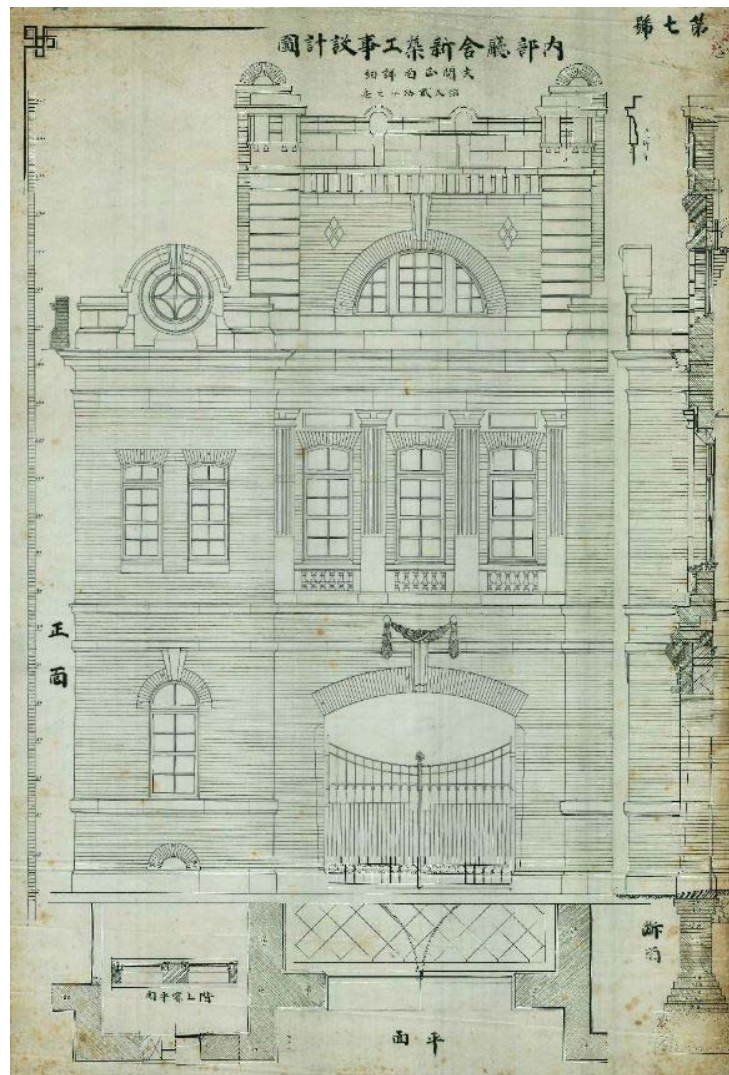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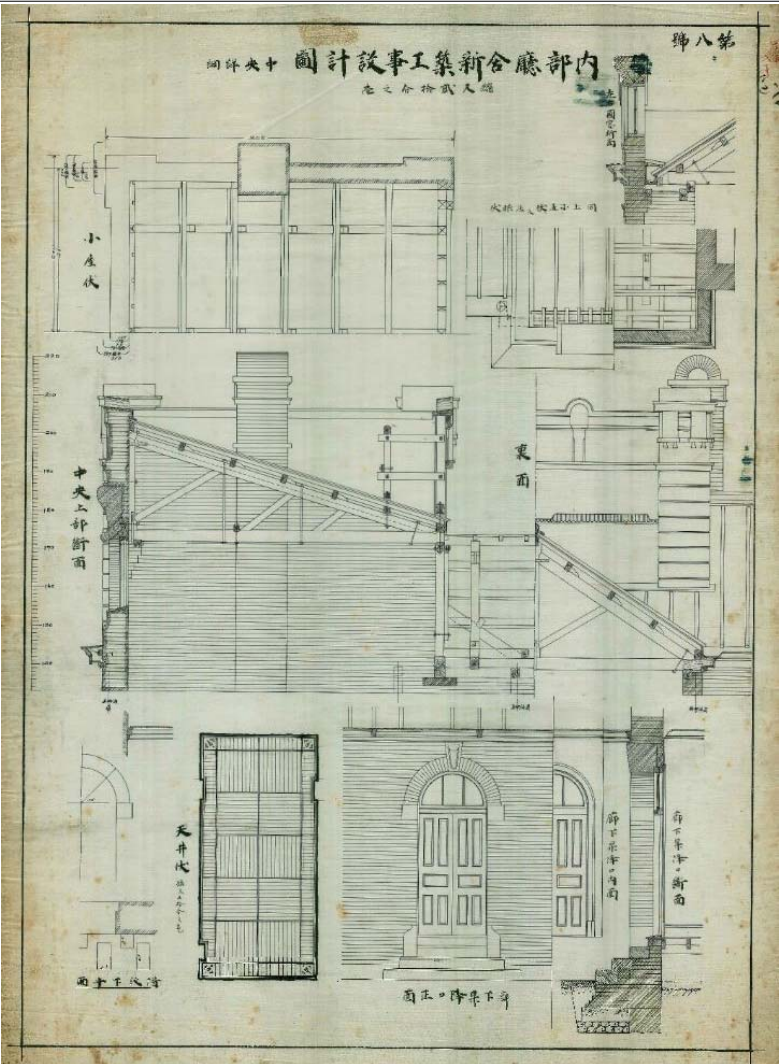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6호 상복급소옥복(床伏及小屋伏)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지붕틀 구조도(천장 양시도) • 지붕 평면도 • 2층 바닥틀 구조 양시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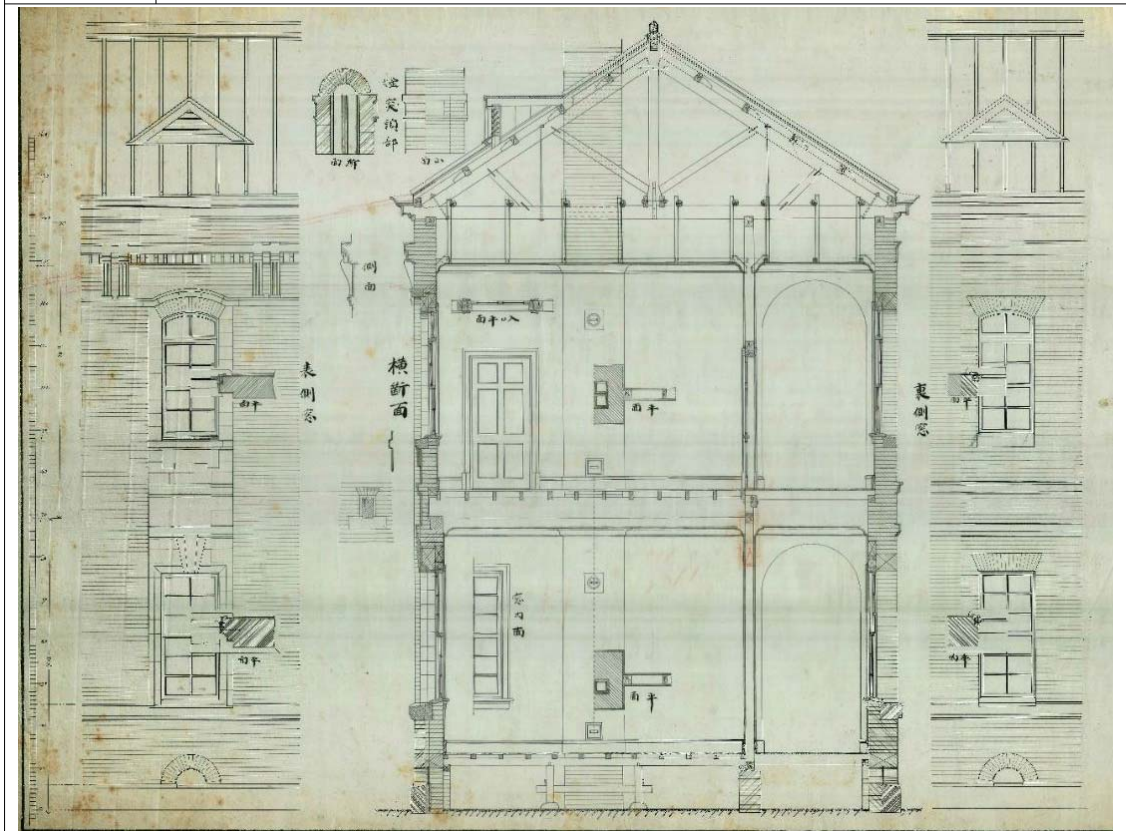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7호 현관 정면 상세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본관 정면 중앙부의 입면 및 단면, 1층 현관 평면도가 한 장에 함께 그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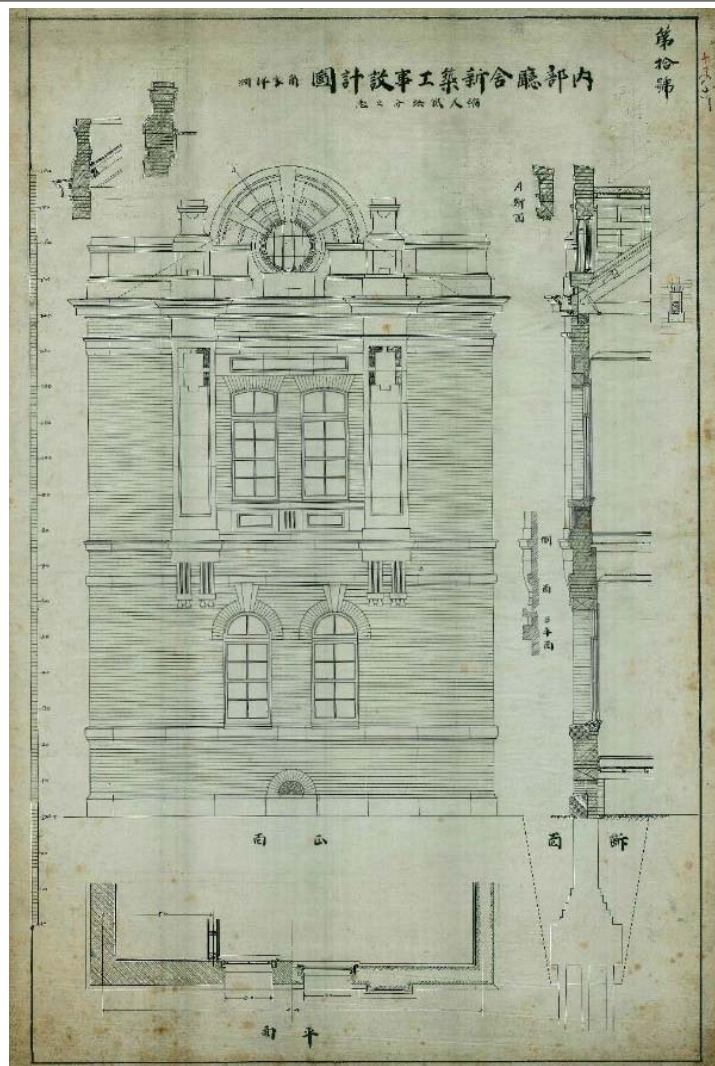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8호 중앙상세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지붕틀 구조 상세도 • 중앙 상부 단면도 • 계단 하부 평면도 • 천장 양시도 • 복도 승강구 정면도, 내면도, 단면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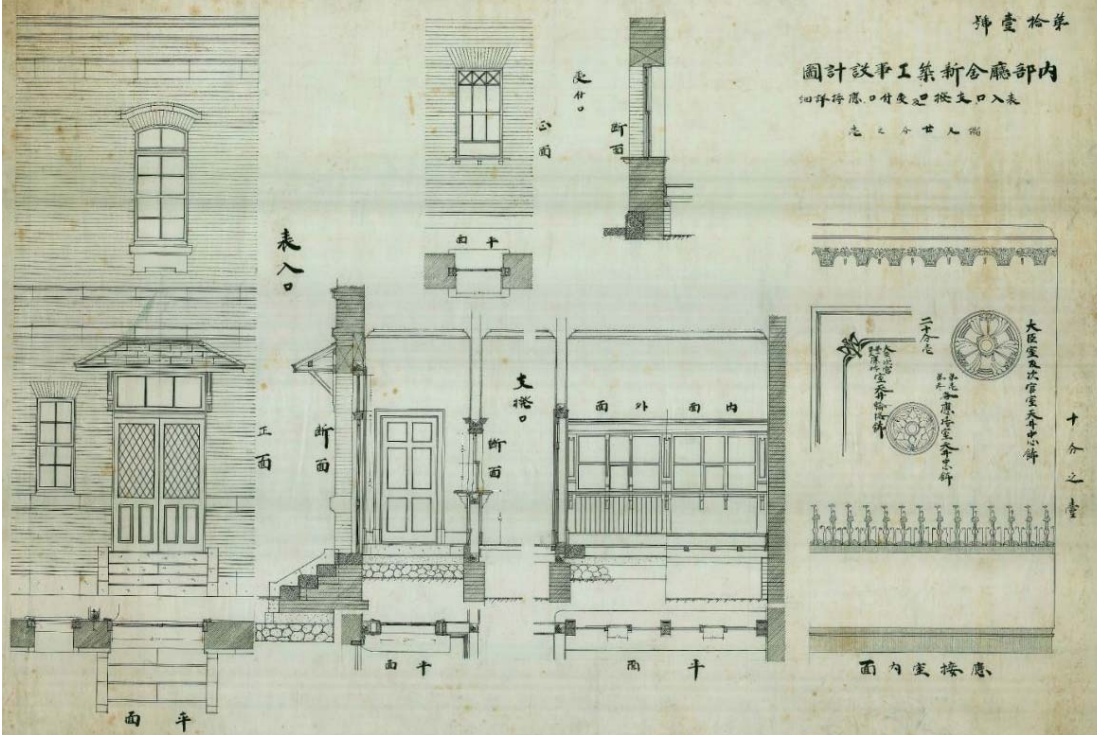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9호 구계(矩計)상세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구계란 건물 각부의 높이를 상세히 정하기 위한 단면도를 말하며, 지반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높이를 표시한다. - 횡단면도 및 전면 일부 입면도, 후면 일부 입면도. 창면부 평면도. - 굴뚝 입면도 및 단면도.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10호 각가(角家)상세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건물 양끝 돌출부 정면의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일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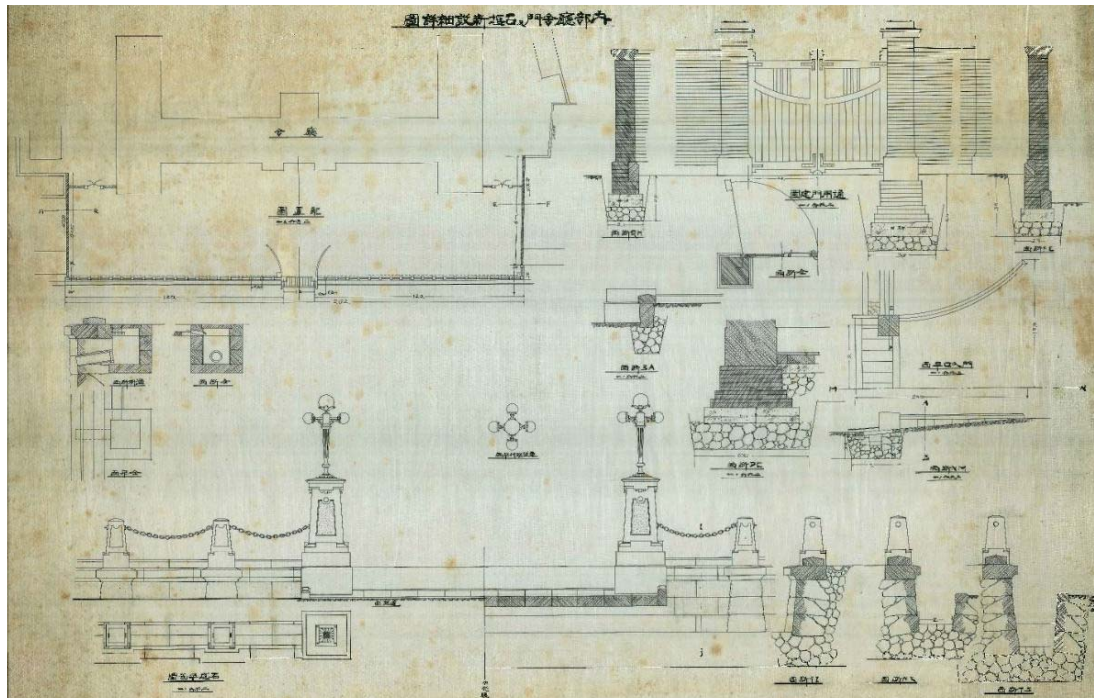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11호 표입구지발구급수부구응접상세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본관 좌우측의 사무동 입구의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 본관 지발구(支撥口)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본관 현관 안 접수창구의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 응접실의 장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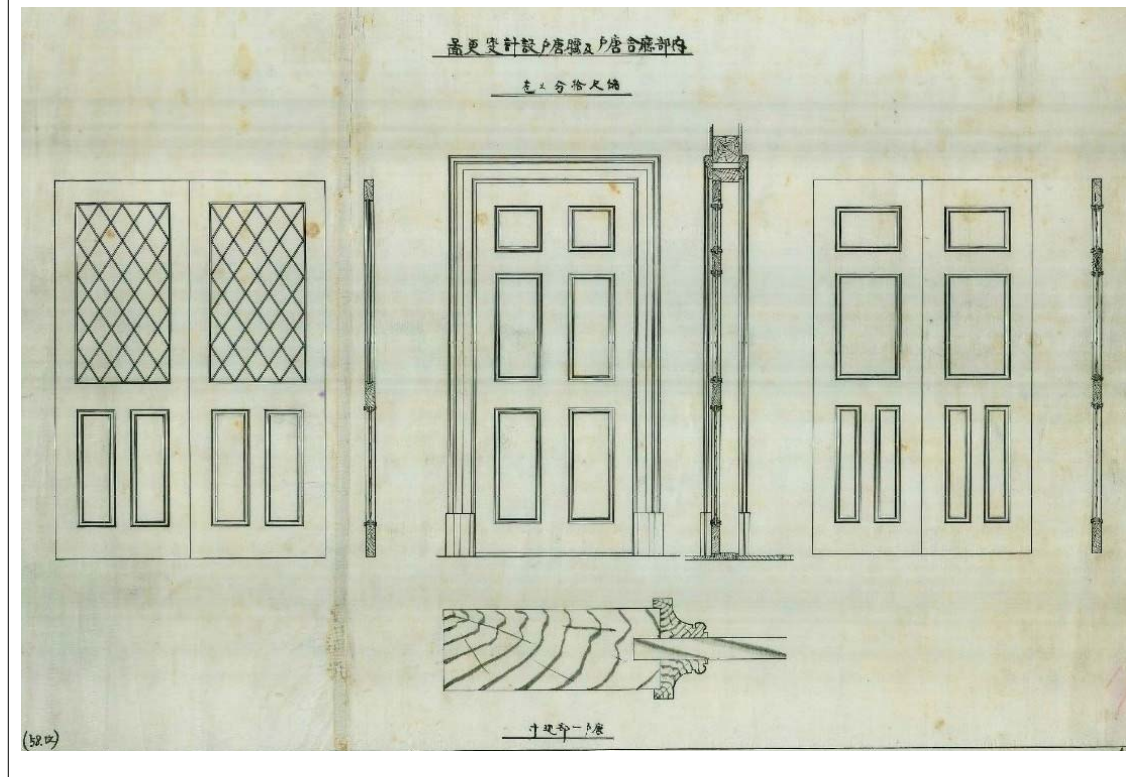
도면명	내부청사신축공사설계도 제12호 계단상세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본관 계단 상세도 • 계단부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 계단실 창의 외부 입면도, 내부입면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도면명	내부청사문급석장신설상세도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신축한 내부청사 본관 앞 세종로에 면한 경계의 담장 및 대문 도면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이 한 장의 도면에 함께 그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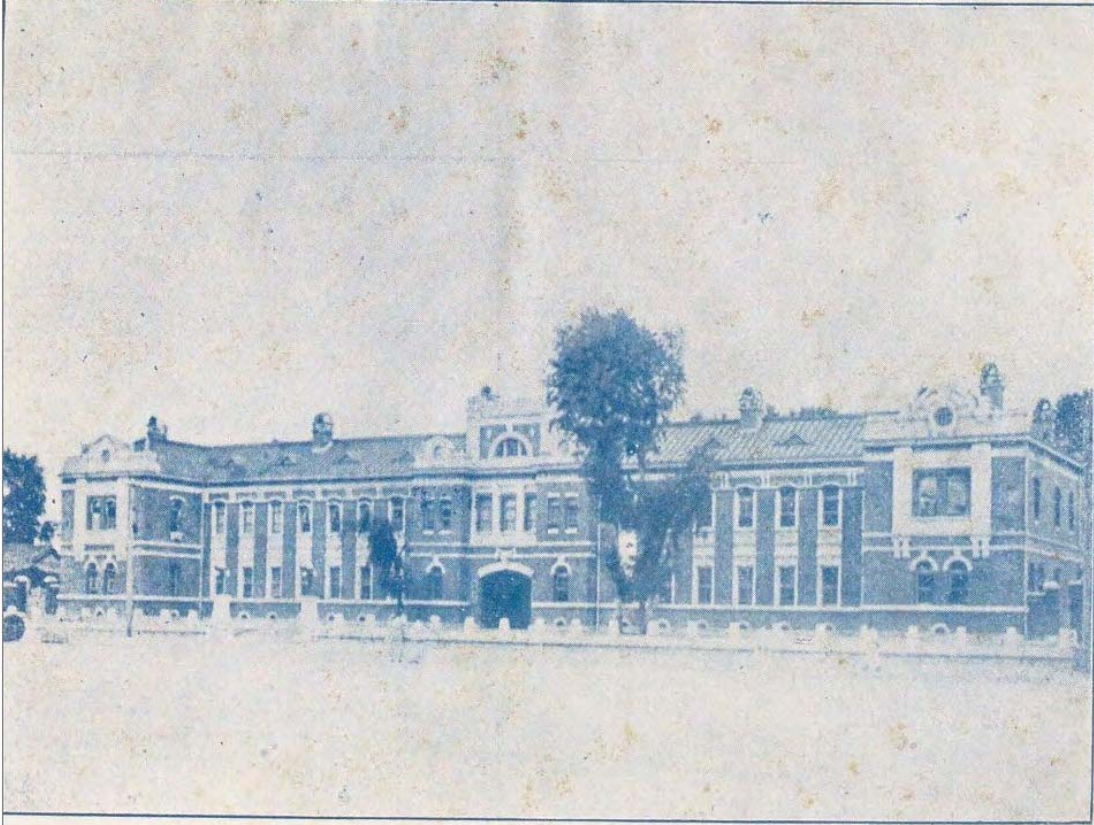


도면명	내부청사당호급요당호설계변경도
시설명	내부청사
개별건물명	본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09-1910년
공사유형명	건물신축
주제	행정
출처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비고	• 당호(唐戶)는 당판문, 요당호(腰唐戶)는 상부는 유리를 끼운 당판문을 말함. • 내부청사 본관에서 설계가 변경된 당호 및 요당호의 입면도, 단면도, 일부 평면도.



3. 사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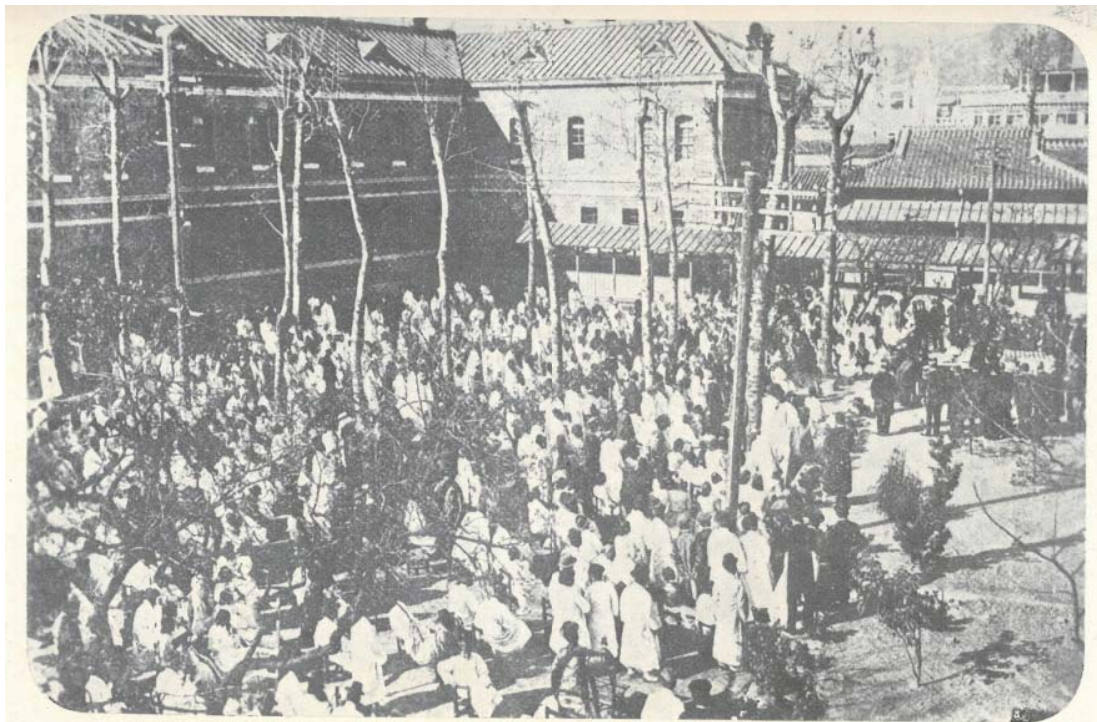
제목	경기도청사
촬영자	-
대상	경기도청사 본관
규격	- (단행본 수록 도판)
촬영시기	1910~1912년
출처	경기도, 「경기도요람」, 1912.
비고	• 1912년 이전 신축 초기 본청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임. • 신축한 본청사와 전면 담장, 전면 수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京 畿 道 廳	

제목	조선풍경(경기도청)
촬영자	-
대상	-
규격	- (단행본 수록 도판)
촬영시기	일제강점기
출처	문화콘텐츠닷컴
비고	- 일제강점기에 경기도청 정면을 찍은 사진. - 중앙부를 중심으로 정면 일부가 촬영되어 있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제목	목배병주효료수여식(木杯并酒肴料授與式)
촬영자	-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10년~1916년
출처	경성부, 「경성부사」, 646쪽.
비고	- 경기도청 본관 및 정본당 사이의 정원에서 개최된 행사(木杯并酒肴料授與式)를 촬영한 사진 - 본관 후면, 1910년에 설치된 복도각, 복도각 뒤 기존 건물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진임.



(照參四の章七第編二第・庭後廳道畿京) 式與授料肴酒並杯木

제목	-
촬영자	-
대상	경기도청사
규격	- (단행본 수록 도판)
촬영시기	1928~1931년
출처	砂本文彦著, 「図説 ソウルの歴史 漢城・京城・ソウル 都市と建築の六〇〇年」, 河出書房新社
비고	• 1920년대 말경 촬영된 조선총독부 주변 항공사진에서 경기도청 부분을 크랍하였음. • 서남측 부지 일부는 촬영되지 않음. • 경기도청 전모를 알 수 있는 사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임. • 의정부 시대부터 있었던 정본당, 협선당 외에 1910년 신축 본관, 1928년에 새로 건설된 회의실 건물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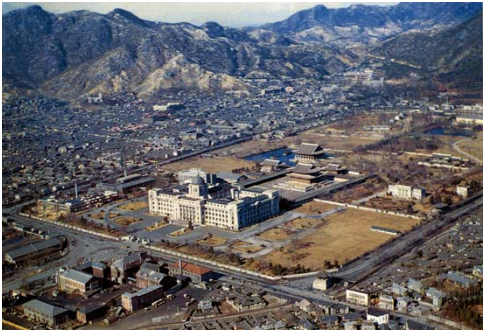
제목	-	
촬영자	-	
대상	세종로 및 경기도청사 일부	
규격	유리건판	
촬영시기	1937년 이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비고	• 조선총독부 정면에서 세종로(광화문통)를 향하여 찍은 사진 중 경기도청 부분을 크랍하였음 • 회의실 건물 북측 전경, 1928년 이축한 2층 양식 목조 건물 입면, 본관 북측 입면 일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 본관 후면에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1937년 이후의 사진임	



제목	해방 직후 하늘에서 본 경복궁 전경	
촬영자	Don O' Brien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45년	
출처	“해방 직후 하늘에서 본 경복궁 전경”, NEWSIS, 2008년 4월 23일자	
비고	• 광복 직후 조선총독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일대를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경기도청 부분을 크랍하였음. • 부지 남측은 촬영되어 있지 않음. • 이 시기에는 아직 정본당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진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제목	조선총독부와 경복궁 전경	
촬영자	-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46년 이후	
출처	서울포스트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29977)	
비고	• 중앙청 및 경복궁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경기도청 부분을 크랍하였음. • 본관 우측 날개채가 소실된 것으로 보아 1946년 이후의 사진임. • 이 시기 본관 뒤 정본당 및 협선당도 소실된 것을 알 수 있음. • 유치장 건물에서 벽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목	-	
촬영자	-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47년	
출처	서울포스트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29977)	
비고	- 광화문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경기도청 부분을 크랍하였음. - 당시 남아 있는 건물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제목	서울소재 구 경기도청
촬영자	-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46년 이후
출처	경기도, 『경기도사』 2권, 1982.
비고	• 본관 정면을 촬영한 사진. • 우측 날개채가 소실된 부분과 마감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1937년에 증축된 정면 앞 포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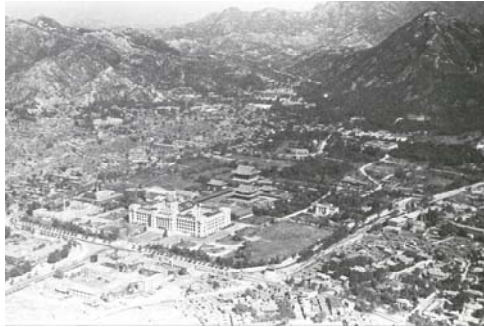


제목	서울 경복궁과 중앙청 주변의 모습(1954)	
촬영자	임인식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54년	
출처	임인식, 임정의, 『그때그모습』, 발언, 1995.	
비고	• 광화문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경기도청 부근을 크랍하였음. • 세종로 쪽에서 촬영된 드문 사진으로 당시 정면부 건물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제목	서울 경복궁과 중앙청 주변의 모습(1954)	
촬영자	임인식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54년	
출처	임인식, 임정의, 『그때그모습』, 발언, 1995.	
비고	• 광화문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경기도청 부근을 크랍하였음. • 남측에서 촬영되어 남측 건물군들의 입면 및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제목	서울 중앙청과 경복궁 주변의 모습 (항공촬영 / 1954)	
촬영자	임인식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54년	
출처	임인식, 임정의, 『그때그모습』, 발언, 1995.	
비고	• 광화문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경기도청 부근을 크랍하였음. • 동남측에서 촬영되어 남측 및 동측 건물군들의 입면 및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제목	눈 내린 서울 시내
촬영자	-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56년 3월 12일
출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2권, 국정홍보처, 1999.
비고	• 광화문에서 동남측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으로 경기도청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회의실 건물, 본관 북측 입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제목	경복궁 항공사진	
촬영자	-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65년 8월 17일	
출처	국정홍보처, 『대한민국정부기록사진집』 2권, 국정홍보처, 2002.	
비고	• 경복궁을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경기도청 부근을 크랍한 것임. • 1960년대의 경기도청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측 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 외 대부분의 건물은 1940년대 이후 거의 그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세종로 경기도청

제목	1978년 모습
촬영자	-
대상	-
규격	-
촬영시기	1978년
출처	서울특별시, 『하늘에서 본 서울의 변천사』, 서울특별시, 2013.
비고	• 1978년 항공사진에서 구 경기도청 영역을 크랩한 사진임. • 본관의 소실된 날개채 부분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V. 매산로 경기도청 연혁

1. 경기도청의 탈서울 논의와 수원 이전
2. 매산로 경기도청 신축계획과 공사
(1960년대)
3. 매산로 경기도청의 증개축
(1970년대, 1980년대 전반)
4. 매산로 경기도청의 현대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5. 경기도청의 현재

1. 경기도청의 탈서울 논의와 수원 이전

1) 해방 이후 경기도청 임시 이전의 연혁

해방과 함께 미군은 한반도 38도선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在朝鮮美陸軍司令部軍政廳, 약칭 ‘미군정’ 또는 ‘미군정청’,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을 설치하였다. 미군정에서는 1946년 9월 18일에 <서울특별시의 설치>(군정법령 제106호)를 공포하였다.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하여 각 도와 같은 독립적 위상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명칭은 서울특별시로 개편한다는 것이 법령의 주안점이다. 서울특별시가 갖는 수도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¹⁾ 경기도 입장에서는 핵심지역인 서울시가 분리됨으로써 재정수익 축소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으며, 경기도민과 다른 서울특별시민의 위상이 발생함으로써 지역적 차이가 새로이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경기도청사가 경기도가 아닌 행정구역에서 운영되는 상황이 됨으로써, 차후 경기도청사 이전 문제의 잠재적 불씨가 되었다.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〇六號)²⁾

서울特別市の設置

第一條 京畿道 管轄로부터 서울市の 分離
서울市를 京畿道 管轄로부터 分離함.

第二條 特別市の 設置
서울市는 朝鮮의 首都로서 特別市로 함. 서울市는 道와 同等한 職能 及 權限이 有함.

第三條 本 令의 目的을 達成기 爲한 移管
從前 서울市에 關한 京畿道の 諸般 職能 權限 及 記錄은 서울市에 移管함. 京畿道 職員 中 서울市에 關한 事務를 擔當한 者는 人事行政處의 推薦에 依하여 法에 規定된 方法으로 서울市에 移任함. 人事行政處는 이에 關하여 豫히 京畿道知事 及 서울市長과 協議함을 要함. 京畿道の 經費 及 基金 中 서울市에 關한 部分은 財務部 司計局長의 指示에 依하여 法에 規定된 方法으로 서울市에 移管함. 司計局長은 이에 關하여 豫히 京畿道知事 及 서울市長과 協議함을 要함.

第四條 서울市の 管轄 區域
서울市는 現在의 區劃에 따라 八區로 構成함.
鍾路區, 中區, 麻浦區, 城東區, 西大門區, 東大門區, 龍山區, 永登浦區

第五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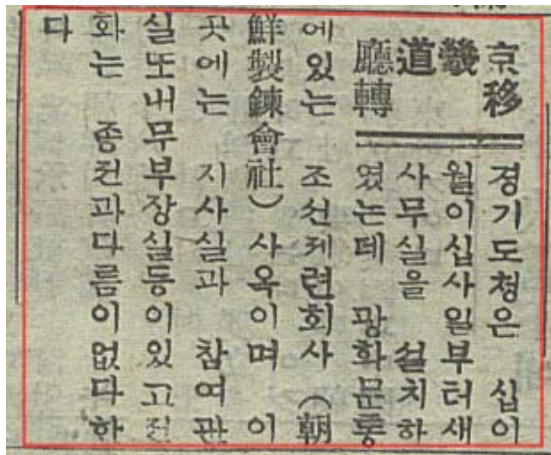
경기도청사 이전 논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세종로 경기도청사를 미군정이 사용함으로써 경기도청의 사무공간이 청사 밖으로 이동하게 된 때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청은 1945년 12월 24일부터 조선제련주식회사에 새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³⁾ 조선제련회사에

1) 『동아일보』, 1946.09.21., 「서울특별시로 신발족, 부청은 서울시청으로」

2) 위키문헌 홈페이지 (<https://ko.wikisource.org/wiki>)

3) 『대동신문』, 1945.12.26., 「경기도청은 조선제련」; 『민중일보』, 1945.12.27., 「경기도청이전」

서는 도지사실, 도참여관사무실, 내무사무실, 경기도재산관리과사무실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토목과는 토목회관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조선제련주식회사는 1935년 설립되었으며,⁴⁾ 당시 사무실의 위치는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로 현재 한국프레스센터(중구 세종대로 125)의 북쪽 광장에 해당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이 철수함으로써 경기도청은 같은 해 1948년 11월 초에 세종로 청사로 복귀하였다.⁵⁾ 청사를 떠난지 3년여 만의 일이었다.



『민중일보』, 1945.12.27, 「경기도청이전」



조선제련주식회사의 위치도(서울시, 『서울特別市全圖一覽圖』, 중앙지도문화사, 1966, 부분편집)

경기도청 청사의 세종로 청사 복귀는 경기도청의 경기도 이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의 각의에서 대략적으로 “경기도청은 해당 행정구역내로 이전한다”로 결의함으로써 각 도의 경기도청 유치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⁶⁾ 당시 경기도 제1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진 인천과 조선시대 경기관찰부가 있었던 수원이 주된 경쟁상대가 되었고, 의정부와 안양 등의 지역에서도 경기도청 소재지의 위상을 노리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8년 12월 24일, 수원에서는 ‘경기도청이전기성회’(京畿道廳移轉期成會)를 창립하고 경기도청 수원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무장관과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⁷⁾

미군정청의 서울특별시 독립으로 개시된 경기도청 이전에 관한 논쟁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잠시 정지되었다. 부산 완월동1가 4번지로 피난하였던 경기도청은⁸⁾ 전세(戰勢)가 변화하여 1951년 3월 수원에 소재한 화성군청을 임시 경기도청으로 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구 화성군청 자리는 현재 수원화성 내에 건립된 선경도서관 자리에 해당한다.¹⁰⁾

4) 1945년 발행 조선제련채권을 참조(소석산방 홈페이지. <http://sssb.co.kr>)

5) 『동아일보』, 1948.11.04, 「경기도청이전」

6) 경기도, 『경기도청 50년사』, 2002, 133쪽

7) 『동아일보』, 1948.12.29, 「도청이전을 수원군민이 진정」

8) 『동아일보』, 1951.02.05, 「피난민 회람판」

9) 『동아일보』, 1950.11.13, 「경기도청 수원에 이전, “도청사가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수원의 청사관계로 명년三月까지 이전을 연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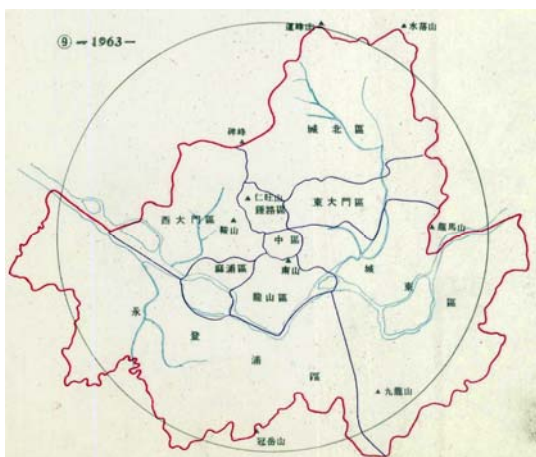
10) 『매일경제』, 1993.07.08, 「선경그룹 도서관 건립」. 이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소재 舊경기도청자리 3천6백평 대지에 세워지는 선경도서관은...”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구 화성군청 자리는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3(현, 후생내과 의원 자리) 앞에 표지석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1993년의 이 신문기사에 따르면 현재의 선경도서관 자리에서도 화성군청의 일부가 사무를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은 청사 이전에 관한 논의를 재발시켰다. 수원에서는 ‘경기도청 존치위원회’와 ‘경기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을 수원에 정착시키려 하였으며, 1953년부터 인천에서는 경기도청의 인천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¹¹⁾ 이와 같은 경기도 각 지역의 도청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은 1953년 8월28일 세종로 경기도청 청사로 복귀하였다.¹²⁾ 경기도청 이전 논의가 향방을 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환도하는 중앙정부 중에서 외무부, 검찰위원회가 세종로 경기도청사를 사용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이다.¹³⁾

결과적으로 경기도청사는 세종로 경기도청사로 돌아왔지만, 경기도 각 지역의 경기도청사 유치 노력은 확대·지속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2년 재개된 지방자치는 경기도가 경기도청사를 경기도 내로 이전시키고 지방자치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를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이전 지역 논의는 향후 10년간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오랫동안 전개되었다.

2) 경기도청 이전사업 논의와 수원 이전 결정

경기도청의 이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은 군사정부가 1962년 12월 14일 단행하고 196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였다. 남한에서 가장 많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때라고 평가되는 1962년의 개편은,¹⁴⁾ 현재 규모의 서울특별시 경계 확장,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 수원읍의 수원시 승격, 의정부시의 설치 등을 담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의 도시 집중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었지만, 경기도청과 경기도 간의 거리는 지리적으로 보다 멀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3년 확장된 서울특별시 경계
(<서울도시계획도집>, 1965, 부분편집)



경기도청 이전 경쟁지역

11) 경기도, 앞의글, 2002, 134쪽

12) 『동아일보』, 1953.08.30, 「경기도청복귀」

13) 『동아일보』, 1953.07.21., 「행정사무도 본궤도, 각부처별청사결정」

14) 오재일·박정민, 「남북행정구역의 변천과 발전방향」, 『행정논총』, 제40권, 제2호, 2002, 38쪽

이때부터의 경기도청 유치경쟁은 형식적으로 수원시와 인천시, 안양시의 삼파전이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수원시와 인천시의 맞대결이었다.¹⁵⁾ 이와 함께 1963년은 10월 15일의 제5대 대통령 선거와 11월 26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연이어 진행되는 선거의 해이었다. 경기도청 이전은 지역 국회의원의 최우선 선거공약이 되었고, 수원시와 인천시의 경기도청 유치경쟁은 과열되었다.¹⁶⁾ 또한 수원과 인천에서 각각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병희, 유승원은 모두 군복무를 마치고 민정대열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경기도청 이전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려는 의지도 강력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원시는 이전까지 수원상공회의소가 은밀하게 진행시켜 왔던 도청 유치 작업을 '경기도청수원이전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공식화하였다. 위원회는 경기도청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추진한 이병희 개인의 노력과 함께 수원시의 전반적 발전을 갈망하는 시민의 의지가 결합되어 조직되었고, 수원상공회의소가 공적 업무를 맡는 등 민간에서 조직된 단체이다.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배경에는, 인천시와 안양시가 공업지대로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과 달리 수원시는 조선시대 수원 화성이 건립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농업도시로서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청의 이전은 최종 결정이 도출되지 전까지는 누구도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민감한 상황이었다. 1963년 4월 12일 당시 박창원 경기도지사가 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¹⁷⁾ 11월 25일에는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어¹⁸⁾ 곧바로 정정기사가 발표되는 해프닝도 발생하였다.¹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천은 '도청유치 시민대회'를 기획하고 당일엔 철시(撤市)를 단행하는 강경책을 결의하였다.²⁰⁾ 반면 수원은 경기도청 이전지가 수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비공식 소식을 상당부분 신뢰하며 법령이 공포된 이후의 일들을 계획하였다고 전한다.



상공회의소 건물에 마련된 경기도청 수원이전추진위원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199쪽)



경기도청 이전 수원시민 환영대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앞의글, 2014, 200쪽)

15) 경기도, 앞의글, 2002, 140쪽

16) 경기도, 앞의글, 2002, 141쪽

17) 경기도, 앞의글, 2002, 142쪽

18) 『경향신문』, 1963.11.25, 「정부에서결정 경기도청 수원으로 이전」

19) 『경향신문』, 1963.11.27, 「알고보니 부도수표」

20) 경기도, 앞의글, 2002, 144쪽

경기도 각 지역의 경쟁이 각축을 이루는 가운데, 1963년 12월 11일 최고회의상임위는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게 하는 <경기도청이전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켰고,²¹⁾ 같은 해 12월 16일 법률안 1538호로 경기도의 위치를 수원시로 정한다고 공포하였다.²²⁾

國歌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京畿道位置變更에 관한 法律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權限代行
 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 朴正熙 印
 1963年 12月 16日
 內閣首班
 內務部長官 金顯哲
 京畿道 位置變更에 관한 法律
 京畿道の 位置를 京畿道水原市로 한다.
 附 則
 이 法の 施行日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경기도청 이전지가 수원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수원이 교통의 중심지이며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균형이 맞다는 점이 높에 평가되었으나,²³⁾ 세간에서는 ‘경기도청수원유치추진위원회’의 조직적인 노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성공적인 담판을 이루어낸 국회의원 이병희의 전방위적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도 전한다.²⁴⁾

3) 경기도청 부지의 마련과 기공식

수원으로 이전할 경기도청의 부지는 현재 경기도청 자리인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로 당시 고등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해당한다.²⁵⁾ 새로운 도청의 위치는 팔달산 서쪽 기슭으로 수원역과 수원 구도심인 수원화성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당시 수원시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지역으로서, 경기도청 부지 결정 과정에는 수원 시세의 확대를 기대하는 도시계획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경기도청 부지는 ‘경기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사유지를 매수하여 경기도 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진입로 부지는 경기도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²⁶⁾

21) 『동아일보』, 1963.12.12., 「경기도청을 수원에 이전」

22)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v.2, 경기도, 1982, 244-245쪽

23) 『경향신문』, 1963.12.03., 「아리송한 도청이전」

24) 경기도, 앞의글, 2002, 147쪽 ; 당시 이병희의 활동에 대해서는 수원박물관, 『1960~1970년대 수원의 권력구조와 지역사회 변화』, 2014를 참조할 수 있다.

25) 경기도, 앞의글, 2002, 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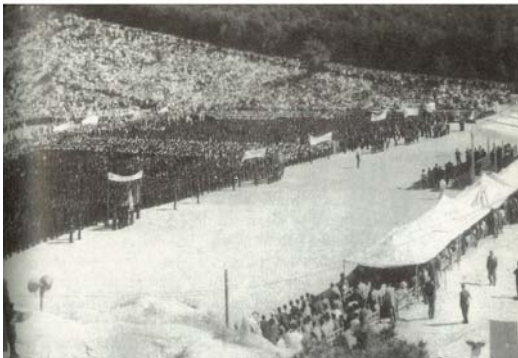
26) 『도청진입로매수(2-1)』, 1965-1966,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경기도청 부지 현황」 (경기도행정자료관 소장)

경기도청 부지 현황
(『도청진입로매수(2-1)』, 1965-1966,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경기도행정자료관 소장)



경기도청 부지의 소유 구분
(『도청진입로매수(2-1)』, 1965-1966,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경기도청 부지 현황」,
경기도행정자료관 소장)

구분	면적(평)
수원시유	3,832.00
국 유	13,372.70
귀 속	
사 유	3,767.30
소 계	20,972.00



경기도청 기공식 전경 (수원박물관, 『1960~1970년대
수원의 권력구조와 지역사회 변화』, 2014)



경기도청 기공식 전야제 화흥문화제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앞의글, 2014, 206-207쪽)

매산로 경기도청의 기공식은 1964년 10월 15일에 거행되었다.²⁷⁾ 당시 기공식에 12만 수원 인구의 1/4인 3만여명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경기도청 이전에 대한 수원시민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 소도시를 발전시킬 장기 건설계획이 있음을 밝힘으로써,²⁹⁾ 경기도청의 수원이전이 개발주의 시대의 중요한 기점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청사 기공식은 수원시의 문화적 기획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기공식의 전야제 일환으로 10월 14일에 진행된 화흥문화제에서는³⁰⁾ 횃불행진과 악단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도시를 연출하였다. 화흥문화제는 이후 지속되어 현재에는 매년 10월 15일에 화흥문화제가 정기적으로

27) 『서울신문』, 1964.09.22., 「도청, 3개년 계획으로 세원 10월 15일에 기공」

28)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2014, 353쪽

29) 『경향신문』, 1964.10.15., 「경기도청 착공 3년후준공」

30)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위의글, 2014, 354쪽, 『서울신문』, 1964.10.02., 「도청 신축기공식 날, '꽃 버스' 운행키로」

개최되었다.³¹⁾

기공식 이후 경기도청의 공사는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1965년 3월에는 공사를 위해서 부지를 정비하는 3차 정지(整地)공사가 진행되었다.³²⁾ 1966년 7월에는 본관 3층의 콘크리트 구조체를 만드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부속건물인 도청 회의실, 구내식당, 별관, 수도, 전기시설 등의 진행을 앞두고 있었다.³³⁾ 1966년 11월에는 전체 공정의 90%가 진행되었고 내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³⁴⁾



1966년 공사 중인 경기도청과 주변지역의 항공사진(출처: 국토정보플랫폼)

31) 1997년 화성행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1998년부터는 수원화성과 정조가 중심이 되는 화성문화제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32) 『서울신문』, 1965.03.17., 「도청사 신축 정지 3차 공사를 착수」

33) 『조선일보』, 1966.07.27., 「3층 기초 공사 이미 끝내 도청사 연내 준공」

34) 『조선일보』, 1966.11.26., 「내년 봄 도청 이전」

4) 경기도청 이전식과 북부출장소 개소

1967년 6월 20일 매산로 경기도청 청사가 완공되었다.³⁵⁾ 수원시 매산로3가 1번지 20,972평 부지에 완공된 경기도청사는 건평 2,648평 및 부속건물 678평으로 지난 1964년 10월 15일에 기공한 이후로 288,35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³⁶⁾



1967년의 경기도청 진입로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앞의글, 2014, 208쪽)



1967년 6월 23일 경기도청 이전식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앞의글, 2014, 209쪽)

청사 완공에 맞추어, 같은 해 6월23일에는 경기도의 위치가 수원으로 이전하는 시행일이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1963년 12월 16일 공포된 법령을 시행하는 시행령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경기도청이 수원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음을 공인하는 방편이었다. 6월 23일 오전에는 완공된 경기도청에서 시무식이 진행되었고,³⁷⁾ 3만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경기도청 이전식 및 환영 시민대회>가 거행되었다.³⁸⁾ 이전식 행사는 공식 의전 뿐만 아니라 청사 내외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관·민이 함께 즐기는 행사로 구성하였다.

경기도청의 이전과 함께 유관단체도 함께 이전하였다. 경기도위생시험소는 4월에 이미 별관에 입주하였고, 병무청, 토지개량조합, 농협도지부, 경기도교육위원회 등도 건물이 완공 되는대로 연내에 이전하기로 계획되고 있었다.

한편,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에 따라 불편이 가중될 경기도 북부 지역을 고려하여 경기도 북부출장소를 의정부로 내정하였다.³⁹⁾ 1967년 7월1일에는 경기도규칙 제405호(1967년 7월 1일)로 의정부시에 경기도북부출장소를 설치 개소하였고 총무과와 산업개발과를 두었다. 총무과에는 총무계, 행정계, 사회계, 보건계를, 산업개발과에는 농산계, 산업계, 건설계를 배치하였다.⁴⁰⁾ 북부출장소는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고양·양주·파주·연천·포천 등 5개군을 관장하고⁴¹⁾ 경미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⁴²⁾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은 서울특별시의 출현과 함께 극렬하게 진행된 경기도청 이전 운동의 결과이다.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은 수원시가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산로 일대를 개발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나, 경기도의 중심이 남쪽으로 편향됨으로써 북부지역에 대한 별도의 행정부서를 마련하는 이원적 행정체계가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5) 경기도, 앞의글, 1982, 246-247쪽

36) 『동아일보』, 1965.05.10., 「경기도청수원이전 6월15일로 결정」

37) 『동아일보』, 1967.07.22., 「내일시무식 경기도청수원이전」

38) 『경향신문』, 1967.07.23., 「경기도청 이전식」

39) 『경향신문』, 1967.03.22., 「도업무말을 군청 강원·경기에설치」

40) 경기도, 『경기도 조직변천사(1945~2006)』, 58쪽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서 참조)

41) 『동아일보』, 1967.06.24., 「의정부시에 북부출장소」

42) 『매일경제』, 1967.06.22., 「23일 수원에 이전 경기도청」

2. 매산로 경기도청 신축계획과 공사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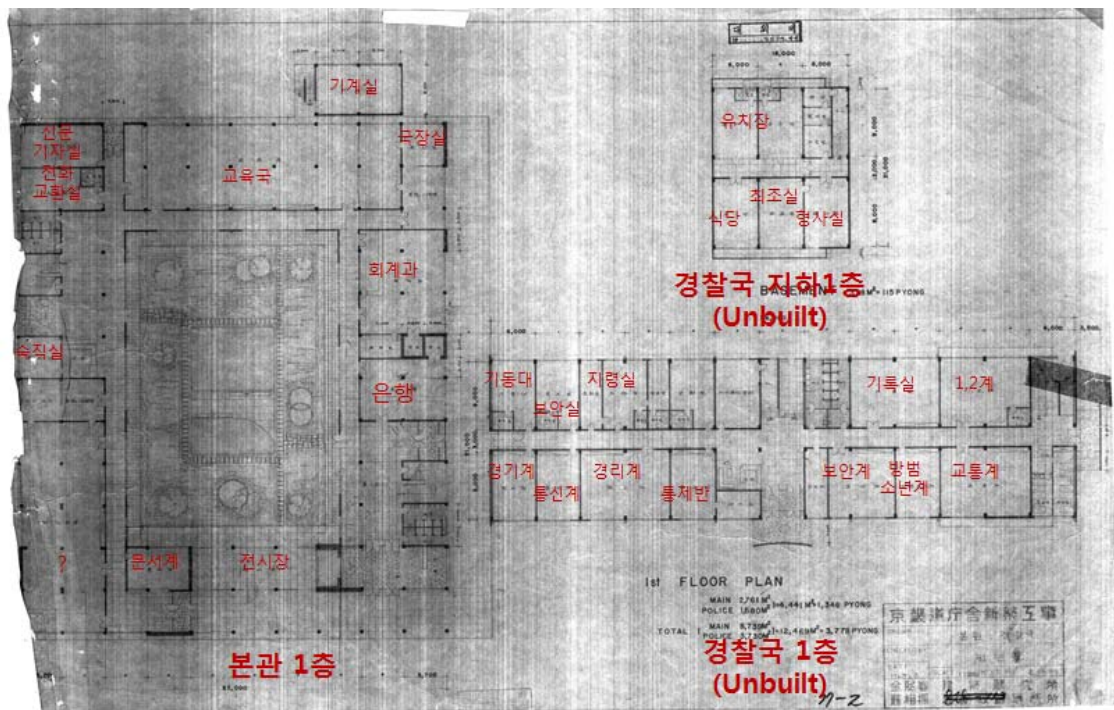
1) 1963년 경기도청 본관(구관) 설계와 설계자 김희춘·나상진

(1) 경기도청 본관(구관)의 건축계획

1967년 업무를 시작한 매산로 경기도청사의 설계는 1963년에 진행되었다. 1963년도에 작성된 경기도청사의 신축 계획안은 <경기도청사신축공사>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도청 별관과 경찰국을 함께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경찰국의 동시 건립은 1964년에 기사화된 전력이 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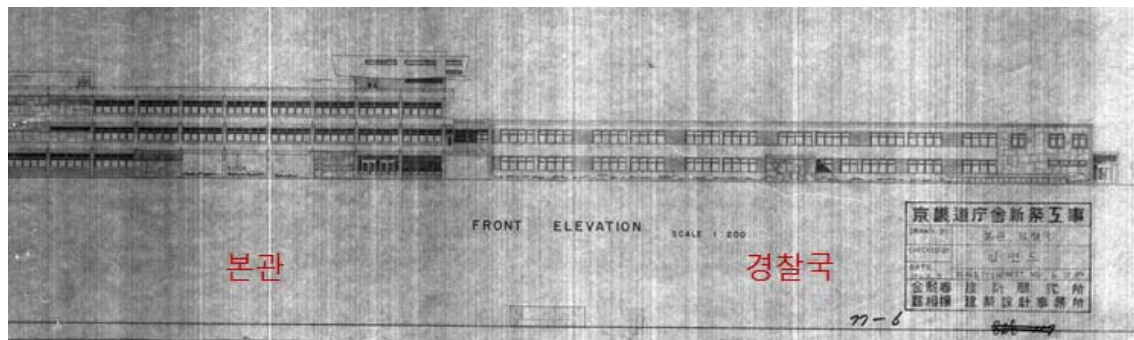
<본관·경찰국 평면도>를 보면, 진입로가 있는 남쪽을 정면으로 삼아 지상 3층 규모에 위로 돌출된 전망대 형태의 옥탑층이 있는 경기도청 본관(구관)과 지상 2층 지하1층 규모로 계획된 일자형의 경찰국이 6m 길이의 연결다리를 사이에 두고 동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경기도청사 본관(구관)과 경찰국이 인접하여 배치되었다는 점은 두 기관이 경기도청사 공간의 양대 중심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관(구관)에서 각 층마다 외벽 밖으로 돌출된 바닥판(슬라브)과 경찰국의 낮고 긴 형상, 기둥을 기준으로 반복되는 벽체를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 수평성을 강조한 건축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본관(구관) 옥상 동쪽에서 위로 솟은 전망대 옥탑은 수평적인 건축계획과 대비되어 독특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경기도청 본관(구관)과 경찰국 1층 평면도
(경기도청 소장 <본관·경찰국 평면도>)

43) 『경향신문』, 1964.10.15., 「경기도청 착공 3년후준공」



경기도청 본관(구관)과 경찰국 1층 정면도
(경기도청 소장 <본관·경찰국 입면도>)

본관(구관) 평면은 안마당(중정)을 가진 □자형으로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 기둥 간격도 동서, 남북 방향으로 5,700mm의 동일한 간격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그리드(grid)에 기초한 균질한 건축공간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一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관공서 청사의 형태와 비교해 보면, 안마당에 의해서 각 면에 위치한 실내공간에 채광과 자연환기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안마당에 식재된 조경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평면을 고려하여 1층에는 4면에 모두 출입구를 계획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1층 남쪽 주출입구 부분은 벽이 없이 차양처럼 반 실내공간을 형성하는 필로티(Piloti) 구조로 만들어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필로티 부분에서는 좌측과 우측의 출입문을 통해 내부 복도로 출입할 수 있으며, 중앙의 개방형 전시장을 통해서 안마당(중정)으로 통할 수 있게 하였다. 계단은 □자 평면 중 두 곳의 모서리 부분에 배치하여 전체 공간에서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계획되었다. 1층 각실의 배치를 살펴보면, 안내데스크가 있는 중앙 현관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은행, 회계과, 교육국, 전화교환실, 재건지부, 문서계, 전시장이 계획되었다. 그리고 본관(구관)의 북쪽 뒤편에는 3개층 높이의 보일러실이 연접하였다.

본관(구관) 동쪽에 있는 경찰국의 평면은 복도 양편으로 각실이 배치되는 중복도형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중앙 현관을 진입하면 동서방향의 복도를 통해 각 실로 다다를 수 있는 배치이다. 계단은 후면 중앙과 우측에 각 1개씩을 배치하였다. 특히 우측 계단을 사용하면 지하실로도 통할 수 있다. 경찰국 건물의 기둥 간격은 전면 6,000mm, 측면 9,000mm를 기준으로 배열되었기 때문에 균질한 공간 구성을 갖추었다.

경기도청 본관(구관)과 경찰국의 층별 실구성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청 본관(구관)과 경찰국의 층별 실구성 (1963년)

층구성	본관(구관)		경찰국	
	실명	면적(m ²)	실명	면적(m ²)
옥탑지붕층	계단	32		
옥탑층	물탱크실, 계단	260		
3층	산업국, 건설국, 보사국,	2,843		

층구성	본관(구관)		경찰국	
	실명	면적(m ²)	실명	면적(m ²)
2층	내무국, 계획감사실, 기획조정실, 진흥원장실, 지사실, 상황실, 공보실, 도서관	2,843	상황실, 국장실, 경무과장실, 보안과장실, 정통과장실, 수사과장실, 정보과장실, 1계, 2계, 상황실, 3계, 5계, 공작실, 기록계, 외사계, 공보계, 경무계, 인사계, 기획계, 감찰계	1,672
1층	로비, 전시장, 문서계, 은행, 재건지부, 전화교환실, 교육국, 회계과, 은행	2,761	경비계, 통신세, 경리계, 통제반, 장비계, 보안계, 방범소년계, 교통계, 1·2계, 기록실, 기기유선공작, 교환실, 지령실, 무전실, 보안실, 기동대	1,680
지하1층		-	유치장, 식당, 취조실, 형사실, 지문실	378
소계		8,739		3,730

경기도청 본관(구관)은 1964년 10월 16일 시작되어 1967년 6월 20일이 완공되었으나,⁴⁴⁾ 함께 설계된 경찰국은 끝내 건립되지 않았다.

(2) 건축가 김희춘과 나상진

매산로 경기도청사의 본관(구관)은 김희춘 건축연구소와 나상진 건축사사무소의 협동설계로 1963년에 완성되었다.

김희춘(金熙春, 1915~1993)은 일제강점기 때에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습하였다.(1934.05~1937.03) 졸업 후에는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 동경건물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한편, 서울 명동 백정빌딩 등의 설계에 참여하였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 건축서(建築署) 설계과장, 대륙공영주식회사 기술부장을 역임하였다. 한국전쟁 후 이균상(李均相)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교수가 되어 건축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건축설계에 참여하였다.⁴⁵⁾

대표작 중에서 수원에 소재한 사례로는 1956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사 및 강당, 1963년 경기도청사, 1967년 농촌진흥청 도서관 및 축산시험장, 농촌진흥청 인공기상실이 있다.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김희춘의 건축 설계작은 이 시기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상진(1923~1973)은 1940년 전주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인 청부업자와 카지마쿠미조(鹿島組)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1950년부터 설계사무소를 자영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나상진 본인 명의의 작품활동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10여개 남짓한 설계사무소 중에서 건축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소수 설계사무소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대의 평가에 따르면, 나상진은 순식간에 밀려오는 서구 모더니즘 건축을 한국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험한 건축가라고 하였다.⁴⁶⁾ 대표작으로는 1957년 그랜드 호텔(USOM

4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글, 1982, 246쪽

45) 김희춘은 연혁은 이광로, 「우용 김희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건축』, Vol.37 No.5, 대한건축학회, 1993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을 참조.

46) 이행철·윤인석, 「건축가 나상진의 작품활동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21, n.2, 대한건축학회, 2001. 10

KOREA), 1960년 대구 파티마 병원, 1963년 경기도청사, 1968년 서울 컨트리클럽하우스(현, 어린이대공원 꿈마루), 1969년 제일은행 인천지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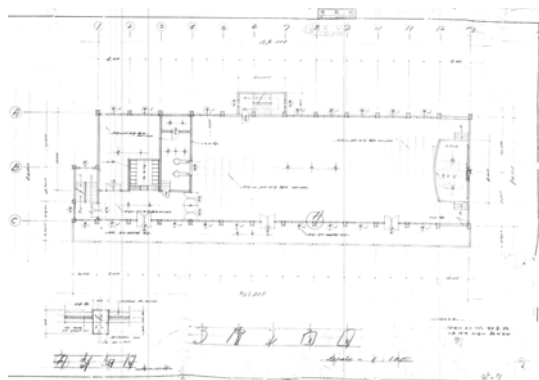
2) 제1별관, 보일러실, 충무시설의 단계별 설계·공사

본관(구관)의 북쪽에는 제1별관이 계획되었다. 제1별관은 68년 8월 25일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⁴⁷⁾ 현재 남아있는 <회의실 증축공사 설계도>(1967년 작성)에서는 기존 2층 건물에 3층을 증축하고 회의실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1967년 경기도청사 이전식 기록물에서 제1별관의 2층 부분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⁴⁸⁾ 제1별관은 1967년에 2층 규모로 완공되었고 바로 이어서 3층을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3층 증축공사는 1968년 4월 12일에 시작하여 8월 25일에 완료되었다.⁴⁹⁾

제1별관은 남북 방향으로 긴 一자형 건물이며, 복도 양편으로 실이 배치된 중복도형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1층과 2층은 243.5평, 3층은 237.5평, 옥탑층은 6.5평, 연면적 731평의 규모를 갖고 있다. 건물의 외관 중, 동쪽을 향한 전면에는 실내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2.5m깊이의 넓은 발코니를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청사의 이전식 모습
(1967년도 대한뉴스에서 부분편집)



제1별관 3층평면도
<회의실 증축공사 설계도>

독립된 보일러실(구 기관실)은 제1별관의 북쪽에 계획되었다. 최초 설계도면의 작성시기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1963년에 작성한 경기도청 본관(구관)의 도면 명판과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최초 경기도청 설계시에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최초의 보일러실은 남측면 길이 14m, 동측면 길이 22m의 평면에 2층 규모를 가진 보일러실을 계획하고, 이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석탄창고가 보일러실의 서쪽벽에 연접하게 배치되었다.

1969년에는 보일러실 석탄창고 위치에 단층의 문서물품창고가 건립되었다.⁵⁰⁾ 같은 해인 1969년 연속해서 문서물품창고 2층을 증축하는 설계가 진행되었다. 현재에는 설계안이 모두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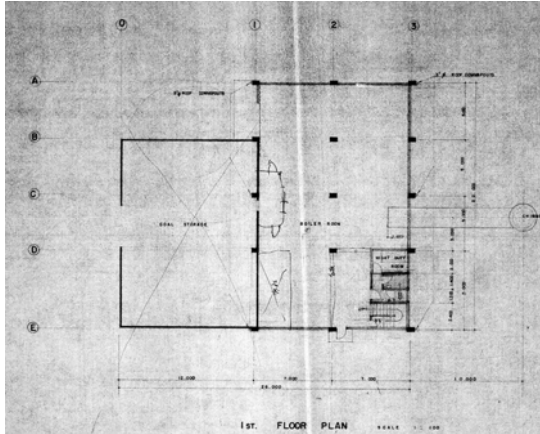
47)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위의글, 1982, 246쪽

48) 1967년 6월 23일 경기도청 이전식을 기록한 대한뉴스(공보부 제작, 국가기록원 소장)의 영상 속에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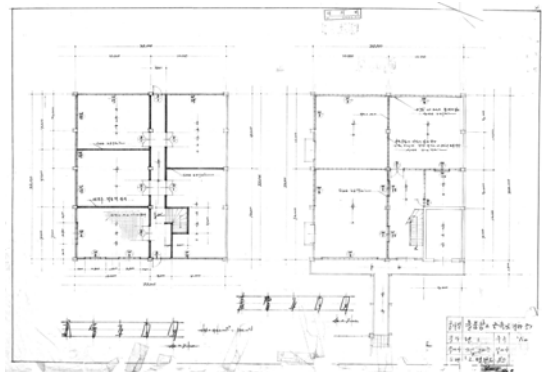
4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위의글, 1982, 246쪽

50) 1968년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와 69년 3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82, 2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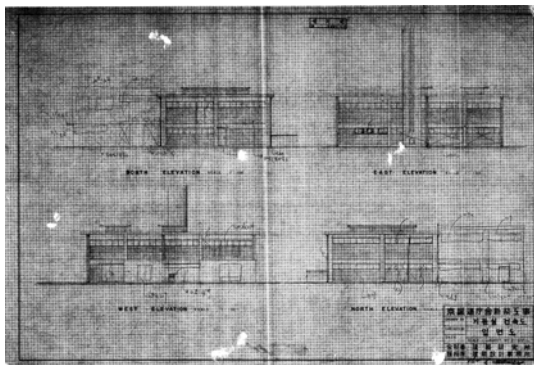
제 공사에 반영되었고, 그 모습은 현재의 2층 보일러실 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축 계획을 살펴보면, 남측면 길이 20m, 동측면 길이 22m, 건축면적 440㎡으로 보일러실보다 다소 큰 크기로 계획되었으며, 1층 남측면에는 제1별관과 연결되는 개방형 연결통로가 반영되었다. 연결통로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남측 전면 2층 바닥 높이에 남아있는 돌출형 바닥판(캔틸레버)은 이 때에 계획된 것이다. 물품창고의 내부를 살펴보면, 1층은 전체 네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창고로 할애하였고, 남측 1개 칸에는 발전실과 계단실을 두었다. 2층에는 중앙에 복도를 두고 네 개의 창고와 한 개의 오락실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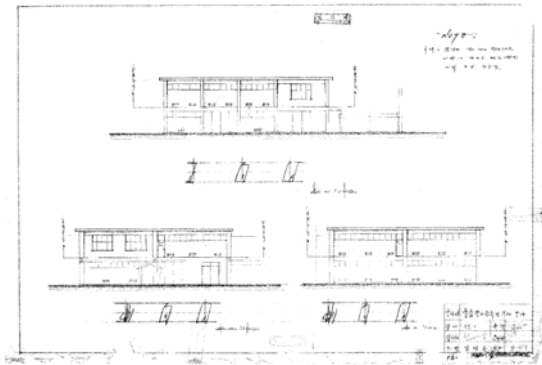
최초 보일러실 평면도 (우:보일러실, 좌:석탄창고)
(경기도청 소장 <기관실 건축도>)



문서물품창고 평면도
(경기도청 소장 <물품창고 증축 및 기타공사>)



최초 보일러실 입면도 (증축계획이 스케치로 표현)
(경기도청 소장 <기관실 건축도>)



문서물품창고 입면도
(경기도청 소장 <물품창고 증축 및 기타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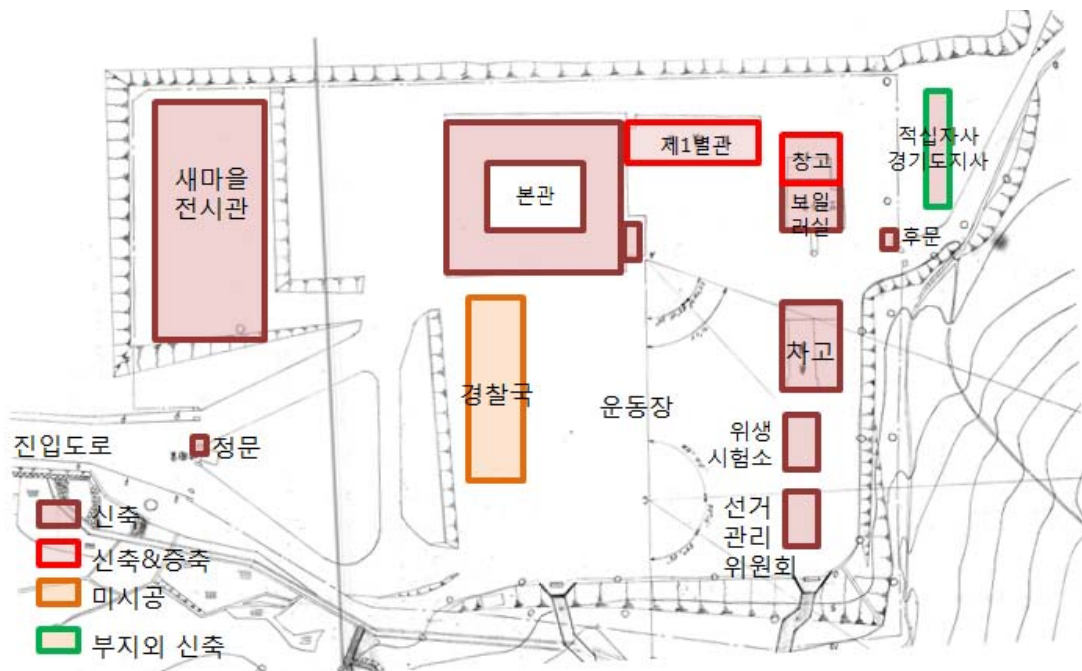
한편, 충무시설은 방공호로 조성된 경기도청의 영구보전문서창고를 지칭하며, 청사 동쪽 팔달산 하부에 매립되어 있다. 최초의 충무시설은 1968년 7월 10일부터 1969년 1월 20일까지 그리고 1969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사를 통해 조성되었다. 또한 1972년에는 충무시설의 증축공사 도면이 작성되었고,⁵¹⁾ 공사가 진행되었다.⁵²⁾

51) 도면 작성시기는 경기도청 회계과 자료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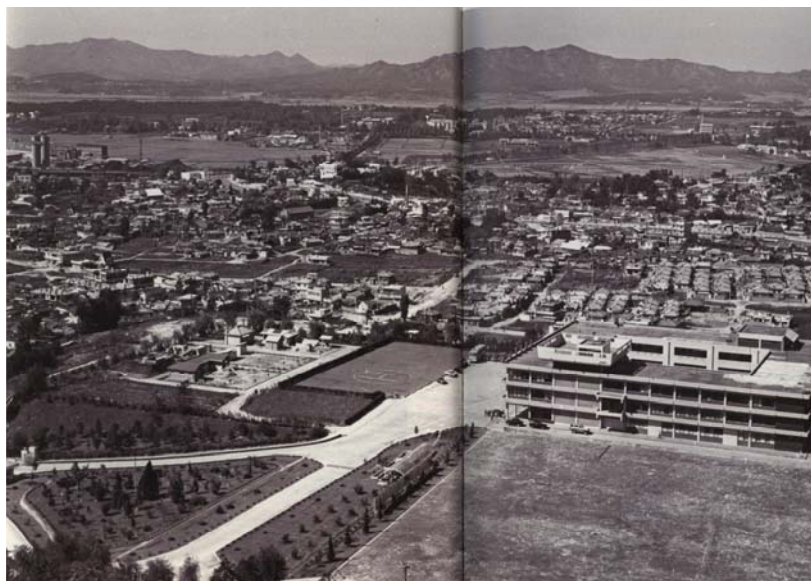
52) 충무시설은 경기도청의 중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하였다.

3) 초기 매산로 경기도청의 배치

현재 최초 경기도청 배치도는 전해지지 않는다. 수집된 도면 자료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의 배치도를 바탕으로 청사 건축도면을 참조하여 구성해본 1970년대 초의 경기도청 배치는 다음과 같다. 사각형의 운동장을 중앙에 두고 본관(구관)과 경찰국(미건립), 제1별관, 창고, 보일러실, 차고, 위생시험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밀하게 둘러싸는 형국으로 배치되었다. 전체 부지에서 남쪽은 경사지이기 때문에 일부는 진입로가 계획되고 일부는 바닥 단차이를 갖는 소형 부지로 분할되어 조성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청사 건물들이 배치된 평평한 하나의 대지는 보다 작은 규모로 조성될 수 밖에 없었다.



1970년대초의 경기도청 배치도(추정)
(『영구보존문서창고 증축공사』(1971년)의 '실측평면도' 위에 당시 도면이 확인된 건물만 표시)



1973년의
경기도청 청사와
주변지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2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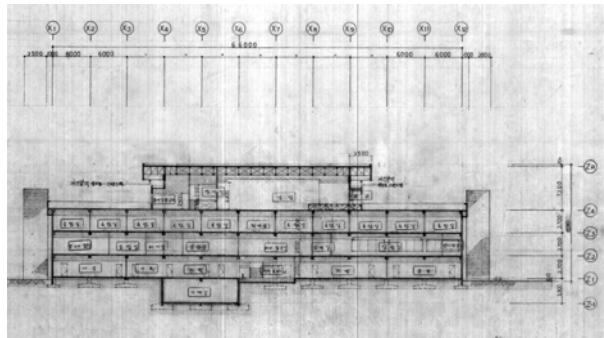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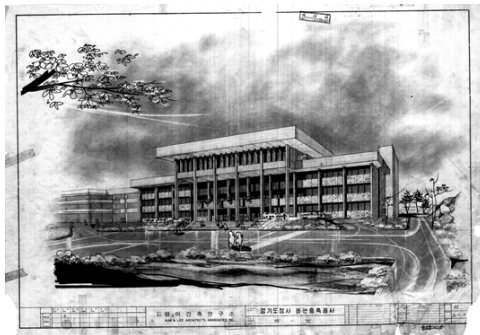
그러나 경찰국은 공사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청 부지는 전체적으로 운동장의 서쪽에 남면하여 본관이 자리잡고 북쪽에 부속건물들이 도열하는 배치 형태를 갖추었다. 경기도청 부지의 북쪽으로는 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건립되었고, 부지 남쪽에는 새마을 전시관이 마련되어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이 집중하는 행정타운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3. 매산로 경기도청의 증개축 (1970년대, 1980년대 전반)

1) 본관(신관) 증축공사와 설계자 엄덕문·이희태

(1) 경기도청 본관(신관)의 건립

경기도청사 본관에 신관을 증축하는 <경기도청사 본관증축공사>는 1977년에 설계가 진행되어 1978년 3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공사를 통해 완성되었다.⁵³⁾ 경기도청 본관(신관) 자리는 1963년 최초 계획시에 경기도 경찰국 청사로 내정된 바 있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신관은 계단과 화장실, 배선실(Pipe Shaft실)로 구성된 코어(core)가 연결된 편복도를 건물 후면에 배치한 일자형 평면의 건축물이다. 특히 지상 4층은 전면으로 돌출된 강당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전면 중앙에 자연스럽게 6개의 열주(列柱)가 조성된 강한 입구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4층 바닥과 옥상 바닥에는 두터운 높이의 폐쇄형 콘크리트 난간을 마련하여 건물의 상부에 강한 수평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 양 측면에는 폐쇄적인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계단실을 배치하여 건물의 좌우측 단부에 두터운 테두리를 형성하였다.



본관(신관) 신축공사 조감도와 횡단면도 (경기도청 소장 <경기도청본관증축공사설계도>)

본관(신관)의 층별 구성을 살펴보면, 지사실과 부지사실로 구성된 2층 그리고 비서실이 부속된 10개의 국장실과 하나의 소회의실을 갖춘 3층의 공간구성이 특별하다. 1층에는 약간의 사무실, 4층은 강당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본관(신관)은 관리직 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53) 공사기간은 『경기도사』(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82, 246쪽)를 참조하였다.

경기도청 본관(신관)의 층별 구성

층	면적(평)	실구성
4층	238.48	강당, 영사실, 준비실, 화장실, 계단, 물탱크실, 로비
3층	315.63	기획관실, 회의실, 비서실, 국장실, 계단, 복도, 화장실
2층	315.63	지사집무실, 응접실, 회의실, 상황실, 창고, 휴게실, 화장실, 부지사실, 집무실, 전실, 방송실, 계단
1층	302.75	현관, 로비, 복도, 지방실, 공보실, 기획실, 사무실, 비서실, 국장실, 암실, 방송실, 계단, 창고, 화장실
지하1층	27.83	기계실, 계단

경기도청 본관은 구관과 신관의 분동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두 건물의 2층과 3층이 복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일 동선 체계를 갖는 대형 도청사로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2) 엄덕문과 이희태

엄덕문(1919-2012)은 1943년 일본 와세다 고공 건축과를 졸업하였고, 카지마건설(鹿島建設)에서 근무하였다. 해방 후 한국에서 강의 활동을 하였고 1954년 홍익대학교 건축미술학과 창립과 함께 교직을 시작하였다. 1960년에는 엄덕문 건축연구소를 설립하여 건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⁵⁴⁾ 대표작으로는 공군본부, 기업은행본점, 선화예술학교 및 강당, 세종문화회관, 대한교육보험사옥, 남서울 컨트리클럽을 들 수 있다.⁵⁵⁾

이희태(1925-1981)는 1943년 경기고공건축과를 졸업하였다. 해방 후 1946년에는 이희태건축연구소를 설립하고 건축활동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고전건축 어휘를 한국에서 현대화하여 적용하는 실험을 지속하였다. 대표작으로는 혜화동성당(1958), 메트로호텔(1960), 복자기념성당(1967), 국립공주박물관(1971), 국립극장(1973), 국립경주박물관(1974), 부산시립박물관(1978), 성라자로마을(1981) 등이 있다.⁵⁶⁾

1977년 경기도청 본관(신관)을 설계한 (주)엄·이건축연구소는 엄덕문과 이희태가 각자의 건축연구소로 운영하던 설계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주)엄·이건축연구소는 설립자인 엄덕문과 이희태가 각각 2012년, 1981년에 작고하였으나, 1994년 (주)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로 전환한 뒤로 현재까지도 국내의 대표적인 건축설계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

2) 생활관, 식당, 위생시험소의 증축공사

(1) 생활관의 2차 증축공사

생활관은 제1별관 동쪽에 ㄱ자로 구성된 3층 건물로 현재의 경기도행정도서관 건물이다. 최초의 생활관은 단층의 ‘생활필수품판매장’으로 건립되었다. 1980년 삼정건축설비공사에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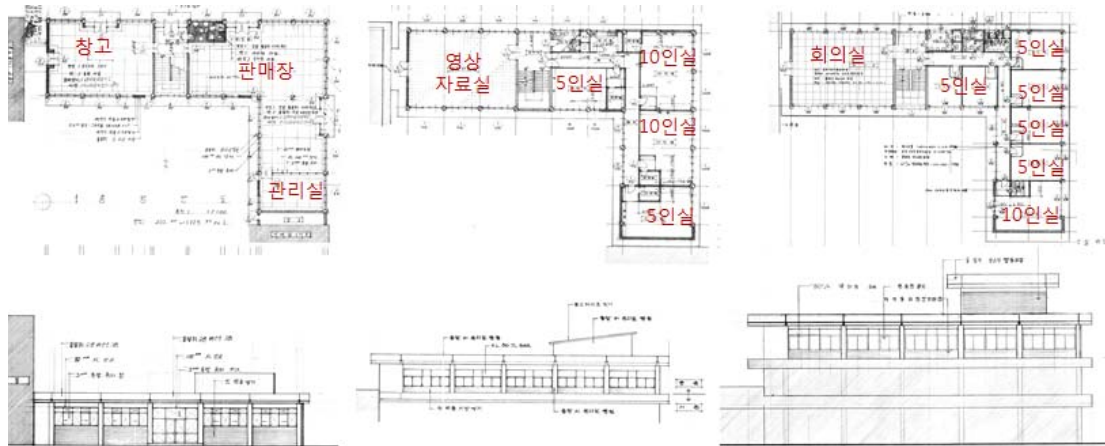
54) 공간사, 『한국건축사'80』, 공간사, 1981, 40쪽

55) 대한건축사협회, 「원로건축가 탐방-엄덕문」, 『건축사』, no.147, 1981, 58쪽

56) 양승숙, 「한국의 건축가-이희태(1)」,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1995.03; 공간사, 앞의글, 1981, 40쪽

를 담당하였고 공사는 같은 해 8월 11일에 시작하여 10월 19일에 완료되었다.

생활관은 1981년과 1983년에 각각 1개층이 증축되었다. 1981년의 2층 증축계획은 한국건축공단에서 담당하였고, 1983년의 3층 증축계획은 미도건축설계사무소에서 담당하였다. 2층에는 계단실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행정자료실을 두고 동쪽에는 각 2개실씩의 10인실과 5인실을 계획하였다. 3층도 계단실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서쪽에는 회의실을 계획하고 동쪽에는 10인실 1개실과 5인실 6개실을 계획하였다. 두 번의 증축공사를 통해서 생활필수품판매장은 생활관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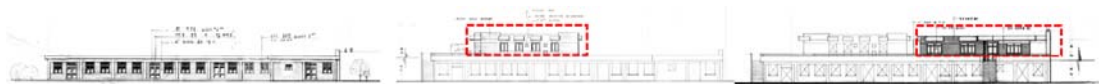
생활관 신축 및 증축공사 도면

(좌: 1층 생활필수품 판매장 <경기도청 생활필수품 판매장 신축공사>, 중: 2층 생활관 증축 <경기도청 생활필수품 판매장 증축공사>, 우: 3층 생활관 증축 <경기도청생활관증축공사>, 이상 경기도청 소장)

생활관은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420.40㎡의 바닥면적을 갖고 있으며, 각 층마다 외부에 수평띠 형태의 구조물을 돌출시켜 수평성이 강조되는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2) 식당

식당은 현재 제2별관이 건립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1975년 정은용건축연구소에서 건축계획을 담당하였고, 단층 490.8㎡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조적벽체를 합하여 계획되었다. 이후 식당 건물은 식당 부속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사무실이 단계적으로 증축되었다. 1977년 식당의 옥상 남쪽에 137.7㎡ 규모의 시험문제편집실 증축계획을 완성하여 2층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1980년 6월에는 시험문제편집실 북쪽에 경기도 도시개발실 사무실을 증축하여 2층 공간을 확대하였다.



식당 신축 및 2층 증축공사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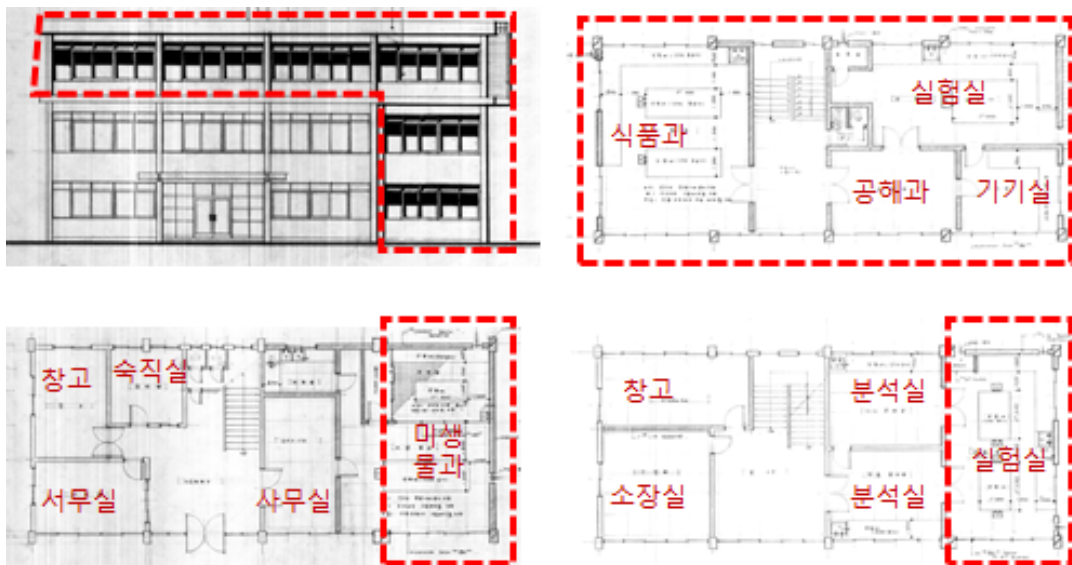
(좌: 신축 식당 <경기도청 식당 신축공사>, 중: 시험문제편집실 증축 <경기도 시험문제 편집실 신축공사 설계도>, 우: 경기도도시개발실 증축 <경기도 도시개발실 청사 신축공사 설계도>)

또한, 1985년에는 2층 시험문제편집실의 남쪽에 면하여 휴게실 49.7㎡을 증축계획을 마련하였고, 1층 기존 식당의 북쪽에는 창고, 수위실 등의 부속시설의 증축계획을 완료하였다.

(3) 위생시험소

위생시험소는 현재 제3별관이 있던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과 나란히 운영되었다.⁵⁷⁾ 1977년 정은용건축연구소에 의하여 증축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 늦어도 1977년 이전에 기존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77년에 수립된 증축계획은 1층과 2층의 측면 일부를 증축하고, 3층 전체를 증축하는 내용이었다.

위생시험소의 증축계획은 기존 2층 건물의 우측과 옥상을 증축하여 전체적으로 ㄱ자 형태로 공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례적인 증축방식을 고려하여, 3층 바닥의 외벽에 돌출된 수평띠를 계획하고 옥상 난간을 두껍게 계획하여 3층이 상대적으로 수평성을 강조하는 의장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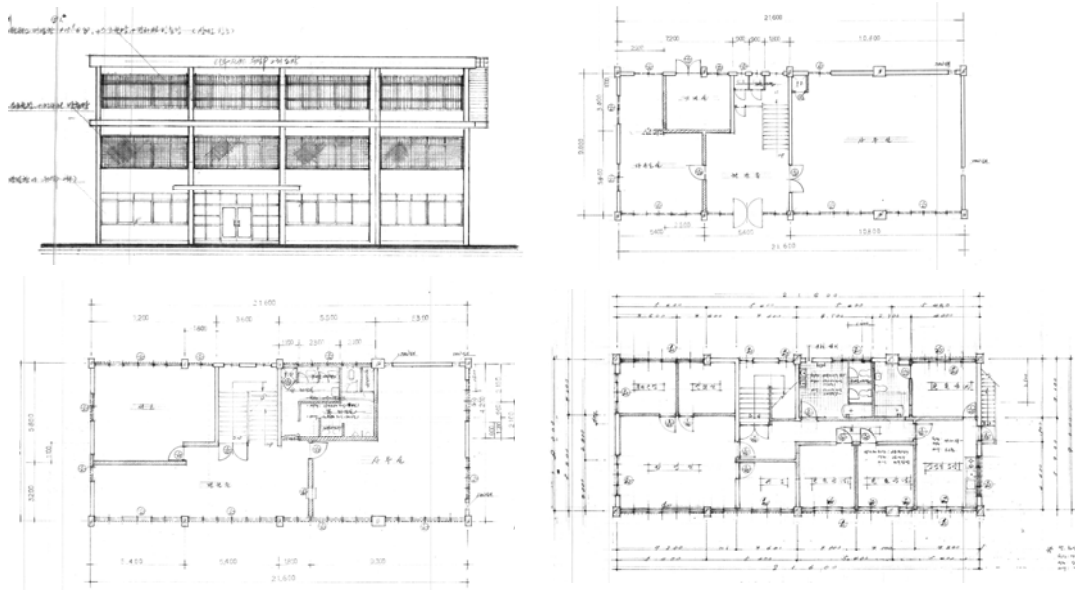
위생시험소 증축공사 도면 (경기도청 소장 <경기도 보건연구소 증축공사>)
좌상: 정면도, 좌하: 1층평면도, 우상: 3층평면도, 우하: 2층평면도

위생시험소의 층별 구성

층	기존건물		증축건물	
	면적(m ²)	실구성	면적(m ²)	실구성
3층	-	-	194.4	식품과, 계단실, 홀, 공해과, 기기실, 실험실
2층	145.8	소장실, 창고, 약품분석실, 기기분석실, 계단실, 홀	48.6	실험실
1층	145.8	사무실, 숙직실, 창고, 계단실, 로비, 사무실, 세척실	48.6	미생물과, 무균실

이후 어느 시기에 위생시험소는 고시계동으로 변경되었다. 고시계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을 살펴보면, 1층에는 다용도실, 기계실, 현관홀, 사무실, 2층에는 민원홀, 서고, 계단실, 사무실, 화장실, 3층에는 작업실, 인쇄실, 서고, 온돌방, 식당, 주방, 화장실로 변경되었다. 특히 3층 외벽 유리창에는 방법창을 설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안이 필요했던 시설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57)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의 도면은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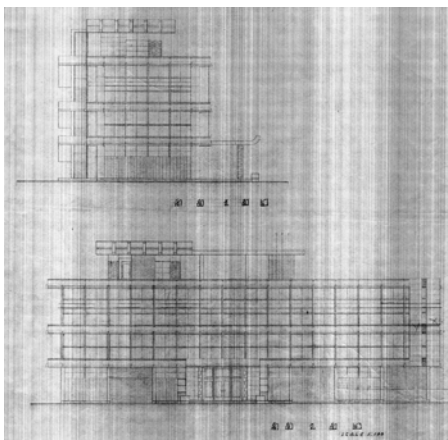
고시계동 도면 (경기도청 소장 <고시계동 도면>)

좌상: 입면도, 우상: 1층평면도, 좌하: 2층평면도, 우하: 3층평면도

3) 적십자 경기도지사의 건립과 경기도청 복지관으로의 전용

적십자 경기도지사는 보일러실의 북쪽에 조성된 건물로써, 최초 경기도청 청사에 속한 건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늦어도 1991년 이전에 경기도청 청사의 하나로 편입되었고, 복지관으로 전용되었다.

적십자 경기도지사 청사는 1969년 현대건축연구소의 설계로 작성되었다. 1층과 2층에는 각종 사무실과 집무실 및 보건소 등을 배치하였고, 3층은 두 개층 높이의 대형 회의실을 두었으며, 계단실 일부에만 중층을 두어 부속실로 활용하게 하였다. 1972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각 층의 사면에 콘크리트 난간이 마련된 발코니를 두어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조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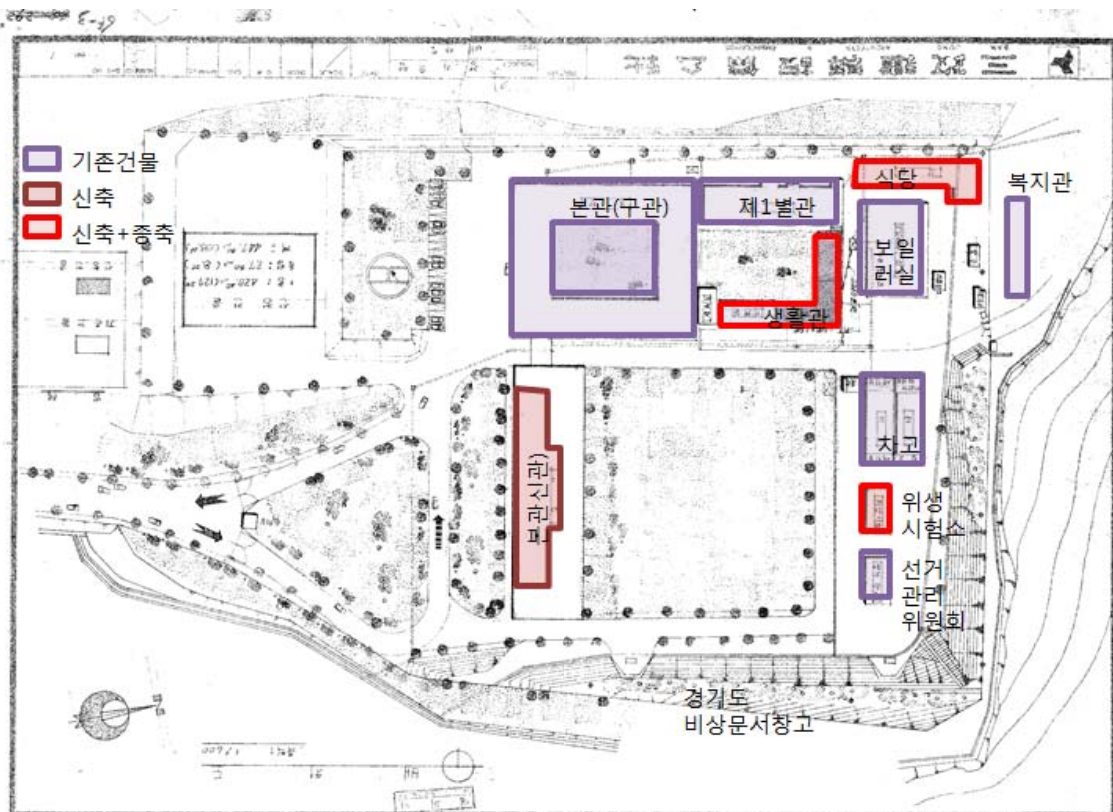
적십자 경기도지사 입면도
(경기도청 소장 <적십자 경기도지사 신축공사>)1972년의 적십자 경기도지사 사진
(중요시설물카드(경기도청), 1972, 국가기록원 소장(DET0020495))

적십자 경기도지사의 층별 실구성

층구성	실구성
옥탑층	홀, 계단, 물탱크실
3층	회의실, 준비실, 영사실, 계단, 준비실, 사무실, 변소
2층	지사장실, 사무국장실, 청소년과, 부녀과, 부농작업실, 청병실, 도서실, 청소년적십자단실, 변소, 총무과, 계단
1층	현관, 수위실, 창고, 운동방, 부엌, 숙직실, 목욕탕, 공구창고, 변소, 계단
지하1층	지하실, 계단

4) 1980년대 초 경기도청의 배치

1970년대 초까지 경기도청의 초기 완공이 완료된 이후로 약 10여년 간에는 청사 규모가 여러 단계를 거쳐 확대되었다. 1978년 완공된 본관(신관)은 도청사의 공간 확대와 함께 진입로에서 가장 먼저 인식되는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관의 신축과 증축, 식당의 신축과 시험문제편집실,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위생시험소의 증축을 통해 청사 직원과 도민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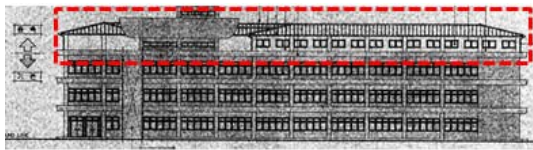


1980년대 초 경기도청 배치
『경기도청 생활필수품 판매장 신축공사』 배치도(1980) 위에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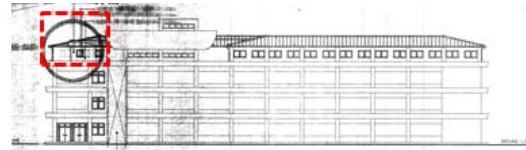
4. 매산로 경기도청의 현대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1) 본관(구관)의 증축공사와 경기도의회 청사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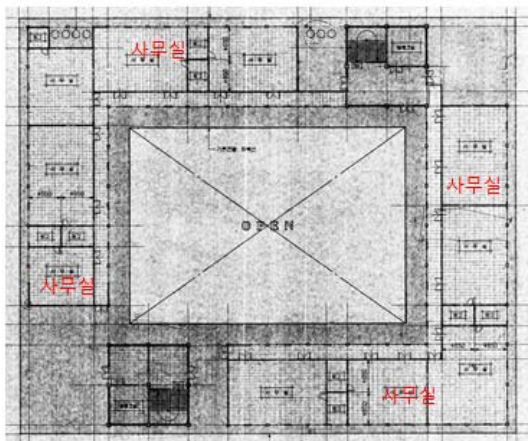
1990년에는 본관(구관) 4층 1개층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이 작성한 도면에 따르면, 본관(구관) 옥상에 1개층을 증축하여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992년에는 사무실과 인접하여 2개소의 화장실 증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미루어, 1990년 4층 사무실 증축 계획은 실제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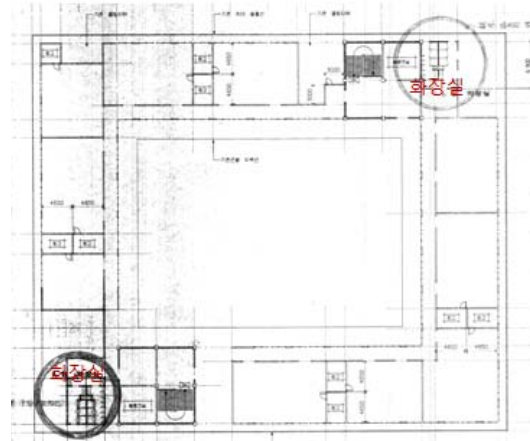
본관(구관) 4층 증축설계 동측면도(1991년)



본관(구관) 4층 화장실 증축설계 동측면도(1992년)



본관(구관) 4층 증축설계 평면도(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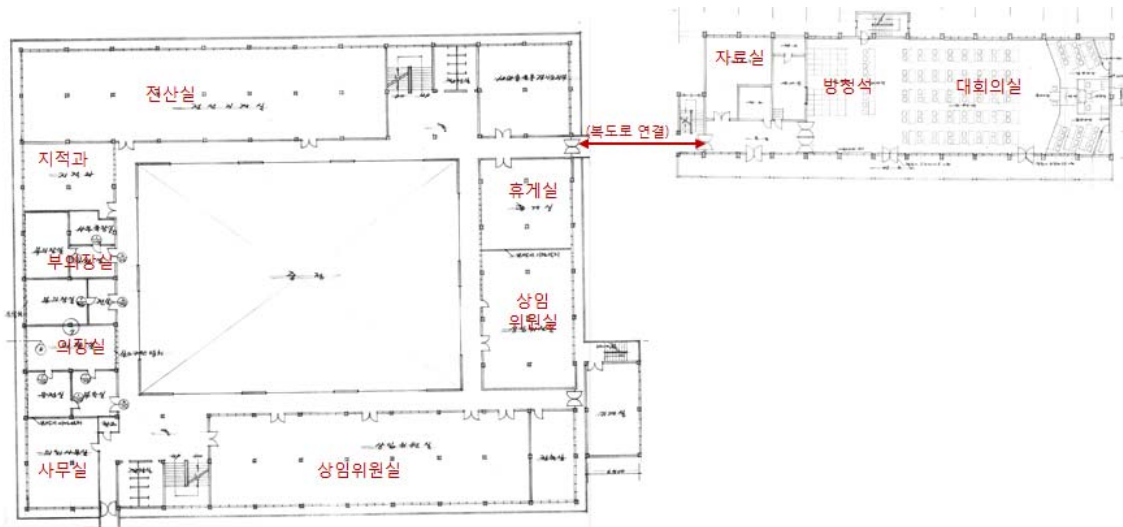


본관(구관) 4층 화장실 증축설계 평면도(1992년)

본관(구관) 4층 증축설계 도면

(좌: <경기도 도청 증축공사>, 우: <경기도청 구관 화장실 증축공사>, 이상 경기도청 소장)

본관(구관) 4층을 증축한 배경에는 본관(구관) 3층과 제1별관 3층이 경기도의회로 사용된 정황을 그 이유로써 유추할 수 있다. 본관(구관) 3층의 남쪽에는 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지적과,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상임위원실과 전산실, 북쪽에는 상임위원실과 휴게실,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가 배치되었고, 제1별관 3층은 자료실, 방청실이 마련된 대회의실로 사용되었다. 현재의 본관(구관) 남쪽의 경기도의회 청사(지하1층, 지상5층)는 1991년 3월에 준공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경기도의회가 사용하던 공간은 경기도청의 사무공간으로 회복되었을 것이고, 1990년에 시행된 4층의 증축 사무실은 현재와 같이 철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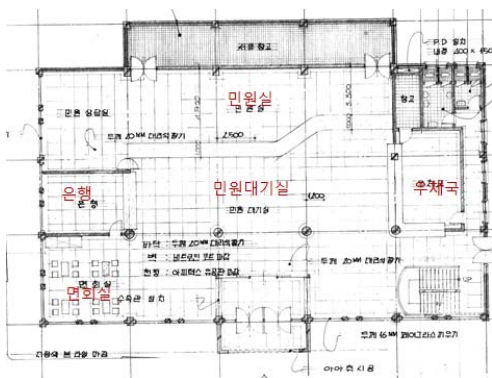
본관(구관) 3층과 제1별관 3층의 도의회 사무실 보수 및 증축 설계도

한편, 본관(구관) 3층의 전산실은 1989년 <본관 경기지역전산본부 개축공사>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이 때에는 본관(구관) 서쪽에 사용하던 단층의 창고를 UPS실과 밧데리실로 고쳐 사용하는 계획이 함께 마련되었다.

2) 민원실동, 제2별관의 건립과 정문, 옥외 주차장의 정비

(1) 민원실동

경기도청의 민원실은 현 본관(구관)과 경기도의회 청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986년 정구영건축사사무소와 동성건축연구소가 신축공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1층 민원실, 민원대기실, 서류창고, 은행, 우체국, 면회실이 계획되었고 2층에는 사무실과 향토자료실, 홀이 계획되었다. 당시의 사업명이 <경기도종합민원실 및 향토자료실 신축공사>이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듯이, 경기도청이 민원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경기도의 연혁을 체계화하려는 의지가 건축물로 구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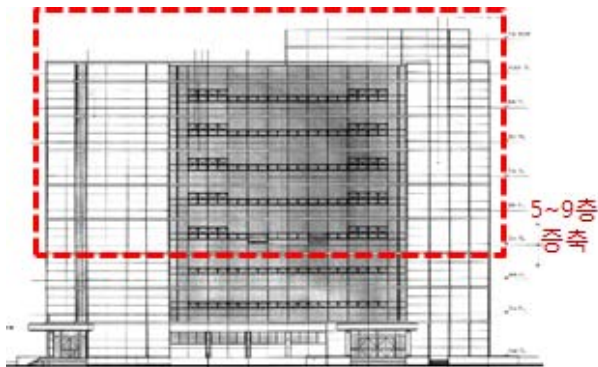


경기도청 민원실동 신축공사 도면과 현황사진

(2) 제2별관

현재의 제2별관은 기존 구내식당을 철거하고 1990년 12월 건립되었다.⁵⁸⁾ 최초에는 4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1993년 백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로 제2별관을 8층까지 증축하는 계획도면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공사가 진행되었다. 제2별관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남북 방향의 내부 중복도를 중심으로 서편에 대형의 사무공간이 배치되었으며, 동편에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와 화장실로 구성된 코어(core)와 휴게실, 공조실 등의 부속시설에 배치되었다.

지상 8층, 연면적 6,367㎡의 제2별관은 사무실이 서향으로 배치된 반면 창호의 단열성능이 충분하지 못하여 2014년 창호개선 방식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었다.⁵⁹⁾



제2별관 증축공사 입면도
(경기도청 소장 <경기도청 제2별관 증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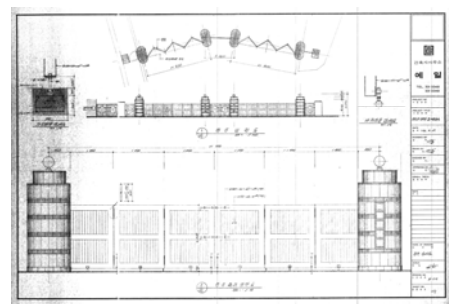
제2별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행부위

(3) 정문 이전과 옥외 주차장 마련

1992년에는 정문 경비실 이전공사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다.⁶⁰⁾ 1967년 6월 20일에 완공되었던 정문경비실은 현재 경기도청사 진입로와 진출로가 만나는 삼각형 모서리에서 운영되었으나,⁶¹⁾ 현재와 같이 진출로 서쪽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 경계 부분에 배치되어 있던 문기둥과 정문도 새롭게 고쳐짓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에는 정문 수위실만이 남아있다.



1972년 경기도청 정문
중요시설물카드(경기도청, 1972, 국가기록원 소장(DET0020495))



정문증축공사 도면
(경기도청 소장 <정문 및 경비실 증개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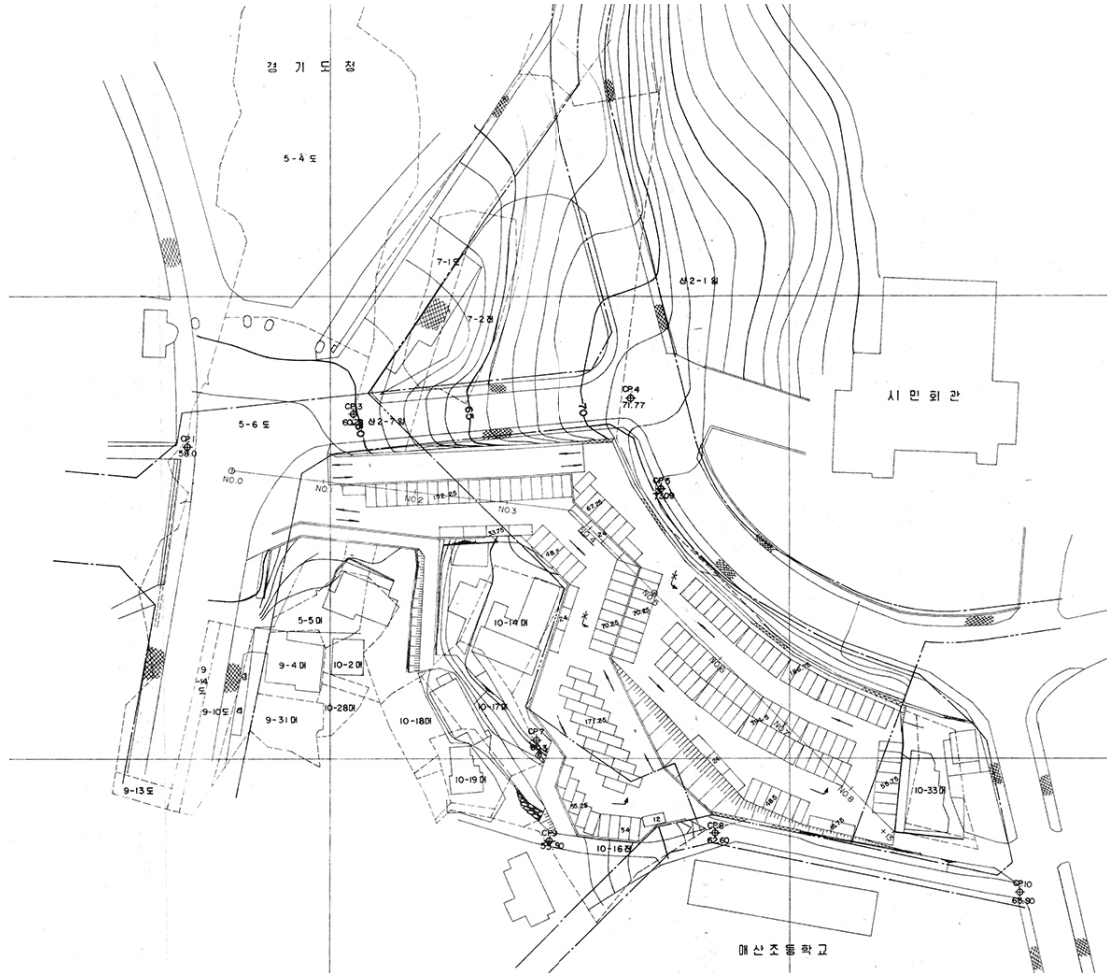
58) 경기도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gg.go.kr/hybrid-town-board-view?id=3365228>)

59) 조동우·최정만, 「경기도청 제2별관 그린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사례」, 『설비/공조·냉동·위생』, 한국설비기술협회, 2015.01

60) 해당 도면은 건축사사무소 예일에서 작성하였다.

61) 경기도편찬위원회, 앞의글, 247쪽

1997년에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정문 수위실 밖에 <경기도 옥외주차장 설치공사>가 계획되었다.⁶²⁾ 신설 옥외주차장은 총 173면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에는 직원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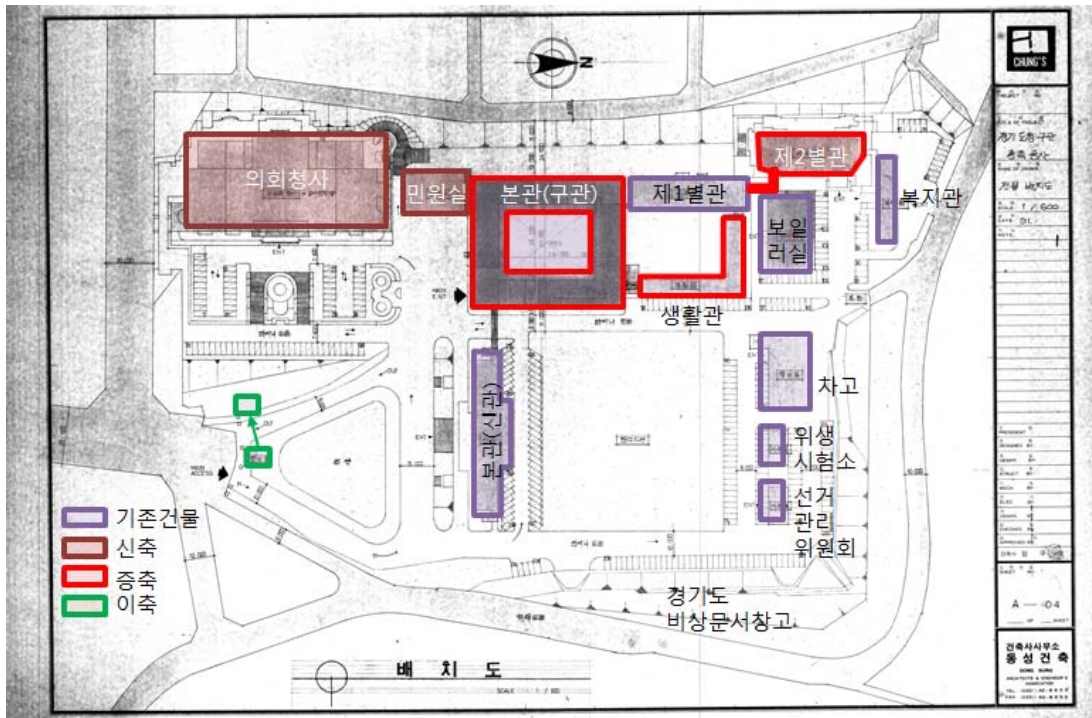


경기도청 옥외주차장 설치공사 배치도

3) 1990년대의 경기도청사 배치

1990년대의 경기도청사는 대형 청사의 신축공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9년 본관(구관) 전면 민원실동 건립, 1990년 지하2층 지상8층의 제2별관 완공, 1991년 지하1층 지상5층 경기도의회 청사 건립을 통하여 청사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건축공사는 본관(구관 및 신관)의 입지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유희공간 또는 노후된 소규모 건물을 대체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관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공간 확충에 대한 당시의 요구를 해결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62) 해당 도면은 (주)환경그룹에서 작성하였다.



1991년대 초 경기도청 배치 (『경기도청구관 증축공사』 배치도(1991) 위 편집)

5. 경기도청의 현재

2008년에는 중앙 운동장 북쪽에 제3별관을 신축하였다. 기존의 건물형 창고, 위생시험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건물을 철거하고 경기도청 업무시설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이로써 경기도청 청사는 팔달산 경사에 인접한 동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중앙 운동장을 중심으로 북·서·남쪽을 둘러싸는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2018년 광고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매산로 경기도청 청사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공공청사 건축계획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건립된 지방 청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67년 경기도청과 함께 건립된 옛 경기도지사 관사가 현재 굿모닝하우스라는 이름을 달고 게스트하우스, 전시장,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가 지역의 건축유산을 유지하는 방안을 이미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산로 경기도청의 모습
(경기도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qq.go.kr>)



경기도청 항공사진
(<http://map.naver.com>)



경기도청 현황배치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청사 현황목록 (경기도청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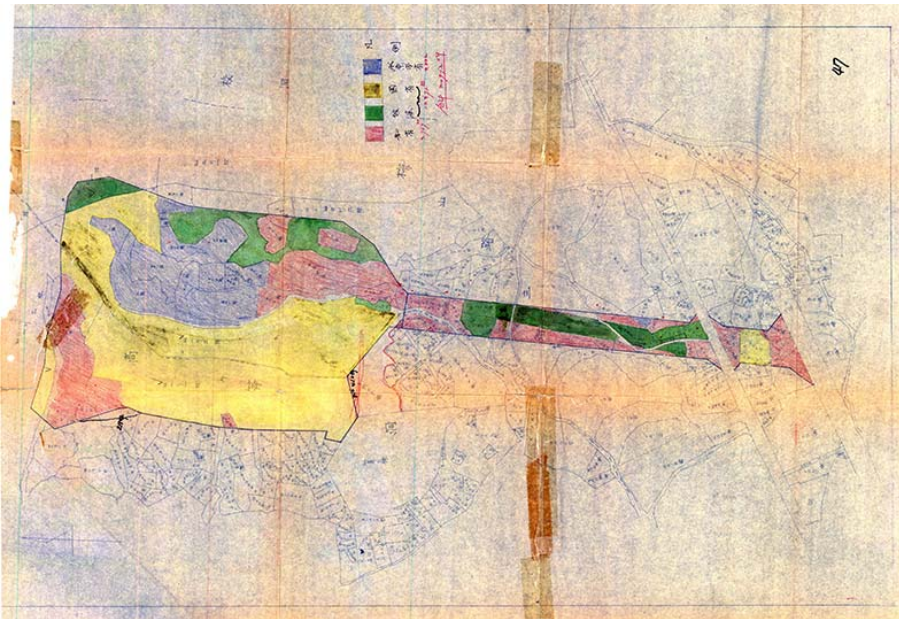
건물명	준공일	층수 (지상/지하)	구조	연면적(m ²)
신관	1980.04.17	1 / 4	철근콘크리트	4,629.28
구관	1967.10.20	0 / 4	철근콘크리트	9,173.87
1별관	1967.10.20	0 / 3	철근콘크리트	2,436.37
2별관	1993.12.20	2 / 8	철근콘크리트	7,363.77
3별관	2008.01.15	0 / 4	철골	6,464.72
민원실동	1989.09.20	0 / 2	철근콘크리트	1,140.00
생활관	1980.10.19	0 / 3	철근콘크리트	1,261.20
충무시설	1973.12.10	1 / 0	철근콘크리트	2,231.40
보일러동	1973.12.10	0 / 1	철근콘크리트	975.21
복지관	1970.12.24	0 / 3	철근콘크리트	1,111.25
정문	1967.10.20	1 / 0	철근콘크리트	24.79
후문	1967.10.20	1 / 0	철근콘크리트	14.55
화장실	1995.05	2 / 5	조적	44.75

VI. 매산로 경기도청 자료 해제

1. 문헌
2. 도면
3. 사진
4. 동영상

1. 문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 목	도청신축지 진입도로 매수지 소유권 이전	
작성	작성처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작성년도	1965
서지사항	서 명	도청진입로매수(2-1)
	소 장 처/DB	경기도기록관
	청구기호	01-05-115-02-02-005
관련내용	경기도청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부지 중 사유지에 속한 경우 소유자를 조사하고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경기도청 부지가 확정될 당시의 경기도청 부지의 필지 구성과 소유권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이 필지들이 경기도 소유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주는 자료이다.	
특기사항	- 경기도청과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 구성과 면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청사진 위에 채색하였으며, 범례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제 목	5. 도청이전	
작성	작성처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작성년도	1982
서지사항	서 명	경기도사 (제2권)
	소 장 처/DB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청구기호	
관련내용	1982년 간행된 <경기도사> 제2권에 수록된 기사로써, 1967년 경기도청 이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의 서울특별시 수립으로부터 경기도청 이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음을 밝히고, 이후의 과정을 공포된 법령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연혁에서 인용된 경기도 위치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특기사항	- 1982년 현재 경기도청 건물의 목록과 구조방식, 연면적, 층수, 건평, 공사기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었다. - 1967년 완공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1982년 당시의 상황을 누적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第二編 行 政

「京畿道廳 移轉式 및 歡迎市民大會」가 23日 오전 10時 30分 시 廳前 3街 1 號주요장광장에 시 政府要人과 3萬餘 市民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다.

空軍樂隊의 주악에 이어 「國務院團」은 축하에서 「國會移轉을 제기로 전모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國旗歌를 이목하기 위해 전진하야」고 낭부되다.

式場엔 2千餘의 招待賓客이 차를 보냈고 12號의 祝砲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F-5A제트機 兩대의 祝賀飛行이 있었다. 첫째 이어 드림틀은 새롬, 그대하기 등으로 도청이전을 축하했다.

이날로부터 이년 14年의 歲月이 훌쩍 간 요새에 있어, 本原市는 道廳所在地라는 地政・人文의 因件에 힘입어 人口 50萬名을 포용하는 近代都市로 날아올랐고, 數回의 大學이 들어서 教育都市, 文化都市로서의 面貌을 날로 갖추어 가고 있다.

한편 由緒 깊은 八道山 기슭에 자리 잡은 道廳은 해마다 그 規模가 커져: 현재 21,679坪이 넘다란 盛地 위에 延建坪 6,717坪의 자용 건물이 우뚝 솟아 그 威容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서 京畿道廳舍의 建物 및 貨地現況을 보면 (附表)와 같다.

(附表)

- 敷地面積(固有地) 16,185坪
(固有地) 5,494坪
計 : 21,679坪
○建物敷地: 2,309坪
○官 廳 地: 3,000坪
○道廳空置地: 16,379坪
○道廳 附 屬: 6,200坪
- 建物現況
- 延建費 1,500,000千圓

區 分 種	造	延建坪	層	建坪	工 事 期 間	備 考
新 館	청군문크리프타운 조 알타르	1,300坪	地下層 1層	27.62 309.75	78. 3. 4~78.11.30	
			2層	315.63		
			3層	31.43		
本 館	청군문크리프타운 조 알타르	2,663坪	1層	228.44	64.10.16~67. 6.20	
			2層	861.55		
			3層	861.55		
別 館	청군문크리프타운 조 알타르	731坪	1層	243.5	68.14.12~68. 8.25	
			2層	243.5		
			3層	237.5		
地 下 庫	청군문크리프타운 (이회평)	675坪	1層	675	1次 68. 7.10~68. 1.20 2次 68. 7. 4~68.12.31	
	청군문크리프타운 조 알타르	268坪	1層	133	1次 68.10. 5~68.11.30 2次 68. 3. 5~68. 3.30	
文書物品倉庫						

- 246 -

第一編 總 說

區 分 種	造	延建坪	層	建坪	工 事 期 間	備 考
機 關 配 置 室	청군문크리프타운 조 알타르	122坪	1層	93	64.10.16~67. 6.20	
			2層	28.5		
車 庫 附 屬 建 物	청군문크리프타운 이회평클로저빌 이회평클로저빌	291坪	1層	291	64.10.16~61. 1. 5	
保 險 研 究 所	청군문크리프타운 이회평 클로저빌	178坪	1層	68.7	68. 9. 4~77.12.31	
			2層	56.7		
道 事 務 課 委 員 會	청군문크리프타운 조 알타르	103坪	1層	49	70. 5.24~70. 8.27	
			2層	49		
養 內 食 堂	청군문크리프타운 조 알타르	150坪	1層	150	72. 4.10~72. 7.2	
試 驗 室 附 屬 建 物	조지크로알타르	40坪	1層	40	78. 3.10~78. 7.25	
	조지크로알타르	22坪	1層	11	76. 5.10~78.10.30	
生 活 品 販 賣 場	청군문크리프타운 조 알타르	135.42坪	1層	135.42	80. 8.11~80.10.19	
正 門 警 衛 室	조지크로알타르	7.5坪	1層	7.5	64.10.16~67. 6.20	
	조지크로알타르	2坪	1層	2	64.10.16~67. 6.20	
機 關 室	청군문크리프타운 조 알타르	131坪	1層	78.03	1次 64.10.16~67. 6.20 2次 78. 6.13~78. 8.19	
			2層	22.53		
計		6,717.42坪				

第 2 節 道 勢 의 伸 張

1949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의 樹立은 美軍政 3年間의 亂風暴을 맞이하, 비호스 우리 民族의 辛勞로 우리 政府를 세웠다는 莫大 功勳에 受도받지 않을 수 없었나,

그러나 滿 1年이 채 못되어 勃發한 6・25動亂은 曠古未曾有의 事變이었으니, 이로 因한 人命과 財產의 損失은 莫大하였나.

특히 本道는 首都 서울의 外郭을 에워싸고 있을 뿐 아니라 38線이 가로지른 地域의인 特殊性 때문에 他地域보다도 尤甚한 戰禍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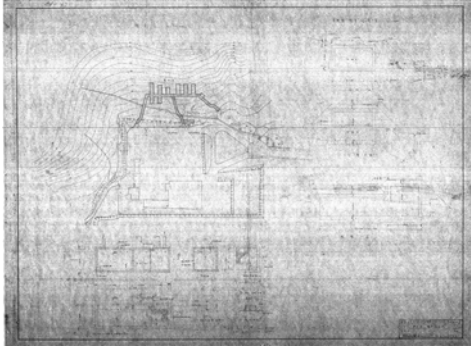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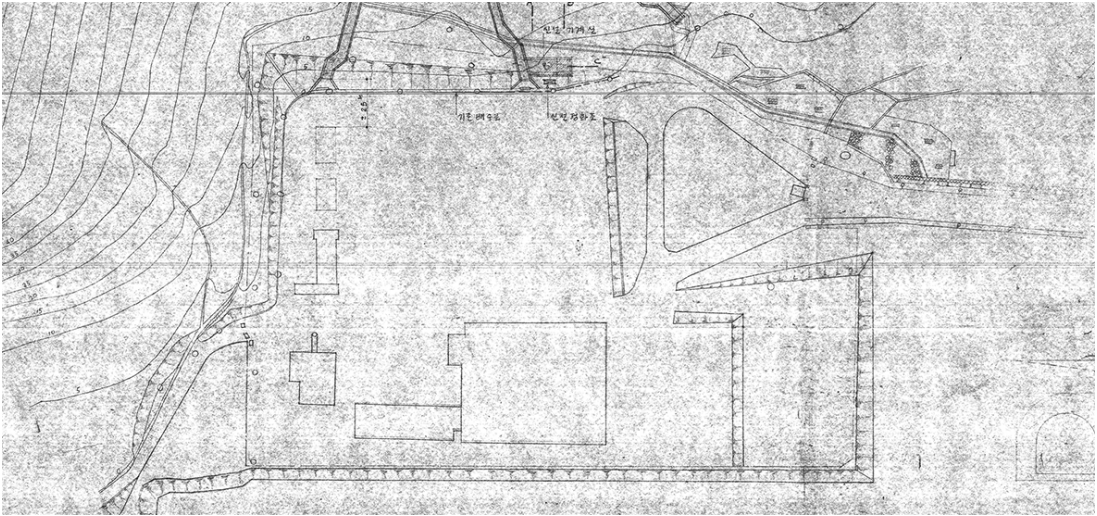
이러한 狀況에서, 지난 50年代를 行政面에서 돌이켜 볼 때, 첫째 焦土化된 國土를 復原하여 産業을 復興시키고, 한편으로 數10萬名을 제이치는 戰災民을 救濟하는 등 한이아르 戰災復原의 時代라고 할 수 있다.

60年代는 5・16 軍事革命을 契機으로 하여 第1次 經濟開發5年計劃(1961~1966)과 第2次 經濟計劃(1967~1971)에 힘 입어 電力, 石炭, 製鐵, 水泥 등 基礎産業을 일으켰고, 食糧自給에 力點을 두어 飢饉과 貧困打破에 어느 정도 成功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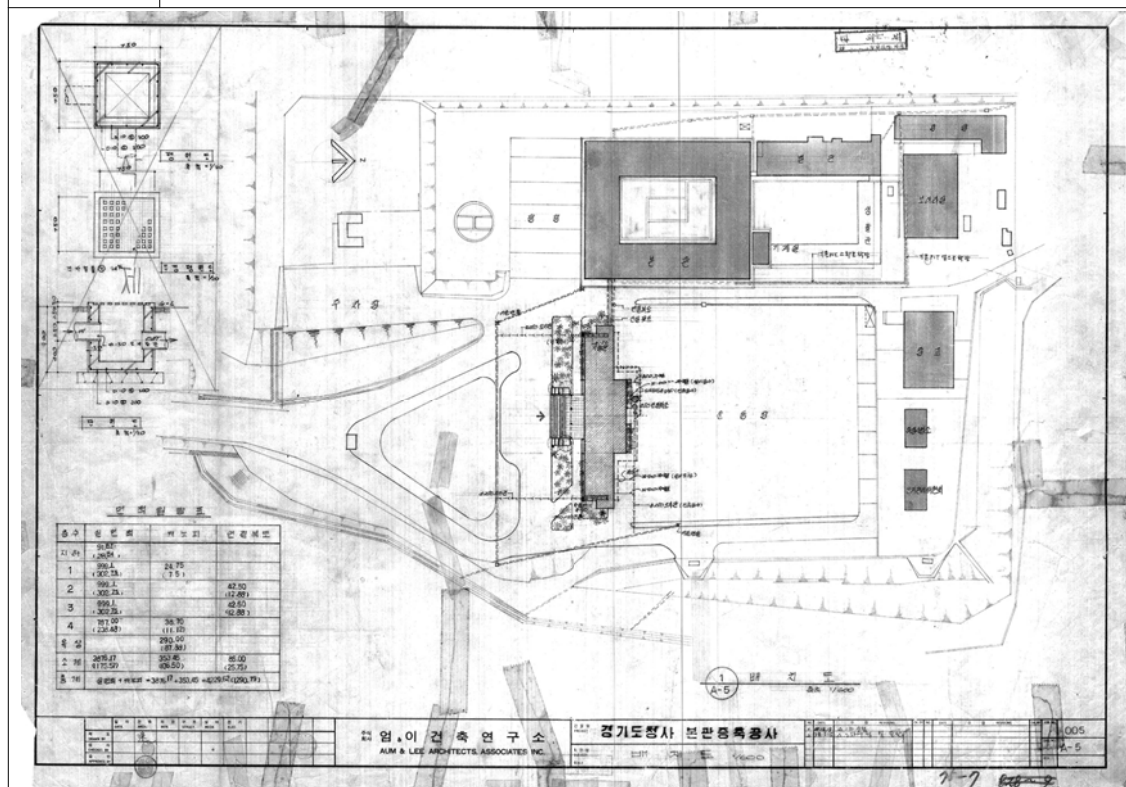
- 247 -

2. 도면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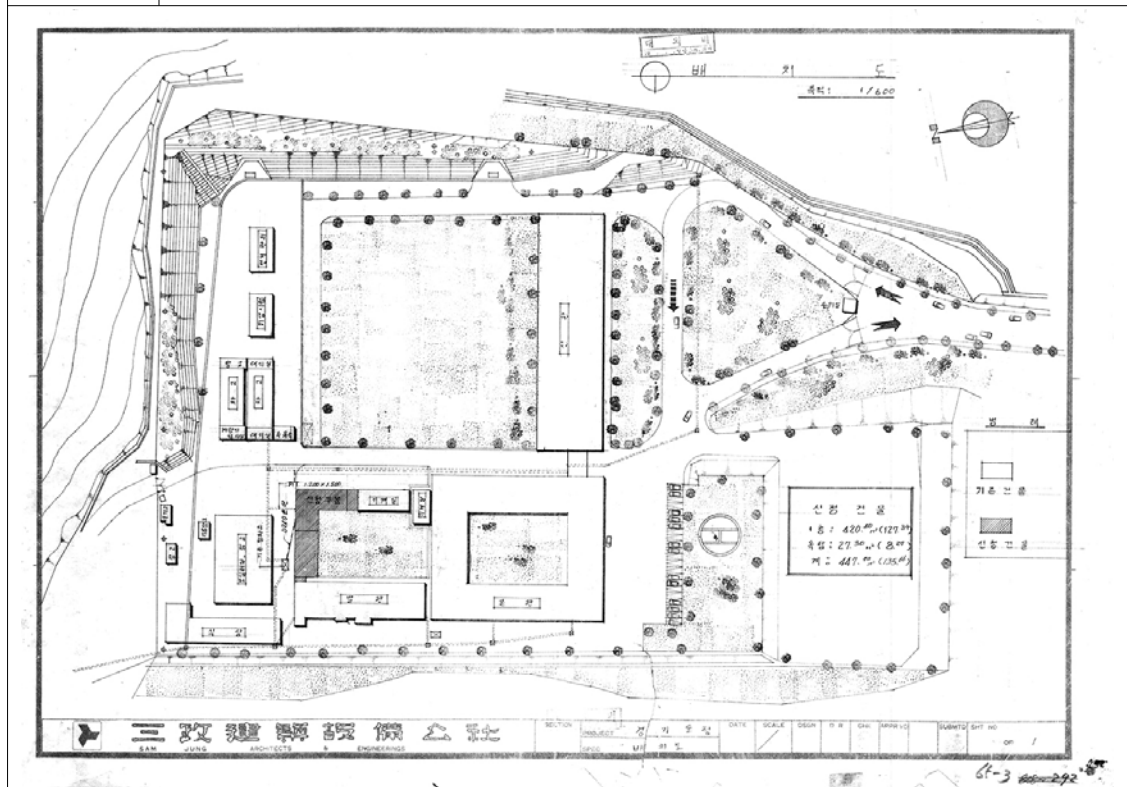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비상문서창고내부시설보완공사 003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배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71년	
공사유형명	경기도 비상문서창고 내부시설보완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72년 경기도 비상문서창고(현, 충무시설)의 내부 보완공사 설계 작업에서 작성된 배치도 - 경기도청에서 보관중인 공사도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배치도 - 하단 중앙에서 좌측으로 본관, 제1별관, 기관실, 그 위쪽으로 차고, 위생시험소,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작도되어 있다. 도면 위쪽으로 비상문서창고의 출입구가 보인다.	
		

도면명	경기도청본관증축공사설계도(건축)009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배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77.12
공사유형명	경기도청사본관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77년 본관(신관) 증축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배치도 - 경기도청에서 보관중인 공사도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배치도 - 운동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본관(신관), 본관(구관), 제1별관, 강당(식당), 보일러실, 창고, 위생시험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치. - 생활관은 건립 전이므로 외곽선만 그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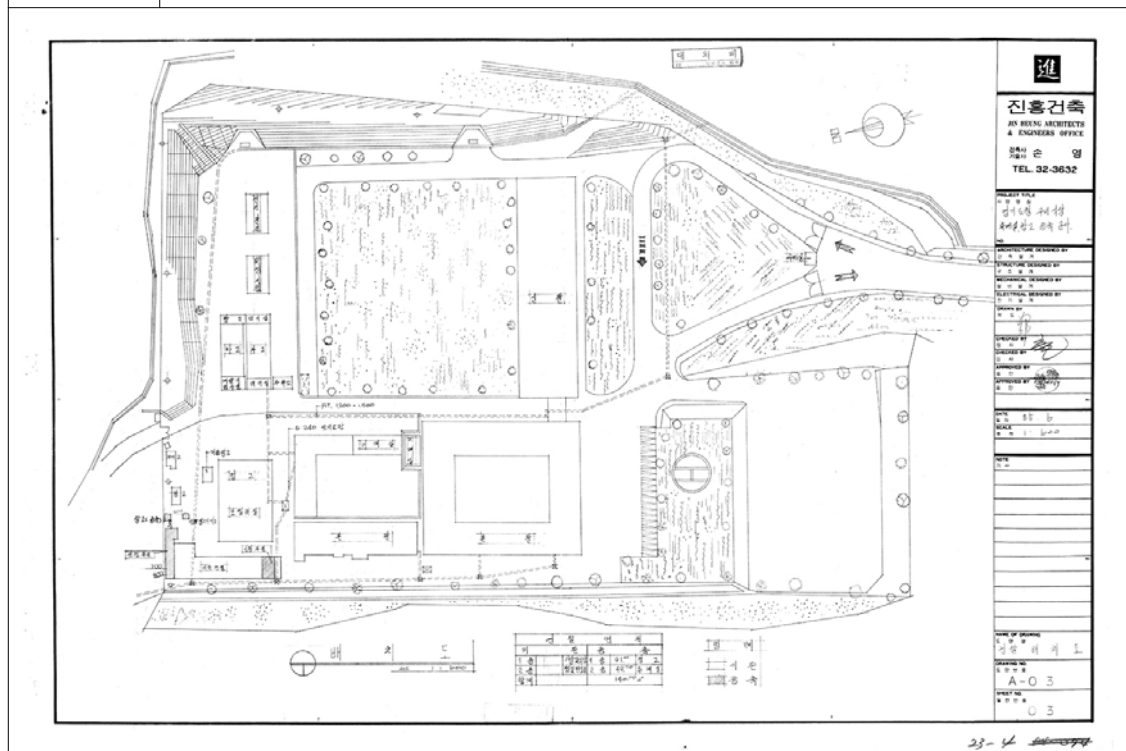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생활관동증축도면003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배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0.07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생활필수품 판매장 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80년 삼정건축설비공사에서 생활필수품 판매장(생활관 1층)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서 작성된 배치도 - 운동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본관(신관), 본관(구관), 분관(제1별관)과 생활관, 식당, 보일러실, 차고, 위생시험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치. 본관 남쪽의 민원실은 건립 전. - 식당 북쪽의 적십자사 경기도지부는 아직 경기도청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



도면명	경기도청구내식당창고,휴계실증축공사004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배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5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구내식당 창고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85년 진흥건축에서 경기도청 구내식당의 창고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서 작성된 배치도 - 운동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본관(신관), 본관(구관), 분관(제1별관)과 생활관, 식당, 보일러실, 차고, 위생시험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치. 본관 남쪽의 민원실은 건립 전. - 식당 북쪽의 적십자사 경기도지부는 아직 경기도청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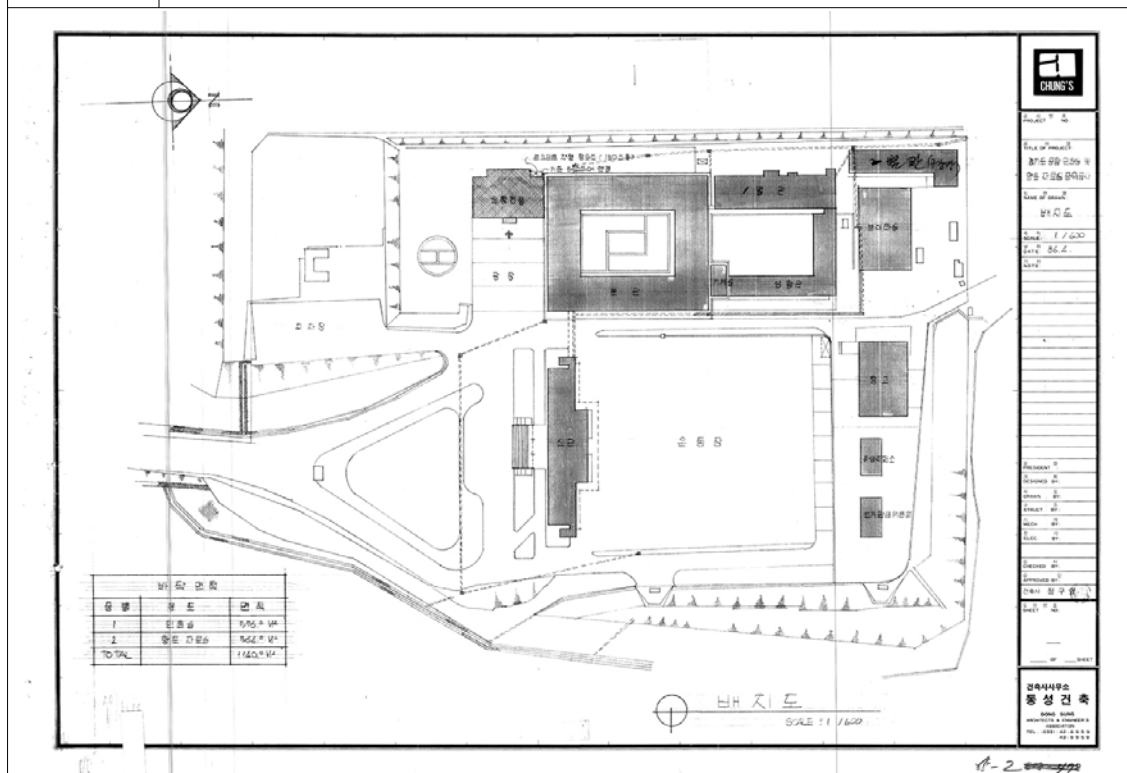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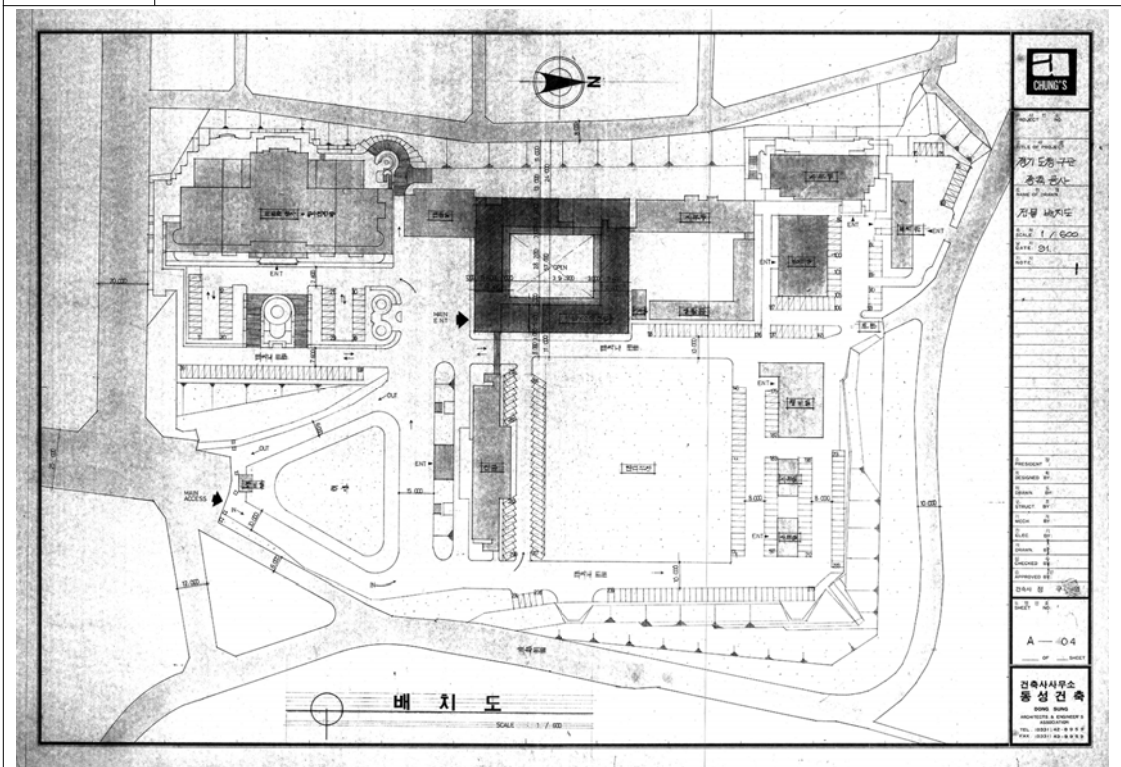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종합민원실및향토자료실신축공사002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배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6.04
공사유형명	경기도 종합민원실 및 향토자료실 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1986년 동성건축과 정구영건축사사무소에서 경기도종합민원실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서 작성된 배치도
- 1985년 작성된 <경기도청구내식당창고,휴게실증축공사004>에서 민원실동이 추가되었음.



도면명	경기도도청증축공사(구관증축)005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배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91년
공사유형명	경기도 도청 증축공사(구관 증축)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91년 본관(구관) 4층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 작업에서 작성된 배치도 - 운동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본관(신관), 본관(구관), 제1별관과 생활관, 제2별관, 보일러실, 복지관, 정비실, 2개소의 사무실이 배치. 본관(구관) 남쪽에는 민원실이 가깝게 배치되어 있으며, 민원실 서쪽으로는 도의회청사가 '공사진행중'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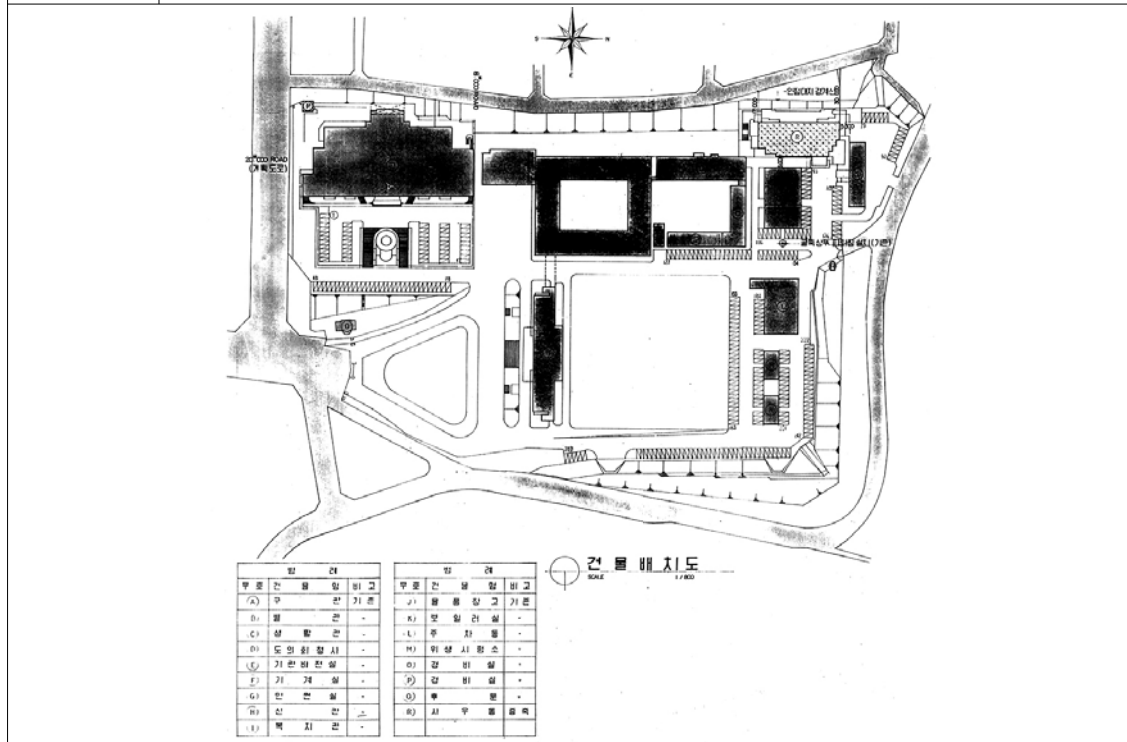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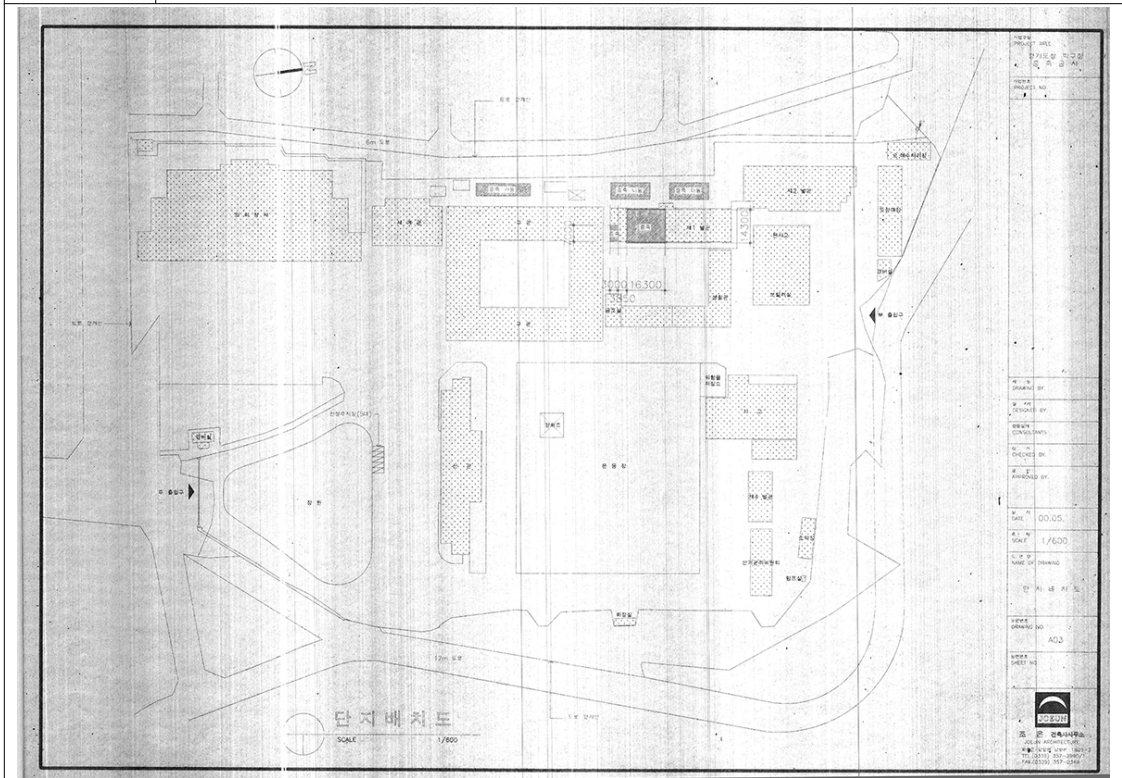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청제2별관증축공사(건축)005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배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93년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제2별관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1993년 백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제2별관의 5-9층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서 작성된 배치도
- 운동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본관(신관), 본관(구관), 제1별관과 생활관, 제2별관, 보일러실, 복지관, 주차동, 위생시험소, 무제(N)가 배치. 본관(구관) 남쪽에는 민원실이 가깝게 배치되어 있으며, 민원실 서쪽으로는 완공된 도의회청사가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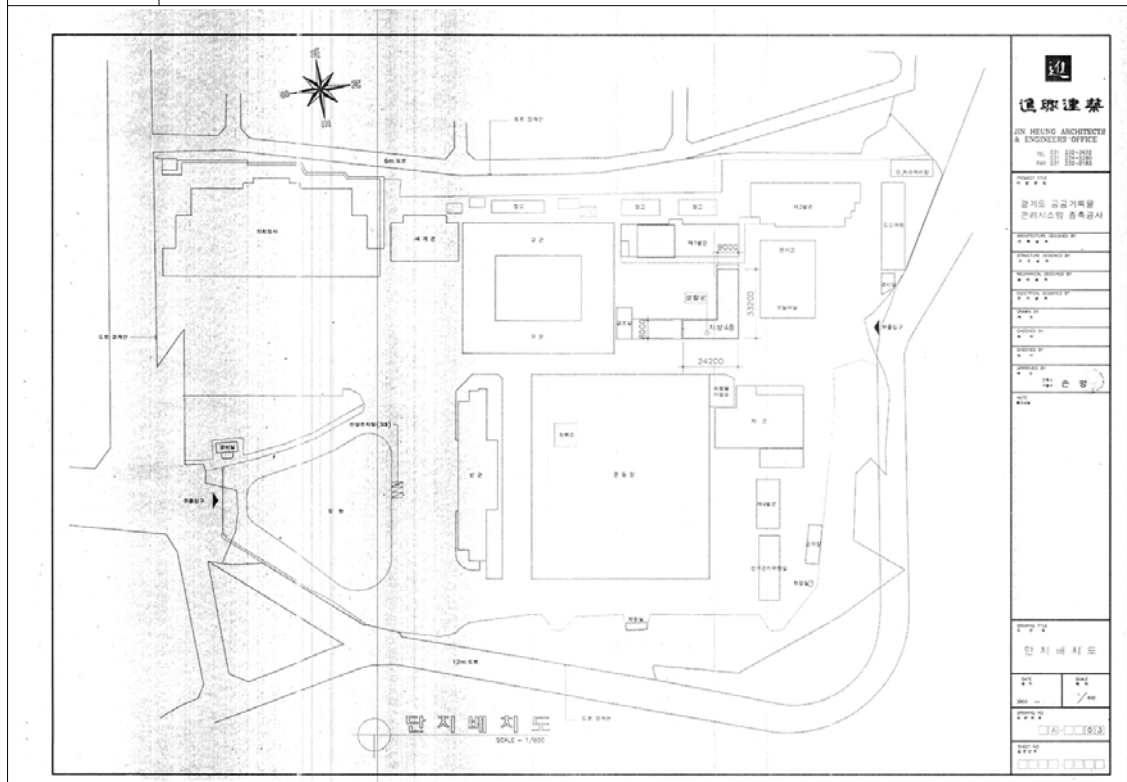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청제1별관탁구장증축공사004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배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2000년 5월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제1별관 탁구장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2000년 조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제1별관 4층 일부에 탁구장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서 작성된 배치도 - 운동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본관(신관), 본관(구관), 제1별관과 생활관, 제2별관, 보일러실, 복지관, 차고, 제4별관,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치. 본관(구관) 남쪽에는 민원실이 가깝게 배치되어 있으며, 세계관(민원실) 서쪽으로는 완공된 도의회청사가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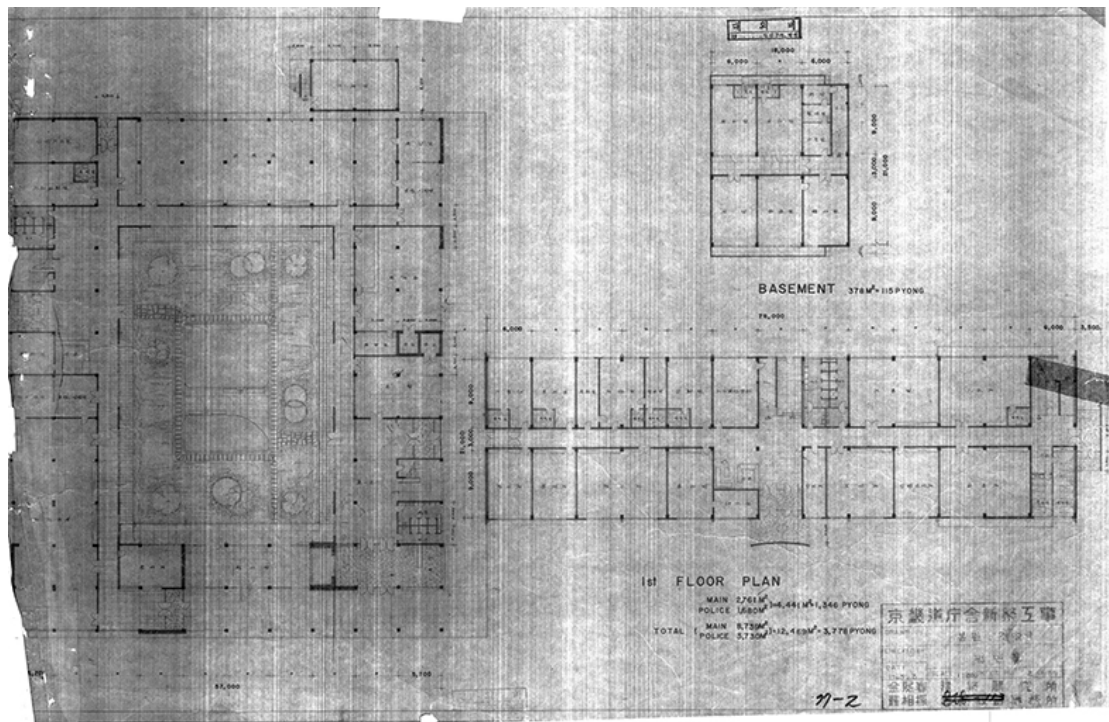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공공기록물관리시스템실증축공사004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배치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2000년 11월
공사유형명	경기도 공공기록물 관리시스템실 증축공사(생활관동)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2000년 11월 진흥건축에서 생활관 4층 일부에 공공기록물 관리시스템실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서 작성된 배치도 2000년 5월에 작성된 <경기도청제1별관탁구장증축공사004>과 동일한 도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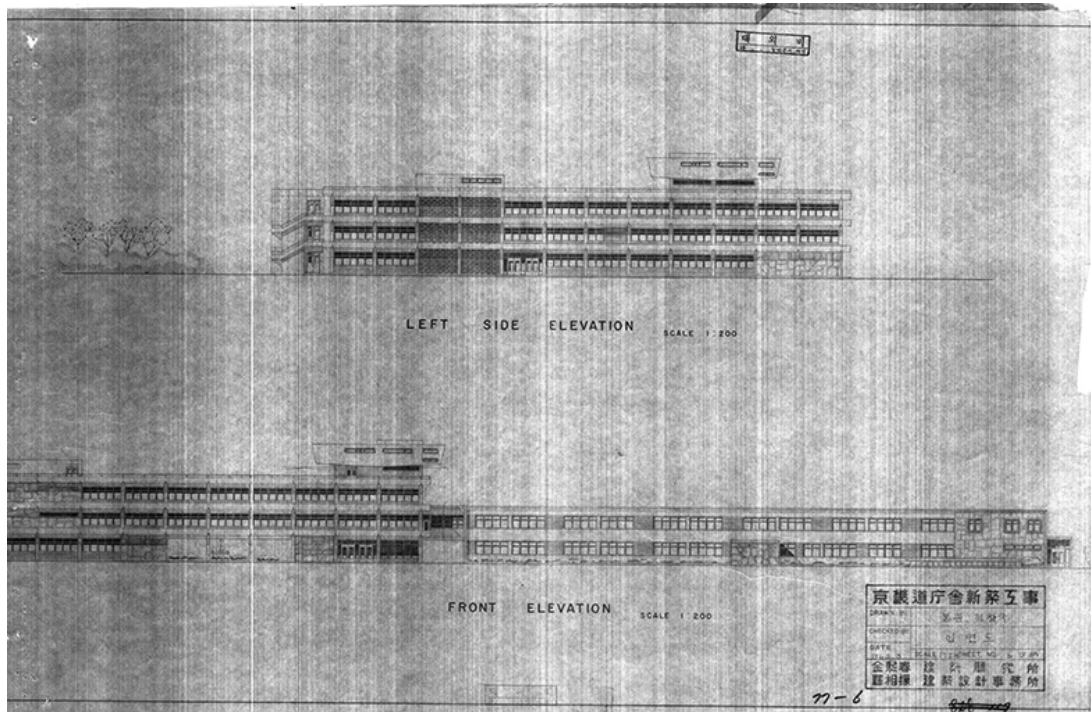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청신축공사설계도(구관)003-본관·경찰국 평면도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매산로 경기도청 본관(구관)·경찰국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63
공사유형명	경기도청사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63년 경기도청 신축공사를 위해 작성된 본관·경찰국의 1층 평면도 □자형의 본관(구관) 건물의 우측에 一자형의 경찰국 건물이 함께 계획 - 김희춘 건축연구소와 나상진 건축설계사무소의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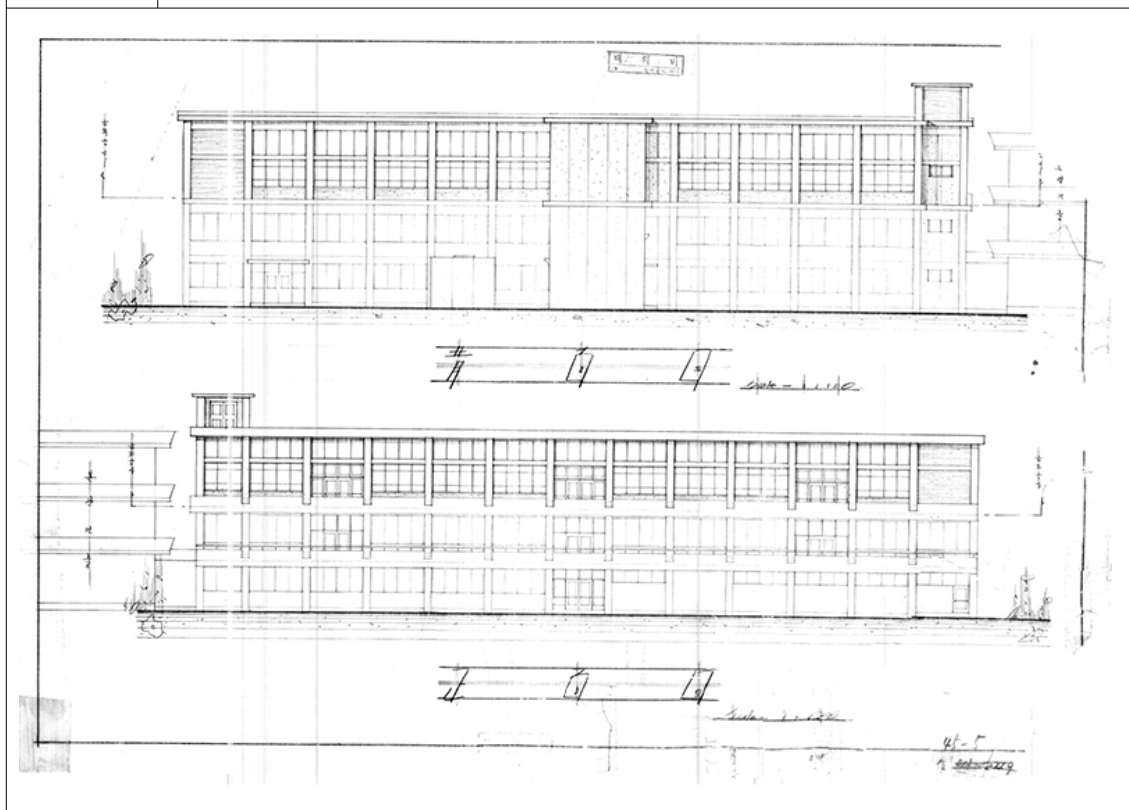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청신축공사설계도(구관)006-본관·경찰국 입면도
시설명	매산로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매산로 경기도청 본관(구관)·경찰국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63
공사유형명	경기도청사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63년 경기도청 신축공사를 위해 작성된 본관·경찰국의 서측면도(위) 남측면도(아래) - 지상3층의 본관(구관) 건물과 지하1층, 지상2층의 경찰국 건물이 함께 계획 - 김희춘 건축연구소와 나상진 건축설계사무소의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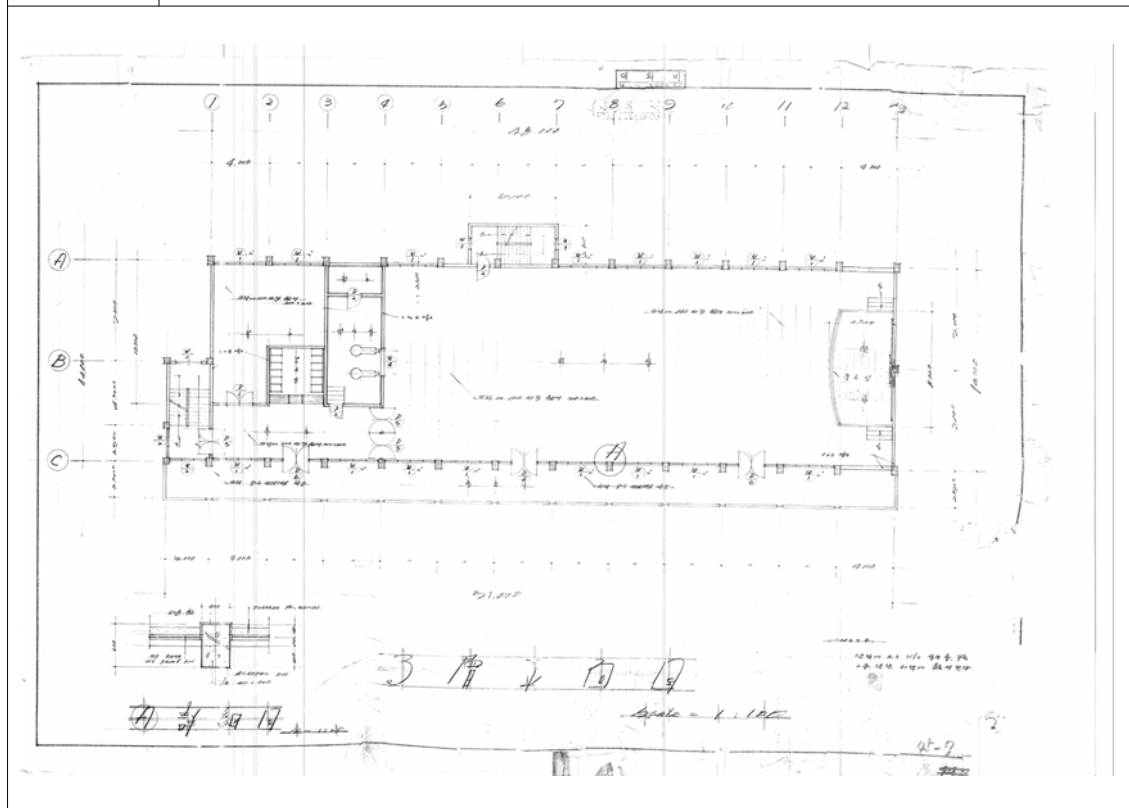


도면명	제1별관(제2회의실)증축공사005-정면도·배면도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제1별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67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회의실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1967년 작성된 제1별관 3층 회의실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도면 중 정면도와 배면도 • 입면도에서 증축하는 3층 부분만 진한 선으로 표시. • 3층은 대공간 회의실 역할을 위하여 1,2층보다 층고가 높게 계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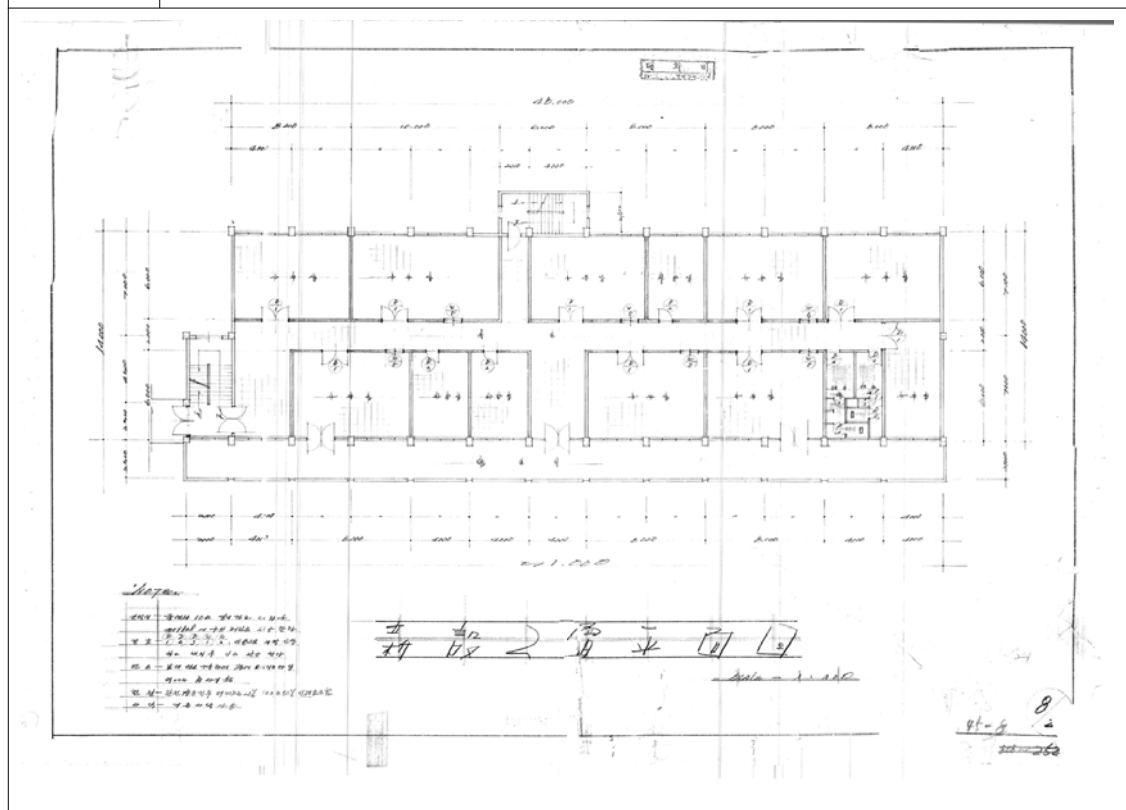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제1별관(제2회의실)증축공사007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제1별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67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회의실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67년 작성된 제1별관 3층 회의실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도면 중 3층 평면도 - 회의실, 영사실, 창고 및 전면 발코니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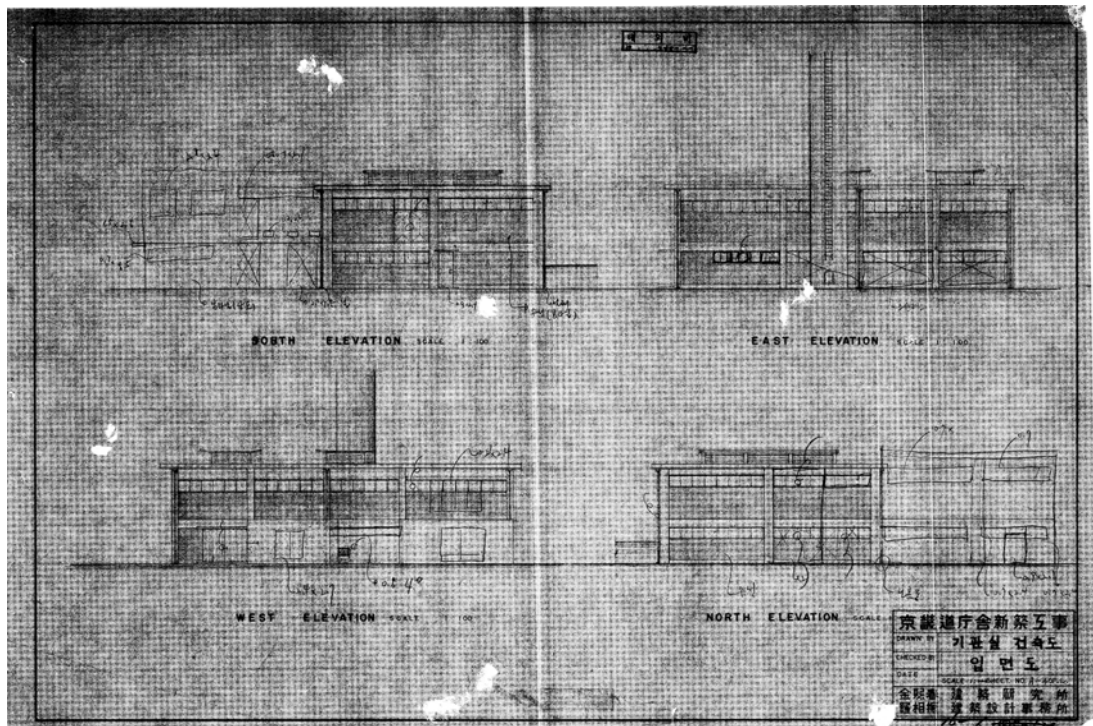


도면명	제1별관(제2회의실)증축공사008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제1별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67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회의실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67년 작성된 제1별관 3층 회의실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도면 중 2층 평면도 - 중앙 복도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배치된 사무실의 공간구성과 전면 발코니를 가진 평면 2층 좌측 계단실에는 본관(구관)과 연결되는 출입문이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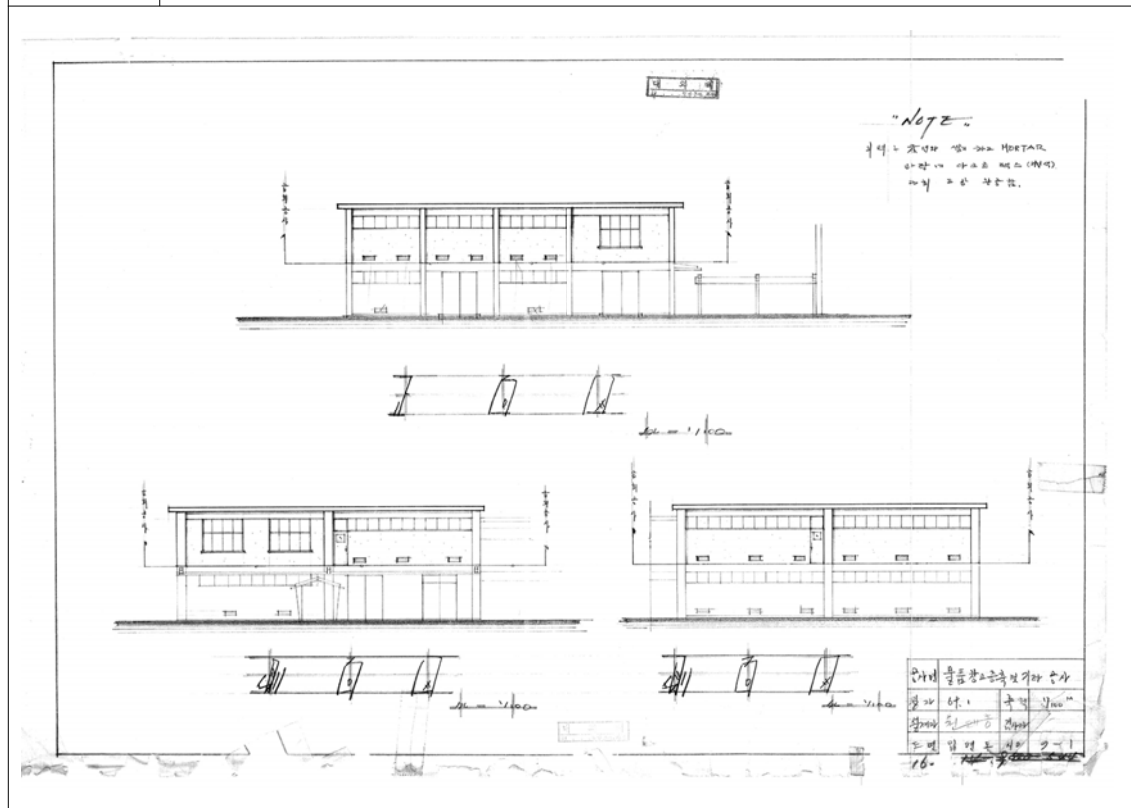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기관실및창고신축공사007-기관실 입면도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기관실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63년 추정
공사유형명	기관실 신축공사 설계도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6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실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도면 중 입면도 - 물품창고의 증축을 위한 스케치가 추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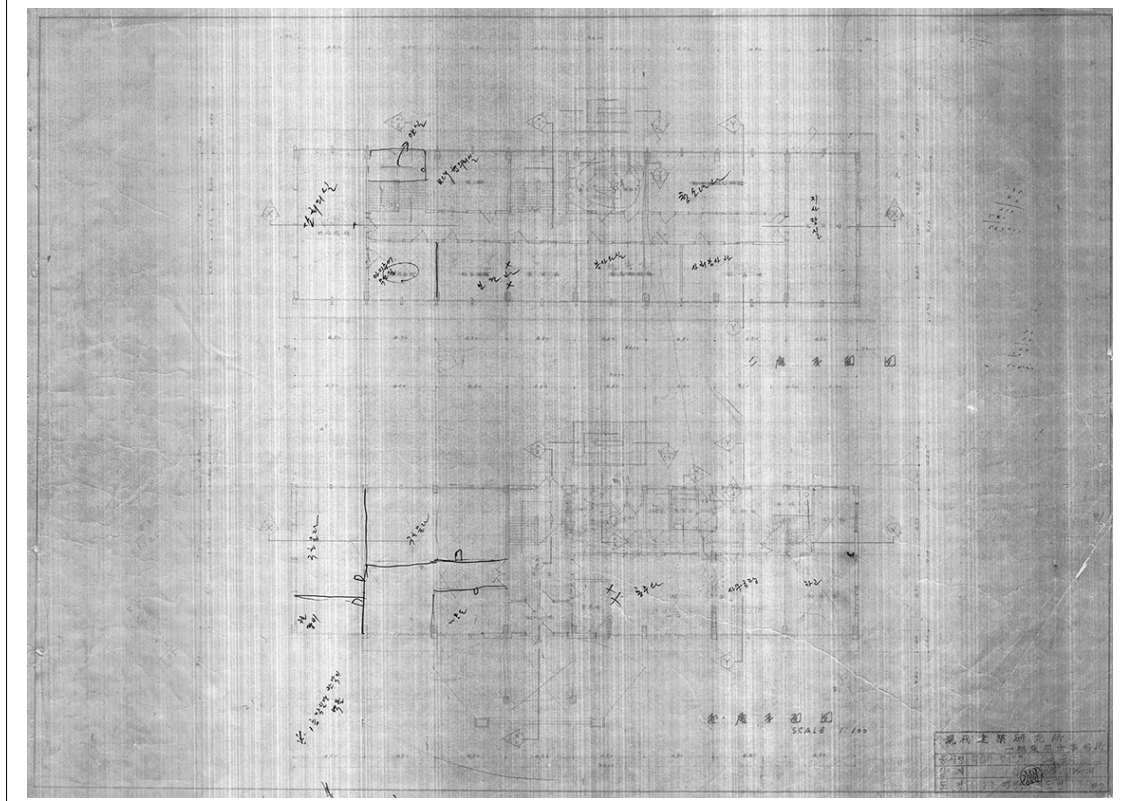


도면명	기관실및창고신축공사010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물품창고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69.01
공사유형명	물품창고증축 및 기타 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1969년 작성된 물품창고 증축공사 설계도면 중 입면도 1963년 도면에 스케치 된 내용과 유사하며, 주변건물과 연결되는 연결복도가 함께 계획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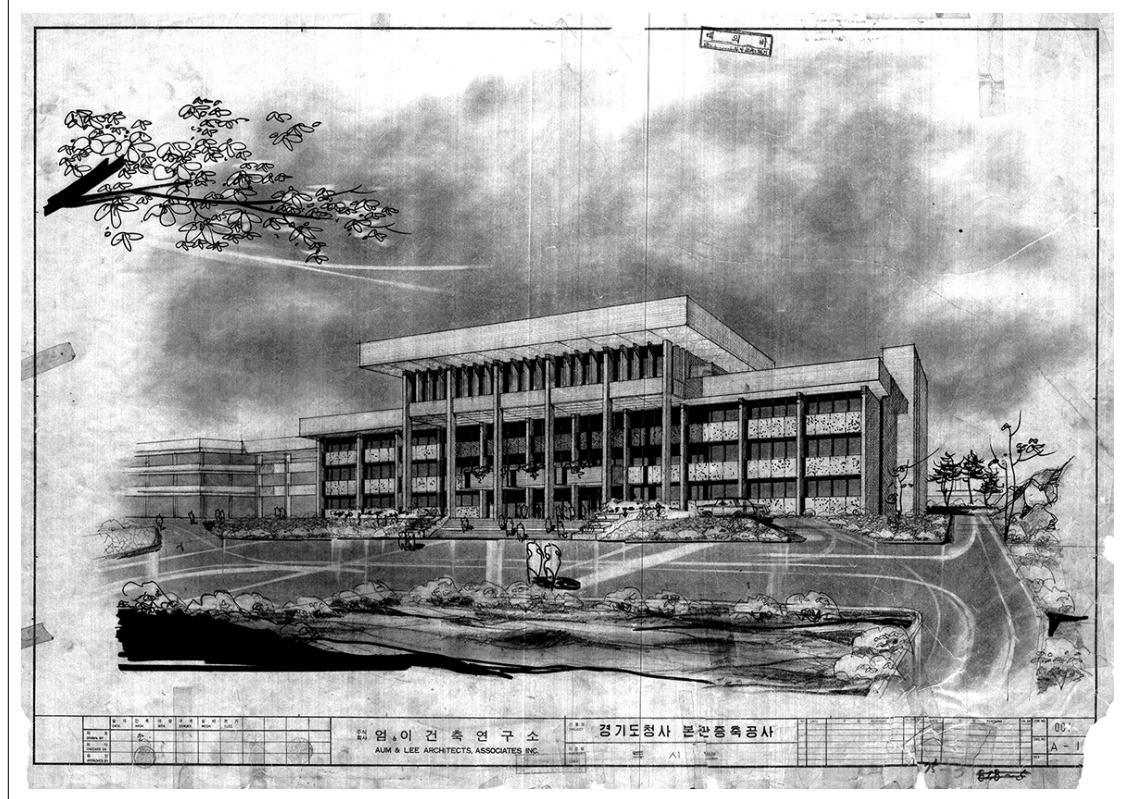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적십자 경기도지사 신축공사 제1별관(연금매장)09-1,2층 평면도
시설명	적십자
개별건물명	적십자 경기도지사
시설유형명	사회복지시설
연도	1969
공사유형명	적십자 경기도지사 신축공사
주제	사회복지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1969년 작성된 적십자 경기도지사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도면 중 1,2층 평면도 • 1층에는 구호물자창고와 총무과, 사무국장실, 차고 • 2층에는 소회의실, 보건과, 봉사원실, 사회봉사과, 지사장실, 청소년과, RCY협의회실 • 이 건물은 후에 경기도청의 복지관으로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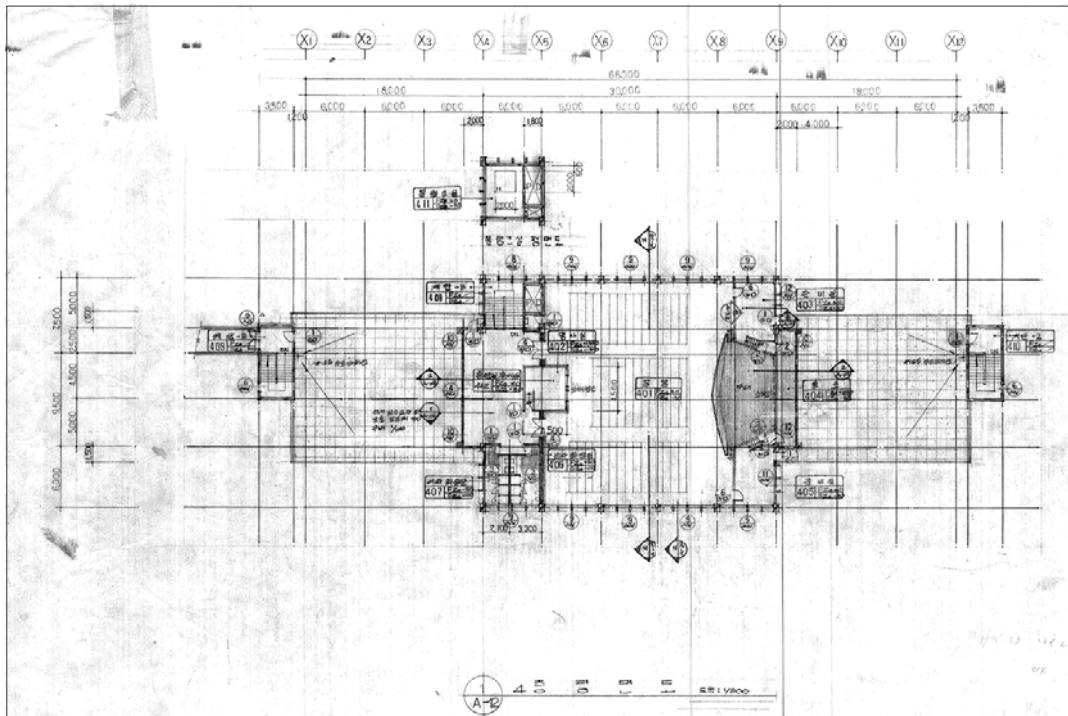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청본관증축공사설계도(건축)006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본관(신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0.07
공사유형명	경기도청사본관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주식회사 엄.이건축연구소 설계 - 본관(구관) 동쪽에 지상4층 규모의 본관(신관)을 증축하는 설계 -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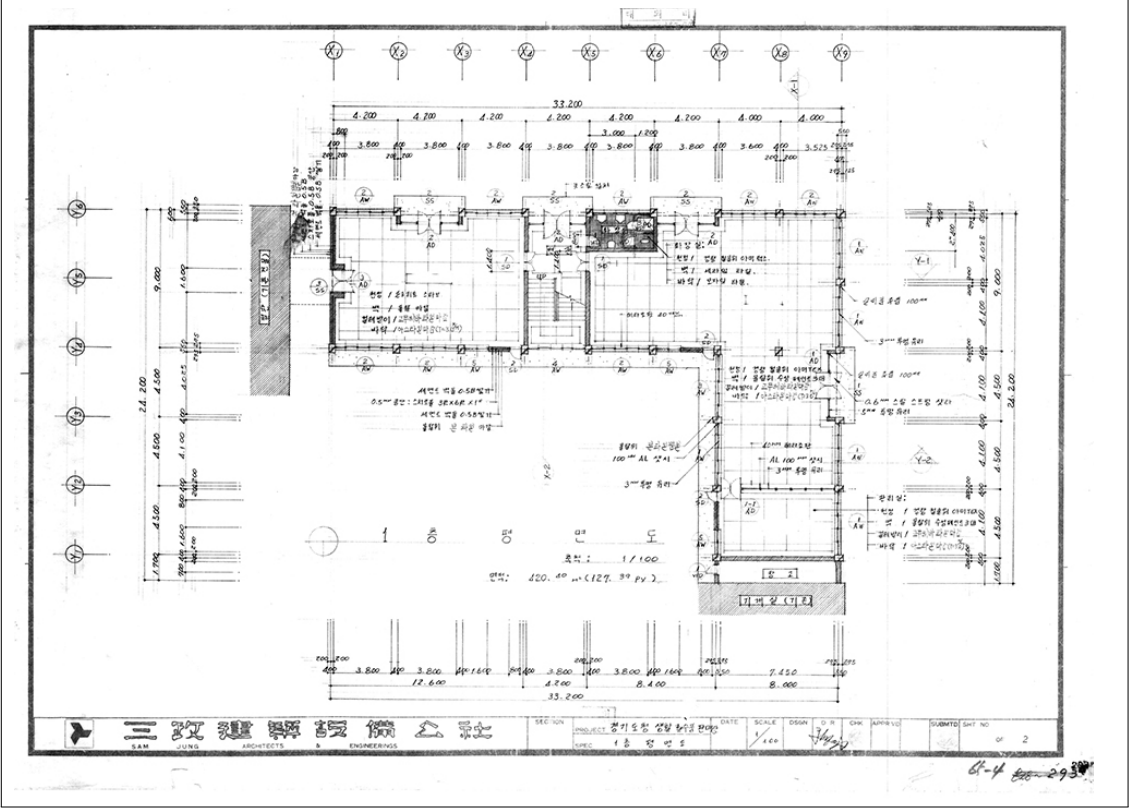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청본관증축공사설계도(건축)014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본관(신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0.07
공사유형명	경기도청사본관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주식회사 엠.이건축연구소 설계 - 본관(구관) 동쪽에 지상4층 규모의 본관(신관)을 증축하는 설계 4층 중앙에는 대형의 강당을 계획하였고, 건물의 전면으로 돌출한 독특한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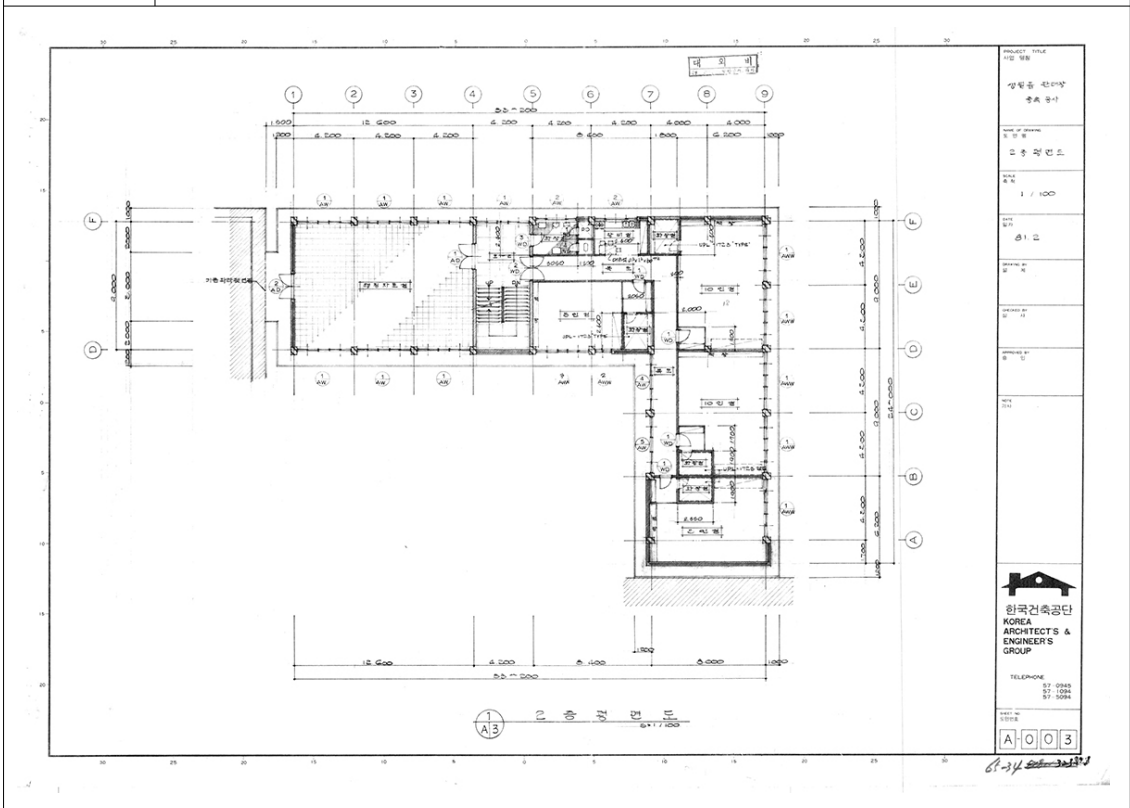


도면명	생활관동증축도면004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생활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0.07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생활필수품 판매장 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삼정건축설비공사 설계 • 단층 건물로써, 판매장 2개소와 관리실로 구성 • 제1별관과 인접하고 본관(구관) 뒤쪽의 기계실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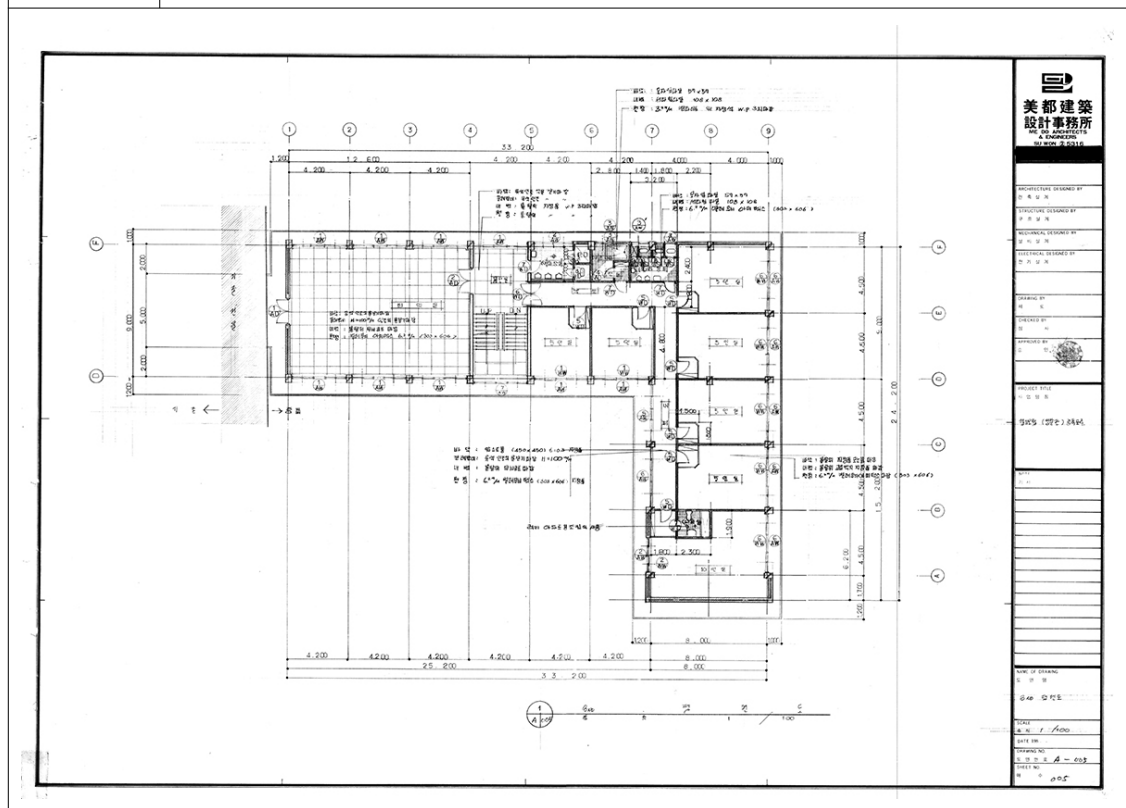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생활관동증축도면034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생활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1.02
공사유형명	생활품 판매장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한국건축공단에서 2층 증축 설계 • 2층에는 행정자료실을 비롯하여 생활관 3인실 2개소와 10인실 2개소를 계획 • 생필품판매장이 생활관 용도로 병용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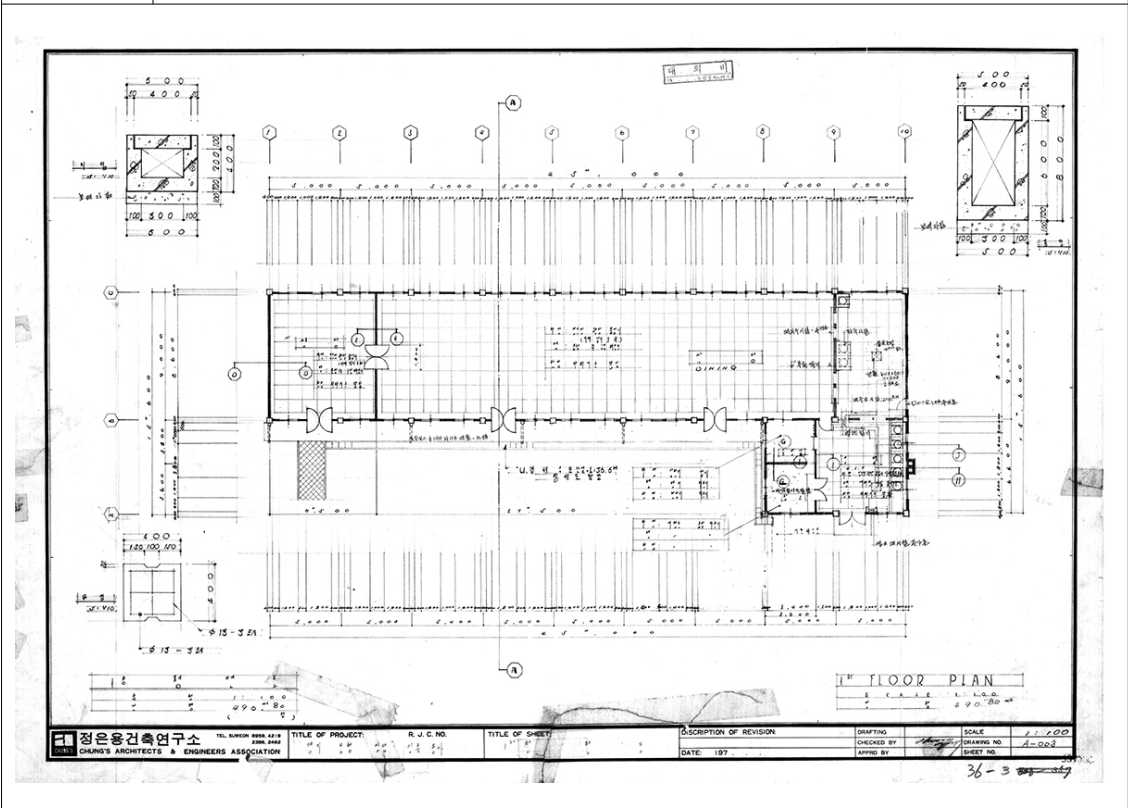


도면명	생활관3층증축공사(건축,설비,전기)006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생활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3.08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생활관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미도건축설계사무소에서 3층 증축 설계 • 3층에는 회의실을 비롯하여 생활관 5인실 6개소와 10인실 1개소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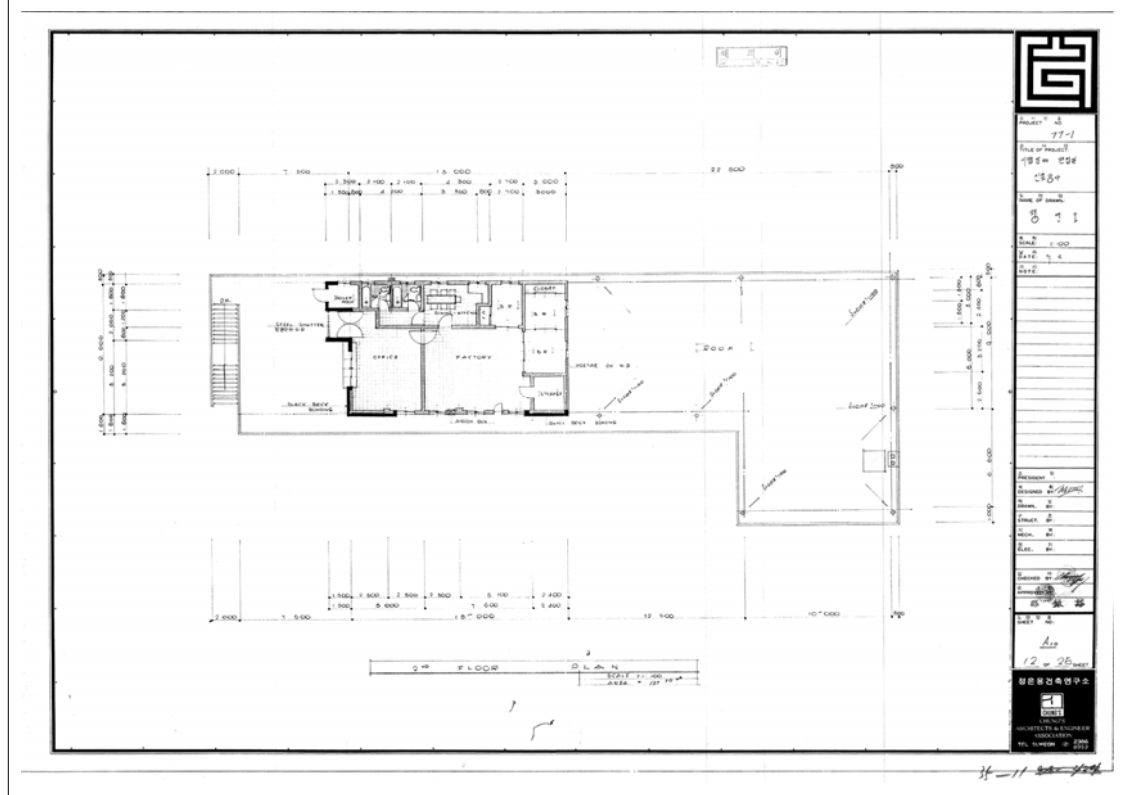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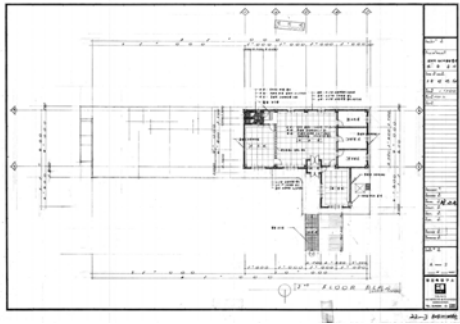
도면명	생활관3층증축공사(건축,설비,전기)006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식당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75.12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식당 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정은용건축연구소 설계 • 식당, 숙직실이 있는 주방으로 구성 • 단층 • 현재 제2별관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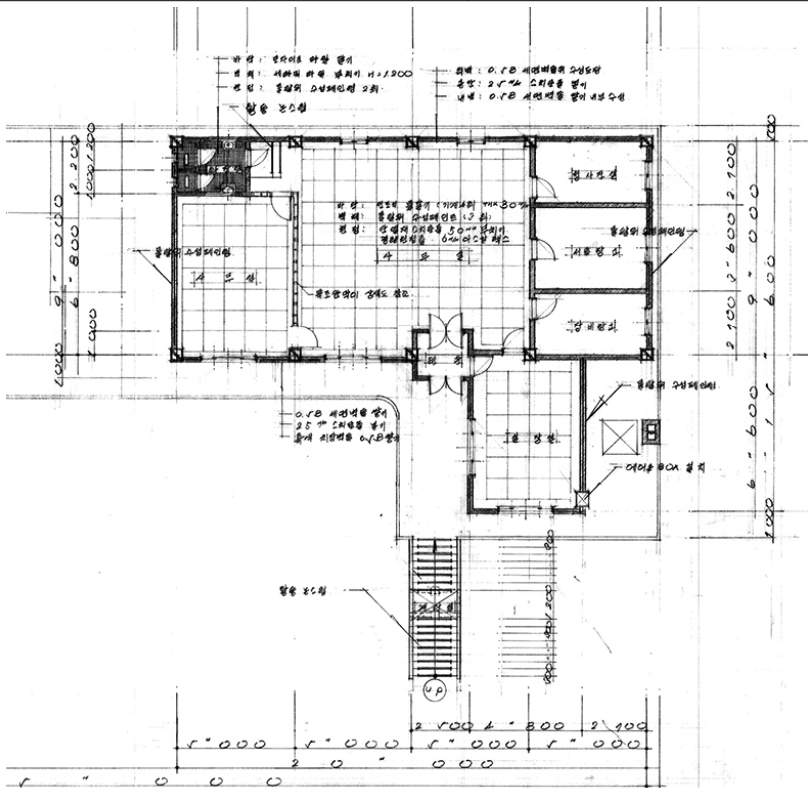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시험문제편집실신축공사012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식당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77.05
공사유형명	경기도 시험문제 편집실 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정은용건축연구소 설계 - 식당 옥상 일부에 시험문제 편집실 증축. 첫 번째 증축 - 사무실, 작업실(factory), 침실, 창고, 식당과 주방, 화장실 - 현재 제2별관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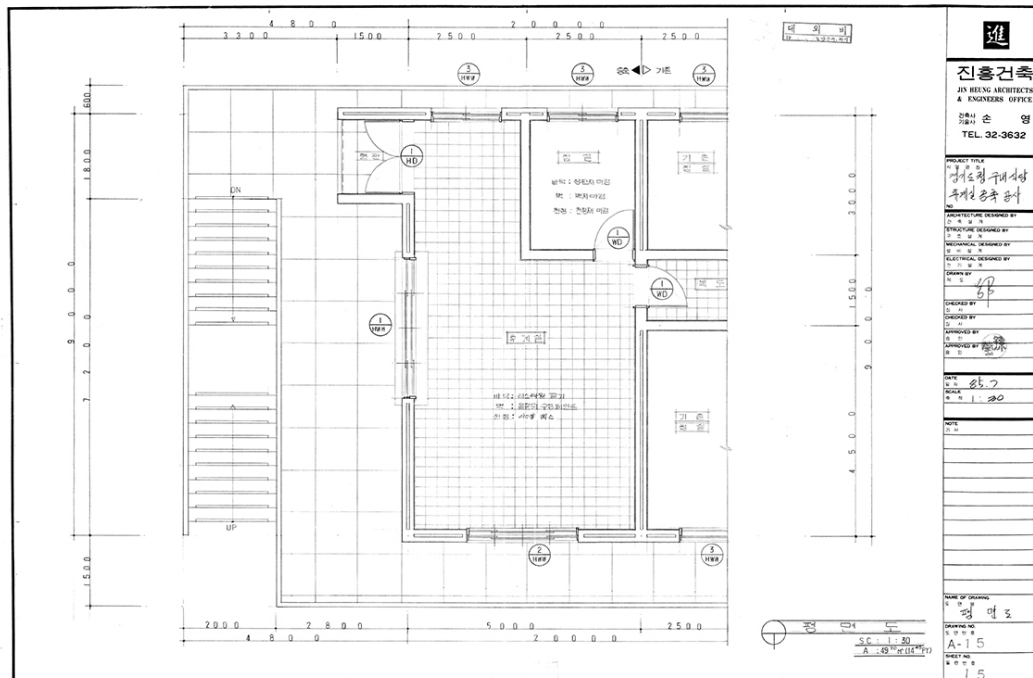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도시개발청사신축공사003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식당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0.06	
공사유형명	경기도 도시개발청사 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정건축연구소 설계 - 식당 옥상 일부에 경기도 도시개발청을 증축. 두 번째 증축 - 사무실, 창고, 청사진실, 실장실 - 현재 제2별관 자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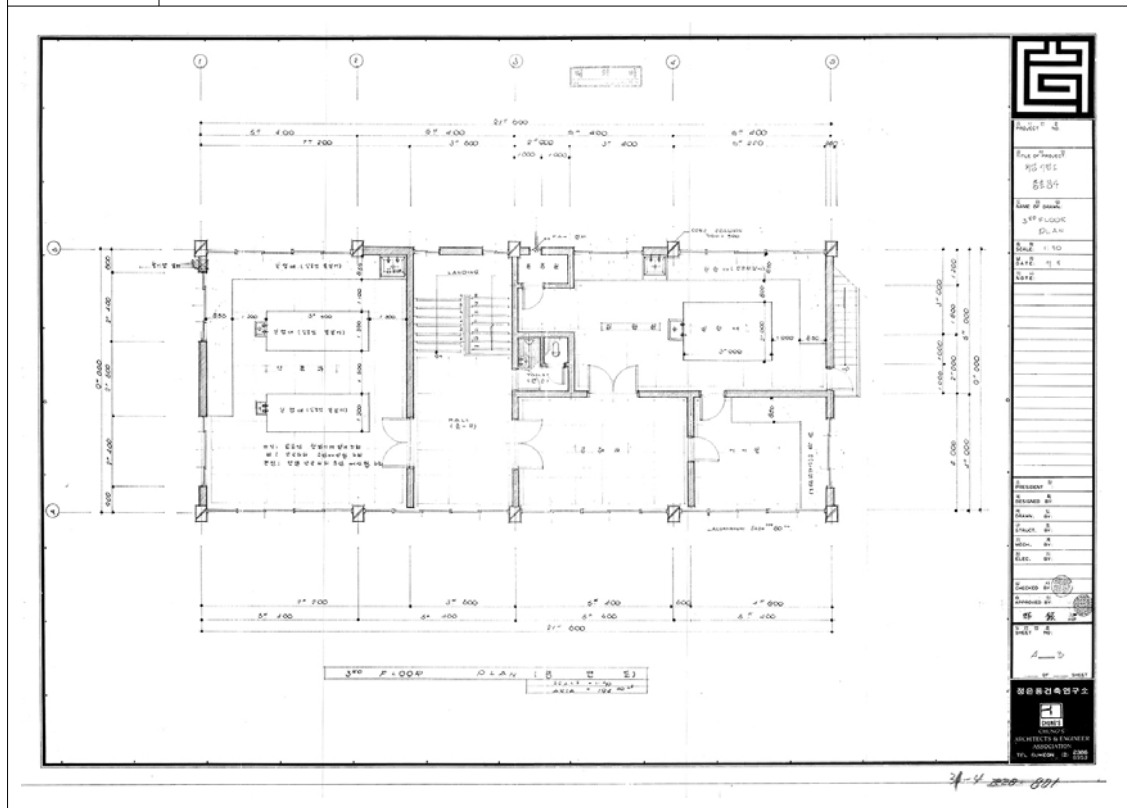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청구내식당창고,휴게실증축공사018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식당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5.07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구내식당 휴게실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진흥건축에서 설계 • 2층 일부에 휴게실을 증축. 세 번째 증축 • 현재 제2별관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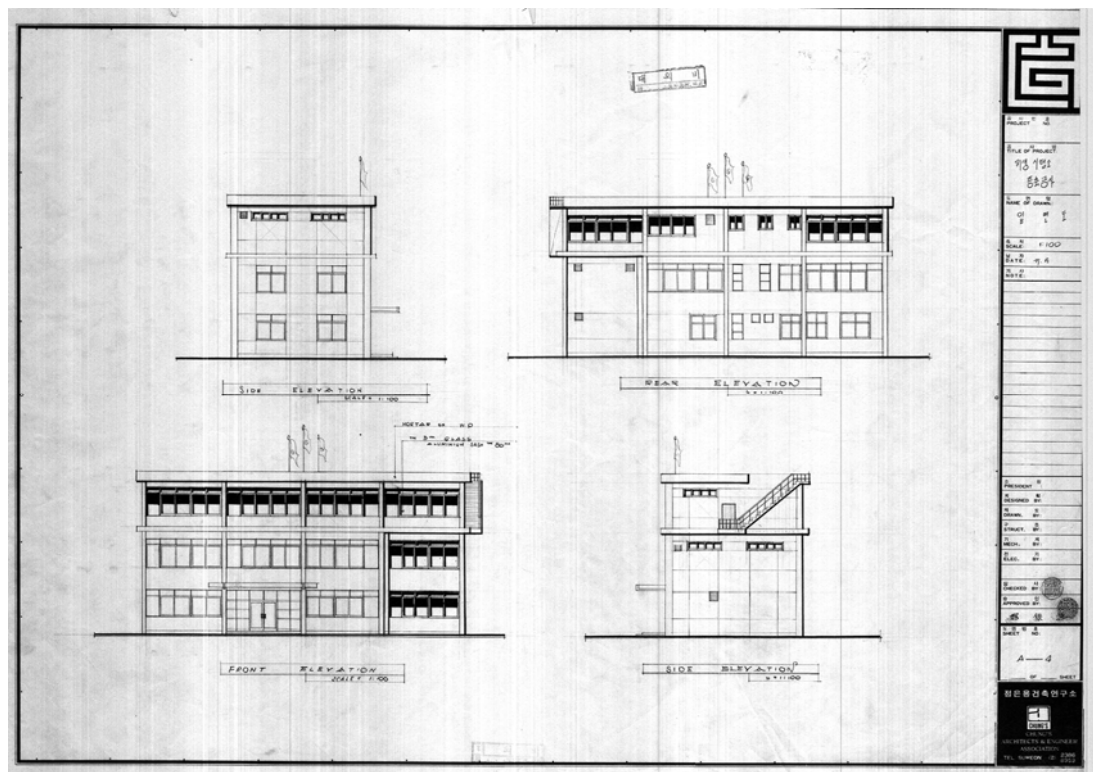
23-19 ~~23-19~~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보건연구소증축공사005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식당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77.05
공사유형명	경기도 보건연구소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정은용건축연구소에서 설계 • 기존 2층 건물에서, 1층과 2층에는 우측 일부를 증축하고 3층은 전체적으로 증축 • 3층에는 식품과, 공해과, 실험실, 기기실. • 옥상으로 오르는 외부계단을 별도로 설치 • 현재 제3별관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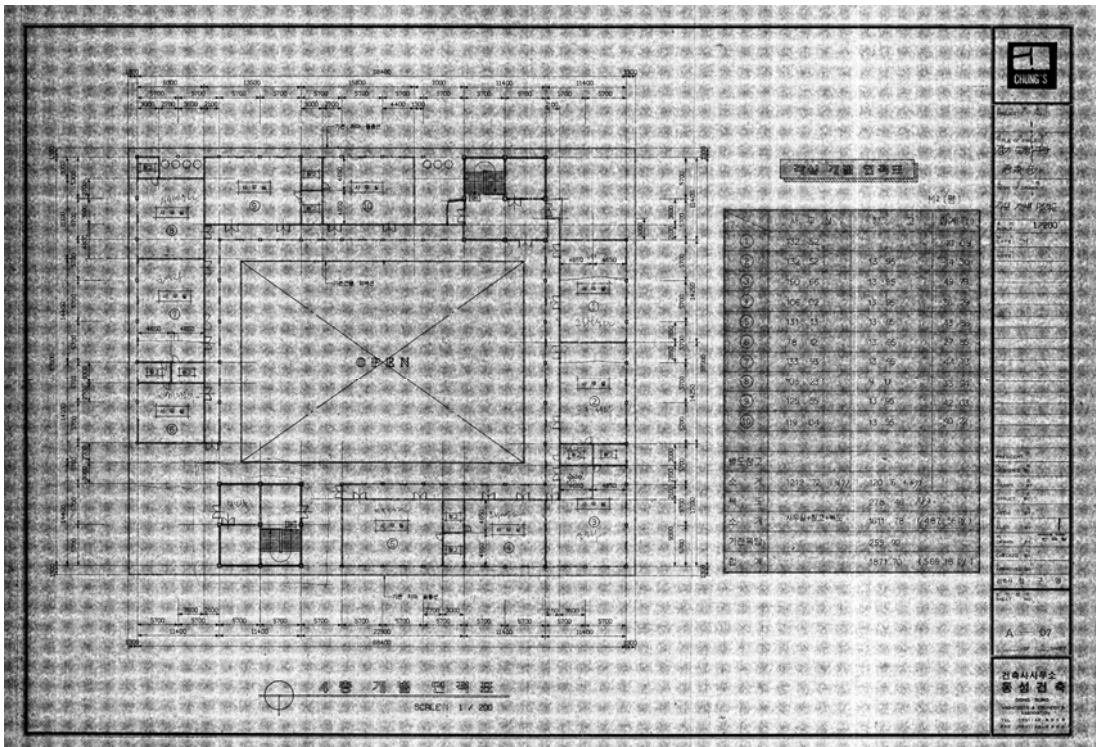


도면명	보건연구소증축공사005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식당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77.05
공사유형명	경기도 보건연구소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정은용건축연구소에서 설계 • 기존 2층 건물에서, 1층과 2층에는 우측 일부를 증축하고 3층은 전체적으로 증축 • 정면도, 배면도에서 증축부위는 창문에 음영을 표현하여 구별 • 옥상으로 오르는 외부계단을 별도로 설치 • 현재 제3별관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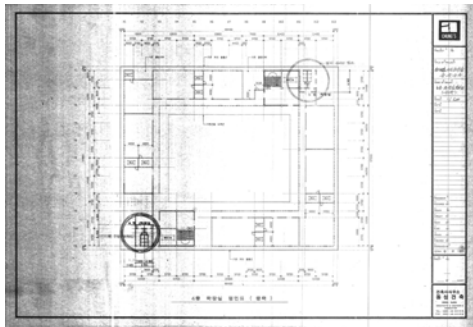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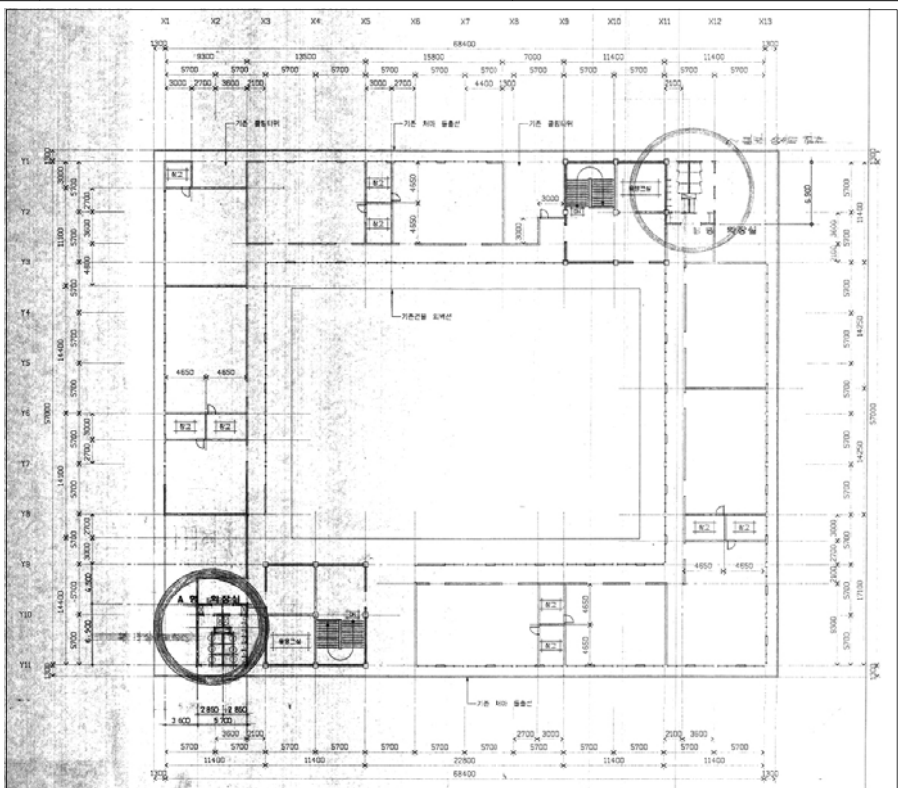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도청증축공사(구관증축)006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본관(구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91
공사유형명	경기도 도청 증축공사 (구관증축)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에서 설계 • 기존 3층 건물의 옥상에 4층을 증축 • 2개소의 계단실을 기준으로 ㄱ자형 사무실 건물을 2개소 증축 • 중정 쪽으로 내부 편복도를 가진 사무실로만 구성 •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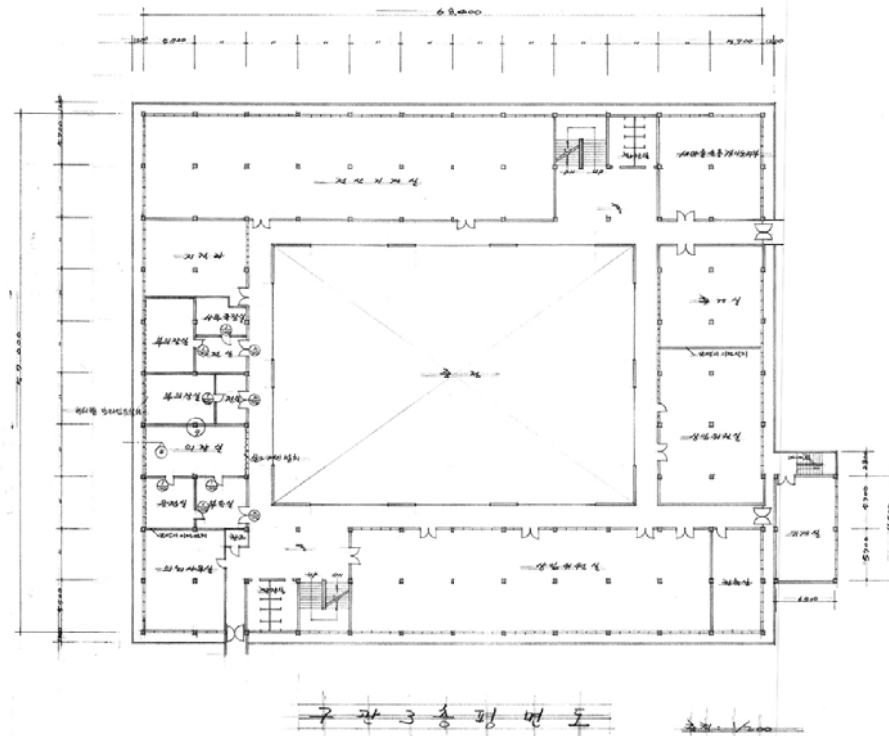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도청증축공사(구관증축)006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본관(구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91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구관 화장실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에서 설계 - 기증축된 4층 사무실의 계단실과 인접하여 화장실 2개소를 증축 -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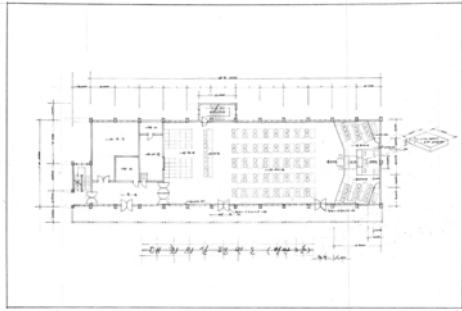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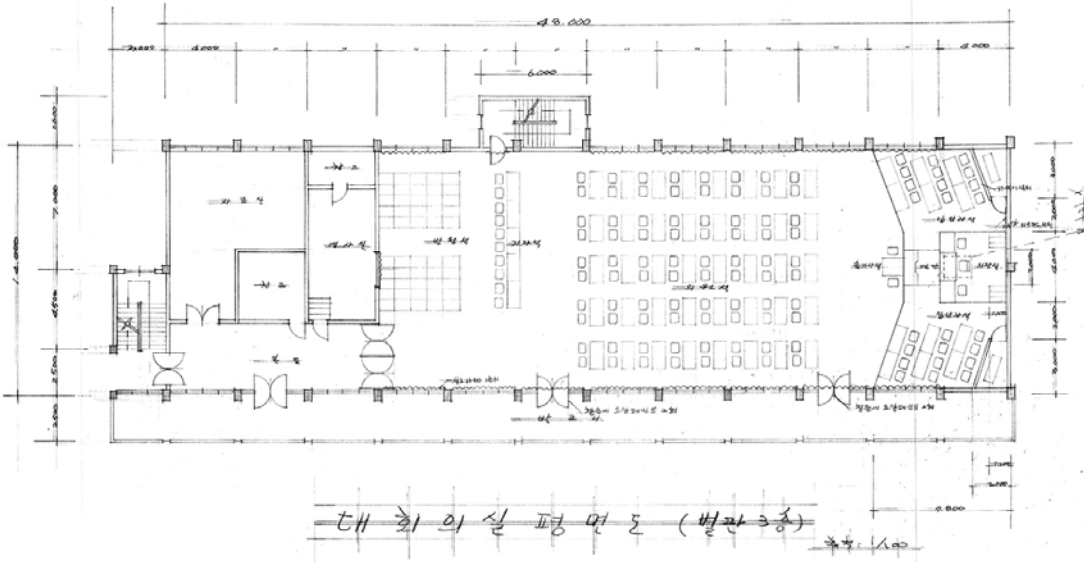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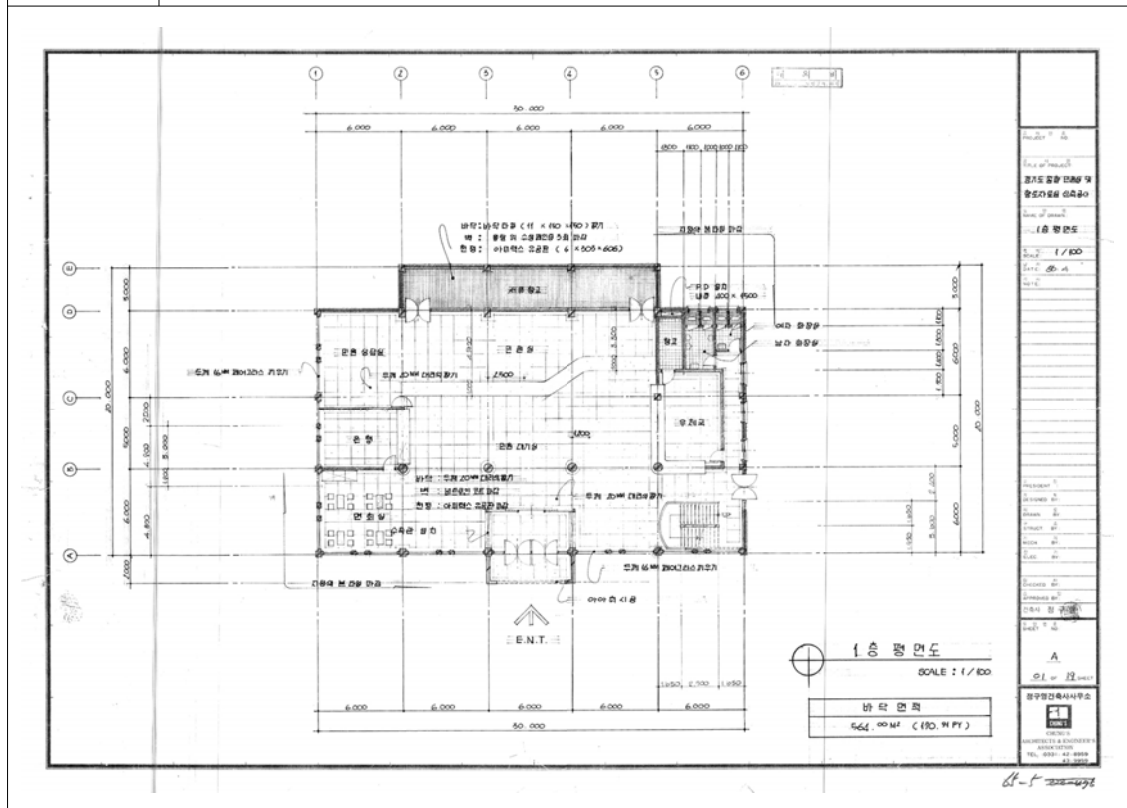
도면명	도의회사무실보수및증축003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본관(구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90
공사유형명	도의회사무실보수및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설계사무소 확인불가 • 경기도청 본관(구관) 3층을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의장실, 의회사무실, 상임위원실 등으로 변경하는 설계 • 현재의 경기도의회 청사는 1991년 3월에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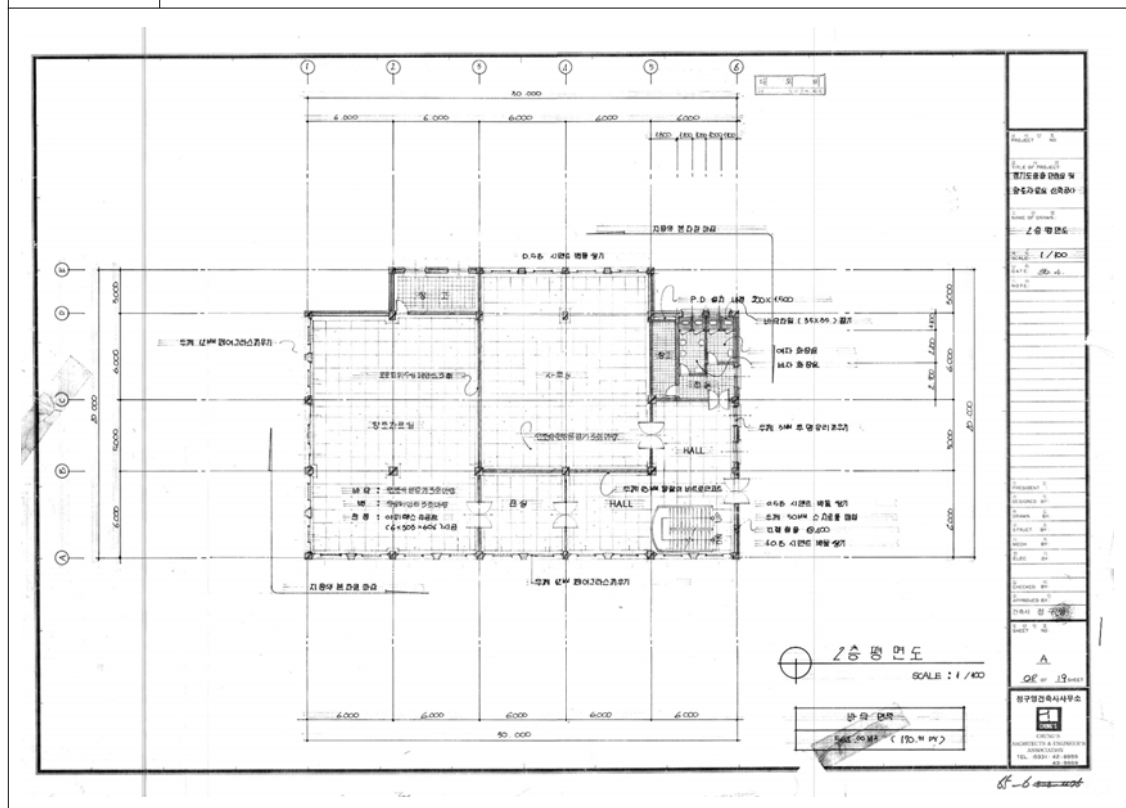
도면명	도의회사무실보수및증축003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본관(구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90	
공사유형명	도의회사무실보수및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설계사무소 확인불가 - 경기도청 제1별관 3층 회의실을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설계 - 현재의 경기도의회 청사는 1991년 3월에 완공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종합민원실및향토자료실신축공사005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민원실동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6.04
공사유형명	경기도종합민원실 및 향토자료실 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정구영건축사사무소 설계 - 경기도청 본관(구관) 전면의 민원실동 신축 설계 1층에는 민원실, 우체국, 은행, 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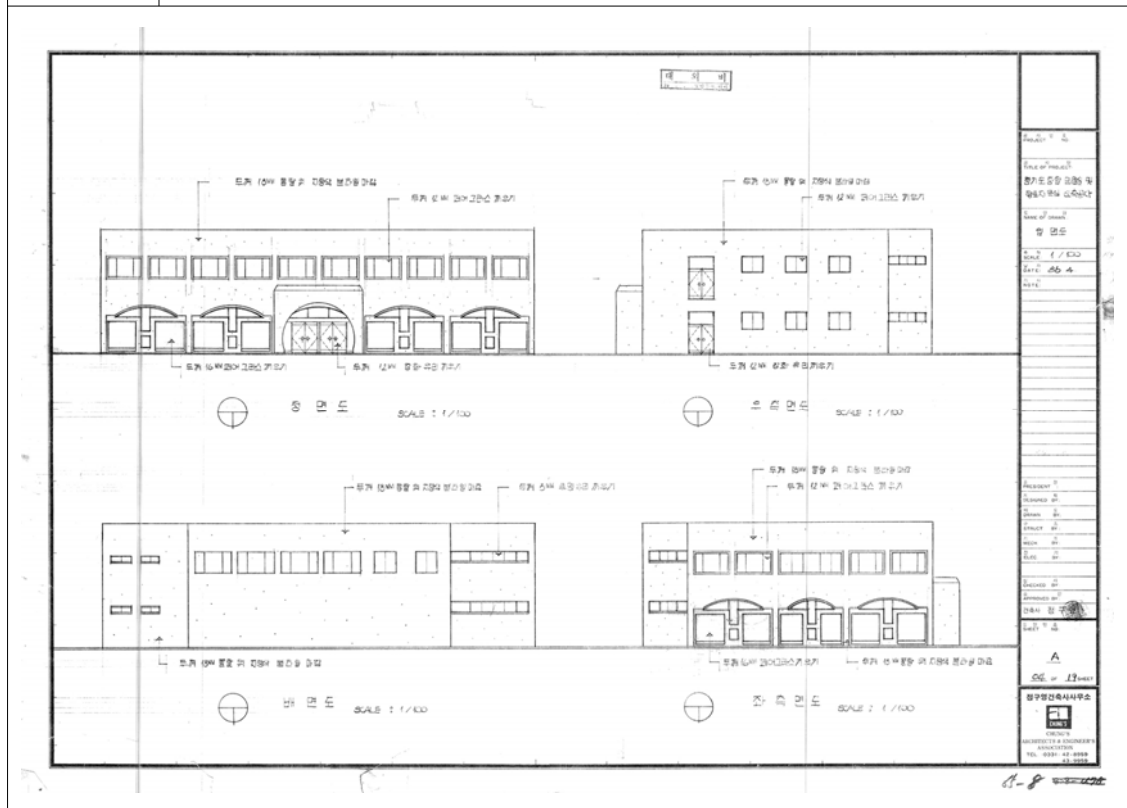


도면명	경기도종합민원실및향토자료실신축공사006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민원실동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6.04
공사유형명	경기도종합민원실 및 향토자료실 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정구영건축사사무소 설계 - 경기도청 본관(구관) 전면의 민원실동 신축 설계 2층에는 향토자료실과 사무실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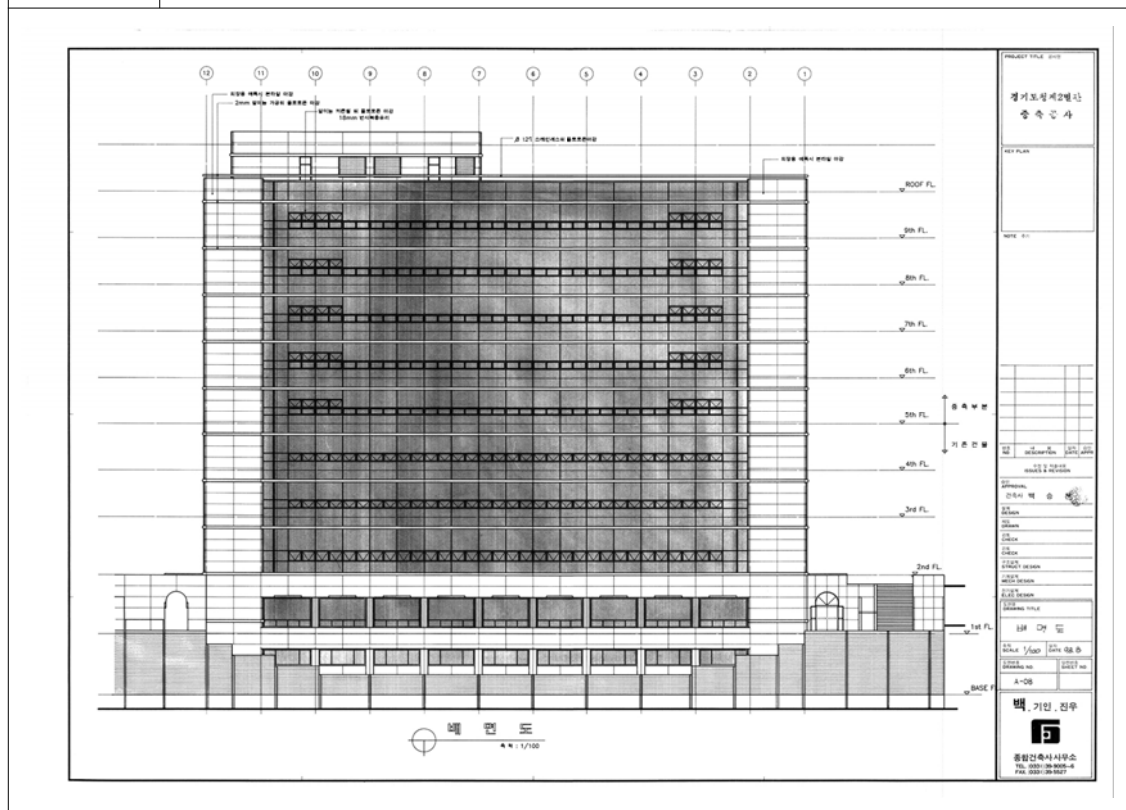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도면명	경기도종합민원실및향토자료실신축공사008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민원실동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86.04
공사유형명	경기도종합민원실 및 향토자료실 신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정구영건축사사무소 설계 • 경기도청 본관(구관) 전면의 민원실동 신축 설계 • 최초의 전면 디자인은 1층의 아치형의 창문과 2층의 사각형 창문이 대조를 이루는 구성 • 현재에는 입면 리모델링 공사에 의하여 전면이 변경되었음.



도면명	경기도종합민원실및향토자료실신축공사008
시설명	경기도청
개별건물명	제2별관
시설유형명	지방행정시설
연도	1993
공사유형명	경기도청 제2별관 증축공사
주제	행정
출처	경기도청 회계과
비고	- 백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 - 경기도청 제2별관은 1990년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되었고, 1993년에 지상9층으로 증축하는 설계.



3. 사진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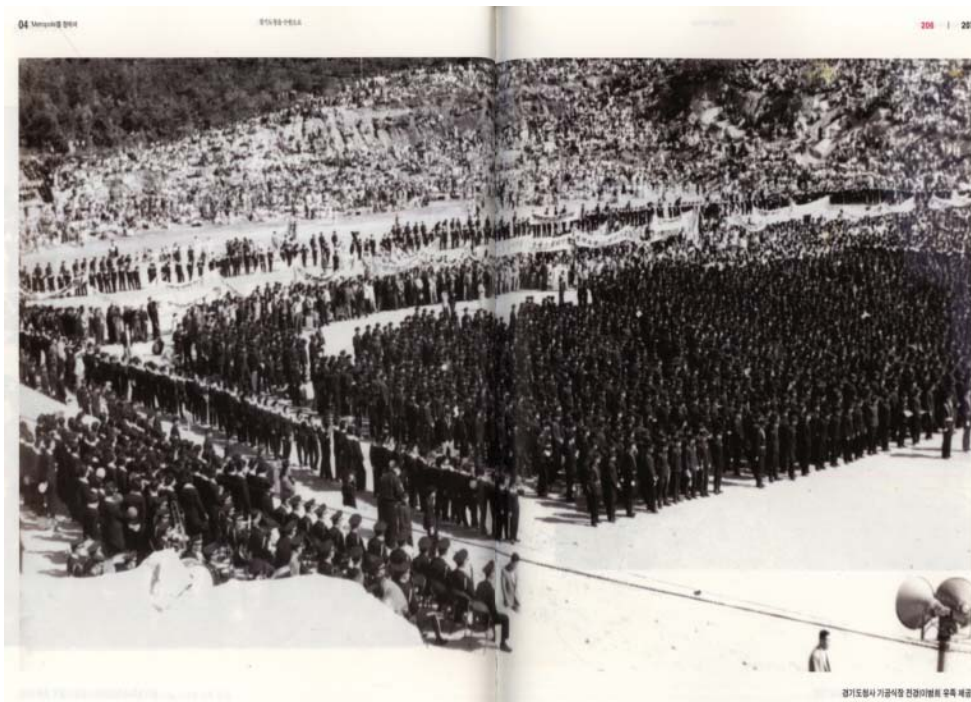
제목	경기도청이전추진위원회
촬영자	-
대상	수원상공회의소
규격	-
촬영시기	1960년대초 추정
출처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비고	- 경기도청의 수원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상공회의소에 경기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마련 - 상공회의소 건물에 경기도청이전추진위원회, 수원청년회의소의 문패가 보임 - 전 국회의원 이병희 유족의 기증자료



제목	경기도청 이전 수원시민 환영대회
촬영자	
대상	
규격	
촬영시기	1963.12.15
출처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비고	• 1963년 12월 경기도청 수원이전이 결정된 뒤 매산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경기도청 이전 수원시민 환영대회” • 전 국회의원 이병희 유족의 기증자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경기도청사 기공식장 전경
촬영자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사 기공식장
규격	
촬영시기	1964.10.15
출처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비고	- 경기도청 기공식장에 운집한 시민 모습의 기록 - 전 국회의원 이병희 유족 제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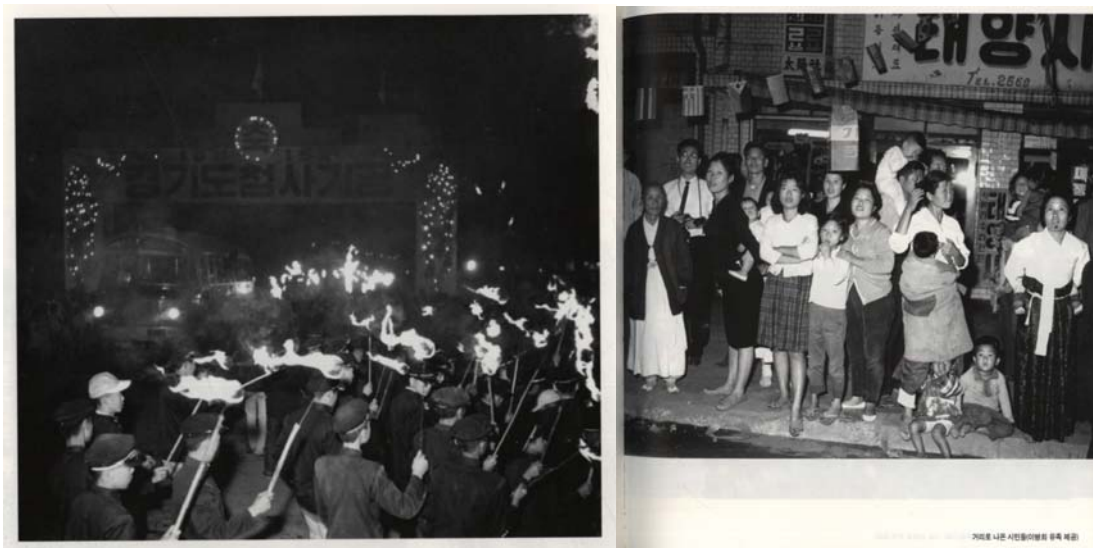


제목	경기도청 항공사진
촬영자	-
대상	경기도청, 팔달산, 수원화성, 수원역 일대
규격	-
촬영시기	1966년 9월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map.ngii.go.kr) (B040)항공사진_196609000200R44451
비고	• 1966년 9월 촬영된 경기도청 부지와 인근의 항공사진 • 공사중인 본관(구관)의 형상과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주변 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경기도청 기공식 전야제
촬영자	-
대상	화흥문화제
규격	-
촬영시기	1967.06.22
출처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비고	- 경기도청 이전식을 기념하여 전야제로 개최된 화흥문화제의 사진. - 횃불행진 모습과 전야제를 지켜보는 가두 인파 - 전 국회의원 이병희 유족의 기증자료.



제목	경기도청이전식
촬영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 이전식 행사장 광경
규격	-
촬영시기	1967.06.23
출처	국가기록원 (CET0030346)
비고	• 1967년 6월 23일 매산로 경기도청 완공을 기념한 이전식 행사장의 모습. • 본관 서측 공지에 참석한 시민들의 규모를 확인. • 경기도청 서쪽의 팔달산의 모습도 함께 확인 가능.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박태원경기도지사정일권국무총리경기도청안내 1, 2
촬영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 본관(구관) 내부
규격	-
촬영시기	1967.06.23
출처	국가기록원 (CET0030346)
비고	1967년 6월 23일 경기도청 이전식 행사 후 박태원 경기도지사가 정일권 국무총리를 안내하며 본관(구관) 내부 시찰하는 상황을 기록한 사진. - 완공 당시 경기도청 본관(구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사진 중에서, 복도의 모습과 부지사실, 홍보실의 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목	경기도청 진입로
촬영자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의 진입로
규격	
촬영시기	1967년
출처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비고	• 매산로 도청오거리에서 경기도청과 진입로를 바라보며 촬영한 것으로 추정. • 진입로에 눈이 쌓여있고, 경기도청 정문 조성과 진입로변 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1967년 초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 •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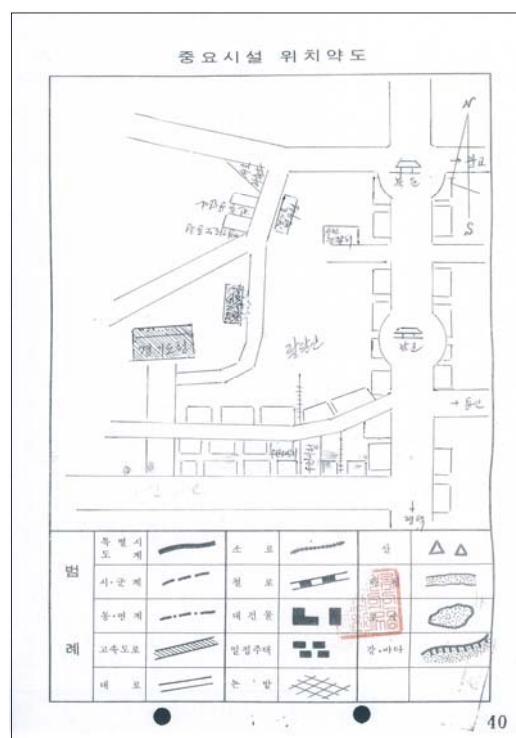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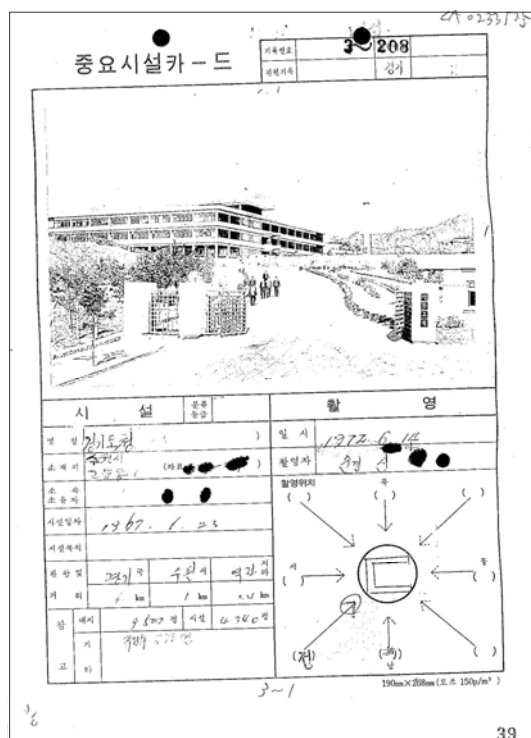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경기도청 이전식
촬영자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 본관(구관)
규격	
촬영시기	1967.06.23
출처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비고	- 경기도청 이전식장의 촬영 사진 - 경기도청 본관(구관) 동쪽의 모습이 담겨있으며, 여러개의 그늘막과 함께 1층에는 “경기도청이전”이라는 안내판이 만들어져 있다. - 전 국회의원 이병희 유족의 기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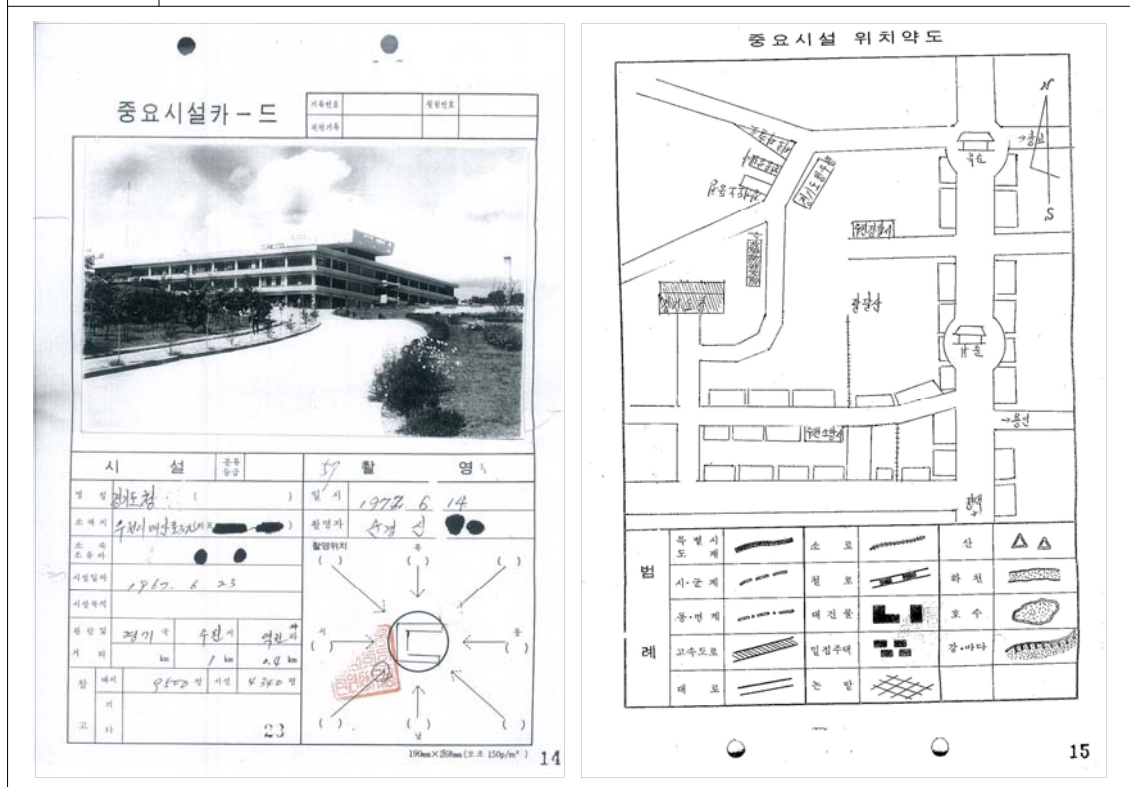
경기도청 이전식(1967년 6월 23일, 이병희 유족 제공)

제목	중요시설물카드(122)
촬영자	경찰청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 본관(구관)
규격	-
촬영시기	1972.06.14
출처	국가기록원 (CA0233525)
비고	• 경찰청에서 작성한 중요시설카드에는 경기도청의 전경 사진과 위치, 그리고 관할서와의 거리가 기록됨. • 1972년 6월 14일이라는 정확한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음. • <중요시설물카드(5)>와 동일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전경 사진에 정문이 함께 촬영된 차이점.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중요시설물카드(5)
촬영자	경찰청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 본관(구관)
규격	-
촬영시기	1972.06.14
출처	국가기록원 (CA0233846)
비고	- 경찰청에서 작성한 중요시설카드에는 매산로 경기도청의 전경 사진과 위치, 그리고 관할서와의 거리가 기록됨. 1972년 6월 14일이라는 정확한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음. <중요시설물카드(122)>와 동일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경기도청 전경이 보다 크게 촬영된 차이점. - 경기도청 본관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아래와 같이 별도로 기재. 1. 위치: 수원시 매산로3가 1번지 2. 명칭: 경기도청 3. 소재지: 수원시 매산로 3가 1번지 4. 소유자: 경기도지사 5. 시설일자: 1967.06.20. 6. 시설목적: 7. 파출소와의 거리: 1.5km 8. 대지평수: 21,000평 9. 건평: 1층:836평 / 2층:861평 / 3층:861평



제목	중요시설물카드(경기도청) 1
촬영자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 본관(구관)
규격	슬라이드 필름
촬영시기	1972
출처	국가기록원 (DET0020495)
비고	• <중요시설물카드(122)>에 수록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으로 추정. 화질이 선명하기 때문에 연결복도 일부가 함께 시공된 경기도청의 전경과 함께 뒤쪽으로 보일러실과 굴뚝, 정문과 진입로의 화단 등의 모습의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 •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 중에서 청구기호에 DET가 표기된 것은 슬라이드 사진을 지칭.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중요시설물카드(경기도청) 2
촬영자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대상	적십자 경기도지사
규격	슬라이드 필름
촬영시기	1972
출처	국가기록원 (DET0020495)
비고	• 경찰청에서 작성한 <중요시설물카드>에 수록된 사진의 원본으로 추정됨. • 경기도청사 부지 경계 북쪽에 건립된 적십자 경기도지사의 건물이며(1969년 설계), 후에 경기도청 복지관으로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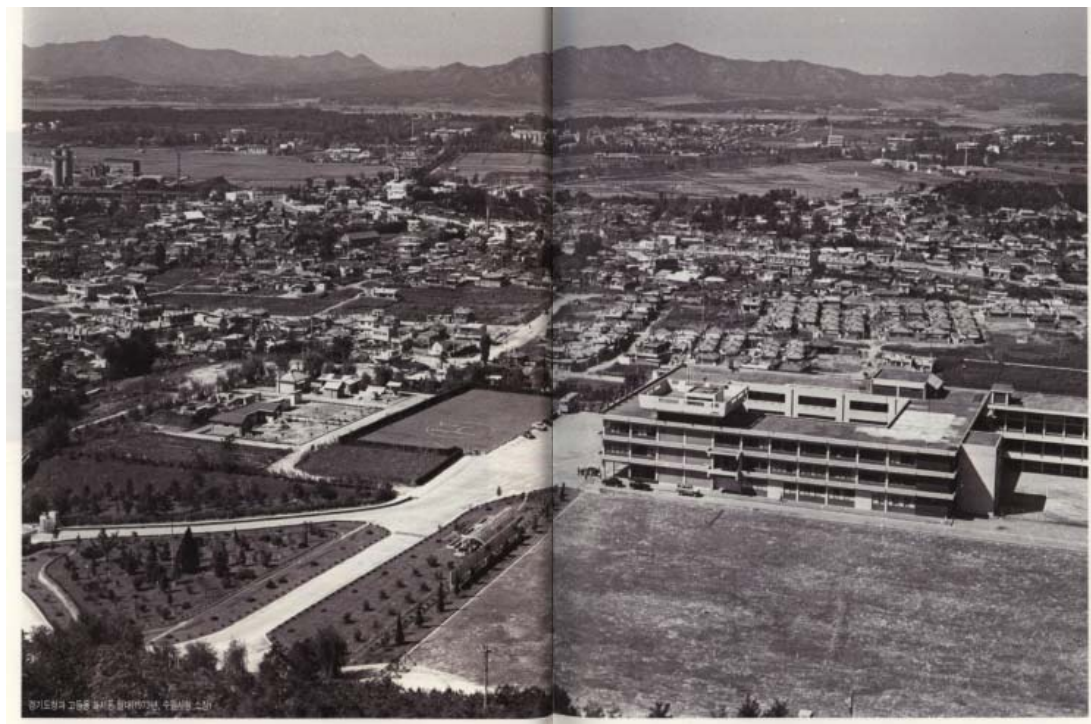


제목	경기도청전경1
촬영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대상	경기도청 본관(구관) 남측면
규격	-
촬영시기	1976
출처	국가기록원 (CET0035984)
비고	1976년 경기도청 본관(구관) 남측 모습으로써, 주현관에는 <제2차 안보정세 보고회>라는 행사 안내판이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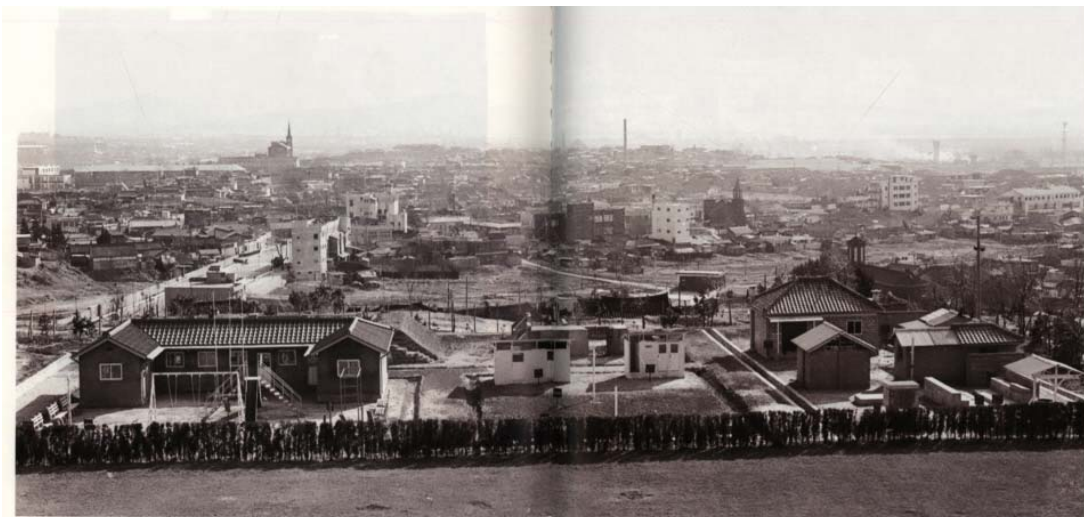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매산로 경기도청과 고등동 화서동 일대
촬영자	-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과 고등동 화서동 일대
규격	-
촬영시기	1973
출처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비고	• 1973년 현재 경기도청의 전경과 주변 지역, 고등동과 화서동 일대의 모습. • 우측 하단에 경기도청 본관(구관)과 제1별관 일부가 있으며, 본관(구관) 좌측에는 헬기장이 있고, 그 좌측에 새마을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음. • 1963년 경기도청 본관(구관)과 인접하게 설계된 경찰국이 건립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자료. • 수원시청 소장자료



제목	매산로 경기도청 앞 새마을전시관
촬영자	-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 앞 새마을전시관
규격	-
촬영시기	1973
출처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2014
비고	- 경기도청 본관(구관) 남쪽에 조성된 새마을전시관의 전경. - 현재는 전면 헬기장과 함께 경기도의회 청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소장자료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경기도청전경2
촬영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대상	경기도청 본관(구관) 남측면
규격	-
촬영시기	1976
출처	국가기록원 (CET0035984)
비고	• 1976년 경기도청 본관(구관) 남측 1층의 주현관 모습 • <제2차 안보정세보고회>라는 행사 안내판이 조성. • 안내판 뒤편으로 게시판, 현관, 로비 등의 내부 모습을 일부 확인 가능.



제목	경기도청건물전경
촬영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대상	경기도청 본관(신관)
규격	-
촬영시기	1980
출처	국가기록원 (CET0002459)
비고	1978년 완공된 경기도청 본관(신관)의 전경.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전두환대통령경기도청시찰2
촬영자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대상	경기도청 본관(신관)
규격	-
촬영시기	1980
출처	국가기록원 (CET0002459)
비고	• 1978년 완공된 경기도청 본관(신관)의 전면으로 시찰단 일행이 지나감. • 전면 열주(列柱)의 모습과 화단 등의 모습의 구체적 확인 가능.



제목	1997년 현재 경기도청사
촬영자	-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사 본관(신관)
규격	-
촬영시기	1997년 추정
출처	경기도, 경기도사연구총서 3 - 경기도 역사와 문화, 1997
비고	1997년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청 본관(신관)의 전경.



4. 동영상

경기도청 청사 아카이브 : 매산로 경기도청

제목	경기도청 수원으로
촬영자	국립영화제작소
대상	매산로 경기도청 본관(구관)
규격	-
촬영시기	1967.06.23
출처	국가기록원 (CEN0000546)
비고	- 경기도청 이전식을 촬영한 '대한뉴스' 속 기사 - 이전식 당일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으로써 중요 - 마지막 장면에서 본관(구관) 옥상에 많은 시민들이 올라가 행사를 즐기는 광경이 이채로움.

